

제1편

을지로의 기능과 역할



# 1장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을지로

종로가 종로구의 대표적인 도로라면 을지로는 중구의 대표적인 도로이다. 오늘날 을지로와 종로는 서울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이다.

을지로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서 붙여졌다. 을지로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변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경제개발시대에 ‘못 만드는 것이 없는 곳’이었던 을지로! 을지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산업역군의 집적지이다. 이제 도심 재창조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 을지로 일대 도심 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을지로는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서울특별시청)에서 을지로3가를 지나 을지로7가 1번지(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에 이르는 폭 30m, 길이 2,740m의 6차선 도로명이자 행정구역 명칭이다. 또한 을지로는 지하철 2호선의 통행로이며, 시청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에 지하상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을지로’ 도로나 법정동 외에도 을지로 주민센터 관내·명동 주민센터 관내·소공동 주민센터·광희동 주민센터 관내의 일부 행정구역까지 넓혀서 역사적 변천 사실을 서술하고자 한다.



## 을지로 구역의 서술 범위

| 행정동명               | 법정동명                                                                 |
|--------------------|----------------------------------------------------------------------|
| 을지로(일부 지역) 주민센터 구역 | 방산동, 산림동,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5가, 입정동, 초동, 인현동1가, 주교동, 저동2가             |
| 명동 주민센터 구역         | 태평로1가, 다동, 명동1가, 무교동, 수하동, 수표동, 삼각동, 을지로1가, 을지로2가, 장교동, 저동1가, 남대문로1가 |
| 소공동(일부 지역) 주민센터 구역 |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 남대문로4가, 소공동                                          |
| 광희동(일부 지역) 주민센터 구역 | 을지로6가, 을지로7가, 인현동2가, 오장동                                             |

### 1) ‘구리개’로 불린 조선시대

조선시대 오백년간 한양도성의 4대문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는 서대문과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종로와, 종각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대로(大路)였다.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를 보면 오늘날의 시청 앞에서 광희문으로 이어지는 을지로는 종로(中路)로 표시되어 있다.

대한제국 이전까지는 시청 앞에서 을지로입구 간에 도로가 없었다. 조선 500년간 광화문이나 경복궁에서 남대문을 통하려면 종로네거리~을지로입구~남대문로의 한국은행 앞을 거쳐야 했다. 즉 세종로네거리와 남대문 사이의 태평로는 막혀 있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상품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금속화폐가 유통되면서 새로운 상인들이 기존 시전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면서 중구 지역에 새로운 시전(市廛)을 형성하였다. 저동의 명칭이 된 저포전(苧布廛)은 시전 중의 하나로 선전(線廛)·면포전(綿布廛)·면주전(綿紬廛)·지전(紙廛)·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과 같이 육의전이었으며, 16세기 이후에는 사상인(私商人)들을 억제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갖고, 6분역(分役)의 국역(國役)을 담당했다.<sup>1)</sup>

18세기 한양에서 태어나 자란 천주교인 진사(進士) 강이천(姜彝天)이 지은 『한경사(漢京詞)』에는 당대의 구리개 약방 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와 을지로가 도성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다.(1900년경)

신령한 약초로 약을 잘 지으니 / 구리개 지날 때면 한약 냄새 풍겨오네 /  
주인이 희귀한 약재를 쌓아두고 자랑하자 / 처음 온 시골선비가 신기한 처방이라며  
좋아하네.<sup>2)</sup>

20세기 초까지 구리개, 즉 을지로 일대는 종로처럼 봄비지는 않았으나 체찰사부(體察使府 : 1·2품 관아), 혜민서(惠民署), 장악원(掌樂院) 등의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가내수공업이 성하던 지역이었다. 오늘날 종로와 을지로의 1~4가 지역 일대는 상가와 시장과 환락가가 형성된 도심 지역으로 상공업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이곳은 부를 축적한 대상인들도 살았지만 많은 서민들의 거주지였다.

을지로6가 부근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하도감(下都監)이 위치하여 군교(軍校)층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다. 현재 훈련원공원, 국립중앙의료원 일대의 훈련원(訓練院) 부근과 동대문 밖에는 도성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소 농업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져 ‘아랫

대로 불리는 이곳에는 미나리·배추·무 등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최하층의 사람들이어서 어투도 매우 거칠고 상스러웠다.<sup>3)</sup>

오늘날에도 을지로 일대에 업무빌딩, 시장, 상가(商街), 중소기업체가 밀집하여 공구, 조명, 미싱, 타일도기, 조각, 가구, 인쇄, 기계 등 다양한 도심 산업이 들어서 있으므로 옛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18세기 이후, 중구 지역에 있었던 시전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기존의 종로 지역 시전의 전매물품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 중구 지역에 있던 시전

| 지역            | 시전                  | 거래 상품          |
|---------------|---------------------|----------------|
| 무교동~태평로1가     | 도자전(刀子塵)            | 작은 칼·패물        |
| 무교동           | 모전(毛塵)              | 과일             |
| 을지로1가         | 기름전(油塵)             | 식용 기름          |
| 수표동~을지로2가~장교동 | 죽전(竹塵)              | 대나무와 대그릇       |
| 의주로1가·중림동     | 싸전(米塵)              | 곡식             |
| 봉래동1가         | 칠패(七牌)시장            | 어물·채소          |
| 봉래동2가         | 지전(紙塵)              | 종이             |
| 봉래동1가         | 외어물전(外魚物塵)          | 어물             |
| 저동1가·2가       | 저포전(苧布塵)            | 모시, 베          |
| 수표동, 방산동      | 마전(馬塵)              | 말              |
| 을지로3가~저동2가~초동 | 신전(履塵)              | 신발             |
| 초동            | 초전(草塵)              | 개초(蓋草)·삼·취     |
| 수표동           | 연초전(煙草塵)            | 담배             |
| 필동            | 상전(床塵)              | 가죽·서적          |
| 장교동           | 저포전·관자전(貫子塵)·소금전·신전 | 모시, 베·망건·소금·신발 |
| 을지로4가         | 은방                  | 은              |
| 남대문로1가        | 백목전(白木塵)            | 무명             |
| 남대문로4가        | 잡곡전(雜穀塵)·소금전        | 잡곡·소금          |
| 정동            | 상전(床塵)              | 잡화             |

\* 자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 II(중구편), 1992.

## 2) ‘황금정’이 된 일제침략기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1914년에 구리개와 뜻이 통하는 황금정(黃金町)이라고 고쳤다. 추측컨대 을지로입구의 동현과 을지로4가 부근의 은동(銀洞)이란 동명을 따서 황금정이라고 붙인 것 같다.

1910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을지로4가에서 광희문까지 폭 12간, 길이 113간의 확장 공사가 있었다. 1912년 12월 당시 을지로는 서울 최초로 차도(車道)와 인도(人道)가 구분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8호 <경성지구개수예정계획노선>의 발표에 따라 경운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황금정을 직통하여 광희문 밖에 이르는 폭 12간의 노선을 제8호선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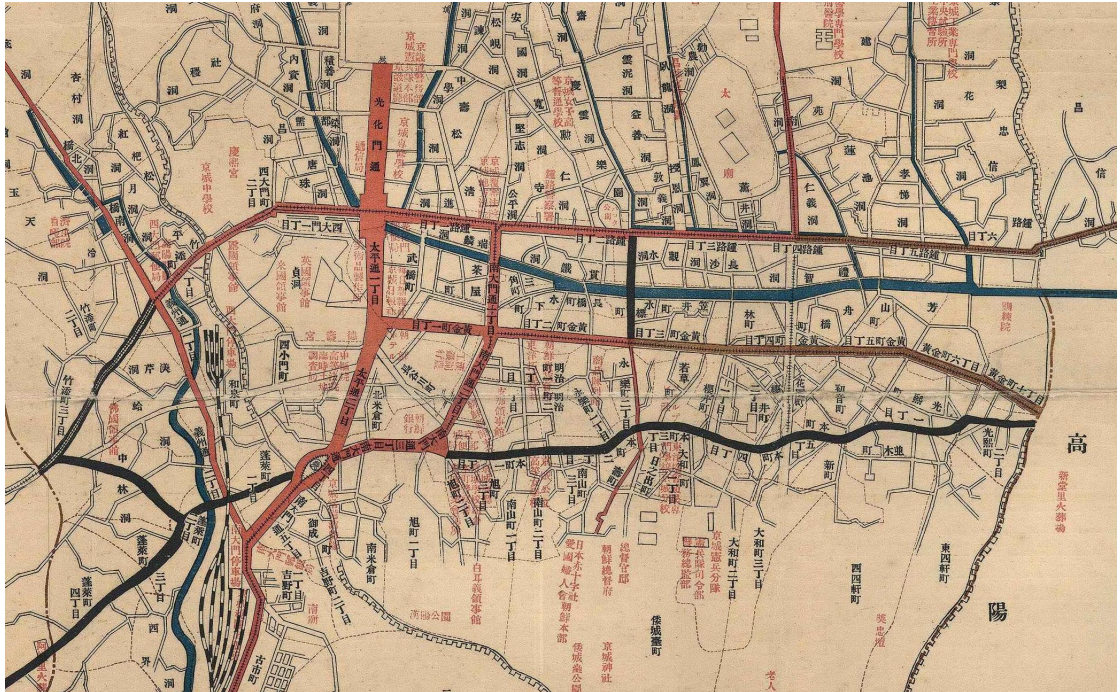
일제는 1927년에 <경성부 주요가로 지정계획노선일람표>를 발표할 때 을지로를 250간 길이의 ‘황금정통(黃金町通)’으로 이름 붙였다.

그 후 1939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57호로 계획가로망을 발표할 때 을지로는 대로 2류 1호의 시청 앞 광장에서 을지로5가에 이르는 폭 30m, 길이 2,070m와 동 2번의 을지로6가 광장에서 신당동 광장까지 폭 28m, 길이 220m로 나뉘어졌다.

일제침략기에 중구의 충무로, 명동, 을지로 등지는 서울의 변화가였다. 오늘날 대기업을 본사가 집중해 있는 중구 관내보다 잡다한 을지로의 상업 기능은 일제침략기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일제는 종로 육의전 중심의 500년 복촌 상권을 탄압하면서 진고개, 즉 본정통(충무로)을 일본인 상권의 중심지로 키워 나갔다. 그들은 남촌을 근거지로 삼아 진고개를 혼마치(本町)라고 부르면서 서울 제일의 변화가임을 자랑하였다. 남촌의 일본인은 충무로 1·2·3가를 정점으로 명동2가, 을지로2·3가, 남대문로2·3가, 회현동1가, 소공동, 남창동 일대에서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형성하였다. 당시 상경한 어느 시골사람은 “나는 서울사람이 무엇 하느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길거리에서 복작복작 하느고 했더니, 진고개 일 본사람에게 돈 털어 바치러 가노라고 그러하더만” 하였다고 전한다.<sup>4)</sup>

일제침략기에 변화가를 형성한 명치정(명동)은 일반 점포가 많기는 했으나 경식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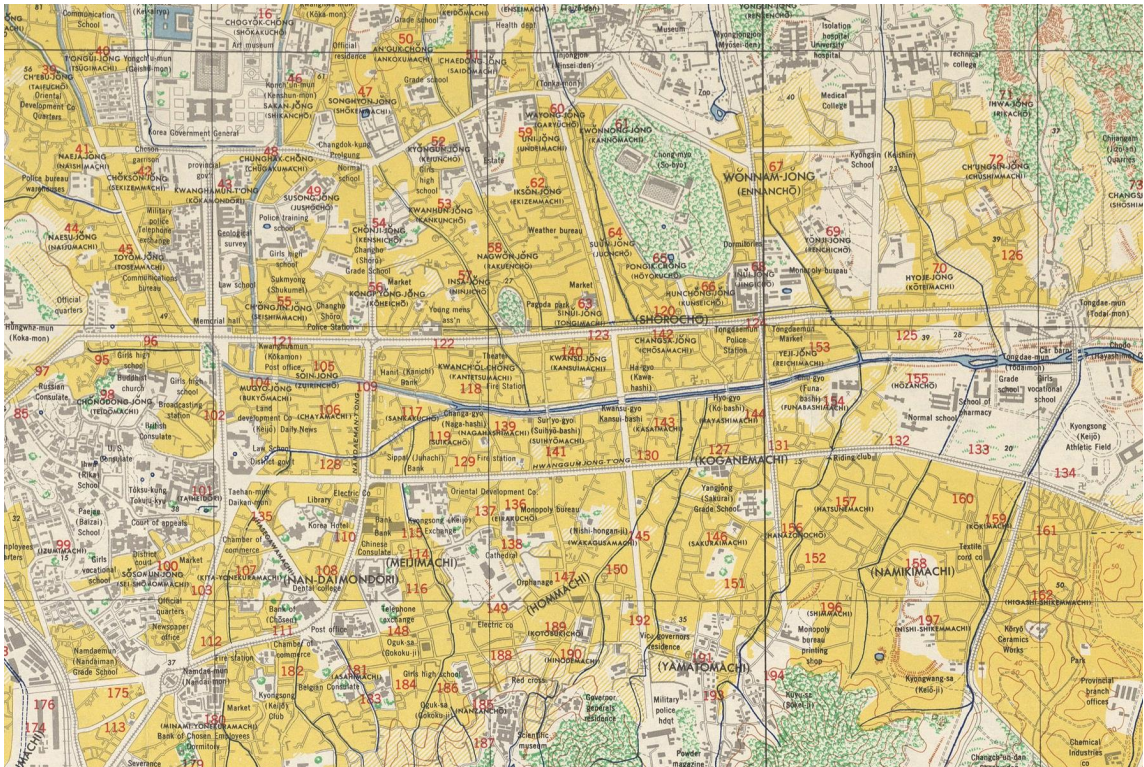
〈경성부 관내도〉(1917년) 중 경성 중심가(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카페·다방·당구장 등이 집중한 곳으로 더 유명하였다. 극장 양화관과 송죽극장이 이곳에 있었고, 카페는 환(丸)빌(마루비루)·국수(菊水) 두 곳이 컸으며, 중국요리점으로는 봉래각과 중화정, 뽕장이 전문 일식요리점인 강호천, 서양요리점인 천대전 그릴, 화월식당 등이 명치정을 대표하고 있었다.

일제 때 황금정과 명치정의 특징 중 하나는 이곳에 증권회사들이 집중해 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증권거래소의 전신인 경성주식현물취급시장이 1920년 명동1가의 경계인 황금정 2정목 199번지에 있었고, 또한 일제 때 조선인들이 가장 즐겨했고, 또 그 때문에 패가망신한 조선미곡시장도 명치정(명동1가 59의 10)에 위치했다.

한반도 경제침략 3대 본거지인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가 남대문로, 을지로에 위치했다는 것은 이곳을 중심으로 서울의 금융지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본사 사옥이 남대문로2가에 1927년 준공되었다.





미군정기에 제작한 서울 지도(1946년, 미국 텍사스대학 세계 지도 서비스)

### 3) 광복 후 ‘정치1번지’가 되다

황금정통은 광복 후 1946년 10월에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살수대첩으로 대승을 거둔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장군의 성을 따서 을지로로 개칭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을지로’로 가로명이 제정될 때는 서울시청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구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1952년 내무부고시 23호에 의해 도시계획가로와 광장의 변경이 있을 때 시청 앞 광장에서 을지로6가에 이르는 대로 2류 1호를 대로 2류 2호로 정했다.

한편 대로 2류 2호의 폭 28m, 길이 220m의 을지로6가 광장에서 신당동 광장에 이르는 길은 동 9호로 하고, 폭을 30m로 확장하였다. 그 후 을지로는 몇 차례의 개수과정을 거쳐 1954년 서울역에서 신당동에 이르는 도로를 신설 확장하면서 시청 앞에서 서울운동장까

지 폭 30m, 길이 2,740m로 연장 확정되어 대로 2류 3호의 등급을 얻게 되었다.

을지로는 198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공고 제673호에 의해 경과지명으로 을지로3가를 추가하여 기점을 시청으로 하고, 종점을 당시 서울운동장(동대문운동장, 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으로 삼게 되었다.

미군정기의 을지로는 ‘정치1번지’였다. 을지로1가의 반도호텔은 광복 이후 미군사령부의 지휘 본부로 사용되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과 함께 서울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의 참모였던 존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은 지금은 힐튼 조신포털과 반도호텔에서 몇 개월간 기거, 집무하다가 이 해 연말에 경무대로 들어가 2년간 지냈다.

#### 4)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을지로

1950년 9·28 서울 수복 때와 이듬해 1·4 후퇴 후 서울 재수복 당시 서울의 폐허화 원인은 치열한 시가전으로 인한 UN군의 포격과 패주하기 전 북한 공산군의 방화였다. 공산군들은 9월 26~27일 양일에 걸쳐 중앙청, 서울역, 한국은행, 중앙우체국 건물 외에 남대문시장, 남창동, 북창동, 명동 지역 등의 건물에 기름을 붓고 방화하여 잿더미로 만들었다. 을지로 거리의 상가 건물은 비교적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영락교회 부근, 충무로, 명동 등 을지로 지역의 거리는 흩어진 기왓장 조각, 허물어진 건물 더미, 양상한 기둥과 벽체, 끊어진 전깃줄만 남아서 처참한 모습이었다. 성두경이 촬영해 펴낸 사진집인 『다시



폭격으로 파괴된 을지로 거리 풍경

돌아와 본 서울 — 서울 1951년 겨울 (1)』을 보면 당시의 을지로, 명동, 충무로 등의 전쟁의 상흔이 남은 거리 모습과 스산한 풍경을 볼 수 있다.<sup>5)</sup>

을지로는 1950년대에도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자유당 때 이기붕(李起鵬)의 집무실과 제2공화국 장면(張勉) 총리의

집무실도 을지로1가의 반도호텔 809호에 있어서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출입하였으므로 이른바 ‘호텔 정치’로 유명하였다.

## 5)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1960년대 이후

6·25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을지로 지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과 건축 붐에 따라 주택 수리에 관련된 목재, 가구, 철물, 페인트, 도배, 공구 등의 건축자재상이 몰려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67년 1월 21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을지로입구 간 폭 30m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구 대한일보 사옥을 비롯한 반도호텔 주변 15개 건물을 철거하였다. 서울시는 공사비 180만 원으로 1967년 3월까지 서울시청에서 을지로입구 간의 연장 80m 구간을 당시 10m 노폭에서 20~30m로 넓힐 계획을 세웠다. 4년 뒤 서울시는 1971년 3월 15일 을지로입구에서 을지로7가 간의 노폭을 30m로 확장할 계획을 다시 세웠고, 1976년 3월에 8억원의 예산으로 을지로4가에서 을지로5가 구간(389m)의 도로를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으므로 을지로 전구간의 정비가 일단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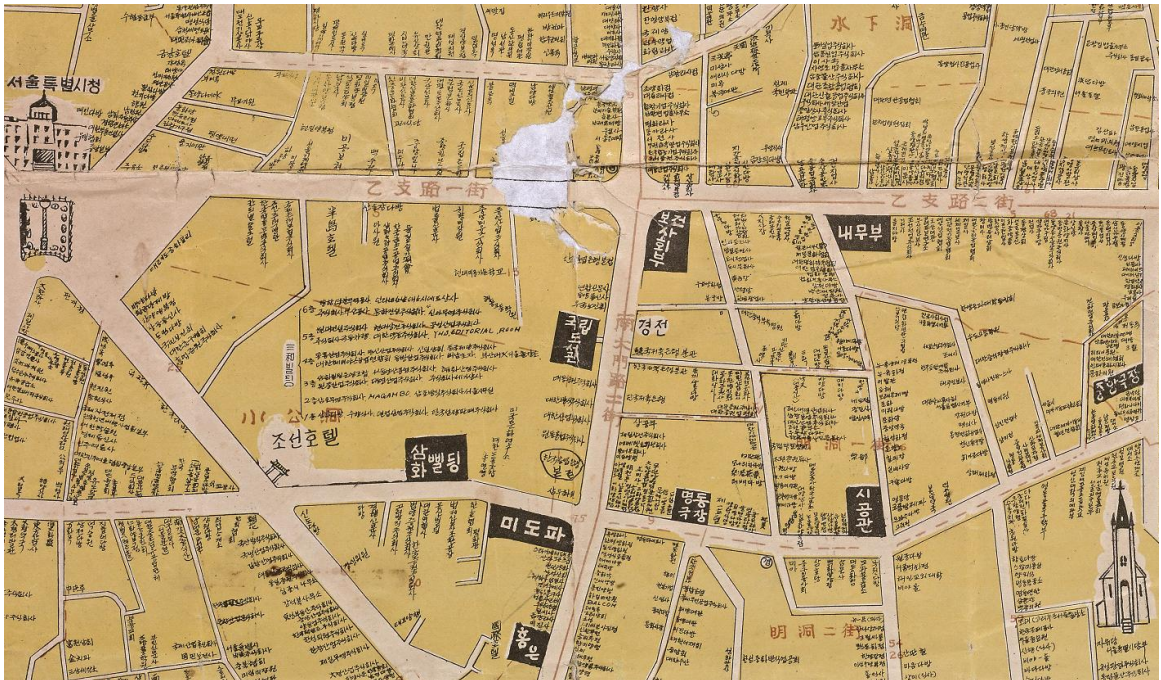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붐과 1990년 초의 신도시 건축과 함께 일었던 건물 신축의 붐을 타고 호황을 누리, 을지로4가에는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상가가 형성되었다. 주방용가구, 조명과 타일도기, 가구, 인테리어 전문점도 많이 들어서서 을지로는 업무용 빌딩이 서울 어느 곳보다 밀집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번잡한 거리가 되었다.<sup>6)</sup>

을지로는 정부수립 후에 몇 차례 개수되어 1954년에 폭 30m로 되었으며, 1984년 5월 22일에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어 시청 앞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지하상가로 이어져 있다.

이어서 서울시는 1976년 8월 17일 명동 입구에서 을지로입구, 을지로입구에서 종로 네거리의 너비 28m의 도로를 40m,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1981년 9월 16일 을지로를 서울을 상징하는 가로가 될 귀빈로(貴賓路)로 개발하기 위해 길이를 150m, 폭 100m 단위의 블록으로 개발하는 도시설계(Urban Design) 방법으로 발전시켜 도심의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범가로로 개발기로 했다.





〈서울상계약도(商界略圖)〉중 을지로 및 명동 지역(1955년경)

을지로에 전차가 부설된 것은 1912년 12월 6일이었다. 이날 황금정선(黃金町線) 전차 운전을 개시하였다. 그 후 경성부의 인구 증가로 1926년에는 왕십리, 안국동 등지로 전차 노선을 확장하여 30.9km가 되었다. 일제침략기 초부터 서울에는 인력거나 중국식 마차,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나 전차가 대중교통기관으로 이용되었다. 즉 전차는 1930년대 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서울시민들의 발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한편 서울역~남대문~을지로입구~을지로6가 구간과 을지로6가~왕십리역 구간에 전차가 부설되고, 1926년 4월 21일에는 훈련원~장충단 사이에 전차선로가 부설되었다. 그동안 선로공사에 착수하여 오다가 4월 20일 안에 전선 공사를 끝내고, 철도국의 인가를 얻어 4월 21일에 시운전을 한 뒤 즉시 개통하였다. 1939년에는 을지로4가~돈암동간의 전차를 부설하였다.

을지로는 다른 어느 도로와 달리 지하철 2호선이 운행하고 그 밑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서울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조감도(1980년)

가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 2호선은 1983년 9월 16일에 을지로입구역~성수역 구간(8.1km)이 1차로 개통되었고, 1983년 12월 27일에 서울교대역~서울대입구역 구간(6.61km) 개통으로 1984년 5월 22일에 완전 개통되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전후한 1983년 9월경에 을지로 일대 상가가 서서히 활기를 띠어 지하철 공사로 3년 동안 길이 막혀 인적이 드문 거리였던 을지로 구간(을지로입구역~성수역)이 비로소 생기를 되찾았다.

## 2장 을지로의 동명 유래

광복 후 미군정기 때 「서울시헌장」의 공포로 경성부가 서울로 바뀌고,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자 1946년 10월 2일 서울 행정구역 명의 개칭이 고시되었다. 개칭된 동명의 사용은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이 당시 동명 개정은 김형민(金炯敏) 시장, 사학자 황의돈(黃義敦), 김도태(金道泰)와 유억겸(兪億兼) 문교부장관 등이 시장실에서 회의를 열어 각각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일제식 명칭인 정(町)은 동(洞), 통(通)은 로(路), 정목(丁目)은 가(街)로 통일하자고 유억겸 장관이 제안했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위인들의 이름을 도로 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자, 황의돈은 세종로·을지로·원효로의 이름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형민 시장은 충무로·퇴계로의 명칭을 제안하였다고 전한다.

이 당시 을지로는 무인으로서 고구려의 대인물인 을지문덕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붙였던 것이다.<sup>8)</sup> 개화기와 일제 때 을지로에는 중국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광복 후 북한의 화교들이 남한으로 몰밀듯이 내려와 명동, 을지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를 우려해 중국 수나라를 크게 격파한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서 을지로라는 도로명을 제정했다는 설도 있다.<sup>9)</sup>

을지로에는 세운청계상가·대림상가·삼풍상가 외에 인현시장·방산시장·중부시장 등 대규모 시장도 들어서 있다. 을지로 동쪽 끝에는 평화시장 등 동대문시장 상권이 형성 되고, 패션 전문상가들이 즐비하며, 서울의 명소로 손꼽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가 들어섰다. 최근에는 도심재개발로 인해 상가지역이 고층빌딩으로 경관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구 을지로 지역에는 현재 법정동으로 불리는 동명 외에도 조선시대에 자연촌락 명으로 불리던 많은 이름들이 있다. 수백 년간 불려온 정겨운 우리말 이름들은 일제침략기 호적(민적) 작성 때 한문으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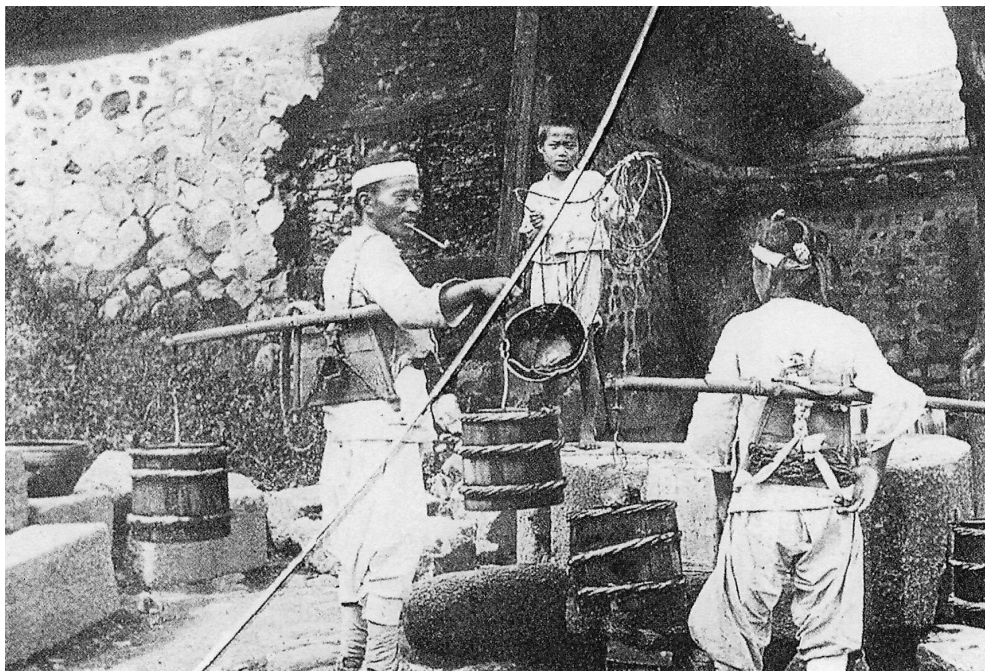
## 1) 을지로의 자연촌락 이름

조선시대 을지로 지역에 위치했던 자연촌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갯우물골 [笠井洞] : 중구 입정동·을지로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갯을 만들어 팔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갯방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갯우물골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한자명으로 입정동(笠井洞)이라고 하였다.

△ 굿우물골 [堅井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 굿을 하면 소원을 이룬다고 하여 굿우물(堅井)이 마을 한가운데 있어 굿우물골이라고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고, 이를 한자명으로 견정동(堅井洞)이라 하였다.

△ 보은단골 [報恩緞洞] : 중구 남대문로1가·을지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 선조 때 역관(譯官) 홍순언(洪純彦)이 을지로1가 180번지(롯데호텔) 부근에 살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홍순언이 명나라 북경에 가는 길에 홍등가에서 부모의 장례비용 때문에 나온 한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다. 홍순언이 몇 해 후에 다시 연경(燕京)에 가니 그 여인이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石星)의 부인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물장수(19세기 말)

되어 은혜를 갚고자 ‘보은단(報恩緞)’이라고 손수 수놓은 비단 수십 필을 홍순언의 집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을 보은단골 또는 보은담골이라 하였으며, 한자명으로 보은단동(報恩緞洞)이 되었다고 전한다.

△ 구남부골 [舊南部洞] : 중구 명동1가·을지로2가·충무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구획을 동·서·남·북·중의 방위로 구분하여 설치한 5부의 하나인 남부(南部) 청사가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구남부골·구남부골이라고도 했으며, 한자명으로 구남부동(舊南部洞)이라 하였다.

△ 구리개 (仇里介) : 구리개는 중구 을지로입구의 옛 지명인데, 한자명으로 동현(銅峴)이라고 하였다. 구리개는 진흙으로 된 언덕길을 가리키는 말이다.



△ 궁안우물골 [宮內井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 인근 소공동에 임진왜란 후 명나라 장수와 관원들을 접견하던 남별궁(南別宮)이 있어서, 그 안의 우물을 궁안우물이라 하였다. 그 주변 마을을 궁안우물골이라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한자명으로 궁내정동(宮內井洞)이라고 하였다.

△ 미나릿골 [芹洞] : 중구 을지로5가에 있던 마을로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논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나릿골로 부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이를 한자명으로 근동(芹洞)이라고 하였다.

△ 기름전골 [油洞 · 由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서, 식용 기름을 파는 기름전(油廬)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를 한자명으로 유동(油洞 · 由洞)이라고 하였다.

△ 남소문골 [南小門洞] : 중구 쌍림동 · 장충동1가 · 장충동2가 · 광희동1가 · 광희동2가 · 을지로6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도성의 남소문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 남소문골, 한자로 남소문동(南小門洞)이라고 하였다가 줄여서 남소동이 되었다.

남소문은 장충단공원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던 문으로 세조 3년(1457)에 축조하였다. 그런데 남소문의 위치가 서울의 동남방이 되니 풍수지리에서 불길하고, 또 경복궁에서 보면 황천문(黃泉門)이 된다고 하여 예종 원년(1469)에 이 문을 막았다.

△ 남천내깨 [南川邊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서, 청계천의 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이므로 남천내깨라 하였고, 한자명으로 남천변동(南川邊洞)이라고 하였다.

△ 둥근우물골 [圓井洞] : 중구 을지로4가에 있던 마을로, 둥근 우물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이를 한자명으로 원정동(圓井洞)으로 표기하였다.

△ 띠골 [帶洞] : 중구 을지로5가 · 오장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허리띠를 만드는 집이



17세기에 제작된 <조선강역총도> 중 도성도에 표시된 남소문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자명으로 대동(帶洞)이라고 하였다.

△ 먹우물골 [墨井洞] : 중구 수표동 · 장교동 ·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우물이 깊어 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먹우물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자명으로 묵정동(墨井洞)이라고 하였다.

△ 명례방골 [明禮坊洞] : 중구 충무로1가 · 충무로2가 · 명동1가 · 명동2가 ·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구역인 남부 명례방 지역으로서 명례방 · 명례방골이라 하다가 줄여서 명동이라 부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뱃골 [裊洞] : 중구 광희동2가 · 을지로7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배나무가 많아 배나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중 을지로와 종로 지역(18세기 후반)

무골이라 하다가 줄여서 뱃골이라 하였는데, 한자명으로 배동(裴洞)이라고 표기하였다.

△ 찻골 [篩洞] : 중구 무교동·을지로3가·입정동·태평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거를 때 쓰는 체를 만드는 집이 많았으므로 찻골·찻골이라 하고, 한자명으로 사동(篩洞)이라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실우물골 [絲井洞] : 중구 저동1가·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깊지는 않으나 바가지로 퍼낼 수 있지만 물줄기가 워낙 기늘어 실날처럼 물이 흘러나와 한참을 기다려야 물이 고였으므로 이름을 실우물 혹은 사정(絲井)이라고 붙여, 이곳을 실우물골, 한자명으로 사정동(絲井洞)이라 하였다.

△ 살리뫓골 [山林洞] : 살리뫓골은 본래 산림(山林)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천변의 평지에 형성된 자연마을이었다. 일제 때인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한성부 남부 성명방 산림동·후동 각 일부와 삼대동·석중동·연정동을 병합하여 임정(林町)이라 하였다. 이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중구 산림동(山林洞)으로 하였다.

△ 수지전골 [休紙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 휴지전이 있어 휴지전골, 혹은 음이 변하여 수지전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명으로 휴지전동으로 표기하고 줄여서 휴지동(休紙洞)이라고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물아랫골 [水下洞] : 중구 을지로2가·수하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이곳이 남산에서 발원한 창동천(倉洞川)의 물 아래쪽이 되므로 물아랫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명으로 수하동(水下洞)이라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숙수방골 [熟手房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 궁중에서 잔치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만들던 숙수방(熟手房)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자명으로 숙수방동이라고 하였다.

△ 시금골 [詩琴洞] : 중구 수표동·입정동·을지로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 후기 경종 때 사헌부 집의(執義: 종3품)를 지낸 유학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수표교 동쪽 수십 보에 위치한 곳에 살면서 벗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면서 시와 거문고 [詩琴]를 자주 연주하였던 데서 시금골(詩琴洞)·시궁골이라고도 하였는데 한자명으로 줄여서 시동(詩洞)이라고도 하였다.<sup>11)</sup>

김창흡은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3남으로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서 친명(親命)으로 소과에 급제하고는 과장(科場)에 발을 끊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백악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지은 뒤 벗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가 사사(賜死)되자, 영평(永平)에 은거하여 『장자(莊子)』와 『사





삼연 김창흡의 초상과 『삼연집』

이동(梨洞)이라 하였는데, 이 보습곶이 위쪽에 위치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자명으로 상리동(上梨洞)이라고 하였다.

기(史記)』를 읽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불전(佛典)도 탐독하였다.

△ 옷보습곶이 [上梨洞] : 중구 수하동·을지로2가에 있던 마을로, 삼각동의 지형이 땅을 가는 보습처럼 생겼으므로 보습곶이라 하였고, 한자명으로

△ 신전골 [履洞] : 중구 을지로3가·저동2가·초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신을 파는 가게가 있어 신전골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명으로 이동(履洞)으로 표기하였다.

이 마을에는 정조의 부마 홍현주(洪顯周)의 집인 금옥당(金玉堂)이 있었다. 그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肅善翁主)와 결혼하여 영명위(永明尉)가 되어 지돈녕부사를 지내고, 문장이 뛰어나 『해거시집(海居詩集)』을 남겼다. 이 집에는 순조의 어필로 쓴 원정(圓亭)과 익종의 어필인 시림정(士林亭)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은 정자도 있었다.<sup>12)</sup>

△ 죽전동계 (竹廬洞契) : 조선시대 남부 훈도방(薰陶防) 내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계(契)의 하나로 죽전동계가 있었다. 죽전동계 이름은 대그릇전(竹廬)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 계 이름은 영조 때부터 고종 초기까지 있었으나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없어졌다. 죽전동계 구역은 중구 을지로2가·저동2가의 각 일부에 해당된다.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따르면 남산 아래의 땅이 집터가 좋다는 의미로 「저동죽서(荳東竹西)」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서문충(徐文忠)·박판추(朴判樞)·홍연천(洪淵泉)·정충헌(鄭忠憲)·이순무(李巡撫) 등 명문고관이 전일에 저동(荳洞), 죽동(竹洞)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중에도 저동 동쪽의 대가(大家)로 알려진 서문충의





조선시대의 신전 및 잡화전

옛 집에는 어서각이 있었고, 정조대왕의 어제시(御製詩)를 간직했던 곳으로 유명했다.

△ 곧은우물골 [直井洞] : 중구 을지로4가에 있던 마을로, 곧고 깊은 우물이 있다고 해서 한자로 직정동(直井洞)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쪽우물골 [藍井洞] : 중구 을지로6가·광희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광희동1가 125번지 우물가에 염료로 사용되는 쪽(藍靛)이 많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자명으로 남정동(藍井洞)이라고 하였다.

△ 찬우물골 [冷井洞] : 중구 저동2가·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물이 매우 찬 찬우물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자로 냉정동(冷井洞)이라고 하였다.



19세기말 훈련원 전경

△ 청계동 (淸溪洞) : 청계동이란 이름은 이 동네 북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에서 유래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청계동사무소가 설치되어 남대문로1가·삼각동·수하동·장교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1970년 5월 5일 행정동과 관할 법정동을 일치시키면서 폐동되고, 관할구역은 을지로2가동과 태평로1가동에 분할·통합되었다. 이때 을지로2가를 포함하여 삼각동·수하동·장교동·수표동은 을지로2가동에, 남대문로1가를 포함하여 무교동·다동·태평로1가·을지로1가는 태평로1가동에 속하였다.

△ 훈련원골 [訓鍊洞] : 훈련원골은 을지로 5·6가 일대에 조선시대 군사훈련·무과선발·병서강습을 담당하던 기관인 훈련원이 있어서 유래되었다. 이를 한자명으로 훈련동(訓鍊洞)이라 하였다. 1955년 4월 18일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훈련동이 설치되어 을지로5가·방산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1970년 5월 5일 행정동과 관할 법정동을 일치시키면서 훈련동은 폐동되고, 을지로5가동회와 을지로4가동회가 설치되었다. 이때 을지로5가동회 관할구역에 을지로5가·6가·7가, 을지로4가동회에 주교동·방산동·을지로4가가 속하게 되었다.

△ 향나뭇골 [香木洞] : 중구 을지로1가에 있던 마을로, 향나무가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향나뭇골 [香木洞] · 상나뭇골이라고도 하였다.

△ 혜민서골 [惠民洞] : 중구 수표동 · 을지로2가 ·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을지로2가에 조선시대에 의약과 서민 치료와 여자들에게 침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 혜민서가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혜민서골 [惠民洞] · 혜민섯골 · 혜민서동이 라고도 하였다.

△ 훈도동 (薰陶洞) : 훈도동은 조선시대 지명인 훈도방에서 유래되었다. 1955년 4월 18일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훈도동이 설치되어 수표동 · 입정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1970년 5월 5일 행정동과 관할 법정동을 일치시키면서 훈도동은 폐동되고, 을지로3가동 회와 을지로2가동회가 설치되었다. 이때 을지로3가동회 관할 구역에 산림동 · 입정동 · 을지로3가, 을지로2가동회에 삼각동 · 수하동 · 장교동 · 수표동 · 을지로2가가 속하게 되었다.

△ 체부청골 [體府廳洞] : 중구 을지로2가에 있던 마을로, 조선 중기에 비상시에 국왕의 뜻을 받들어 임지에 나가 장병들을 시찰, 독려하는 일을 수행하는 군사업무를 맡아보는 정1품 관아인 체찰사부(體察使府)가 이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체부청골이라 하였고, 한자명으로 체부청동(體府廳洞)이라고 하였다. 서울 고지도를 보면 현종~영조 연간에는 체찰사부가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을지로2가에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하도감골 [下都監洞] : 중구 을지로7가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에 수도 경비를 맡았던 훈련도감의 군영이었던 하도감(下都監)이 있어서 하도감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명으로 하도감동(下都監洞)이라 표기하였다.

△ 조산동 (造山洞) : 중구 을지로6가~방산동 4번지에 걸쳐 있던 흙더미를 조산(造山)이라고 하였다. 가산(假山)은 정원 등을 꾸미기 위해 만든 산의 모형물이다. 가산은 원래

돌과 흙을 쌓아 만든 것을 가리키는 축산(築山)과는 구별되었으나, 후세에 와서 축산을 뜻하는 석가산(石假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서로 혼동되어 쓰이게 되었다.

조선 영조 때 청계천을 준설하여 생긴 토사(土砂)를 지금의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거쳐 맞은편 동대문종합상가 일대에 쌓아 둠으로써 산언덕이 생겨 주민들이 가산, 조산이라고 하였다. 이를 그냥 두기가 흉하므로 나무와 화초를 심게 되었다. 1914년 일제가 서울의 지명을 새로 정할 때, 속칭 조산동(造山洞)이라고 불려오던 이 지역의 가산에 심어놓은 꽃향기가 좋아서 이곳을 방산동이라 불렀다고 전한다.<sup>13)</sup>

△ 청녕위골 [靑寧尉洞] : 중구 을지로4가 156번지와 을지로5가 249번지를 잇는 곳에는 조선시대에 청녕교(靑寧橋)가 놓여 있어 청녕위골 [靑寧尉洞] 로 불렸다.<sup>14)</sup> 성종의 셋째 딸 공신옹주(恭愼翁主)와 결혼한 청녕위(靑寧尉) 한경침(韓景琛)이 부근에 살았으므로 이 다리를 청녕교로 불렀다.

공신옹주는 성종의 후궁 엄씨의 소생으로 한경침과 일찍 사별한 뒤 독신으로 지냈다. 연산군이 일으킨 갑자사화 때 생모 엄씨는 사약을 받고, 자신은 아산으로 귀양 가게 되자 그곳에서 남편과 생모의 신주를 모셔놓고,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였다.

연산군이 축출되고 반정(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공신옹주의 이 같은 효성과 지아비에 대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뜻으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sup>15)</sup>

△ 청교동 (淸橋洞) : 조선시대의 을지로5가는 남촌이라 불렸던 지역으로 장인(匠人)은 물론 상인이나 하급관리가 많이 살았다. 을지로5가 252번지에는 청짜다리, 또는 청자교(淸字橋)가 있었는데 이는 이 다리에 ‘청(淸)’자가 새겨져 있었으므로 붙여진 것이며, 이 부근을 청교동이라고 불렀다. 이 청교동에는 조선 후기 인조·효종 때 좌참찬을 지낸 조형(趙珩: 1606~1679)이 지은 일감정(一鑑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전한다.<sup>16)</sup>

△ 연방동 (蓮坊洞) : 을지로 5·6가, 방산동에 걸친 지역을 조선시대에는 연방동(蓮坊洞)으로 불렀다. 이 이름은 연꽃이 자생하고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원래 연밥이 크고 굵어 연밥동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해서 연방동이라고 하였다. 이곳의 연밥을 먹으면 피부





다동기생조합 총회(일제침략기)

가 회고 윤기가 돈다 하여 부녀자들까지도 앞을 다투어 찾아들었다고 전한다.<sup>17)</sup>

△ 사자청동(寫字廳洞) : 신한은행 본점 뒤쪽, 남대문로1가와 삼각동 사이에 걸쳐 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관아인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사자청(寫字廳)이 위치하여 사자청동이라고 했다. 사자청은 외교문서와 지문(咨文)·어제(御製)·어람(御覽)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였다.

△ 다방골 [茶洞] : 청계천로와 남대문로 변에 위치한 중구 다동(茶洞)을 전일에는 다방골이라 불렀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궁중의 차례(茶禮)를 주관하던 사옹원에 속한 다방(茶房)이란 관아가 있어서 다방골이라 하던 것이 다동이라고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일제는 1914년에 다방 골을 일제식 이름인 다옥정(茶屋町)으로 고쳤다.

조선 초 태종 때 기록에 다방동(茶房洞)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커피숍 등 많은 유흥 음식점이 있지만 예전의 다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방골의 땅 모양은 거북이의 형상이므로 예부터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거나 재난을 겪



을 때에도 이곳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길지(吉地)이다. 다방골은 본래 부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점차 기생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1920년대에 다방골에는 60여 명의 기생이 있었으며, 평양기생이 제일 많았다고 전한다. 달 밝은 밤에 들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은방울 소리를 찾아 꽃을 탐하고 버들을 꺾는 풍류를 즐기는 남자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 자리전골 [席洞] : 수하동과 남대문로1가 사이에 돛자리를 파는 자리전이 있어 자리전골이라 하였다.

△ 홍문동 (紅門洞) : 삼각동에 조선 중종 때 김처선(金處善) 부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홍문(紅門)을 세웠으므로 이 부근을 홍문동(紅門洞 또는 弘門洞)이라 했다.

김처선은 김굉필(金宏弼) 집안 사람으로 부모를 어렸을 때 여의고 유모 손에 자라다가 15세에 유모마저 죽자 육의전 상인 안씨(安氏) 집에 얹혀살게 되었다. 그가 20세 성년이 되었는데 연산군이 두 번의 사화를 일으켜 정국이 뒤숭숭하였으므로 안씨는 김처선이 연산군 생모 윤씨 폐위에 앞장섰던 김굉필의 친척이 됨을 알고 그의 신분을 생각하여 사위로 삼기로 했다.

자신이 양반 집안의 자제임을 알면서도 사대부 집안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육의전 상인 안씨의 사위가 된 김처선은 뛰어난 두뇌로 사업을 하여 육의전 상인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 없는 유모의 유복자로 키워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끝까지 유모의 제사를 모셨는데 그가 죽은 후 아내가 된 안씨의 딸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 유모의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었다. 후일 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이 이야기가 조정까지 들어가자 김처선(金處善) 부부가 길러준 어미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하여 홍문(紅門)을 세워 주었다.<sup>18)</sup>

제2편

시대별로 살펴본 을지로



## 3장 조선시대의 을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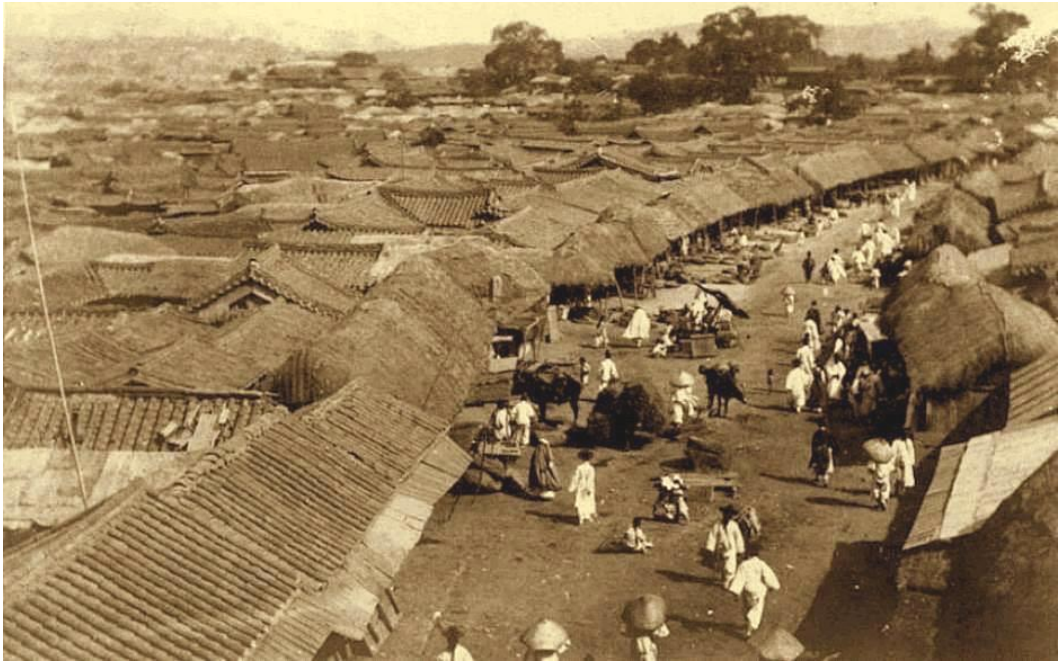
### 1. 구리개로 불렸던 을지로

현재 을지로1·2가 네거리, 즉 을지로입구 일대를 예전에는 구리개(銅峴)라 불렀다.

이곳에는 나지막한 고개가 있어서 구리고개, 동현, 운현, 구름재라고도 하였다. 『도성삼군문분계총록』이나 『육전조례』에는 구리개(仇里介)라고 표기하였으며, 갑오개혁 무렵에는 한자로 음역하여 동현(銅峴)이라고 하였다. 『한경지략』 각동조에는 “동현을 보통 구리개라고 한다. 보은단동과 마주 있는 마을이며, 또 구름재라고도 한다. 방언으로 구리와 구름이 비슷한 까닭이다.”<sup>19)</sup>라고 하였다. 원래는 구리개라고 한 것이 구름재라고도 불렀으며, 한자명으로 음역하여 운현(雲峴)이라고도 하였다.

『태조실록』에 “저자를 구리고개(仇里古介)로 옮기다.”라고 한 기록이 보이는 것을 보면 조선 초부터 우리말 그대로 ‘구리고개’였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어느덧 ‘동현’으로 표기하게 된 것 같다. 광복 이전까지도 이곳의 전차 정거장을 ‘구리개’라고 불렀다.

병자호란(1636) 때 청나라군이 질풍처럼 남하하여 개성까지 이르자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하기 위해 궁궐을 나서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청군의 선봉이 서울 서북쪽 양철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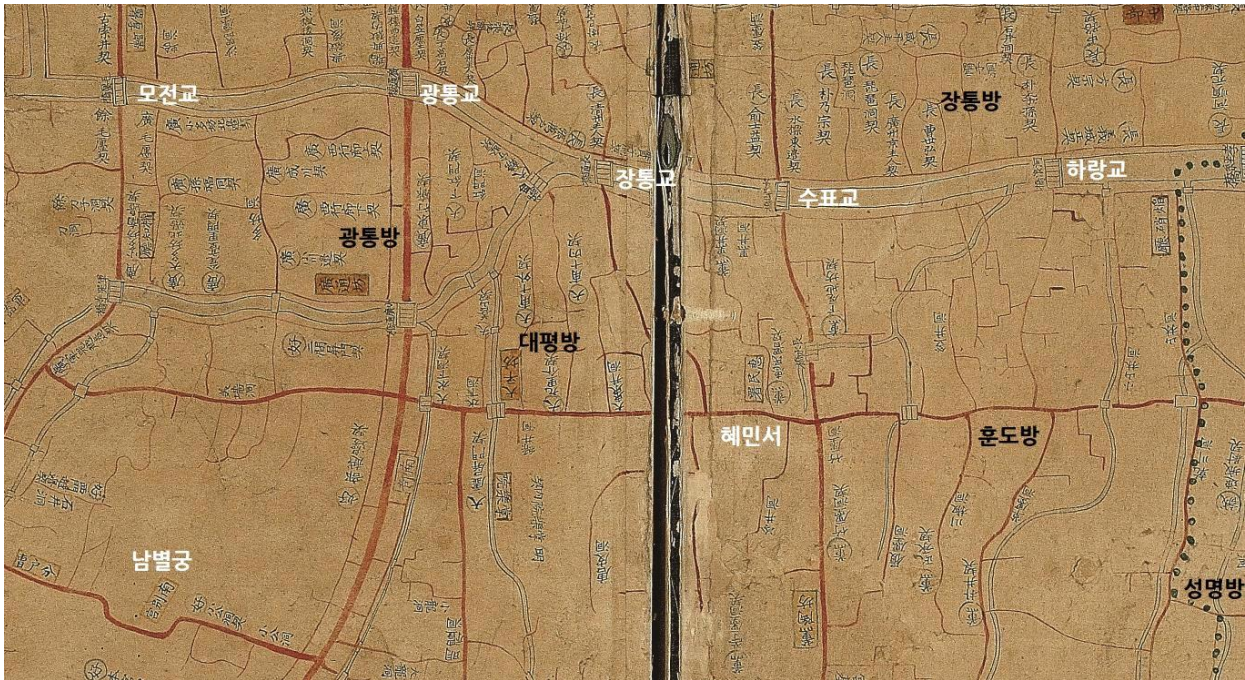
19세기 말의 구리개 모습

도착, 양천강에 군사를 배치하여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어지자 최명길이 청군 진영에 들어가 시간을 버는 동안 인조 일행은 구리개를 넘어 수구문을 통과하여 피난민들과 섞여 송파나루를 건너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sup>20)</sup>

조선시대의 을지로 일대는 지금과 같은 평지가 아니었다. 남산 줄기가 뺨어 내려온 탓으로 낮은 언덕이 있었고, 10여 개 정도의 개천이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려 청계천으로 들어갔다. 서울에는 완벽하게 없어져 버린 고개가 몇 군데 있다. 그중의 하나가 구리개이다. 지금의 을지로2가 거리는 황토로 된 야트막한 언덕이었다. 멀리서 보면 구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해서 구리개(銅峴)라고 불렸다. 이에 따라 을지로2가, 명동 입구 부근 청계천의 지류인 남산동천에 놓였던 다리 이름을 구리개다리라고 불렀으며, 한자명으로 동현교(銅峴橋)라고 하였다.

구리개는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근처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산자락이 충무로와 만나는 곳에 진고개(泥峴)를, 다시 명동길과 만나는 곳에 북달재(鐘岨 : YWCA회관 앞)를 각각





만든 뒤 을지로에 이르러 형성한 언덕이었다. 이 산줄기는 현재의 한화빌딩 자리, 즉 청계천 바로 앞까지 쉼 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 가운데 진고개는 지금의 중국대사관 뒤에서 세종호텔 뒤편에 이르는 충무로2가 일대로서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 상권(종로, 배오개, 칠패)과 중국 상권(명동, 북창동, 소공동, 서소문)에 대항해 자신들의 본거지인 본정통(本町通)으로 가꾸었던 곳이다. 원래 흙이 몹시 짙어 비만 오면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190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곳에 하수관로가 매설됐다.<sup>21)</sup>

조선시대에 구리개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되었던 을지로는 현재 을지로1가의 중심부를 지나는 서울의 동서를 잇는 간선도로였다. 여기서 조선시대 을지로1가~을지로7가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을지로1가〉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중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18세기 후반)

- 조선 초~조선 말: 한성부 남부 광통방과 호현방 일부 지역.
- 갑오개혁 때(1894년): 한성부 남서 광통방 소천변계 견정동·무교계 무교동·미동계 미동·유동계 유동·남천변계 남천변동과 회현방 미동계 휴지동 숙수방동 미동석정동·소공동계 소공동 지역.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황금정 1정목
-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區)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1정목

#### 〈을지로2가〉

- 조선 초~조선 말: 한성부 남부 호현방·대평방·훈도방·명례방 일원.
- 갑오개혁 때(1894년): 한성부 남서 회현방 구남부동계 구남부동, 소릉계 소릉동, 소공동계 동현동, 명례방 동현계 조동, 명동계 명동, 장악원계 장악원동, 소릉계 소릉동, 저동계 저동, 훈도방 저동계 저동, 죽동계 냉정동 죽동, 혜민서계 혜민서동,

오천계 묵정동, 대평방 보십계 상리동 하리동, 조동계 조동, 수하동계 수하동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 황금정 2정목
- 1943년 6월 10일 : 경성부의 구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2정목

#### 〈을지로3가〉

- 조선 초~조선 말 : 한성부 남부 혼도방·성명방 지역
- 갑오개혁 때(1894년) : 한성부 남서 혼도방 죽동계 죽동, 정승계 시동, 입정계 입정동, 박정계 초동, 이동계 이동과 성명방 초동 사동, 산림동계 소산림동, 대산림동계 대산림동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 황금정 3정목
- 1943년 6월 10일 : 경성부의 구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3정목

#### 〈을지로4가〉

- 조선 초~조선 말 : 한성부 남부 성명방·낙선방 지역
- 갑오개혁 때(1894년) : 한성부 남서 낙선방 와유두리계 청녕위동, 배정동, 원정동, 은동, 대인현계 인현동과 성명방 산림동계 소산림동, 대산림동계 대산림동, 연성위계 대인현동, 소인현동, 판정동, 직정동, 원정동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 황금정 4정목
- 1943년 6월 10일 : 경성부의 구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4정목

#### 〈을지로5가〉

- 조선 초~조선 말 : 한성부 남부 명철방
- 갑오개혁 때(1894년) : 한성부 남서 명철방 청녕위계 오교남변, 청교동, 근동, 대동, 어교동, 연방동과 오장동계 오장동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 황금정 5정목
- 1943년 6월 10일 : 경성부의 구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5정목

#### 〈을지로6가〉

- 조선 초~조선 말: 한성부 남부 명철방
- 갑오개혁 때(1894년): 한성부 남서 명철방 청녕위계 남정동, 연방동, 남소동, 남소동계 훈련원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황금정 6정목
-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6정목

#### 〈을지로7가〉

- 조선 초~조선 말: 한성부 남부 명철방
- 갑오개혁 때(1894년): 한성부 남서 명철방 수구천내계 배동, 하도감동, 동산리동, 두모방(성외) 왕십리계 신당리동
- 일제침략기 1914년 4월 1일: 황금정 7정목
-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제도 실시로 중구 황금정 7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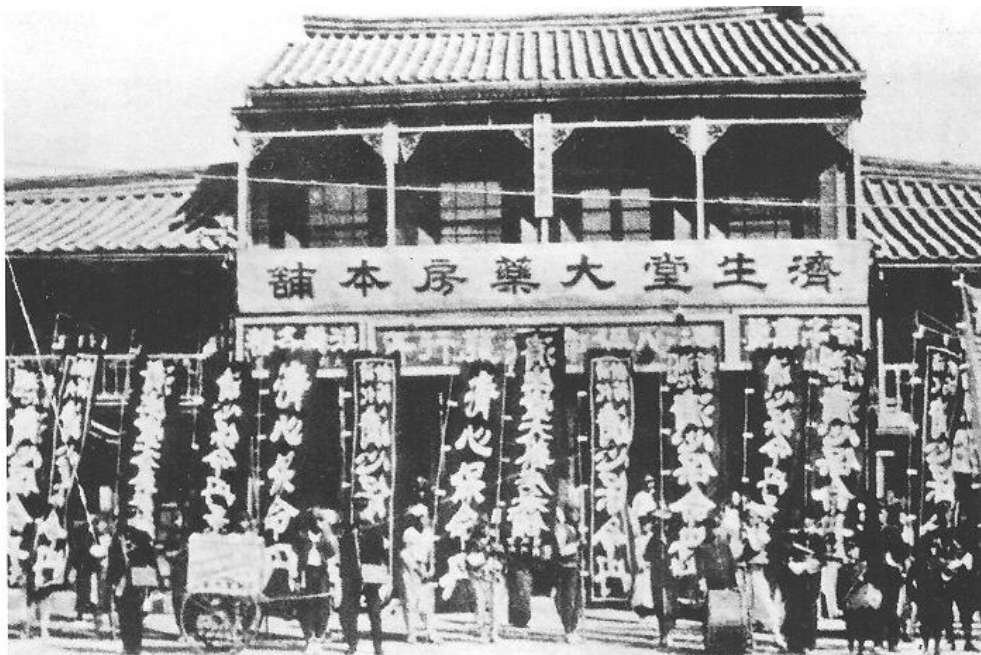
여기서 조선 500년간 을지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약업의 중심지 구리개

으레 대구하면 ‘사과’, 개성하면 ‘인삼’을 연상하듯이 서울의 구리개하면 ‘약방’이었다. 그 까닭은 조선 초부터 5백년간 현재 외환은행 본점이 들어선 동쪽에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았던 혜민서(惠民署)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민서는 태종 때 그 명칭이 확정되었지만, 조선 초 서울 한양도성을 쌓을 때 많은 부상자를 수용, 치료한 바가 있다.

조선시대 서울의 건재약은 모두 구리개 좌우의 약국에서 거래되었다. 이 약국에는 문위에나 옆에 꼭 ‘신농유업(神農遺業)’이나 ‘만병회춘(萬病回春)’이라는 글귀를 써 붙이고, 길가의 창문은 꼭 갈대밭을 드리웠다.<sup>22)</sup>

따라서 구리개는 서울의 약업 중심지였다. 물론 양약(洋藥)은 아니고 한약건재(漢藥乾材) 약국이었는데 한의사도 많이 있었다. 병을 고치거나 약을 지으려면 으레 구리개로 모여들었다. 지금의 을지로 2·3가 사이에도 을지로 남북 양쪽으로 큼직한 한약국들이 줄지



제생당약방. 구리개는 서울의 약업 중심지였다.

어 있었다. 그들은 대대로 가전(家傳)으로 약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사회적 신분은 중인이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약국은 한방의학이 서양의학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한 구한말, 나라가 어지러운 개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싹터 1910년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약이란 쓰고 따끈한 탕약만이 ‘약 다운 약’이라는 완고한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은 외세에 난도질당하던 조선왕조의 복고를 위한 뼈아픈 염원이었던가.

1910년 무렵에도 약방 중심지는 역시 구리개였다.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제생당(濟生堂), 자혜(慈惠)대약방, 대일(大一)약방, 홍제당(弘濟堂), 평화당(平和堂), 천은당(天恩堂)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이들 약방은 양약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어서 한약 건재 등을 주로 판매했다. 첩제(帖製)가 아닌 정제나 분약(粉藥) 그리고 액약(液藥) 등 지금의 양약처럼 팔던 것은 인단(仁丹), 팔보단(八寶丹), 자선환(慈善丸), 청심환, 회생수(回生水), 청심보명단(淸心保命丹), 급체쾌통산(急滯快通散) 등이 있었다. 도고약(효경다리 도고약) 외에

지금도 널리 팔리고 있는 활명수도 있었다. 을지로입구의 제생당 약방 주인 이경봉(李庚鳳)은 근대 약품무역의 선구자로 약업을 기업화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부인까지 양장을 시킬 정도로 멋쟁이(하이칼라)였다고 한다.

당시 ‘장안 기생들이 의약인들을 줄줄 따라 다녔다’는 말이 지금까지 약업계에 전해내려 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의약인들은 인기인들이었던 것 같다. 가전비약(家傳秘藥)으로 쏟아져 나온 구급 및 보건의약품이 크게 히트한 때에 일본인 약 행상들은 경향각지로 돌아다니며 문맹의 시골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긁어모았던 시절도 있었다. 아라이(新井)라는 일인은 1905~10년 사이 호남지방에서 인단(仁丹)을 만병통치로 선전, 폐돈을 벌었다고 전한다. 농촌사람들은 ‘아라이’의 술책에 속아 외상으로 마구 사서 이자까지 붙여 가을에 쌀로 갚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수룩한 시절이었다.

“1899년에 김덕진(金德鎭)이 양약국 일신의원을 황토현에 설(設)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를 최초의 약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1910년 유세환(劉世煥)이 종로3가에서 연 인사당 약국이 최초의 약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1922년 이정재가 낙원동에 세운 삼우당(三佑堂)이 처음이다. 1920년대는 일본약이 판치던 때로 안약인 ‘대학목약(大學目藥)’, 관절염치료제 ‘류마치아레치라스’, 매독치료제 ‘요도가리 환(丸)’ 등이 많이 팔렸다.<sup>23)</sup>

1910년 당시 약이라면 한약을 으뜸으로 여겨서 그 수요도 대단한데다가 한약의 유통체계가 잡힐 무렵이어서 구리개의 약업은 번창일로를 걷고 있었다. 차차 거상(巨商)들이 생겨나고 경쟁이 가열되자 서로 크고 호화로운 간판을 내거는 이른바 간판 경쟁까지 등장했다. 당시 약업계의 거물이었던 홍사중(洪士宗)이 호화로운 간판을 중국에서까지 주문해 오는 법석을 부린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옛날에는 약을 지으러 오는 사람들은 한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병세를 이야기하고 약을 지어가는 게 통례였다. 그때 조금이라도 태도가 불손하면 한의사에게 쫓겨나는 등 한의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sup>24)</sup>

약업의 초창기에는 거래양식도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동종업자가 생기고, 유사품이 차츰 많아짐에 따라 각양각색의 판매촉진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매약품목이 자그마치 1,500여 종에 이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격경쟁으로서 2~3할씩 할인하던 것이 4~5



할이 되고, 이것이 보편화되자 심한 것으로는 6~7할까지 할인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불사약’이요 ‘불로약’ 아닌 것이 없게 되다시피 했다. 이와 병행해서 벌어진 것이 특매전(特賣戰)이다. 그 수단과 방법은 참으로 다채로웠다.

경품부(景品附) 특매에 처음 등장한 상품은 요강이었다. 원시 형태로부터 개화 도상에 있는 한국 가정에서는 요강이 최초의 상품이었다. 인단(人丹) 포장지 20매를 모아 가게에 가지고 가면 요강을 하나씩 주었는데 재빨리 인단이 특매를 이용했고, 판매 촉진수단으로 채택한 것이다.

할인은 가격 경쟁의 한 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오래 할인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할인을 해도 이것은 특매로서 별효과가 없었다. 그 당시는 모두 할인표(割引表)가 있어서 각 점포마다 등급으로 매겨 가격 등차를 두었다. 특히 할증(割増) 특매가 성행했는데 할증률은 주문량에 따라 달랐으나 대개는 20% 내외였고, 많은 것으로는 30%도 있었다. 할증 특매의 경우는 외상이 없고, 대금 인환이 아니면 현금만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25)</sup>

1907년 가을에 통감부는 구리개에서 경성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와 연계하여 덕수궁 옆에 파노라마관을 세워 러일전쟁의 승전 전황을 시민들에게 관람시켜 일본의 막강함을 홍보하였다.

## 2) 을지로의 우물들

저동1가와 을지로2가에 걸쳐지는 곳에서는 실우물(絲井)이 있었다. 깊지 않은 우물로 바가지로 퍼낼 수 있지만 물줄기가 워낙 가늘어 실날처럼 물이 흘러와 한참을 기다려야 물이 고였으므로 이름을 실우물 혹은 사정(絲井)이라 붙였으며, 실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사정동(絲井洞)이라 하였다.

또한 을지로4가와 인현동2가에 걸쳐서는 우물 뚜껑을 넓은 판자로 석위 놓았으므로 널우물



우물에서 물 끄는 여인들(일제침략기)

이라 하는 우물이 있었고, 인현동2가와 을지로4가에 걸쳐서는 우물 속의 모양이 마치 돌 절구처럼 생긴 우물이 있어서 독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일제침략 초까지도 널우물은 젊은 사람이, 독우물은 나이든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다. 특히 홀로 된 부인들은 밤중에 독우물 물을 길어가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어둠이 내린 밤거리에는 물 항아리를 이고 모여드는 과부들로 항상 북적거렸다.

『한경지략』에 보면 을지로6가에 위치한 훈련원 내에 복정(福井) 또는 통정(桶井)이 있었다고 한다. 이 우물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물맛이 달고 차가우며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차다. 가물거나 장마가 지거나 더하기도 덜하지도 않는다.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샘물이다. 이 샘물을 처음 발견할 때에 큰 버드나무 뿌리 밑에 수맥이 있어서 그 뿌리를 깎아내고 우물을 만들었다. 마치 밑 없는 나무통을 묻은 것 같으므로 이름을 통정(桶井)이라 하였다. 그 통만은 여태껏 우물 밑에서 썩지 않고 있으니 이것 역시 기이한 일이다.

회현동2가에 있던 박우물(朴井)은 우물이 깊지 않아서 바가지로 물을 퍼 올릴 수 있어서 생긴 이름으로 물이 맑고 차서 약을 달이는 데에 좋았다.

이외에도 을지로에 있던 우물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물 이름     | 위 치                  | 유 래                                  |
|-----------|----------------------|--------------------------------------|
| 굿우물       | 을지로1가 견정동(堅井洞)       | 이 우물가에서 굿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석정(石井)    | 을지로1가~태평로2가          | 돌 틈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                     |
| 먹우물       | 수표동~장교동~을지로2가        | 우물이 깊어 물이 검게 보여 지어진 이름이다.            |
| 쪽우물       | 광희동1가~을지로6가<br>봉래동1가 | 쪽 풀[藍井]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                 |
| 곧은 우물     | 을지로4가                | 깊은 우물이 곧게 파내려가 있었다.                  |
| 별우물       | 주교동 281              | 별판 한가운데에 있었다.                        |
| 돌우물       | 산림동 세운상가 동쪽          | 우물 바닥이 바위로 되어 있었다.                   |
| 연와(煉瓦) 우물 | 산림동 세운상가 동쪽          | 우물가에 기와와 벽돌조각을 깔아 놓았다.               |

\* 자료 : 박경룡, 『한성부 연구』, 국학자료원, 2000, 260면.

### 3)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난 마른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무공의 탄생지나 성장한 곳이 충남 아산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산의 현충사가 성역화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1956년 12월 5일에 한글 학회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충무공의 탄생지를 답사하여 중구 인현동1가 40번지(현재는 지적 변동으로 인현동1가 31-2번지)로 고증하였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의 삼풍상가 부근의 ‘인현길’은 을지로~마른내길로 나가는 일방통행로인데 속칭 ‘충무로 인쇄골목’인 관계로 규모가 작은 인쇄소·스티커·금박·지업사 외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하다. 이 길에서 명보극장 방향으로 80여 미터 정도 가다가 삼풍상가로 나가는 인현1길 모퉁이에 세워진 4층의 신도빌딩(인현동1가 31번지 1호, 2호) 자리가 충무공이 태어난 곳이다.

1545년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충무공 이순신은 21세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무공의 선대는 한양에서 5대에 걸쳐 거주하였는데 대제학을 지낸 고조부 이변(李邊)은 84세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조부 이백록(李百祿)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후 문관이 아닌 무관 집안이 되었다고 전한다.

선조실록(선조 31년 11월 27일)은 이순신의 졸기(卒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순신은 사람됨이 충용(忠勇)하고, 재략(才略)도 있었으며, 기율(紀律)을 밝히고, 군졸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즐겨 따랐다. 전일 통제사 원균(元均)은 비할 데 없이 탐학(貪虐)하여 크게 군사들의 인심을 잃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반하여 마침내 정유년(丁酉年) 한산(閑山)의 패전을 가져 왔다. 원균이 죽은 뒤에 이순신으로 대체하자 이순신이 처음 한산에 이르러 남은 군졸들을 수합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둔전(屯田)을 개척하고, 어염(魚鹽)을 판매하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니, 불과 몇 개월 만에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쳐 범이 산에 있는 듯한 형세를 지냈다. 지금 예교(曳橋)의 전투에서 육군은 바라보고 전진하지 못하는데, 이순신이 중국의 수군과 밤낮으로 혈전하여 많은 왜적을 참획(斬獲)하였다. 어느 날 저녁, 왜적 4 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순신이 명나라 장수 진인(陳璘)에게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구원병을 요청하려고 나간 왜적일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

나간 지가 벌써 4일이 되었으니 내일쯤은 많은 군사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우리 군사가 먼저 나아가 맞아 싸우면 아마도 성공할 것이다.” 하니, 진인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이순신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청하자 진인이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명나라 군과 노를 저어 밤새도록 나아가 날이 밝기 전에 노량(露梁)에 도착하니, 과연 많은 왜적이 이르렀다. 불의에 진격하여 한창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왜적에게 활을 쏘다가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船上)에 쓰러지니 이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였다. 이문옥(李文馥)이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 복을 치며 진격하니, 모든 군사들이 이순신은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를 내어 공격하였다. 왜적이 마침내 대패하니 사람들은 모두 ‘죽은 순신이 산 왜적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이순신의 전사 소식이

전파되자 호남(湖南) 일도(一道)의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여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국가를 위하는 충성과 몸을 잊고, 전사한 의리는 비록 옛날의 여진 장수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조정에서 사람을 잘못 써서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다 펴지 못하게 한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만약 이순신을 병신년(丙申年)과 정유년 간에 통제사에서 체직(遞職)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한산(閑山)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양호(兩湖)가 왜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아, 애석하다.

또한 1598년 11월 19일자에는 이순신이 전사한 뒤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가 기록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그가 전사하였으니 앞으로 주사(舟師)의 일을 책임 지워 조치하게 하는데 있어 그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첩보(捷報)가 있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중략) 이순신이 나라를 위하여 순직한 정상은 옛날의 명장(名將)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포장(褒獎)하는 거조를 조정에서 각별히 시행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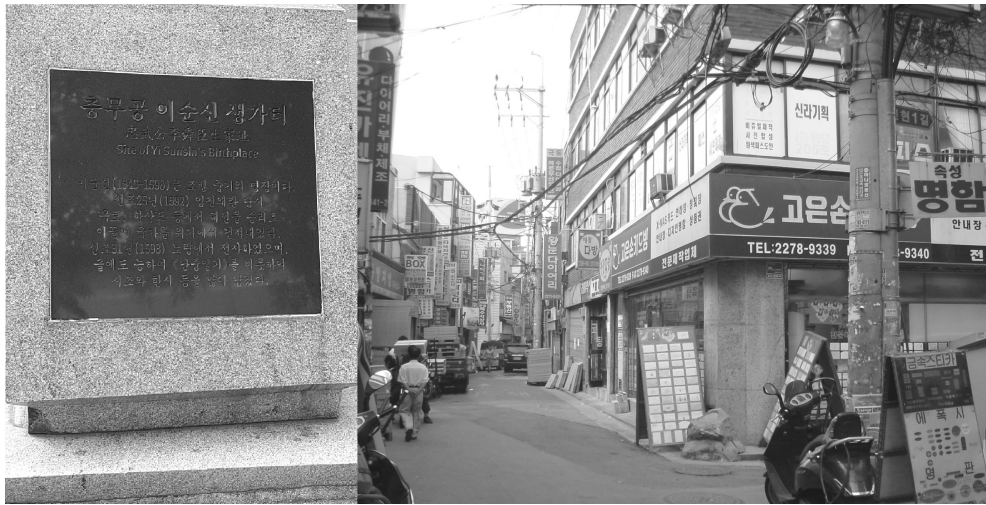
이 기록을 보아 충무공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충무공이 전사한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 사천·남해·고성에 있던 왜적의 배 300여 척이 합세하여 노량도(露梁島)에 도착하자 전투가 시작되었다.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싸우고, 명나라 군사도 합세하여 진격하니, 왜적이 대패하여 왜선 200여 척이 부서져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여 명이었다. 왜적의 시체와 부서진 배의 나무판자·무기 또는 의복 등이 바다를 뒤덮고 떠 있어 물이 흐르지 못하였고, 바닷물이 온통 붉었다고 하였다.

충무공은 조선 전기 인종 1년(1545) 4월 28일(음 3월 8일)에 한성부 남부 건천동(乾川洞)에서 태어났다. 건천동은 중구 인현동의 마른내를 일컫는 것으로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마른내는 남산1호 터널~남산한옥마을~매일경제신문사 사옥~인현동1가를 가로질러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냇물이다.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보면 충무공은 한성부 건천동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1968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동명연혁고』(중구)는 향토사학자 고 김용국(金龍國) 선생이 집필하였는데 이 글에서 충무공의 탄생지를 인현동1가 40번지로 고증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분(李芬)의 충무공 행록(行錄)에 「공 생우한성건천동가(公 生又漢城乾川洞家)」라고 하여 충무공은 건천동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에 건천동은 인현동 지역으로 나타나고, 선조(宣祖) 때 허균의 형으로 이조좌랑을 지낸 허봉(許篈)의 『성소이봉고(惺所履謁稿)』에는 청녕공주(靑寧公主) 저택 뒤편~본방교에 이르는 건천동에서 양성지, 유순정, 충무공 등 유명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기록하였음을 볼 때 충





충무공 이순신 생가 터와 탄생지 표석

무공이 건천동, 즉 현재 인현동1가 부근에서 탄생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1985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충무공 탄생지 표석(標石)은 명보극장 앞(중구 인현동1가2번지)에 세워져 있다. 현재 세워진 표석 문안은 다음과 같다.

〈충무공 이순신 생가지(忠武公 李舜臣生家址)〉

이순신(1545~1598)은 조선 중기의 명장이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 옥포·한산포 등에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었다.

선조 31년(1598) 노량에서 전사하였으며, 글씨도 능하여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시조와 한시 등을 많이 남겼다.

원래 이 표석은 충무공 생가 터인 인현동1가 31번지에 세워야 했지만,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기로 하여 명보극장 앞 도로변에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1985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세운 충무공 표석은 현재 위치보다 20여 m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 있었다. 표석 문안도 “이충무공 나신 곳. 겨레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이 이곳(서울 남부 성명방 건천동)에서 인종 원년(1545) 4월 28일 태어나시다.”라고 써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횡단보도 설

치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자리로 옮겨 놓으면서 표석 문안도 바뀌었다.<sup>26)</sup>

#### 4) 을지로입구의 고운담골

현재는 그 이름을 듣기 어렵지만 을지로1가와 남대문로1가에 걸쳐 ‘고운담골(美洞)’이란 동명이 있었다. 이와 같은 동명이 유래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조선 선조(宣祖) 때 홍순언(洪純彦) 통역관이 고운담골에 살았다. 그는 서열(庶孽) 출신으로 높은 관직은 오를 수 없었으나 통역뿐만 아니라 문장도 뛰어났고 인품도 출중하였으며 남의 불행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의기의 남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홍순언이 어느 해 명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남경 역관(驛館)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내기가 무료하여 거리 구경을 나섰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밤이 되었는데 마침 홍등가(紅燈街)를 지나게 되었다. 홍순언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 것은 집집마다 등불을 내걸고 여인의 몸값을 써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집 대문에 써 붙인 여인의 몸값이 너무나 엄청난 가격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집 안에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까 주안상을 든 소복한 미녀가 들어와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데, 홍순언은 저도 모르게 “허!” 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들어온 처녀의 미모가 마치 하늘의 선녀 같고 고결한 인품이 공주와 다름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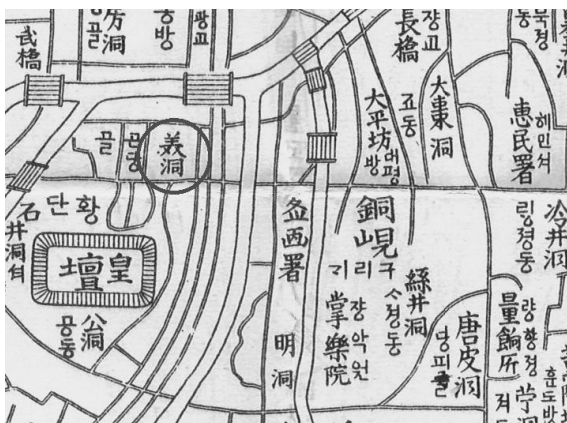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홍순언은, “보아하니 귀한 댁의 규수 같은데, 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처녀는 입을 열지 않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원래 저는 절강(浙江) 지방 사람인데 외동딸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세가 기울어 아버님이 벼슬을 구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며칠 전에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한 날에 갑자기 돌아가시니 저는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그런데 장례는 어떻게 지냈소.”

“예. 장례를 지내기에다 막막하던 차에 이 집주인이 주선하여 간신히 치렀지만 이제 고향으로 부모님의 시신(屍身)을 모셔야겠고, 그 동안의 진 빚도 갚으려면 제 몸을 팔지 않



역관 홍순언의 이야기가 깃든 미동 마을

으면 아니 되겠기에 오늘 이처럼 나온 것입니다.” 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홍순언은 민망히 여겨, “내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여기 얼마 되지 않으나 이 돈으로 진 빚을 갚고 고향에 돌아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도록 하오.” 하고 주머니를 털어 선선히 2천금을 주고 그 자리를 일어섰다.

이에 처녀는 감격하여 큰절을 세 번이나 하더니, “하늘이 소녀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대인의 은혜는 반드시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인의 성함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이에 홍순언은 거절했으나 처녀는 끝내 홍순언의 이름을 알고서야 그 돈을 받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선조 17년(1584)에 홍순언은 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 왕실의 계보가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을 이인임으로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치기 위해 파견되는 종계변무(宗系辨誣) 사신 황정욱(黃廷彣)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에 명나라 서울 부근 조양산에 도착하니 전에 없이 구름 같은 장막을 치고 사신 일행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명나라 예부시랑 석성(石星)은 따로 홍순언을 자기 집까지 모신 뒤 부인까지 소개하는 것이었다. 석성의 부인은 전에 홍순언이 구해 준 처녀였다.

영문을 모르는 홍순언에게 그 부인은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즉, 그녀는 고향에 돌아가 얼마 후 석성의 후처가 되었고, 홍순언의 은혜를 잊지 못해 비단옷감을 짜면서 ‘보은단(報恩緞)’이라는 꽃무늬의 글자를 수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순언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리하여 예부시랑 석성의 노력으로 조선의 요구는 관철되고 귀국하게 되자 석성의 부인이 금은보화와 오색비단 100필을 선물로 주려고 하자 이를 사양하고 ‘보은단’이란 수를 놓은 비단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선조는 종계변무의 일을 해결한 것을 크게 기뻐하여 홍순언을 광릉군(廣陵君)으로 봉했다.

이 보은단에 얹힌 아름다운 사연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홍순언이 살던 동네를 보은

단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후에 보은단골은 와전이 되어 고운담골로, 다시 곤담골이 되었는데 한문으로 의역되어 미장동(美牆洞) 혹은 여장리(麗牆里)라고 했으며, 이를 줄여서 미동(美洞) 혹은 여리(麗里)라고도 하였다. 대한제국 말에는 보은단과는 관계없는 미동(美洞)이라는 엉뚱한 지명이 되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보은단’과 ‘고은단’은 음이 비슷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도 하며, 홍순언의 집이 부유해져서 홍순언이 자신의 집 담에 ‘효제충신(孝悌忠信)’ 글자 등을 수놓아 단장해서 담이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고운담골이 되었다고도 전한다.<sup>27)</sup>

## 5) 정숙옹주와 부마 신익성의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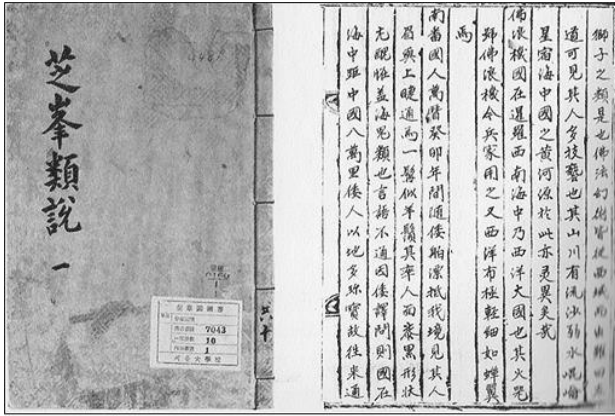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보면 임진왜란으로 국난을 치렀던 선조의 셋째 딸인 정숙옹주(貞淑翁主)와 부마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의 집이 현재 KEB하나은행 본점 건물(옛 외환은행 본점)이 위치한 장악원 인근에 있었다고 하였다.

부족함이 없는 궁궐에서 자란 정숙옹주가 이웃집들이 처마를 맞댄 곳에 와서 살았으니 그 불편함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기도 했거니와 악공을 길러내는 장악원과 담을 이웃해 있었으므로 밤낮 없는 가무 연습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였다. 또 처마가 낮아 서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이 집에 대해 처음부터 불만이 많았던 정숙옹주는 어느 날 선조 임금을 뵈고 이 고충을 호소한 뒤 집터를 늘려 줄 것을 청하였다.

선조는 정숙옹주에게, “음성이 낮으면 이웃집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처마를 가리면 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니 구태여 마당을 넓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였다. 정숙옹주는 선조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이 궁궐을 나왔다. 곧이어 선조는 해당 관아에 명하여 정숙옹주 집의 처마를 가릴 발 2장을 하사하도록 했고, 그 이후부터 해마다 선공감(繕工監)에서 정숙옹주의 집에 발 2장씩을 제공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sup>28)</sup>

## 6) 실학자 이수광의 수하동집 대은암

수하동의 청계천변에는 조선시대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집



이수광이 지은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

이었던 대은암(大隱庵)이 있어 유명하였다. 이 집은 조선 초 한양천도 때 직제학 김맹헌(金孟獻)이 지은 고옥이었는데 이수광이 내부를 수리하여 대은암이라는 편액(扁額)을 달았다. 그의 아들인 동주(東洲)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이 집을 다시 크게 지은 뒤 말년에 외손인 신필화(申弼華)에게 물려주었다. 신필화 역시 문

장에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수광 집안을 위시하여 역대의 소유주가 모두 조선시대의 대문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은암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sup>29)</sup>

대은암은 위치나 특성으로 보아 청계천변 풍경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한경지략(漢京識略)』 등 조선 후기에 발간된 기록물에는 대은암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항 이후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양안(兩岸)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상업지구로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름 그대로 맑은 물이 흐르던 청계천이 탁류로 변하였고, 부근의 자연경관도 훼손되어 대은암까지 황폐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7) 개화파 오경석이 살았던 보습곳이

수하동과 삼각동에 걸쳐 있는 보습곳이(梨洞)는 조선 말 개화사상의 선구적 인물인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다. 보습곳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곳 지형이 농기구의 보습(犁)과 같아 붙여진 것으로 웃보습곳이(上梨洞), 아래보습곳이(下梨洞)가 있었다.

오경석은 수표동에서 아래보습곳이 수하동 11번지(중소기업은행 본점 뒤편)에 이사해서 살았는데 중인 출신의 역관(譯官)으로 중국어와 서화(書畵) 및 박제가의 실학을 공부하고, 13차례에 걸쳐 중국을 내왕하면서 『해국도지(海國圖志)』, 『영환지략(瀛環志略)』, 『박물신편(博物新編)』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신서(新書)들을 구입해서 연구, 1853~1859년경에



최초로 개화사상을 형성하였다.

당시 종로구 재동의 박규수 집 사랑방에서 1870년 초부터 김옥균·박영효·홍영식·유길준·서광범 등 양반 자제에게 개화사상을 교육하여 1874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무렵 종1품 한학 당상 역관으로 우의정 박규수와 함께 개국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역관 출신으로 부를 축적한 오경석은 청나라를 왕래하면서 고서화를 수집하였다. 고서화, 금석문 등을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들 오세창(1864~1953)은 우리나라 역



역관 출신 개화사상가 오경석

대 서화가를 소개한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을 저술하였다. 오세창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일제 때 변절하지 않았던 독립 운동가이다.<sup>30)</sup>

## 8) 개화기 청국 상회, 안합호

1880년대 청나라 원세개가 통상관계 전권대사로 조선에 머무르면서 서울 장안에 덕흥호, 이타호, 안창호, 안합호(安合號, 을지로입구 전일 개성상회 자리) 등 2층으로 된 상회를 여러 개 열었다. 이 상회는 한 사람이 경영하면서도 백화 일용품을 팔아 백화점 구실을 단단히 했다. 당시 장안에 2층 건물이라고 하면 거의 청국인 상회의 소유였다.

이 가운데도 안합호의 규모가 제일 커서 연쇄상점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사동(寺洞) 입구에 최남이 경영하는 동아 부인상회가 탄생, 여종업원 10여 명을 두었다. 여점원들이 물건을 판다고 하여 부인상회란 명칭이 붙었는데 단층 백화점으로 많은 고객들이 모여들었고, 바로 이웃에 금은상 화신(和信)상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申)태화의 화신상회는 금·은·보석을 비롯한 액세서리 일체를 팔아 장안 귀부인들

의 출입이 가장 잦았던 곳이다. 1920년대 부유한 여성들은 거리를 다닐 땐 자기의 액세서리를 모두 동원하여 화려한 자태를 자랑했다. 액세서리가 요란한 여자들을 가리켜 “어이! 저기 화신상회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화신상회’란 별명을 붙여 부르기까지 했다고 전한다.<sup>31)</sup>

## 9) 서울의 차이나타운 형성

중국인들은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씨 일파의 요청으로 청나라 장수 오장경(吳長慶)이 그의 장졸 5천여 명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올 때부터 상인들이 40명이 들어와 장사했는데, 2년 뒤인 1884년에는 353명으로 급증했다.

이 당시 조선과 상민수출무역장정(商民輸出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산동현에 살던 중국 상인들과 농사꾼들이 현재의 명동과 소공동 및 관수동에 자리 잡았다. 청국인들은 도성에 집을 구입하고 점포를 개설해서 서울의 큰 상권을 형성했다. 그래서 ‘도성 내의 큰 집들이 모두 중국인의 집이 되었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청국 상인들은 초창기부터 거주·영업·여행 등에 별로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조선인과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청상(淸商)들은 식물수입상·외래품 잡화상·포목상·잡화물 행상 등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천부적인 상업적 수완으로 일본 상인들은 물론 조선 상인들까지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청국인들이 한성에 거류하기 시작한 지 3년도 못 되어 그들만의 독자적인 회관(會館)을 지을 만큼 급속히 성장하였다. 청국 상인들은 홍콩이나 상해에서 수입한 서양의 면직물, 중국의 비단, 한약재 등을 주로 판매했고, 조선에서 인삼과 소가죽, 해산물 등을 구입해 중국에 수출했다. 이렇게 하여 중국 상인들이 서울의 상권을 장악했다. 10년 뒤인 1893년에는 1,254명의 청국 상인들이 서울에 거주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청국 상인 중에 담결생(譚傑生, 1853~1929)이 세운 무역상사 동순태(同順泰)는 조선 정부에 은 20만 냥을 빌려줄 정도로 위세가 컸다.

1883년에는 초대 주한 상무위원 진수당(陳樹棠)이 현재 중국대사관 자리의 6,500평의 대지를 2천 냥에 사들여 집을 지어 공관으로 사용하였고, 뒤이어 고종 22년(1885) 10월 11일에 원세개가 총리교섭통상사이라는 직함으로 두 번째 상무위원으로 왔을 때 그의 관



조선 말의 청국 상회와 차이나타운

사도 명동 땅에 잡았으므로 청나라 상인들은 원세개의 위력을 업고 서울에서의 상권을 확대해 갔다.

원세개는 조선의 내정 인사문제까지 간섭하는 등 10여 년간 조선 조정을 위압하면서 온갖 세도를 부렸고, 상무공서를 개축하여 이를 총리아문(總理衙門)이라 불렀다.<sup>32)</sup> 이 당시 청국공관의 면적은 6,400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가 있을 때마다 산둥반도에서 떼를 지어 몰려 들어온 중국 노동자들, 속칭 ‘쿨리’ 또는 ‘유용(游勇)’들의 횡포도 겹쳐 한국인의 반발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겁탈·절도·방화·패싸움 등을 서슴지 않았다.

원세개는 청나라 상인의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성공했고, 한편으로 밀수를 통하여 서울의 수입상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나라 상인들이 원세개의 위력을 업고 도성 안팎의 중요한 곳을 잠식하면서 상권을 확장해 나갔으므로 한국인들과 분규가 자주 일어났다. 원세개를 따라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 가운데 광둥지방 출신을 ‘광둥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소공동 일대에 터전을 잡았다. 이들이 일본 상인들보다 급격

히 상권을 확장해 간 이유는 원세개가 청나라 상인들을 지원한데다가 일본 사람보다 신의가 있었고, 중국 특유의 느긋하게 장사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호감을 산 이유에서였다.

또한 청국 상인들은 서울에서 동전을 모아들여 물가를 조종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도 했고, 서울사람들의 일용품을 공급하는 새벽시장인 남대문·동대문 조시(朝市)에도 뛰어 들었다. 이로써 고종 28년(1891)에는 청국 상인의 노점 100여 개가 남대문으로부터 종로를 거쳐 동대문에 이르는 사이에 자리 잡음으로써 조시(朝市)든 도성 내의 행상이든 이익이 있는 곳은 추호도 남기지 않았다.

1929년 『별건곤』 서울편은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성 남대문의 조시(朝市)는 문의 내외 겨우 2, 3정(町) 사이에 열리는 것으로 노점을 내는 데는 일청한(日淸韓)의 각상(各商)이 있다. 청일전쟁 전에는 새벽부터 인마의 출입이 빈번하여 그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일청한의 친목론도 이에 이르러서는 호말(毫末)도 그효(效)가 없이 피아간에 항상 자리다툼이 그칠 때가 없다. 더우기 근래 한상(韓商)과의 싸움은 조금 감소되었지만, 일청 양상인의 항쟁은 날로 더 심해졌다.

원래 대로상의 노점이기 때문에 미리 장소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빨리 점취한 것이 이기는 셈인데, 청상 등은 일본상인이 이미 점취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노점 앞에 점포를 펴고, 일본상인의 점포를 막아서 매객(買客)이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며, 만약에 그 부당성을 힐난하는 자가 있으면 완력을 휘두르려는 기세이다.<sup>33)</sup>

고종 24년(1887)부터 고종 26년까지 청국인 상점에 잇따른 방화사건이 일어나 피해가 크자 원세개는 청나라 상인들의 자위경방(自衛警防)에 대한 강화책을 세우고,<sup>34)</sup> 조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청국 상인들을 수표교 지역과 덕수궁 남동쪽 및 남서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였다. 원세개가 청나라 상인의 이익에 앞장서, 만약 조선인 소유의 토지가옥을 청국인이 매수하려 할 때 조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국의 총리아문이 직접 순경을 파견하여 조선인을 강제 퇴거(退去)시키는 폭력까지 예사로 일삼았다.<sup>35)</sup>



조선의 내정에도 광범위하게 간섭했던 원세개

서소문로 일대도 청나라 사람들의 집단 거류지가 되어 ‘중국인촌’으로 불렸다. 일제 때 이 거리를 지나려면 호인(胡人) 냄새로 지나가는 행인의 비위가 거슬릴 정도였다. 오후에는 이 거리에 아편 피우는 냄새까지 풍겨 나오는 아편굴이었다고 하며, 어린 소녀를 납치해 오면 7~10원에 사서 인천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인신매매범들이 많이 거주하는 무서운 마굴(魔窟)로 알려졌다.

그러나 1894년 6월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청국 상인들은 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참고로 1895년 9월 당시에 『일한통상협회회보』의 내용을 보면 수표교통

의 청국상점은 16호, 동대문 쪽의 청국상인은 23호로서 도로의 북쪽을 점유하였고, 남대문로와 종로의 수표교간에 있는 청국상점은 모두 45개소였다. 그 외에도 구리개에 유명한 무역상사 동순태(同順泰)를 비롯하여 정동에 잡화점, 남대문로와 다른 곳에 청국인 상점이 있었다.

당시 청일전쟁으로 많은 청국상점들이 폐점하였는데 전쟁 5년 뒤인 광무 3년(1899)에 청국공사관이 서울에 다시 자리 잡자 청국 상인들이 속속 서울에 들어와 3천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다시 일본 상인들을 누르고,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제침략기 이후에는 그 수가 다시 줄어들어 1910년 말 당시 서울의 청국상인 수는 519호 1,828인으로 나타났다.<sup>36)</sup>

## 10) 청나라 무역상사, 동순태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 사는 중국인 화교(華僑)를 ‘비단장수 왕(王)서방’이라고 빗대어

불렀다. 이는 화교 경제력의 바탕이 ‘장사’였기 때문이다. 뛰어난 상술로 우리 경제를 휘어잡았던 화교는 시대변천에 따라 업종을 바꿔가며 부침(浮沈)을 거듭했다.

1893년에는 청국 상인들 1,254명이 서울에 거주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당시의 도성 안에서는 조선의 무역계를 주름잡는 거상(巨商)들이 약 20~30개에 달하였으며, 그 상세(商勢)도 대단하였다. 동순태(同順泰)가 처음 2천여 평의 땅을 사들여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한 곳이 바로 현재의 유네스코회관이 자리한 명동2가 82번지 일대였다. 그 후 중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명동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1923년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는 6,000명가량이었다.

담걸생은 청계천 수표교에서 약장수로 시작해 거부가 된 화상(華商)으로 화교 상인의 대표자였다. 담걸생은 20세 때 상해로 진출하여 처남이 세운 동태호(同泰號)에서 인턴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해관(海關)에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1880년대 초 인천으로 들어와 개성상인 손경문(孫景文) 상점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담걸생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원세개 등 청국 관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화교 무역상들은 상하이, 홍콩, 텐진에서 영국산 면포와 서양 잡화, 중국산 비단 및 한약재를 수입 판매했고, 조선에서는 인삼, 금, 곡물, 소가죽, 해산물을 구입하여 청나라에 수출하였다.

조선 말에는 동순태가 25냥, 50냥, 100냥, 500냥, 1,000냥짜리 정액제 어음을 발행한 개인 어음(於音)이 지폐로 유통된 일이 있었다.<sup>37)</sup> 또한 원세개는 동순태로 하여금 1892년 조선 정부에 은 10만 냥을 빌려 주어 작은 기선(汽船) 2척을 사들여 화한륜선공사(華韓輪船公社)를 설치케 하고, 기선 운수를 독점하기 위해 한강을 거슬러 올라 다니면서 상품을 운반하게 했다.<sup>38)</sup> 1892년 조선이 인천 해관(海關)의 수입을 담보로 청나라의 차관(借款)을 얻고자 할 때, 이 차관 제공의 명의자도 동순태였다. 이것이 이른바 ‘동순태호 차관’이다. 차관 명의를 빌린 것은 조선 정부가 국내 반청 여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동순태호 차관의 상환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탁지부는 1895년 청나라의 엔타이에 나가 있던 과전관에게 삼세은(蔘稅銀), 즉 홍삼세로 거둔 은화를 차관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일제 때 서울의 중국 화교들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는 동순태의 담걸생으로 황



●啓者本號於廿三晚接來電傳售出  
九月份江南票第二萬二千三百八十  
一號中一等彩得銀四萬圓故特登報  
使各週聞可知本號歷來售出之票居  
多中式今竟然得中大彩惟願買票者  
其圖致富尙望於將來與本號有生光  
之致十月份彩票約日間可到如欲爭  
奪彩魁者請早來購爲望  
銅觀同順泰 謹啓

동순태의 복권 판매 광고

금정 2정목(을지로2가)의 8,626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1923년에 앵정정(櫻井町)의 동순태가 화재로 불에 탔지만, 동순태가 소유한 땅값은 160,000원인데, 잡종지도 아니고 금값의 집터이므로 그 위에 지은 건물 값만 하여도 실로 놀랄만한 재산이었다.<sup>39)</sup>

1924년 동아일보는 담걸생을 경성부 시민 중에서 최고 납세자라고 소개한 바도 있다. 그가 낸 토지세, 가옥세는 2위인 일본인 납세자보다 각각 213%와 350%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1924년 8월 12일자 「동아일보」는 동순태가 은행 부도(不渡)를 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성에서 토지와 가옥을 만히 갖고 중국인 부호로 유명한 동순태의 담걸생(譚傑生), 담정곤(譚廷琨)은 부도수형(不渡手形)의 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은행거래정지를 당하였다.

▽ 인천과 경성에서 주식 중매점(株式仲買店)을 경영하고 자기가 왕(往)히 시세를 농락하다가 실패한 것이 최대 원인이겠지 마는 여사(如斯)히 된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동기가 있는 모양이라 한다.

▽ 일시에 5백만원의 재산가로 명치정 일대를 점령하고 각 은행가의 고두(叩頭)를 밟은 것은 일장의 춘몽으로 화하고, 4천원 미만의 돈으로 상인의 사형선고라는 거래정지를 부자(父子)가 일시에 당하게 되었다

▽ 이것은 비극이라 할가? 희극이라 할가?<sup>40)</sup>

서울의 큰 부호였던 담걸생이 은행부도를 내어 몰락해가는 것을 충격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동순태의 은행 부도를 보도한 그 이튿날 신문은 담걸생의 아들 정곤(廷琨)과 정립

(廷琳)이 가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홍삼과 아편을 밀매하던 것을 그 집의 조선사람 점원이 경찰부에 밀고하여 체포되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 11)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상영지

우리나라에서 활동사진(영화)이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은 없다. 그러나 최초로 상영된 장소는 구리개로, 현재 을지로1가 네거리 근처에 있던 전 한성은행 자리인 한미연초회사 창고였다. 일반 대중에게 영화가 처음 상영된 시기는 “한성전기회사 기계창에서 활동사진을 상영한다.”는 광고가 1903년 6월 23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사실을 근거로 하여 1903년 6월 전후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성전기회사가 전차(電車)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영화를 접하기 전에 활동사진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

1897년 10월 19일자 「런던타임스」에는 “중국인의 가건물 한 개를 3일간 빌려 활동사진을 상영했다”는 기사가 실려 일본인 거류민을 상대로 본정좌(本町座)에서 활동사진이 상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1899년 미국인 여행가 버튼 홈스 일행이 고종 황제에게 활동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기행문이 남아 있지만 전문가마다 각자 최초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한성전기회사 기계창에서는 50척~1,200척의 필름으로 풍경과 화차(火車: 기차) 등을 보여주고, 관람료는 빈 담뱃갑을 받았다. 처음에는 한 갑을 받다가 나중에 인기가 오르자 10갑까지 받았다. 당시 일반 관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너무도 신기하여 스크린을 들춰보기까지 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황성신문」 1903년 6월 23일자에는 “동대문 내 전기회사 기계창에서 시술하는 활동사진은 일요 급(及) 음우(陰雨)를 제하는 외에는 매일 하오 8시부터 10시까지 설해(設解)되는데 대한 급(及) 구미각국의 생명도시 각종 극장의 절승한 광경이 구비(具備)하외다. 허입요금(許入料金): 동화 10전”이라고 하였다.

한성전기회사에서 당시 설령탕 한 그릇 값인 10전의 입장료를 받고 상영한 활동사진은 하루 100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대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1903년 7월부



한성전기회사 본사

터는 판소리 등 전통 연희 공연장인 협률사(協律社: 원각사의 전신)에서도 활동사진을 상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07년에는 최초의 전문 상영관인 단성사가 개관되었다.

충무로가 영화의 발상지로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06년 경성부 진고개(泥岬) 부근의 송도좌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을 효시로 1910년에는 을지로입구 부근의 ‘경성고등 연예관’이 본격적인 영화관으로 흥행을 하게 되었다. 1913년에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한일합방 5주년’을 기념하여 경복궁 경회루를 중심으로 공진회(共進會)를 열었다. 일제는 일본상품의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橋頭堡)로써 천승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한 후 공진회가 끝나자, 그 건물을 헐고 을지로4가 164번지 국도극장 자리(현 베스트 웨스턴 국도호텔)에 다시 세웠는데 이것이 황금관(黃金館)이다. 또한 황금유원이란 오락장도 같이 세움으로써 일제는 지배자를 과시하여 한국인의 적개심을 유화정책으로 다루려는 속셈이었다.<sup>41)</sup> 황금관 영화관은 1930년대 후반에 자취가 사라졌다.

## 12) 사설 수도가 부설된 을지로

광무 7년(1903)에 미국인 콜브란(H. Collbran)과 보스트윅(H. R. Bostwick)에 의한 상수도사업 특허신청이 한국정부에 제출되었던 시기와 같은 해 2월에 일본인 하야시다(林田)·사카모토(坂本) 두 명이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전용 급수할 목적으로 사설 수도(私設水道) 부설허가원(敷設許可願)을 일본영사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상수도는 콜브란·보스트윅보다 몇 년 앞서 일본인 거류지역의 사설 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고개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을지로2·3가, 퇴계로 2·3가, 남산동, 필동 지역에 집단거주하던 일본인들도 초기에는 우물을 파서 음료수 등 생활용수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물물은 냄새가 나고 염분이 많아 음료수로는 부적합했다.

일본인들은 남산의 계곡 다섯 군데를 막아서 수원지로 하고, 수원지 → 우물 → 여과지(濾過池) → 저수지 → 급·배수의 계통을 취하였다. 이 사설 수도는 “한국정부의 자체사업 또는 그 특허에 의하여 경성 전지역(全市域) 또는 그 일부지역에 상수도사업이 실시될 때 아무런 이의(異議)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10년 기한의 특허가 났다.<sup>42)</sup>

특허출원자들은 허가를 받은 3개월 후부터 기공하여 1903년 7월 말까지 제1기 공사를 끝내고,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이 공사 이후의 급수량·급수가구수(給水家口數)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나 투자 자금이 4,707여원(圓)에 불과하였다고 하니 규모는 보잘 것 없고, 급수량도 적었을 것 같다. 일본인들은 이 물을 음용수로만 썼다고 한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전으로 끝나면서 일본인 내한자(來韓者)가 급증하고,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역의 범위도 늘어나자 사설 수도의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일본 거류민회는 원래 시설자인 하야시다·사카모토 두 사람으로부터 사설 수도의 시설 일체와



20세기 초의 상수도 공사

권리를 매수하고, 이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때 콜브란은 주한미국공사를 통해 일본공사관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항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항의에 대해 일본공사관 측은 '일본거류민의 사설 수도는 자위(自衛)를 위한 자유권적(自由權的) 행위이니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기고 소규모이기는 하나 시설 확장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규모의 시설로는 늘어나는 급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으므로 융희 원년(1907) 11월에 일본 거류민단은 코리안 워터 워크스(Korean Water Works Co.)에 청하여 일본거류민단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동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0,000 갤런의 무상급수와 화재 등의 비상시에 임시급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이 시설 수도가 언제까지 존속되었는가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아마 코리안 워터 워크스의 경영권이 일본 시부사와 재벌(澁澤財閥)의 손을 거쳐 1911년 3월에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자마자 서울시내 수도체계(水道體系)의 일원화라는 명목 하에 사설 수도는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sup>43)</sup>

### 13) 참정대신 한규설의 장교동 집

한규설(1848~1930)은 서울에서 태어나 중구 장교동에 살았는데 일찍이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다. 고종 19년(1882)에는 좌포도대장으로 있었으나 한때 파직되어 유배된 일이 있다. 그러나 곧 복직되어 친군영(親軍營)의 좌영사 겸 전영사(左營使兼前營使)·장위사(壯衛使) 등의 무관직을 거쳐 형조·공조 판서에 올랐으며, 고종 26년(1889)과 고종 27년, 두 차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지냈다.

고종 27년(1890)에 서울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이 종로 일대에 점포 개설을 요구하자 종로 상인들이 이에 항의하여 1차·2차에 걸쳐 상점문을 닫고 진정, 시위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는 우포도대장으로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종로 상인들의 2차 시위 때 고종의 밀명(密命)을 받아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상인을 선동하여 일본 상인의 종로 진출을 막았다는 청나라 측의 기록이 있다.

이후에도 한규설은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의정부 찬성 등을 역임하고, 1905년

참정대신(參政大臣)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이 해는 을사년으로 포츠머스조약에서 한국에서의 우월권을 확보한 일제는 특명전권대사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이른바 한일신협약이란 미명 아래 을사늑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토가 주한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 및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헌병을 동원하여 궐내로 들어와 어전(御前)에서 각료들에게 조약의 가부(可否)를 물었을 때 한규설은 무조건 불가(不可)를 주장했으므로 곧 일본헌병에 의해 감금되고 파면되었다. 그는 일찍이 척족정치(戚族政治)에 대해서도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나 나라의 흥망과 관계된 일에 대하여는 굽히지 않았다. 이후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의 정부에서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을 지냈으나 정치 일선에는 나서지 못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때 일본에 의해 남작(男爵)이 수여되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은거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

노년기인 1920년에 이상재(李商在) 선생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창립하고, 이를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期成會)로 발전시켰다.<sup>44)</sup>

#### 14) 상설 영화관, 경성고등연예관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옆 자리인 을지로(황금정) 63통 7호에 자리 잡았던 경성고등연예관(京城高等演藝館)은 1910년 2월 18일에 개관한 조선 최초의 상설영화관이다. 이에 앞서 협률사(1902년), 광무대(1907년), 단성사(1907년), 원각사(1908년) 등에서도 영화를 상영했지만 순수 영화 전용극장은 경성고등연예관이 최초였다. 당시 경성고등연예관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영화배급사였던 K다이아몬드사와 관련 있던 가네하라 긴조(金原金藏)였다.

경성고등연예관의 내부는 이른바 ‘기석’(奇席)이라는 일본식이었고, 2층은 다다미, 아래층 객석은 긴 의자를 배치하였다. 600여 명이 입장할 수 있는 목조 2층 양식 건물로 외관이나 내부 설비를 현대적으로 구비하였다. 또한 ‘요시자와(吉澤) 상점’에서 활동하던 일



본인 영상기사를 고용하고 프랑스 ‘파테회사’의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현대적 시설을 갖춘 경성고등연예관의 입장료는 다른 극장들에 비해 높았는데 특등석은 1원을 받았다. 이 요금은 극장 입장료로서는 가장 비쌌지만 경성고등연예관은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경성고등연예관의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거리가 되자 고종 황제가 이들을 궁내로 초대해 정부 관리와 황실 인사들과 함께 활동사진을 관람하고, 극장주(劇場

主)에게 하사금을 주어 격려하기도 했다. 황제가 일반극장의 영상시설을 궁내로 불러들여 활동사진을 관람하고 극장 주인에게 하사금까지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경성고등연예관은 당시 서울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1912년 7월에는 『매일신보』의 평양지국 개설을 기념하는 활동사진 상영회를 평양에서 열기도 했는데, 이 행사 역시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는 사실이 당시의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경성고등연예관 측은 지방순회 상영을 시도함으로써 영업의 범위를 넓혀나가기 시작했지만 그 같은 순회상영은 1912년 8월의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사망을 계기로 곧 중단되었다.

경성고등연예관의 존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11년 8월경에 서울에서 활동사진 장비의 판매와 활동사진 제작, 극장운영 등의 사업을 시작한 금원상회(金原商會)가 경성고등연예관을 매입함으로써 이 상회의 ‘연예관’에 흡수되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사진 상영극장으로 운영되다가, 1912년 7월 말경에 구리개 일대의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 일부가 헐리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을지로(황금정) 3번지로 장소를 옮겨 다시 신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극장은 1913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관하고 영업을 계속했으나 이듬해인 1914년 운영권이 다시 ‘대정관’(大正館)으로 넘어갔다. 경성고등연예관을 사들인



활동사진을 상영한 대정관 개관 광고

대정관은 이를 ‘제2대정관’으로 개명함으로써 ‘경성고등연예관’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제2대정관’은 조선인을 상대로 운영되었으나, 대정관과 우미관 극장주들 사이에 사업적 협상이 맺어짐에 따라 ‘제2대정관’은 다시 ‘세계관(世界館)’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영업 대상도 일본인을 주로 상대하는 극장으로 바뀌었다.<sup>45)</sup>

## 15) 조선 말 구리개의 신태화 은방

신태화(申泰和)는 화신상회(和信商會)를 창립한 인물이다. 그는 가세가 기울자 1899년 13세 때 종로의 김봉기 은방에 직공으로 들어가 7년간 일한 40원을 밑천으로 19세에 구리개에 작업장을 빌리고, 작은 풀무 하나를 사서 금은세공에 착수하였다. 작은 은방이므로 한쪽에서 작업하고 다른 쪽 공간에서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은방은 비교적 잘 되었고, 갑오개혁으로 전당포가 다수 생기자 은방은 전당포에서 나오는 귀금속을 헐값으로 사들여 세공·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신태화는 1900년경 직접 전당포를 경영하여 은방이 잘 되었다.

자금을 축적한 신태화는 1908년 김연학과 8,000원의 자본금으로 신행상회(信行商會)를 세워 구리개에서 금은세공품, 그릇, 패물 및 장식품, 은제 문방구 등을 제조하였다. 3년 뒤인 1911년에는 자본금 15,000원에 기술자 3명, 직공 20명을 두었다. 공장은 건평 20



신태화가 설립한 화신상회

평, 생산액은 3만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였다. 1916년에는 생산액이 6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김연학의 아들 김석규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1918년 3월 10일 10년간의 동업을 해제한 뒤 신행상회의 본점을 김석규에게 넘기고 종로지점으로 분립하여 화신상회를 세웠다.<sup>46)</sup>

화신상회는 금은세공품과 양

복부, 일반 잡화부를 두어 백화점 형태를 갖추고 영업하다가 1931년에 화신백화점을 세운 박흥식(朴興植)에게 인계되었다.

## 16) 전통연희 전문극장, 광무대

광무대(光武臺)는 융희 1년(1907) 5월에 설립된 을지로4가에 위치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극장이다. 처음에 한성전기회사 전차 차고를 개조하여 만든 공연장으로 1903년부터 활동사진 상영으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 「황성신문」의 광고문은 다음과 같았다.

동문 내 전기회사 기계창에서 시술(施術)하는 활동사진은 일요(日曜) 급(及) 음우(陰雨)를 제한 외에는 매일 하오 8시로 10시까지 설행(設行)하는데 대한 급 구미 각국의 생명도시 각종 극장의 절승(絶勝)한 광경이 구비하되다. 허입(許入) 동화(銅貨) 10전.<sup>47)</sup>

1906년 당시 명칭은 ‘전기회사 활동사진소’였으나 이듬해 6월부터 ‘광무대’라고 극장명을 붙이고, 연극을 주로 공연하였다. 광무대의 창립 공연은 1907년 5월 28일로 먼저 활동사진을 상영한 후 〈춘향가〉를 창극으로 공연하였다. 그 후 낮에는 뚝섬 놀랑패(경기와 서도의 선소리패)와 소리패들이 공연하였고, 밤에는 서양의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 융희 2년(1908) 9월 6일 이 시기 최대 흥행사였던 박승필(朴承弼)이 전기철도회사로부터 광무대를 임대하면서 본격적인 전문 공연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박승필은 다른 극장들이 영화와 신파극을 공연하던 것과는 달리 전통적 판소리와 창극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로 판소리·창극·고전무용 등을 공연하였다. 이로써 광무대는 전통연희 전문극장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경술국치 후 1913년에 광무대는 와샤전기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어 이 회사가 사업 확장을 하면서 광무대 건물을 차고(車庫)로 사용함에 따라 1913년 5월에 폐관되었다.

박승필은 1913년 을지로3가 근처에 있던 황금유원지 안의 일본인 소유 극장 연기관을 임대하여 다시 광무대라고 칭한 뒤 공연을 재개했다. 1910년대 중반에는 시대 추세에 따라 활동사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단성사(團成社)를 인수하여 영화관으로 개관하기도 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신파극이나 신파극단체에도 대관하였고, 1925년 4월 초부터 1년간 토월회(土月會)와 전용 대여계약을 맺고 대관하기도 했다. 토월회는 조선의 고대 소설과 전설을 재료로 하여 이를 현대극으로 만들어 상연하고, 신파극도 가끔 흥행하였다. 토월회는 1925년 8월 17일부터 「장한몽」 후편을 상장하여 일주일간 공연했는데 조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민중예술을 위하여 입장 요금을 종전보다 감액하였다.<sup>48)</sup> 그러나 1926년에 토월회



광무대 극장주 박승필

가 파산하자 광무대는 연극·영화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여함으로써 특성 없는 극장이 되었고, 1927년 광무대 운영권을 이어 받은 박승배(朴承培)는 전통 연희 외에 서양춤·곡예·노래희극·가무극 같은 새로운 볼거리로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무대는 1927년 2월 3일부터 15일간 전국 씨름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28년 10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당시 올린 공연물들은 신파극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야금병창·검무·경성좌창(京城座唱)·남도입창(南道立唱)·단가(短歌)·댄스·독창·서도입창(西道立唱)·성조가·소극(笑劇)·수심가·승무·줄타기·철봉·평양다리굿·활극(活劇)·희극 등을 공연하였다.

아쉽게도 광무대는 1930년 5월 2일, 한 소년의 실화(失火)에 의해 전소되었다.<sup>49)</sup>

## 17) 청나라 오장경 수사제독을 모신 정무사

1885년에 고종은 청나라 오장경(吳長慶) 수사제독(水師提督: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공로를 칭송하고 희생당한 청나라 군사를 기리고자 하도감 한쪽에 정무사(靖武祠) 사당을 세웠다. 융희 2년(1908) 7월에 궁내부는 제사를 폐하고 1909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오무장공사(吳武壯公祠)로 개칭하였다. 이 사당은 청국영사관에서 보호 관리하여 계속 제사를 지냈다. 이로 인하여 전일의 동대문야구장 뒤 동남쪽 모퉁이 고지대(현재 지하철공사 별관)에 오무장공사와 오무장공거사비(吳武壯公去思碑)가 1958년까지 세워져 있

었다가<sup>50)</sup> 연희동의 한성화교 중·고등학교 내로 이전하였다.

## 2. 을지로에 있었던 관아들

### 1) 변경 국방을 담당한 체찰사부

체부청(體府廳)은 1·2품의 고관인 체찰사(體察使)가 있는 체찰사부(體察使府: 정1품)를 일컫는 관아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상설기관이다. 광해군 때 폐지하지는 의견을 무릅쓰고 대신(大臣) 가운데 인재를 가려 임명해서 변경 방위를 강구하도록 하였다.<sup>51)</sup> 『한경지략』에는 “체부청동은 동현(銅峴) 안 왼쪽에 있는데 조선 후기 현종(1659~1674년) 때 체찰사부를 이 동에 설치하였다.”<sup>52)</sup>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말 출간된 『동국여지비고』에는 “현종 때 허적(許積)이 동현에 체찰사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동현에 체부청동이 있게 되었다.”<sup>53)</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체찰사부는 조선 중기까지 구리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체찰사부는 창설 당시에는 경복궁 서쪽 일대에 세워졌으나 광해군 이후 일시 폐지되었다가 현종 때 구리개에 재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영조 46년(1770)경에 그린 「한양도성도」 등 여러 고지도에서 체부청동이 경복궁 서쪽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체찰사부는 현종과 영조 연간 지금의 종로구 체부동 지역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서민 치료를 맡았던 혜민서

혜민서는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은 일과 함께 의학생도의 교육도 관장하였던 조선 시대 관아로 중구 을지로2가 101번지 부근에 있었다.<sup>54)</sup> 태조 때 고려의 제도를 이어 받아 혜민국이라 하다가 세조 12년(1466)에 혜민서로 고쳤다.

혜민서와 관련된 것으로 ‘약방기생(藥房妓生)’을 빼놓을 수 없다. TV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 시대에 여자도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조선 시대는 유교 관습으

로 남녀가 유별했으므로 궁중의 비빈(妃嬪), 궁녀 및 고위직의 부인들이 비록 중병에 걸렸더라도 남자 의사가 직접 진맥을 할 수 없었다. 즉, 휘장을 치고 팔만 내밀어 진맥을 하거나 손목에 실을 매어 문밖에서 진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병을 정확하게 진찰할 수 없어 태종 6년(1406) 검교 한성윤 지제생원사 허도가 건의하여<sup>55)</sup> 동녀(童女)나 영리한 기생 70여 명을 뽑아 혜민서에서 의술을 가르쳐 의녀(醫女)로 내보냈는데 이들을 흔히 ‘약방기생’이라고 하였다.<sup>56)</sup>

조선 후기에 이르면 혜민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도성민들에게 약재를 공급했던 제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18세기경 서울은 상업 발달로 많은 의원들과 약국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약 파는 사람들을 봉사(奉事)라고 하였다. 서울의 사대부들과 평민들은 의원으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복용할 수 있었으므로 초보적인 의약 분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혜민서 부근에서 약재를 팔고 의료 행위를 하던 의원들은 재력을 가진 중인계층의 신흥 부호로 등장하여 서화(書畵)의 감상과 소장(收藏)에 관심을 갖고, 화가를 후원하거나 그림을 구매하던 수요자가 되었다.<sup>57)</sup>

### 3) 국악인을 양성했던 장악원

을지로입구, 현재 KEB하나은행 본점이 세워진 곳에는 조선 시대 5백 년간 음악을 가르쳐 악공(樂工)을 길러 내는 장악원(掌樂院)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전일에는 이 부근을 장악원동이라 불렀다. 장악원은 6조(六曹) 중 예조(禮曹)에 속하여 예조에서 맡아하는 모든 궁중의식에 따른 음악과 무용을 제공하였다. 궁중의식으로는 종묘, 문묘, 사직 등의 제례(祭禮)의식과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조회(朝會)하는 의식, 그리고 궁중잔치인 연향(宴享), 외국사신을 접견하는 대사객(待使客)의식이 있었다.

장악원은 장악서(掌樂署)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성종 1년(1470)에 이와 같이 제정된 이래 국립음악기관의 명칭이 되었으나 시대에 따라 이원(梨園)·연방원(聯芳院) 등으로 불렸다. 원래 이 관아는 성종의 특명으로 한성부 서부 여경방, 태상시(太常寺) 동쪽의 민가를 철거하여 세웠다. 이곳에는 넓은 뜰이 있어서 문무백관들이 음악에 맞추어 왕에게 조



하(朝賀)하는 의식(儀式)을 연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장악원이 불타버렸으므로 이곳 구리개로 옮긴 것이다.

조선 초 성종 때에는 장악원의 악공과 악생(樂生) 971명을 두었으나 임진·병자 이후에는 이를 줄여서 641명이 되었다. 악공과 악생이 결원되면 전국 8도에 고르게 배정하여 충원하는데 악공은 노비, 무당의 자손에서 뽑고 악생은 상인 자식들 중에서 선발한 뒤 취재(取材)시험을 치러 합격시켰다. 그 중에 15명의 맹인(盲人)이 소속되어 있었다. 연산군 때에는 장악원에 관원을 증원하여 많은 기생과 악공(樂工)을 교육시켜 자신의 향락을 위한 기구로 운영하였으나 중종반정 후에 환원시켰다.<sup>58)</sup>

장악원에는 보통 3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곳에 장악원을 특별히 설치한 까닭이 있다고 한다. 『한경지략』에는 “풍수설에 따르면, 이곳은 터가 세고 불길한 곳이므로 특별히 장악원을 세우면 사람들이 걱정 근심으로 생긴 답답한 마음을 풀게 할 수 있다.”<sup>59)</sup>고 하였다. 날마다 노래 소리가 들리니 어떻게 마음이 불쾌할 수 있겠는가.

조선 말 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군 1개 대대가 도성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일부가 장악원의 악생들을 내쫓고 주둔하였다. 즉, 임오군란으로 쫓겨 갔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는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개 대대 병력을 끌고 도성에 들어와 장악원을 일본군의 주둔 장소로 사용하였다.

장악원은 조선 말 1895년 갑오개혁 때 정부기구의 개편으로 예조로부터 궁내부의 장례원(掌禮院)으로 옮겨져 축소되었는데,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교방사(敎坊司)로 개칭되면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왕실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고종 황제가 퇴위된 1907년에는 장악과(掌樂課)로 축소 개편되었고, 인원도 반 이하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세습직이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폐지되어 악원(樂員)들을 공모하여 교육시켰다.<sup>60)</sup> 1910년경에는 장악과 소속의 음악인들이 아악대(雅樂隊)라는 명칭으로 명맥만 유지하였다.

러일전쟁(1904)이 발발하자 다시 일본군이 장악원에 주둔함으로써 장악원은 조동의 주택으로 옮겨졌다가 중립동의 장혜원 자리로 다시 이전하였다. 장악원 자리에는 조선 말~일제 때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가 들어섰다. 동양척식회사 건물은 르네상스식에 일본의 건축양식을 가미한 건물로 목조 2층의 연건평 2,446평인데 1911년 봄에 착공, 가을



〈이원 기로회 계첩 좌목(梨園耆老會契帖座目)〉. 영조 6년(1730) 4월 13일 장악원에서 벌어진 기로연의 광경을 그린 그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에 완공된 것으로 건축당시만 해도 꽤나 유명했다.<sup>61)</sup>

경술국치 후 1911년 2월에 장악원의 후신으로 이왕직 아악부(李王職雅樂部)가 설치되어 국악 교육을 맡았고, 광복 후 1961년 4월 10일에는 국립국악원으로 개원되었다. 1991년 4월 10일에 국립국악원 개원 30주년으로 이왕직 아악부 1기생(5년 과정)에서부터 4기생까지의 수업 광경과 연주회 모습 등 235점의 사진을 국립국악원 소극장 지하휴게실에서 전시하기도 하였다.

#### 4) 외교문서를 정서했던 사자청

신한은행 본점 뒤편, 남대문로1가와 삼각동 사이에 조선 시대 관아인 규장각,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사자청(寫字廳)이 위치하여 이곳을 사자청동이라고 했다. 사자청은 승문

원에 속한 관아로 주로 중인(中人)들이 사자관(寫字官)으로 뽑혀 외교문서와 자문(咨文)·어제(御製)·어람(御覽)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였다.

사자관들은 대개 중인 중에서 품행이 바르고, 사학(寫學)에 능한 사람들이 뽑혀 규장각에 8명, 승문원에 40명이 소속되었는데 외국사신 사행(使行)에도 수행하였다.

## 5) 군수물자를 조달했던 양향청

저동1가 1번지, 지금의 중부세무서 자리에는 훈련도감에서 소용되는 의복·무기·비품 등의 물품을 조달하고, 급료 등의 재정을 관리, 운영하던 양향청(糧餉廳)이 있었다.<sup>62)</sup> 양향청은 선조 27년(1594)에 훈련도감의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양향청에는 9개의 창고가 설치되어 돈·쌀·귀중품·문서 등이 각각 하나의 창고에 보관되었고, 5개의 창고는 예비로 비워두었다. 양향청의 재원은 주로 황무지를 불하받아 개간한 토지 및 죄인들로부터 적물(籍沒)한 전답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수입으로 마련되었다.<sup>63)</sup> 양향청에는 특히 신당(神堂)을 부설하고, 중국 촉한의 관우(關羽) 신상을 모셔 놓았다.

양향청이 1884년에 폐지된 후 이 자리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 전매국 인쇄부로 사용하였으며, 다시 경성세무서에서 사용하다가 중부세무서 자리로 이어져 오고 있다.

## 6) 훈련도감의 영사인 하도감

하도감(下都監)은 조선 시대 훈련도감의 한 영사(營舍)로 남부 명철방(明哲坊)의 훈련원 동쪽,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자리에 있었다.

훈련도감(일명 訓局)은 임진왜란 때인 선조 26년(1593) 8월,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18세기에는 상설기구로서 5군영의 하나가 되었으며, 궁성 수비 및 서울의 방어를 맡았다. 하도감이 설치된 것은 상설기구로 변모한 이후에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도감의 규모가 커지면서 북영(北營), 남영(南營), 신영(新營), 하도감, 북일영(北一營), 서영(西營) 등의 영사를 두었다.



하도감 터(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하도감은 건물 규모가 390칸으로 조선 말에 와서 신식군대인 교련병대(별기군)의 훈련장이 되었다. 교련병대가 특별히 우대된 것에 비해 구식 군인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대우가 극심하자 이에 격분한 군인들이 5일 뒤 6월 5일에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일으켰다. 이날 무위영(武衛營) 소속의 군졸들은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고, 인의동의 동별영으로 달려가 무기고를 탈취하여 좌포도청(종로3가 단성사 자리)을 습격하였다.

구식 군인들은 동료를 석방하고 동아일보사 자리에 있던 우포도청과 전옥서(서린동 24번지) 감옥을 습격하여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서대문 밖의 경기감영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다음 근방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공사관을 습격하고, 다른 일대는 강화유수 민태호를 비롯한 척신(戚臣)들의 저택을 파괴하였다.

또한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남쪽의 하도감에서 훈련을 받던 교련병대를 습격하여 교관으로 있던 호리모토 소위를 비롯한 일본인들을 살해하였다. 1882년 6월 10일에는 수천 명의 난군들이 창덕궁에 침입하여 피신해 있던 민겸호·김보현을 참살하고, 명성황

후 민씨를 찾았으나 궁녀로 가장한 명성황후는 홍재희(洪在義)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여파로 1873년 권좌에서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관제를 복귀하는 등 수라장이 되었던 서울은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청나라는 내란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조선의 군사고문으로 와 있던 마건충(馬建忠)이 1882년 7월 10일 청군 200명을 이끌고 남별궁(현 웨스트민 조선평)에 진주하였다. 이어서 오장경(吳長慶) 수사제독(水師提督: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육·해군 5,000명을 이끌고 들어와 동별영에 진을 쳤다가 하도감에 진을 쳤고, 예하부대를 각각 서울의 요소에 배치하였다. 두 달 후에는 원세개(袁世凱)가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오장경군과 합세하였다.

7월 13일 흥선대원군을 막사로 초청한 마건충은 “황제 책봉을 받은 조선 국왕에게서 군란으로 대권을 빼앗고 정적을 내친 것”은 죄가 된다며 청국으로 압송해 갔다. 7월 16일에는 군란 가담자를 응징해도 좋다는 고종의 친서를 받고 구식 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왕십리와 이태원 일대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sup>64)</sup>

그로부터 2년 뒤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고종이 창덕궁을 나와 북관왕묘로 피신하였다. 청나라군이 창경궁 남쪽의 선인문 밖 청나라 통령(統領) 오조유(吳兆有)의 진영으로 파천(播遷)하게 하였다가 다시 오장경 수사제독이 주둔하고 있는 하도감으로 옮겼다. 그 이튿날 고종은 이곳에서 새로 내각을 조각하여 대신들을 임명하고, 이어서 개화파인 김옥균·박영효 등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다음 4일 후에 창덕궁으로 환어했다.<sup>65)</sup>

조선 말에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정부는 서울 5개소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하도감 자리를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피병원(避病院)으로 삼기도 하였다.<sup>66)</sup>

## 7) 조선 시대 무예를 익히던 훈련원

현재 훈련원공원(을지로5가 40-3번지)과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자리는 조선 시대 무인들의 과거시험 장소로서 무예를 익히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의 강습을 맡았던 훈련원(訓練院)이 있었다. 1917년 6월까지도 ‘훈련원’이라고 쓴 현판이 기와집에 달려 있었는데 이곳에 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기와집은 간호부양성소의 건물로 고쳐졌다.





〈북새 선은도(北塞宣恩圖)〉. 현종 5년(1664) 함경도에서 실시된 문·무과 과거 시험을 그린 기록화

조선 건국 초에는 훈련관(訓練館)이라고 했으나 세조 12년(1466)에 훈련원으로 바뀌었다. 애초에 훈련원은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자리에 있다가 세조 때 을지로5가의 훈련원공원과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자리로 옮겼다. 임진왜란 후에 창설된 훈련도감은 현 종묘 옆 세운스퀘어에 자리하고 하도감과 염초청이 전일 훈련원 자리에 들어섰다.<sup>67)</sup>

훈련원에서는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무과(武科)시험을 주관하였는데 서울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70명과 각 도에서 뽑힌 120명을 합한 190명을 병조(兵曹)와 함께 복시(覆試)를 치러 28명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전시(殿試)를 보아 등수를 정하였다.

충무공 이순신이 이곳에서 시험을 보다가 낙마하여 다리를 다쳤으나 곧 옆의 버드나무 꺾질을 벗겨 다리를 묶은 후 다시 말에 올라 달렸다는 일화가 깃든 곳이다.<sup>68)</sup>

『한경지략』에 보면 훈련원은 조선 개국 초에 처음 설치하고 무과시험과 무예에 관한 재주, 즉 무재(武才)를 연습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였다. 훈련원 곁에는 연자루(燕子樓)가

있는데, 돌로 만든 기둥이 굉장히 높았다. 무과시험 볼 때마다 훈련원이 1소(所)가 되므로 관원이 이 다락에 올라가 화살을 배부하면 무과를 보러 온 사람들이 다락 밑에 둘러서서 화살을 받았다.

훈련원 주변 공터에 채소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곳에 배추를 심으면 아주 잘 자라서 ‘훈련원 배추’로 유명하였고, 동대문 밖에 큰 채소시장이 서게 되었다. 또한 훈련원 내에 복정, 또는 통정(桶井)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었다.<sup>69)</sup>

훈련원 부근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조선 시대 군인들은 요즘과는 달리 복무기간이 길어 양인(良人) 남자는 대개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軍役)의 의무를 담당하였다. 군인은 일정한 월급이 없었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복장이나 무기도 스스로 마련하였으므로 군복무는 괴로운 의무로 간주되었다.

훈련원은 1907년 한일신협약의 체결에 따라 일본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군대 해산이 이루어져 이 해 8월 1일 오전 11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1,812명의 한국군을 비무장으로 훈련원에 집합하게 하였다. 일본군 기병·보병·공병은 주변을 경계하였다. 해산식에는 일본 군부 협판참장(協辦參將) 이하 일본군 고위층이 참석하여 해산식을 하면서 해산 취지를 알리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 오후 3시에 해산시켰다.<sup>70)</sup>

그러나 군대해산에 분개한 시위연대 제1대대 박승환(朴昇煥) 대대장이 8월 1일 오전 8시에 자결하자 이를 전해들은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무기고를 파괴하고 남대문 부근에서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인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말 1896년부터 매년 봄·가을로 훈련원은 관립소학교와 외국어학교,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운동회는 정부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아서 거행되었다. 이는 일반 학생들의 축제나 운동의 기능보다는 정부가 주최하는 근대적인 국민축제 겸 전시용 행사 성격을 띠었다.<sup>71)</sup>

훈련원은 1905년에 한성고등학교팀과 황성기독교청년회팀이 최초로 야구 경기를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 경기는 1905년부터 관립 한성고등학교에서 다카하기라는 일본인 체육교사가 가르친 팀과 2년 선배인 황성기독교청년회팀 간의 시합이었다.<sup>72)</sup>

서울에 자전거가 등장한 것은 1880년대 중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전보였고, 1898년에 윤치호가 자전거를 타고 종로네거리에 왔다는 기록이 있다. 1907년 6월에 한일자전거





1900년경의 훈련원 전경

상회 주최로 자전거경기대회가 훈련원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1910년 훈련원에서 개최된 자전거경기대회에서 늘 우승하던 일본인 선수들을 물리치고 엄복동 선수가 우승한 것이다.<sup>73)</sup>

훈련원은 일제침략기인 1920년에 서커스 공연장으로도 사용되었다. 경성에 온 이태리 서커스단 일행 80명은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훈련원에서 공연하였다. 이 일행은 종래의 곡마단보다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코끼리의 통 굴리기, 원숭이의 묘기 외에 그네를 이용한 공중비행술과 철사 줄 위에서 ‘댄스’를 추는 등 각종 위태롭고 재미있는 기술을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두 차례씩 공연하였다.<sup>74)</sup>

일제 때 훈련원은 ‘훈련원공원’이란 이름으로 불렸다.<sup>75)</sup> 이곳에는 깊은 연못이 있어서 1921년 8월 13일에 12세 아동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고, 육상경기장도 설치되어 1922년에 조선체육협회에서 춘계육상경기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해에 경마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훈련원 내에 경마장도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6년 6월 10일에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장(國葬)을 조선식으로 경성부내 훈련원에서 거행하였다. 6월 10일 아침 8시경, 상여가 창덕궁을 떠나 영결식장인 훈련원으로 향하여 행진하였고, 연도에는 30만 명의 봉도(奉悼)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상여가 훈련원의 영결식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연도에서 세 차례에 걸친 만세 시위가 있었다. 이른바 6·10만세운동으로 융희(純宗)황제의 인산일(因山日)을 기하여 시위를 일

으킨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이다.

그 뒤 이 터에는 일제 때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소학교(1921~45), 광복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46~50) 및 부속중학교(1946~47) · 부속고등학교(1946~47, 1954~67) · 부속 초등학교(1947~50, 1953~75)가 자리하였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1975~88), 헌법재판소(1988~93)가 들어섰고, 이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1993~94) 등으로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1994년 8월, 총면적 1만 6,732㎡의 훈원원 터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민자(民資) 유치 방식으로 쌍용건설(주)에게 맡겼다. 이에 훈원원공원 및 주차장 건설 공사에 착공하여, 1997년 4월에 준공하고, 이 해 5월 31일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완료한 뒤 6월 30일에 운영을 시작하였다.<sup>76)</sup>

## 8) 화약을 제조하던 염초청

중구 방산동 4번지에는 조선시대 화약을 만들던 기관인 염초청(焰硝廳)이 있었다. 염초청이 있었던 터서 유래되어 염초교(焰硝橋)라는 다리 이름도 있었다.

군기시(軍器寺)에 속한 염초청 본청은 임진왜란 때 설치되어 임오군란 때(1882)까지 존속하였다. 본청의 청사는 112칸이었는데 임오군란 때 청나라군의 황사림(黃士林)이 일시 군대 진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서해안에 왜구들이 들끓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방법을 고민하던 최무선(崔茂宣)은 화약 제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당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었고, 제작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무선은 무역항인 벽란도에 입항한 중국인 기술자를 통해 염초제조법을 습득해 공민왕 22년(1373), 중국보다 우수한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 1377년에는 ‘화통도감’이라는 화약 무기 제조 기관을 세우고, 화약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했다.<sup>77)</sup>

염초청 내에는 군인들이 받들던 관왕묘인 성제청(聖帝廳)을 지어 관우(關帝)의 제사를 지냈는데 일제침략기 이후로는 민간인의 사당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 성제청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성제묘(聖帝廟)로서 방산동 4-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당 안에는 자그마한 보개가 설치된 감실(龕室)에 관우 부부상이 있다.

## 9)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주교사



「주교도」는 윤 2월 16일 노량진의 주교(舟橋)를 건너며 서울로 환궁하는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행차 장면을 그린 것이다.

지만 대개 봄철에 어가가 행차하므로 주교 가설에 동원되는 주교선들은 겨울을 한강에서 지내고, 1~2월에 주교의 역(役)을 마친 후 각자 조운(漕運)에 종사하였다. 동원된 선박은 충청도의 조운선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강화도에 비치한 훈련도감 대변선 등 관선(官船)이었지만 점차 인근의 사선(私船)도 징발하게 되었다.<sup>78)</sup>

주교동 126번지 북쪽에 주교사(舟橋司)가 위치하여 이 부근 청계천 다리를 주교(舟橋)라 불렀다. 주교사는 조선 후기 정조 13년(1789)에 설치되었는데, 정조는 사도세자로 불리는 장조(莊祖)가 묻혀 있는 수원 용릉에 참배하기 위해 한강을 건널 때 어가(御駕)의 안전을 위해 한강에 주교 가설을 전담하는 주교사를 설치하였다.

1790년 정조가 친히 제정한『주교지남(舟橋指南)』과 1793년에 정해진『주교사절목(舟橋司節目)』에는 주교를 가설할 때 290척의 배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교는 연초인 1, 2월 혹은 8월에 가설되

## 10) 오늘날의 구청, 남부 청사

중구 을지로2가동과 명동1가·충무로1가가 접경하는 곳, 을지로1가 140번지(롯데백화점 본점 신관) 부근에 한성부 5부 중 하나인 남부(南部) 청사가 있어 이 부근을 ‘남부골’

이라 하였다. 5부는 현재의 구청과 같은 관아로 조선 초에는 5부의 책임자로 관령(管領)을 두었다가 후에 영(令)이 배치되었다. 그 후 책임자를 주부(主簿)라 개칭하고, 조선 후기 영조 때에는 도사(都事)로 바꾼 후 정조 때 다시 영(令)으로 고쳤다. 이어서 갑오개혁 때에는 5부의 명칭이 5서(署)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5부의 업무는 관내 주민들의 비법사(非法事)를 다스리고, 도로·교량·화재예방·택지 측량·시체 검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sup>79)</sup> 즉, 5부는 (1) 일반 행정으로 효자나 열녀를 찾아내어 포상을 신청하는 한편 불효한 자를 적발하여 한성부에 보고하고, (2) 관내의 호구조사와 호적 관리가 주요 업무였으며, (3) 사회복지업무로 흉년과 재해, 전쟁 등으로 빈민들이 많이 발생하면 이들을 구호하였고, (4) 보건위생 업무로 전염병 발생시 의원을 정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였으며, (5) 건축 관리 업무로 주민들에게 대지를 지급하고, 주택 건축을 관리하는 외에 위법을 적발하는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6) 부역 동원 업무로 군사 조직과 방리군(坊里軍)을 집결시키는 일을 맡았고, (7) 4산의 산림보호 업무로 송충이를 구제하고 소나무 벌목을 금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8) 주민 계몽 업무로 독법령(讀法令)을 반포함에 따라 5일마다 주민들에게 법전을 강론하여 깨우쳤으며, 연산군 때는 한글을 배우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9) 치안 업무로 관내 주민의 위법 사항을 다스리고, 방범·검시(檢屍) 등을 맡았으며, (10) 방화방제 업무차 5부 관원들이 관내를 순찰하고 불이 나면 해당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화재를 진화하였다.<sup>80)</sup>

## 11) 왕의 초상화를 그렸던 도화서

중구 수하동 64번지에는 조선시대에 그림을 가르치고, 고시(考試)·제조·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은 관아인 도화서(圖畫署)가 있었다. 원래 중부 건평방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긴 도화서는 역대 왕들의 초상화도 많이 그렸다.

예조(禮曹)에 소속된 중 6품 아문(衙門)인 도화서는 조선 초에는 5품 아문으로 도화원으로 불렸으나 성종 2년(1471)에 도화서로 개칭되면서 격하되었다.<sup>81)</sup> 『경국대전』에는 도화서에 화학(畵學) 15명을 배치하여 화원(畵員)을 양성함은 물론 국가의 각종 의식이나 행사 및 초상화 등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도화서 화원 유숙(劉淑)의 <수계도권(水硯圖卷)>(1853). 남산 노인정에서 열린 시회(詩會)를 그렸다.

이후 영조 22년(1746)에는 화원의 임무가 증대되면서 화원 생도가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화학교수(畵學敎授)가 배치되면서 별제(別提) 자리가 폐지 되는 등 화원 가운데 그림이 뛰어난 사람이 교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별제나 교수 관직은 사대부 가운데서 그림에 뛰어난 자를 앉히는 사례가 많았다.

18세기의 김홍도(金弘道) 등도 도화서를 통해 배출된 인물이다. 조선의 화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나가는 데 중심적인 구실을 한 도화서는 국가와 궁중의 의식이나 행사

를 그린 의궤(儀軌)를 남겨 당시의 문물과 의식 형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유본예(柳本藝)는 『한경지략』에서 “도화서는 중부 견평방에 있는데 국초에는 도화원을 두었다가 뒤에 서(署)로 고치고, 그림 그리는 일을 장악하였다. 화원은 모두 30명이며, 또 전자관(篆字官) 2명은 젊은이 중에 총명한 인재를 뽑아서 예조의 당상관이 출제하여 고시(考試)하고, 연말에 점수를 많이 받은 자를 병조에 추천해서 1년 기한으로 녹봉을 주게 하였다”<sup>82)</sup>고 기술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도화서 화원의 선발 규정에 대하여 “대나무·산수·인물·조수(鳥獸)·화초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 시험을 보되 대나무를 1등, 산수를 2등, 인물·조수를 3등, 화초를 4등으로 한다. 화초의 그림에서 통(通)의 성적을 받으면 2분(分), 약(略)을 받으면 1분의 점수를 주고 인물·조수화 이상은 차례로 등을 올려서 각각 그 성격에 따른 점수를 보첩과 같이 한다”<sup>83)</sup>라고 하여, 도화서 화원은 특히 사군자와 산수화에 능한 사람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12) 일본 사신이 머물던 동평관

인현동2가 192번지에 있었던 동평관(東平館)은 일본 사신이 들어와 머물던 곳이었어서 일대를 왜관동(倭館洞)이라고 하였다. 조선 초부터 일본과 왕래가 있어서 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세종 2년(1420)에는 이곳의 일본인들이 법을 어기므로 이곳에 감호관(監護官)을 두어 감시케 하는 한편 동평관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 해가 뜨면 문을 열어 주고 해가 지면 문을 닫게 하는 등 출입을 엄중하게 단속하여 공청무역(公廳貿易)을 제외하고 관(館) 내외의 사적(私的) 거래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27년(1445) 왜인들이 담을 뛰어넘고 민가에 출입하면서 잠무역(潛貿易: 밀무역)을 행함으로 의금부에서 이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일도 있었으며, 그 뒤 삼포왜란(三浦倭亂) 때에도 의금부에서 10여 명을 감금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동평관에 머물던 일본인들이 일으킨 폐단이 많았다.<sup>84)</sup>

동평관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이후 일본 사신의 상경을 불허하면서 폐쇄되었다.



구리개 시절의 제중원과 직원들(1897년)

## 2. 개화기 을지로에 들어선 관공서

### 1)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

조선 초부터 서울에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과 서민에게 약을 지급하던 혜민서가 있었으나 고종 22년(1885)에 이를 폐쇄하였으므로 이 해 4월 10일부터 광혜원(廣惠院)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 광혜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1884년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일어난 갑신정변 때 민씨 일파의 거물 민영익(閔泳翊)은 개화파에게 칼을 맞아 큰 자상(刺傷)을 입었다. 민영익이 중상으로 사경을 헤맬 때 북장로회 파견 선교의사 알렌(安連, H. N. Allen)이 당시 외무협관(外務協辦)으로 있었던 뮐렌도르프의 공관(公館)에서 머리에 일곱 군데나 칼을 맞은 민영익을 3개월 만에 완치시켜 서양의술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알렌 박사는 청일 양군 간의 창덕궁 선화문(宣化門) 격



돌에서 부상한 100여 명의 청군도 치료해서 그의 명성이 장안에 자자하게 퍼져 고종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알렌 박사는 민영익을 앞세워 서양식 병원의 설치를 고종에게 적극 건의하였다.

지난 정변 후 여러 한국인으로부터 총탄에 의한 상처치료와 총탄 제거 및 기타 질병의 진료를 의뢰받았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수의 환자는 원거리에서 거주하고, 민영익 공과 부상 입은 청군을 치료하는데 바빠서 그들은 본인의 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만약 귀 정부에서 본인에게 시설만 제공해 주면 환자와 부상병들은 서양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과 위생학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병원 이름은 왕립병원으로 호칭될 것이며, 앓고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sup>85)</sup>

1885년 12월 고종은 재동의 이윤용(李允用) 자택이었던 현 헌법재판소 자리에 광혜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알렌 박사는 광혜원의 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서양식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 장안에는 ‘노랑머리에 파란 눈의 서양 사람이 두 귀에 고무줄을 꿰고 가슴을 대보면서 주사를 놓아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 하루 최고 260명의 환자가 몰려 이들을 진료하기에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 1년간 외래 및 왕진 환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고종은 1885년 4월 23일, 백성들 치료에 공이 크다고 하여 광혜원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고치게 하고 통리고섭아문(統理交涉衙門) 안에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너무 많은데 비해 비좁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개업 2년 뒤인 1887년에 홍영식(洪英植)의 자택인 현재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KEB하나은행 본점) 뒤편의 구리개로 이전하게 하였다.

제중원은 부인과 환자들을 위해 1886년 부인부를 설치하고, 미국북장로회에서 파견된 여의(女醫) 엘라스가 담당하여 개원 1년 남짓해서는 종합병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1886년 3월 29일 경쟁시험으로 선발된 학생 16명으로 개학했다. 학습생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4개월 후에 12명을 선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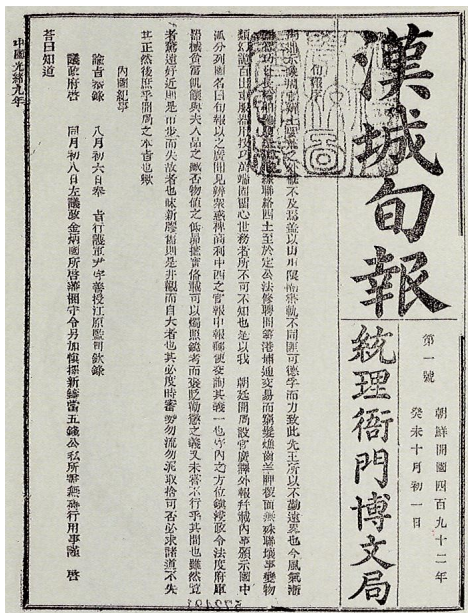
성적이 미달한 4명은 낙오시켰다고 한다.<sup>86)</sup>

구리개로 이전한 제중원은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지원이 줄어들자 운영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제중원의 관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병원 운영은 미국 북장로회의 후원을 받아 명맥을 유지하다가 광무 8년(1904) 9월 남대문 밖 용산구 도동(桃洞)에 병원을 세워 세브란스라고 이름을 고쳤다.

조선 말 제중원이 있던 곳에는 대동구락부가 들어섰다가, 다시 1907년 가을 그 자리에서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잠시 농상공부가 들어섰다가 1912년에는 조선귀족회관(朝鮮貴族會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 2) 「한성순보」를 발행한 박문국

조선 말 중구 저동2가 62번지, 영희전(永禧殿: 현 중부경찰서) 자리에 박문국(博文局)이 있었다.<sup>87)</sup> 박문국은 1883년 (음)7월 15일, 개화파 박영효(朴泳孝)의 건의에 의하여 당시 통리아문(統理衙門)의 산하 기구로 신식 인쇄기를 설치하면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 제1호.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박문국은 인쇄·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아로서 1883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 제1호를 발행하였다.

처음 계획은 한성부에서 주관, 발행기로 하였으나, 박영효가 한성판윤을 물러남으로써 동문학(同文學)으로 이관되어 1883년 10월 박문국에서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갑신정변이 실패함에 따라 수구파 일부 군중들이 박문국을 습격, 방화하여 인쇄시설이 불에 타 신문 간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한성순보는 14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었고 중부 경행방(慶幸坊) 교동의 전 왕실



청나라 공사관(19세기 말)

건물로 이전, 『한성주보(漢城周報)』로 복간되었다.<sup>88)</sup>

### 3) 초기 청나라 공사관이었던 청국공관

중구 명동2가 83번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이전까지는 중화민국(대만) 대사관이었으나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체결하면서 대만대사관은 철폐되었다. 이곳 명동2가에는 조선 말 임오군란 직후인 1883년에 청국 공관이 처음 세워졌다.

청나라는 임오군란 후 상민수출무역장정(商民輸出貿易章程)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1883년 9월 16일 주(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3년간 역임한 바 있는 진수당(陳壽棠)을 총관(總辦) 조선상무위원으로 한성에 부임하게 하였다. 진수당은 부임 직후 바로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남별궁에 여장을 풀고 업무를 보았다. 무역장정을 체결하자 청나라 산둥반도에 살던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명동과 소공동, 수표동 등에 자리 잡았다.

당시 청나라 거상 담결생이 무역회사 동순태(同順泰)를 만들어 자리한 곳은 을지로입

구 근처였다. 동순태가 현재 유네스코건물 자리(명동2가 82번지)의 2천여 평을 구입하자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명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청국공관(淸國公館)은 진수당이 부임하기 직전인 1883년 9월 7일에 회현방(會賢坊) 낙동(酪洞)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초기 규모는 잘 알 수 없다.<sup>89)</sup> 진수당이 부임한 후 청국 상민(商民)의 권익이 보장되면서 청상(淸商)들의 출자에 의해 청국공관 주변 가옥과 대지를 매수하였다. 즉 공관이 설치된 지 한 달 후인 동년 10월 16일에는 박씨(朴氏) 소유로 된 인근 가옥(110칸)과 토지(300칸)를 매수하였고,<sup>90)</sup> 곧이어 다음해 1월 25일에도 인근 가옥 및 토지를 60여 칸이나 매수하였으며,<sup>91)</sup> 그 해 5월 22일에는 거금 5,300냥(兩)을 들여 한국인 주택 142칸을 사들여서 상무위원 공서(公署)를 개축하고 이른바 청상회관(淸商會館)을 설립하여 그 규모를 급격히 확장하였다.<sup>92)</sup>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매입은 진수당이나 청국 상인들의 권세를 이용한 거래였다. 본래 청상회관 터는 흥선대원군 집권 때 천주교를 박해했던 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살던 집이었다. 이경하 포도대장이 어찌나 흑심하게 천주교인을 살육하였던지 울던 아이도 ‘낙동 대감’이라고 하면 울음을 멈추었으며, 천주교인을 그의 저택에 잡아들여 고문했기에 ‘염라 대감’이라고도 불렸다. 1883년 당시 이 저택은 이경하의 아들 3형제 범진(範晉)·범조(範租)·범대(範大)의 소유였는데 범조, 범대 형제는 청국 상인에게 땅을 팔았으나 가운데 땅을 소유하고 있던 범진은 팔지 않았다.

그러자 통로가 궁색한 청국 상인은 범진의 땅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범진이 항의하자, 청상회관 동사(董事) 웅정한(熊廷漢)은 청상 수십 명을 동원하여 범진을 상무위원 공서로 납치하여 못매를 가하며 자인서(自認書)를 강요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조선과 청의 외교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범진은 영국 영사에게까지 알려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청국의 행패를 폭로하였다.<sup>93)</sup>

결국은 총판 진수당이 사과하고, 웅정한이 동사의 자리에서 파직되어 일단락되었지만 이는 상무공서가 순수한 외교상의 목적 이상으로 청국 상민을 지나치게 비호하였던 데서 야기된 사건이었다.

1885년 10월 11일, 진수당이 물러가고 대신 원세개가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부임하였다. 세칭 ‘원대인(袁大人)’으로 불린 그는 외

교관으로서의 통상외교 업무의 권한을 넘어서 조선의 내정까지 간섭하는 등 10여년간 조선 조정을 위압하면서 온갖 세도를 부렸고 상무공서를 개축하여 이를 총리아문(總理衙門)이라 칭했다.<sup>94)</sup> 당시 청국공관은 6,400평에 이르렀으며 공관 부근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원세개가 주둔했던 본진(本陣) 앞 충무로 입구에서 명동~을지로 입구까지를 ‘원대진 앞 [袁大陣前]’이라 불렀다. 청군의 횡포가 어찌나 심했던지 길 입구에서 조선 병사들이 길을 막고 조선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까지 할 정도였다.



이렇게 횡포를 자행하던 청국공관도 2012년 신축된 중국대사관

1894년 6월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청국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년 6월 17일 원세개가 귀국함에 따라 일단 철수하게 되었고, 수년간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청국경찰관들이 모두 철수하자 상민(商民)들까지도 그들의 가옥 및 재산을 영국영사관에 위탁하고 떠나버려<sup>95)</sup> 사실상 조선과 청국간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원세개가 기거하던 청국공관은 1910년 경술국치에 의해 잠시 일본인이 소유하였으나 1920년대 중국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다시 중국인 소유로 되었다.

#### 4) 위세를 떨쳤던 청국경찰서

조선 말 청국(淸國)경찰서는 을지로 네거리의 롯데쇼핑(전일 산업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는 앞쪽에 위치하였다. 당시 청사와 함께 높다란 망루를 세우고 위세를 과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청국경찰서가 설치된 것은 1890년대 초로 조선인들이 화교 상인들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던 때였다.

당시는 원세개의 세도가 장안을 뒤흔들던 때라 40명의 청나라 순사들 역시 기세가 대단했다. 이들은 긴 방망이를 옆에 차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거슬리는 한국인이 눈에 띄면 잡아다 폭력을 행사했다. 조선인 소유의 토지가옥을 청국인이 매수하려 할 때 응하지 않으면 청국의 총리아문이 직접 순경을 파견하여 조선인을 강제 퇴거(退去)시키는 폭력까지 예사로 일삼았다.<sup>96)</sup> 뿐만 아니라 마포에 계사국(稽查局)이란 파출소를 두고 도선장(渡船場)의 치안권을 쥐고 흔들기도 했다.

임오군란 후 진군한 청군을 따라 처음 서울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은 특유의 상술로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세개의 비호 아래 주로 포목상, 음식점, 잡화점, 여관 등을 경영하면서 폭리·사기·폭행·강제징수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조선인들의 감정을 격분시켰다. 1883년 때마침 발생한 이범진 사건은 시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시켰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화교 점포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소공동 삼화흥호(三和興號)의 점포 4동이 소실되고 3명이 불에 타 숨지는가 하면 서소문의 동흥호(同興號)·덕흥호(德興號)에서도 큰 불이 나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화재 사건이 꼬리를 물자 원세개는 화교의 생명·재산을 자위한다는 구실로 서울 시내에 산재해 있던 청나라 상인들을 남문(南門) 안(현재의 프라자호텔 주변)과 서소문동으로 모아 집단 거주케 하는 한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국경찰서를 설치했다.<sup>97)</sup>

## 5) 서소문으로 옮겨간 이탈리아 공사관

조선과 이탈리아는 1884년 6월 26일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2년 뒤에 비준서를 체결, 1891년에 이탈리아 영사가 조선에 부임하였다. 공관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영국공사관을 통해서 외교관계가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공관이 처음 설치된 곳은 을지로1가 181번지(롯데호텔 서쪽 옆) 인근이었는데, 1903년 5월 서소문동 41번지(현 대한항공 빌딩) 미국 선교사 쓰레와트 집으로 이전하였다. 이탈리아 영사관이 공사관으로 승격된 것은 1903년 5월 6일이다.<sup>98)</sup>



## 4장 일제침략기의 을지로

### 1. 남촌의 형성과 변화

#### 1) 변화가가 된 남촌

일본인들은 진고개 일대를 마음에 두었다가 남산 중턱의 높고 널찍한 예장동에 공사관을 짓고 이를 차례로 통감부, 총독부 청사로 쓰면서 가난한 남산골 샌님들을 쫓아 집을 저당잡고 돈을 꾸어주고는 일부러 기일이 되면 다른 곳으로 피해 숨어 있다가 기한이 지났다며 집을 마구 몰수하는 등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고개 일대를 점유했다.

뿐만 아니라 장악원 자리에는 착취의 본거지인 동양척식회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종로 육의전 중심의 500년 북촌 상권을 탄압하면서 진고개, 즉 본정통을 일본인의 상권의 중심으로 키워 나갔다. 그들은 남촌을 근거지로 삼아 진고개를 혼마치(本町)라고 부르면서 서울 제일의 변화가임을 자랑하였다.

일제침략기 중구의 충무로, 명동, 을지로 등지는 서울의 변화가, 즉 다운타운 그 자체였

다. 대기업 본사가 집중해 있는 오늘날의 중구보다 오히려 잡다한 상업 기능은 이 시기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남촌 일대가 변화가를 형성하였고 거리마다 특징이 있었다.

1929년 출간된 『대경성안내』는 남촌의 요식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인가에서 왕좌를 점하고 있는 것은 명동의 환빌회관이다. 여급의 총수는 50여 명, 이른바 미국식이며, 짜즈 기분이 넘쳐 밤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환빌회관에서 조금 북쪽 모퉁이에 국수가 있다. 품위 면에서는 경성의 제1이며, 위의 2개와 어깨를 겨루는 것으로 소공동 경성공회당 지하의 화랑식당이 있었다.

회현동1가에는 현대적인 유리로 장식한 3층 누각을 지은 삼양현도 경성 카페계의 일류급에 속하였다. 위의 4개 업소에 다음 가는 것이 은송정(을지로입구), 부사(남대문통), 바론(저동), 킹그(충무로5가), 본정바 등이 중류급이었다.<sup>99)</sup>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전승국 일본은 전시물자와 기타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호황을 맞았다. 그러자 경성부의 토지 가격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 당시 을지로 지역의 토지 가격을 지역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           | 1915년도(원) | 1918년도(원) | 1919년도(원) |
|-----------|-----------|-----------|-----------|
| 황금정1정목    | 70        | 50~100    | 80~200    |
| 황금정2정목    | 80        | 80~100    | 100~300   |
| 황금정3정목    | 25        | 20~50     | 30~70     |
| 명치정(명동)   | 40        | 50~120    | 80~250    |
| 남대문통2정목   | 120       | 180~250   | 250~350   |
| 남대문통3정목   | 140       | 150~200   | 200~380   |
| 남대문통4정목   | 100       | 150~200   | 200~380   |
| 장곡천정(소공동) | 45        | 40~100    | 60~130    |

\* 경성시까지 토지 가격표(1평당) 자료: 경성부, 『경성부사』 2권, 2013, 613면.

## 2) 일본인들이 차지한 상권

1910년대까지 형성된 이 북촌과 남촌의 한국인, 일본인의 거주실태와 상업지·거주지 등의 구별에 관하여 잡지 『개벽(開闢)』에 실린 글을 통해 일제 때 서울의 시구 구성과 거주분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경성부는 186개의 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야마도마찌(大和町)」나 「메이지마찌(明治町)」나 「마찌」라고 불러야 제 맛이 생기는 101개소의 정과 갯골이니 뚝골이니 골이라고 불러야 제맛이 생기는 85개소의 동이 있습니다. 정은 마찌라는 일본말로 불러야 맛이 생길 만큼 대체로 일인의 독천지(獨天地)외다. 동은 골이라고 불러야 옛날 맛이 생길 만큼 대체로 옛날의 주인인 조선인 최후의 퇴거지(退居地)외다. 그런데 일본인 독천지는 101개, 조선인 퇴거지는 85개, 이만하여도 상세한 설명은 필요치 아니하나 시구의 형성과 주민의 분포상태를 개괄적으로 간단히 소개하여 미흡을 보충하려 합니다.

동일한 목적, 서로 비슷한 규범, 균등한 세력 하에 있는 여러 개의 부락은 자연적으로 동일한 구역에 모여서 각각 특수한 일군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도회의 특색인 동시에 도회자체가 발달하는 경로외다. ... (중략) ... 그러면 경성의 그것은 경성의 상업지·공업지·주택지는 어느 방면이며, 장차 어느 방면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국의 도시계획상 비밀에 붙인 것이므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형성되어 가는 상태와 당국의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하고 아울러 자연의 고유한 지세를 살펴보면 대개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업지대는 황금정(을지로) 큰길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명치정(명동) 1·2가, 영락(저동) 1·2가, 누정정(인현동) 1·2가, 야초(초동)·화원(예관)·초음정(오장동) 등의 여러 정과 황금정(을지로) 1·2·3·4·5가, 본정(충무로) 1·2·3·4가, 남대문동 1·2·3·4·5가, 남·북창동정, 의주통1가, 어동(양동)·고시(동자)·화천(순화)·길야정(도동) 등의 여러 정 그리고 종로 1~5가와 이에 딸린 약간의 여러 동 ... (중략) ... 주택지는 지세가 높고 지미가 건조하고, 산을 등졌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일제침략기의 을지로

주택과 떠날 수 없는 각 학교, 관공서 등의 위치 또는 몰락된 조선인의 거주지로 보아 북부 일대, 동서부 일대이다. 그러나 북부 중에도 극북, 동서부 중에도 극동·극서부근은 실상 주택지라기 보다는 차라리 빈민지대라고 함이 적당할 지니, 이 모든 시구의 형성은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차 서로는 아현리·공덕리, 남으로 노량진·영등포, 동으로 왕십리·청량리 일원을 포함한 대경성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러한 것이외다.

을지로3가는 일제 때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업지대로 일본인들은 당시 공업지대인 용산과 상업지대인 중구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을지로4·5가, 초동, 저동2가도 일제 때 일본인들이 많은 토지와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을지로4가는 1924년 당시의 현황을 보면 한국인 313호, 일본인 226호가 거주했고,<sup>100)</sup> 을지로5가도 1924년 6월호 『개벽(開闢)』잡지를 보면 당시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120호였는데, 조선인은 300

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을지로5가에 살던 조선인은 일본인의 세력에 밀려 마포나 도화동·청과동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sup>101)</sup>

일제 때의 초동(草洞)도 1924년 6월호 『개벽』 잡지에 보면<sup>102)</sup> 이곳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가구는 326호이고, 한국인의 가구는 300호가 되지 못했다. 저동2가도 일제 때 일본인 거류민 지역을 형성했던 진고개와 함께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 잡지에 보면 당시 저동2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231호였는데 조선인은 300호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은 일제침략기인 1925년 10월 1일 국세조사(國勢調査) 결과만을 기준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구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 지역    | 한국인(명) | 일본인(명) | 일본인 비율(%) |
|-------|--------|--------|-----------|
| 충무로1가 | 210    | 898    | 81.0      |
| 충무로2가 | 413    | 1,763  | 81.0      |
| 명동1가  | 255    | 730    | 74.1      |
| 명동2가  | 494    | 1,438  | 74.4      |
| 저동1가  | 199    | 704    | 78.0      |
| 을지로2가 | 1,033  | 1,288  | 55.5      |

을지로 지역의 한국인과 일본인 인구

위와 같이 을지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일본인 특세지역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에는 북촌의 일본인 침투는 계속해서 이뤄졌고, 한국인·일본인간의 거주지별 세력 대비는 그만큼 한국인측이 위축되어 갔다.<sup>103)</sup>

일제가 추진한 도로 개수 사업은 주로 청계천 남쪽에 집중되었다. 현재의 중구 남대문로와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에는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로가 포장되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생겼다. 반면에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종로 북쪽 일대는 변화가 없었다. 비포장도로에서는 여전히 먼지가 폴폴 날리고, 썩은 하수가 흘러넘쳐 악취가 코를 찔렀다.<sup>104)</sup>

개항 후에 종로는 한민족 상인들이 상권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충무로에는 일본 세력이, 소공동과 명동을 중심으로는 청국상인들이 뿌리를 내렸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세력

에 몰리면서 청국상인들은 청계천 방면으로 밀려났다.

일제침략기 때에는 을지로 남쪽을 중심무대로 삼은 일본 상권과 종로를 중심으로 한 민족계열의 상권이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됨으로써 자연히 입정동·수표동·산림동 지역이 한국인과 일본인들 상권 다툼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 3) 황금정의 시장들

#### (1) 을지로4가의 화원정 공설시장

화원정(花園町) 공설시장은 1920년 9월 18일 현재 서울 중구청 일대에 설립되었다. 일제 때 한국인이 이용한 대표적인 생활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장시(場市)였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은 상설시장(常設市場)이 생겼고,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시장규칙’을 공포하여 시장을 공설·공영화한 다음 경찰에 의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장을 4가지로 규정하여 제1호~제4호로 구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자 해마다 물가가 올랐다. 이에 경성부는 1920년 12월에 15,290원을 들여 명치정(明治町: 명동) 공설시장과 종로 공설시장을 설립하고, 1921년 9월에는 다시 12,270원을 들여 용산 공설시장과 중구 예관동 83-15(현재 서울 중구청 소재)에 화원정 공설시장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1926년 2월 25일 0시 3분경에 화원시장에 불이 나 1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에 26호가 전소되고, 4호는 반소(半燒)하였으며, 조선인 1명이 화상으로 위독한 지경이었다. 손해는 약 10만원가량으로, 경찰은 화재 원인을 화원정 106번지 채소상 김호진 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05)</sup>

1931년 9월 만주사변의 발발과 더불어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설시장을 물가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성부는 공설시장의 증설에 힘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0년 말 기준 경성부에 10개소의 공설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공설시장의 설립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사설 일용품시장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921년 8월에 영락시장(永樂市場)의 설립을 비롯하여 병목정(並木町: 쌍림동)시장, 1927





1930년대 화원정 공설시장 입구

년에는 충정로3가에 본정신시장(本町新市場)이 설립되었다.

일제 때는 칼을 찬 순사들이 시장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법규 위반을 단속하였다. 이들은 매점매석과 폭리를 취한 상인들을 간상(奸商)으로 몰아 단속하였고, 퇴와 말·저울 등의 도량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가격표시제·미터제 등을 시행할 때는 전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장을 단속하였다. 또한 땔나무를 지고 다니면서 파는 상인을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처벌하였다.<sup>106)</sup>

광복 후에 화원정 공설시장은 화원(花園)시장으로 불렸다. 이 시장은 1958년 3월 13일 밤에도 불이 일어나 20개 점포를 전소시키고, 14일 오전 0시 40분 경에 진화되었다. 관할 중부소방서에서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였으나 3월 15일까지 판명되지 않았고, 손해액은 도합 449만 환(圓)으로 보았다.<sup>107)</sup>

1958년 4월 8일, 서울시경찰국 수사과는 을지로3가 화원시장 대지 불하 문제를 둘러싼 부정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이날 시장조합장 김운수(金雲洙)와 서울관재국 처분과 계장급 2명을 소환 신문하였다. 김운수 조합장은 1957년 겨울에 발생한 화재로 공터로 된 화원시장 재건 책임자로 있으면서 1958년 3월 초 동 시장 대지가 귀속재산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서울시 관재국에 신청, 정식으로 불하받는 형식을 취하여 김운수 개인 소유로 하였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위의 사실을 둘러싸고 관재국 직원과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추궁함과 동시에 이 시장의 대지 불하 경위를 조사하였다.<sup>108)</sup>

현재 화원시장 자리는 대부분 풍전상가가 들어서 있지만 이 상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필동천 지류의 하천 부지에 자리 잡아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당시 화원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을 비롯한 못사람들의 회로애락을 달래주는 주택가 주점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었다.<sup>109)</sup>

## (2) 을지로5가의 황금정시장

일제는 전시경제체제로 사실 일용품시장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1932년 7월 6일에 을지로5가 257번지에 사설시장으로 설립된 황금정(黃金町)시장은 일본인이 경영하였다.<sup>110)</sup> 일제는 을지로입구의 구리개(동현)와 을지로4가 부근의 은동(銀洞)이란 동명을 따서 황금정(黃金町)이라고 붙인 까닭에 황금정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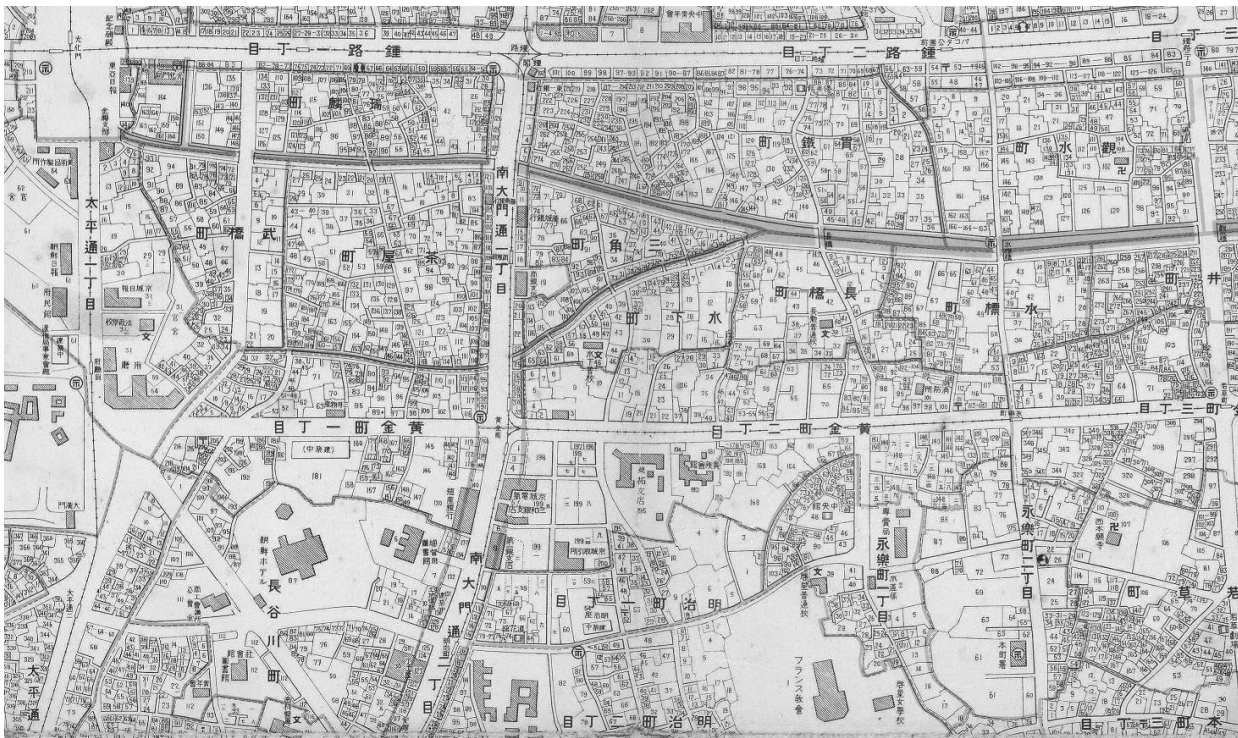
19개 점포였던 이 시장은 황금사설시장에서 황금정시장으로 불리다가 광복과 함께 적산(敵産)으로 처리되고, 1948년에 황금시장(黃金市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0년대 초까지는 황금시장이 이 일대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6·25전쟁으로 시장이 파괴된 후 을지시장(乙支市場)으로 되어 동대문시장·방산시장과 연결되었다.<sup>111)</sup>

5·16군사정변 직후 1961년 6월에 서울시는 각 시장 내 노점 및 판자점포 3,755동을 7월 5일까지 철거할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1962년 3월 13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청계천 4~5가 상가 양측에 야시(夜市)를 신설하기로 하였다.<sup>112)</sup>

## 2. 황금정으로 불렸던 을지로

을지로1가는 일제가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남부 유동·남천변동·견정동·숙수방동·휴지동·향목동·궁내정동과 무교동·석정동·미동·소공동 각 일부를 합쳐서 부근의 구리개(銅峴)와 뜻이 통하는 황금정으로 하고, 그 첫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 1정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따라 구(區)제도가 실시되면서 중구 황금정 1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을지로1가가 되었다.

을지로2가는 조선시대의 한성부 남서 회현방, 명례방, 훈도방, 대평방 지역을 일제가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남부 죽동·저동·조동·상리동·수하동·동현동·장악원동 등의 각 일부를 합쳐서 황금정으로 하고, 그 두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2정목이라고 하였다. 이후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따라 구(區)제도가 실시되면서 중구 황금정 2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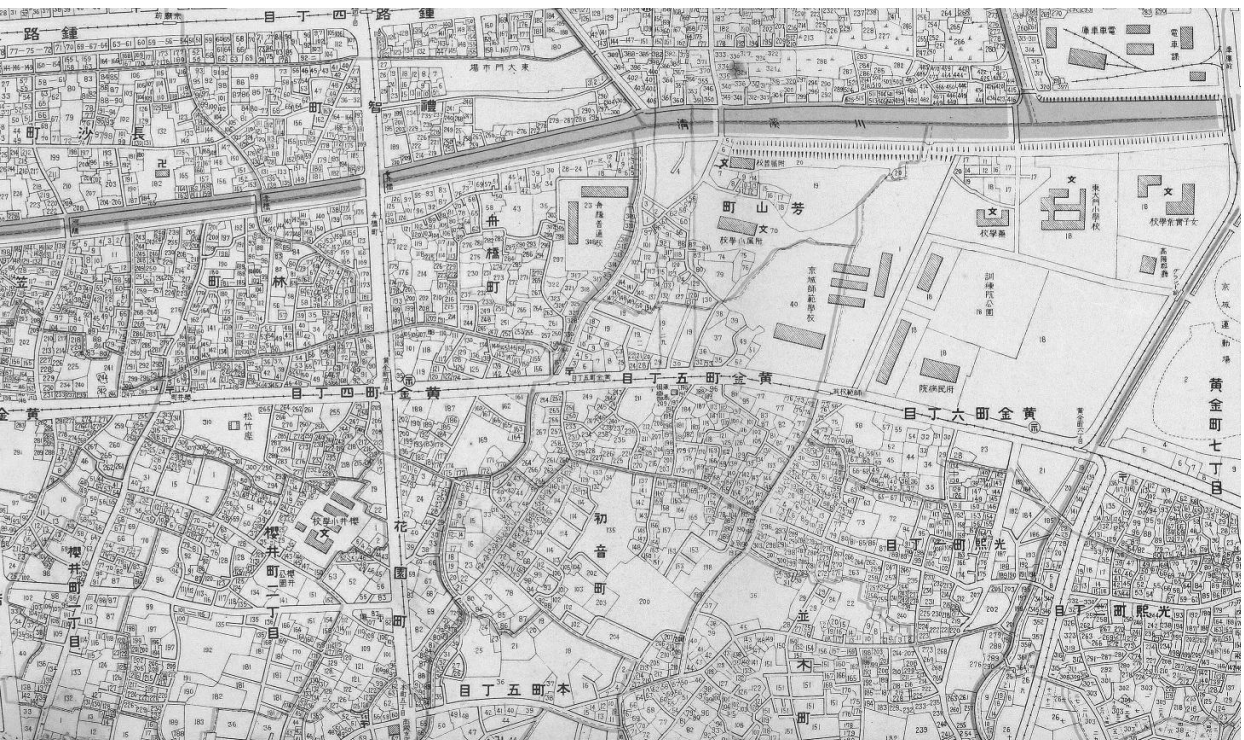


〈대경성정도(大京城精圖)〉(1936) 중 황금정 1정목에서 7정목 지역

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을지로2가가 되었다.

을지로3가는 조선시대의 한성부 남서 혼도방, 성명방 지역을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남부 산림동·초동·사동·숙동·입정동·시동·이동·죽동의 각 일부를 합쳐서 황금정으로 하고, 그 세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 3정목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따라 중구 황금정 3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을지로3가가 되었다.

을지로4가는 조선시대의 한성부 낙선방, 성명방 지역을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성부 남부 청녕교동·원정동·은동·직정동과 용정동·관정동·대인형동·산림동 각 일부를 합쳐서 황금정으로 하고, 그 네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 4정목이라고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따라



중구 황금정 4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을지로4가가 되었다.

을지로5가는 조선시대의 한성부 명철방 지역을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성부 남부 근동·청교동과 연방동·오교동·어교동·대동·오장동 각 일부를 합쳐서 황금정으로 하고, 그 다섯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 5정목이라고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따라 중구 황금정 5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을지로5가가 되었다.

을지로6가는 한성부 명철방 지역을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성부 남부 훈련원과 남산동·남정동·연방동 각 일부를 합쳐서 황금정으로 하고, 그 여섯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 6정목이라고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중구 황금정 6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을지로6가가 되었다.

을지로7가는 조선시대의 한성부 명철방 지역을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확정에 따라 경성부 남부 하도감동과 두모면 신당리 및 동산동·배동의 각 일부를 합쳐서 황금정으로 하고, 그 일곱 번째가 된다고 하여 황금정 7정목이라고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중구 황금정 7정목이 되었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을지로7가가 되었다.

원래 도시의 1인당 거주공간은 30~50평이 이상적 밀도이고 10평 이하는 포화밀도로 규정하는데, 1925년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 의하면 황금정통(을지로)의 1인당 평수는 아래 표와 같았으므로 포화 상태로 나타난다.

경성부내 지역별 인구밀도표

|        | 황금정<br>1정목 | 황금정<br>2정목 | 황금정<br>3정목 | 황금정<br>4정목 | 황금정<br>5정목 | 황금정<br>6정목 | 황금정<br>7정목 |
|--------|------------|------------|------------|------------|------------|------------|------------|
| 1인당 평수 | 8.0        | 11.2       | 5.6        | 5.6        | 6.6        | 9.5        | 4.6        |

\* 자료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자료총서 13,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2016.

을지로1가의 중심부를 지나는 을지로는 서울특별시청~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폭 30m, 길이 2.74Km의 서울의 간선도로로 조선시대에는 을지로입구의 구리개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되었던 길이다. 일제 때 경성에서 고물상 거리는 황금정과 태평통(太平通) 두 군데인데, 황금정은 헌 가구가 많고, 태평통은 헌 이부자리, 헌 구두, 헌 옷, 헌 요강이 많다고 하였다.<sup>113)</sup> 이 길은 일제 때인 1912년 도로계획에 따라 1차로 이듬해부터 1927년까지 도로 확장을 하고, 일제식으로 황금정통이라고 명명한 뒤에 1939년에는 폭 30m와 28m로 계획하였다.

일제침략기 35년간 을지로(황금정통)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화 촬영 기술의 개척지

초창기 한국영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다. 영화제작자 박승필(朴承弼

: 1875~1932)과 영화감독 윤백남(尹白南: 1888~1954) 그리고 영화촬영기사 이필우(李弼雨: 1897~1978)이다.

먼저 1904년에 을지로4가에 무성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인 광무대(光武臺)를 세워 흥행업을 개척하기도 한 박승필은 일본인 소유주로부터 단성사를 전세로 빌어 영화관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단성사에 영화 촬영부를 두어 직접 영화제작에 손을 대기도 했다. 박승필은 김도산으로 하여금 연쇄극 「의리적 구투」를 제작했고, 훗날 춘사 나운규에게 영화제작 자금을 대어 주는 등 단순한 흥행사가 아닌 의욕적인 영화인이었으며, 민족흥행 자본의 시조이기도 했다.

두 번째의 인물은 1923년에 「월하의 맹세」를 내놓은 윤백남 감독으로 연쇄극이 아닌 본격적인 영화를 최초로 제작하였다. 「월하의 맹세」 또한 극본, 감독, 출연진 모두 한국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본격적 한국영화의 첫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세 번째의 인물은 한국 최초의 촬영기사 이필우이다. 이필우는 을지로입구의 구리개가 본적지이다. 이필우는 그의 동생 이명우와 같이 공성(共成)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영화에 대한 매력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11세 때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시계포와 사진관에서 일하다가 일제침략기 때 학교생활을 마친 이필우는 한때 우미관(優美館)의 영사기사로 일하면서 영화 기체에 대한 기술을 익혔다. 이필우의 부친은 지금의 을지로1가 네거리에 「이필우 시계포」를 차려 주었다. 그는 여기에 사진부를 곁들이고, 슬라이드와 영상기를 마련하여 필름을 닦치는 대로 빌려다가 돌렸다. 영화에 미친 이필우는 우미관 영사실의 조수로 자원하였다가, 보다 큰 뜻을 품고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고사카촬영소에서

촬영과 현상기술을 익혔다.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인 〈춘향전〉(1935)

1916년 19세에 귀국한 이필우는 마침 연쇄 활동사진극을 계획 중이던 문예단 이기세와 만나게 되어 첫 작품인 「지기」를 촬영, 그 해 4월 공개함으로써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활동사진 촬영기사가 되었다. 그는 순종 인산(因山) 때 기록영화를 맡았으며, 1924년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전선여자 정구대회」의 사진영화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장화홍련전」의 촬영을 맡으면서부터 숙원이던 영화 활동에 뛰어들어 이필우는 스스로 반도키네마를 창설, 1926년에 노수현이 조선일보에 연재하여 주가를 올리던 만화 「멍텅구리」를 소재로 한국 최초의 코미디영화 「멍텅구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촬영 기술의 개척자인 동시에 녹음장치의 개발자로 「홍련비련」(1927)을 감독한 한국영화사의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1935년에는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인 「춘향전」을 완성하여 새로운 발성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기도 하였다.<sup>114)</sup>

## 2) 일제 경제침략기관, 동양척식회사

1908년 일제는 을지로2가 195번지의 장악원 건물 자리에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을 세웠다. 동양척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 침략의 총본산으로 악명 높은 침략 기관이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 척식(拓植) 사업의 경영’이라 하였다.

이 회사의 영업 과목은 ①농업 ②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매 및 대차 ③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경영 및 관리 ④ 척식을 위해 필요한 한·일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⑤ 척식상 필요한 자금의 공급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설립한, 식민 지배를 위한 국책 기관이었다.

동양척식회사는 발족된 그 이듬해인 1909년 정월부터 시무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한국인 토지의 강제 몰수와 경영, 일본인의 특혜 이민 그리고 고리채 등 조선경제를 완전히 지배 내지 수탈해 가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회사는 1924년까지 선량한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약 8만 정보(町步)의 토지를 강점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잃은 조선인들은 동양척식회사야말로 원한의 표적이었다.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은 농공은행(農工銀行)을 병합하여 동양척식회사의 자매기관으로 출발, 농촌 및 산업기관을 상대로 경제 침략의 구실을 맡았던 일제의 어용 금융기구였다. 1923년 동양척식회사가 조선에 소유한 토지나 조선에 이민 온 일본인에게 분양한 토지를 합하면 약 100만 정보에 달했다.<sup>115)</sup>





일제침략기의 동양척식회사 전경

일제의 ‘피의 통치’ 진상을 독일 외무성에 보고한 「베를린 첩보문서」는 동양척식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08년, 당시 일본의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郞)에 의해 창설된 동양척식회사는 한국과 만주까지 합병하려는 큰 조직체였다. 그것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초기의 자본은 천만 엔이었다. 1923년에는 5천만 엔으로 증자(增資)되었다. 사장은 일본정부가 임명했다. 일본정부로부터 매년 300만 엔의 보조금이 일본인 사장에게 전달되었다. 이 회사의 주목적은 일본인들을 한국에 집단 이주시키기 위해 한국인에게서 토지를 빼앗는 것이었고, 이것이 최대의 과업이었다. 이 회사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사기와 폭력행사도 서슴지 않았으며, 토지를 빼앗긴 한국인들의 식량이나 생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토지와 대지가 한국인의 손에서 빼앗긴 결과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은 굶주리다 못해 만주로, 시베리아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sup>116)</sup>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홋카이도(북해도)를 농업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개척사를 초빙하여 여러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특히 토목·건설에 관한 기술도 이곳을 통하여 많이 받아들였으므로 동양척식주식회사 건축도 의양풍(擬洋風)의 건축물로 1911년에 목조 르네상스 양식으로서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을 모사한 건축물이었다.

건축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기간에 완공된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은 르네상스식에 일본의 건축양식을 가미한 목조 2층으로 연건평 2,446평이었다. 1911년 봄에 착공, 가을에 완공된 것으로 건축 당시만 해도 꽤나 유명했다.<sup>117)</sup> 이 건물은 가각(街角)의 모서리에 주 출입구가 있고, 그 부분에 좌우 한 쌍의 원기둥을 두었으며, 2층 정면도 이와 유사한 입면으로 구성하였다. 양쪽 도로면 입면에도 중간에 가식적인 페디먼트가 사용되었으며, 외관은 전체적으로 당시 일본인 건축가들 중에 유사 서양식 건축을 구사하던 단계에서 막 벗어나온 단계의 풍토가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광복 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은 신조선회사라고 개칭되었다가 1946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신한공사로 새 출발했으나 사회 각계에서 “이 땅에 제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

국주의 잔재를 말살하라”는 세찬 반발이 일어났다. 정부수립 때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정리 사무를 맡았던 신한공사는 1948년 중앙토지행정처에 모든 사무를 이관하고 해체됨으로써 이 땅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잔재가 완전 폐지되었다. 그 후 정부가 수립되자 6·25전쟁 전까지 육군본부, 9·28 환도 후에는 보건부, 내무부가 사용하다가 1970년 4월에 이 건물은 철거되고, 이 자리에 한국외환은행 본점이 세워졌다.<sup>118)</sup>

일제침략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경제 침략에 대한 나석주(羅錫疇) 의사의 의거는 경제 파탄, 생활고로 허덕이던 한

민족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중국에서 김구(金九) 선생의 의열단에 가입한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28일 오후 2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모(歲暮)에 중국인으로 위장하고 인천항에 몰래 입국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장악원 부근의 지리를 익힌 뒤 먼저 식산은행(현 롯데백화점 자리)에 들어가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된 뒤 뛰어나와 동양척식회사로 달려갔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수위실을 기습하여 수위·사원·토지개량부 기술과 차장 및 과장 등을 권총으로 쏘아 일본인 3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그는 가지고 있던 폭탄 1개를 기술과에 던졌으나 불발로 끝나자 곧바로 을지로 큰길로 나와 전차길을 따라 달렸다. 그는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경부보 다하타 유키치(田畑唯次)를 사살하였으며, 을지로2가까지 오게 되었다. 탄환은 떨어지고 사방에서 경찰이 몰려들자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음을 판단한 그는 남은 탄환으로 장렬하게 자결하였다.<sup>119)</sup>

### 3) 한국 고전을 간행한 광문회관

중구 삼각동 7번지 1호에는 1910년에 최남선(崔南善)이 『동국통감』 등 한국 고전 20여종을 간행한 광문회관(光文會館)이 있었다. 광문회관은 1910년에 최남선 등이 한국 고문헌의 보존과 보급, 고전 문화의 선양(宣揚)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 고전간행단체인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세웠다.

경술국치 후 일제는 조선에서 해마다 진귀한 서적과 국보급 문화재를 반출해 나갔다. 이에 충격을 받고 민족 전통의 계승을 위한 고전 간행 및 그 보급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최남선·현채(玄采)·박은식(朴殷植) 등은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한국 고전을 간행하고 문서의 수집·편찬·개간을 통한 보존, 전파를 위하여 고문헌을 최단시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인쇄하고, 가입회원에게는 실비로 배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차로 역사서인 『동국통감』·『동사강목』·『삼국사기』·『삼국유사』·『발해고』, 지리학 서적인 『택리지』·『산수경』, 민속학 서적인 『동국세시기』, 국어학 서적인 『훈몽자회』·『아언각비』, 고전으로 『용비어천가』·『산림경제』·『지봉유설』·『성호사설』·『열하일기』, 문집류로 『율곡전서』·『이충무공전서』 등을 간행하였다.

조선광문회는 수사(修史)·이언(理言)·입학(立學)의 3대 기치 아래 180여 종의 고전 간행을 계획하였으나 20종밖에 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시경 등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1927년 그 원고를 계명구락부로 넘겨주었다.

조선광문회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민족정신과 슬기가 담긴 고전을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공이 크다.<sup>120)</sup>

#### 4) 주차빌딩이 된 조선귀족회관

KEB하나은행 본점 앞쪽의 북서 모서리에는 장악원(掌樂院) 터 표석이, 그리고 다시 뒤편의 남서 모서리에는 제중원(濟衆院) 터 표석이 각각 보인다. 동양척식회사가 있던 이 자리에는 그 이전에 장악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었던 제중원도 이곳에 있었다. 겹으로 드러난 역사가 이러한데, 알고 보면 이 장소에 얽힌 ‘덜 알려진’ 역사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1981년에 거대한 외환은행의 본점 건물이 서면서 하나의 지번으로 묶여 있지만, 원래는 크게 구분되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KEB하나은행 전면에서 바라볼 때 서쪽 절반은 동양척식회사가 있던 자리이고, 동쪽 절반(주차빌딩)은 제중원이 있던 자리였다. 그런 것이 두 구역에 걸쳐 외환은행 본점 건물이 지어졌고, 지번 역시 원래는 을지로2가 195번지와 193번지였던 것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은 이 일대가 모두 을지로2가 181번지로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경성부 명세 신지도〉(1914)에는 동양척식회사와 더불어 귀족회관 자리가 나란히 표시된 모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KEB하나은행 본점은 이 두 구역을 합친 터에 건물을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제중원 표석은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 쪽으로 옮겨서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 동양척식회사가 있던 곳에 제중원의 표지를 해놓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중원이 있던 을지로2가 193번지 구역을 추적하다 보면 제중원이 구리개, 즉 지금의 을지로2가로 옮겨온 것이 1887년의 일이었다. 그러다가 남대문 밖의 복숭아골에 세브란스병원을 따로 지어 그곳으로 다시 옮겨간 때가 1904년이였다. 그리하여 제중원 터는 이듬해에 한국 정부로 반환되었고, 그 와중에 대동구락부가 이곳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조선귀족회관 전경

있다. 대동구락부는 1904년 9월 무렵에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하기하라 모리카즈(萩原守一)가 발기하여 조직했던 한일관민(韓日官民)의 친목단체이다.

그리고 완순군 이재완(完順君 李載完)이 이 단체의 총재로 추대되었다고 적어놓은 기록이 보인다. 그 시절 행세깨나 했던 고관들이 두루 참여했고, 또 고종황제가 하사금까지 내린 탓인지, 한때 이 단체의 위세는 상당한 지경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때마침 한국 정부로 반환되는 제증원 터를 대동구락부가 손쉽게 접수했던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작용했던 결과였을 것이다.

이 자리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른바 경성박람회 때였다. 1907년 가을에 대동구락부 건물을 본관으로 삼고, 그 뒤편의 언덕 일대를 전부 진열 공간으로 삼아 개최했던 이 박람회는 때마침 일본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와 겹쳐 일본인들이 꽤나 흥청거렸던 행사였다. 경성박람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박람회라기보다 서울 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박람회였다. 그러한 경성박람회가 종료된 뒤에는 엉뚱하게도 박람회를 주관했던 농상공부가 직접 이곳으로 청사를 옮겨왔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 조선 말기의 관공서가 구태여 이곳까지 옮겨온 까닭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 건물은 경술국치 이후에 조선귀족회관(朝鮮貴族會館)으로 변모했다.

제중원이 물러난 터는 어느새 친일 귀족의 소굴이 되었다. 회장에는 박영효 후작이, 그리고 민영휘 자작이 부회장을 맡았던 조선귀족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1912년 1월 22일의 일이었다. 조선귀족회의 발회식 때는 “일본 천황폐하께서 청주(淸酒) 한 동이를 하사하여 귀족 일동이 무불 감격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곤 그저 자신들을 귀족으로 지명한 천황의 은덕에 감읍하고, 또 그들만의 복리후생을 꾀하는 것이었을 테지만, 그래도 귀족의 신분에 어울리는 번듯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새집이나 다름 없었던 대동구락부를 지목해 이곳을 차지하게 된다.

가끔 귀족들이 조선귀족회관에 모여 형편이 어려운 귀족들의 처지를 돕기 위해 성금을 각출하거나 이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역둔토(驛屯土)를 불하해 달라고 총독에게 상신하는 내용의 모임을 열기도 했다는 얘기가 전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귀족회관이란 것이 애당초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는 도무지 짐작할 도리가 없다.

흔히 조선 귀족들이 중용되던 중추원에서조차 특하면 화투판이 벌어지기 일쑤였다는 신문 기사가 자주 등장함을 비쳐 본다면, 조선귀족회관에 모여든 그네들이 무엇으로 소일했을 것인지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은사금(恩賜金)을 탕진하고, 파산 상태에 들어간 불우 귀족들도 적지 않았다니, 그러한 작태가 더없이 한심하게만 느껴질 따름이다.

나라를 저버리고 일신의 영달에나 몸부림쳤을 조선 귀족들의 사랑방 정도로나 사용되었을 이 조선귀족회관은 언제까지 존속했던 것일까?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1920년대 후반기까지는 을지로2가 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27년 발행된 <경성시가도>에는 조선귀족회관의 위치가 표시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다. 하지만 그 직후 『조선』 1930년 9월호에는 제중원이 있던 이곳을 ‘황금정 2정목 타카이병원(黃金町 二丁目 高井病院)’이라고 소개한 글이 등장하는 걸로 미뤄보면, 아마도 그 즈음에 조선귀족회관은 벌써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을지로2가에 있는 외환은행이 이곳에 본점 건물을 신축 이전한 것은 1981년 1월 30일 이고, 그 옆에 보이는 주차빌딩은 1990년에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귀족회관은 결국 주차



KEB하나은행 본점

빌딩이 되었다. 토지대장을 보면, 귀족 회관이 있던 을지로2가 193번지는 광복 이후 귀족 재산이 되었다가 민간 기업에 불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상당한 시간이 흐른 1978년 무렵 한국외환은행이 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옆에 있던 동양척식회사 자리, 즉 을지로2가 195번지와 더불어 이 땅을 취득한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KEB하나은행 자리 일대는 동양척식회사, 제증원, 스티븐스의 관사가 있었다는 것도, 시끌벅적한 경성 박람회가 열렸다는 것도, 농상공부, 대

동구락부가 있었다는 것도, 광산기사 코지베 박사의 관사, 일제 말기에는 타카이병원,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신한공사(新韓公司), 내무부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정녕 어려운 일이 되었다.<sup>121)</sup>

## 5) 부군당이었던 아기씨당

서울 지역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부군당(府君堂)이나 도당(都堂)이 몇 개 남아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시대 변천과 인구의 이동이 심한 것에도 있지만 일제가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을 말살시키고자 이들 동제당을 미신(迷信)으로 몰아붙여 강압적으로 폐쇄했고, 이승만 정부도 미신 타파를 내세워 많은 부군당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의 마을 수호신은 시조신(始祖神)이나 국위를 크게 떨친 명장들이 많다.

성동구 행당동의 아기씨당(阿祈氏堂 :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901호)도 아기씨의 화상(畫像)을 모시고 매년 10월 초순에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부군당이다. 원래 이 부군당은 을지로6가에 있었으나 일제 때 전차 종점이 들어서면서 성동경찰서 앞(행당동 133번지)





을지로 6가에 있던 아기씨당은 일제 때 성동구 행당동으로 옮겨졌다.

부근으로 이전하였다. 아기씨당이 퇴락한 채로 방치되자 광복 직후 당굿을 주재하던 ‘죽 집계무당’이라는 별호를 가진 무당의 꿈에 아기씨가 현몽하여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 유지들도 아기씨당의 퇴락을 송구스럽게 여겨 돈을 모아 1947년 현 위치에 새로 아기씨당을 세웠다.

이 당은 6·25전쟁 때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그 뒤 개축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제당은 30평 정도의 대지에 10평 남짓한 건물로서 마루 위에 제단을 마련하고, 정면 한가운데 아기씨, 그리고 좌우로 장군·별성·불사·신장 등의 신령이 무신도(巫神圖)의 형태로 모셔져 있다. 제당의 한쪽 벽에는 이 건물의 내력을 밝힌 현판이 한자로 쓰여 걸려 있다. 아기씨당굿은 2005년 1월 10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죽집계무당은 조선 말 궁궐 나인이었는데 아기씨에 썩여 무당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가 죽은 뒤 며느리가 내리 3대째 이 당의 당굿을 주재하여 오고 있다. 당의 주된 의례인 당굿은 동민들이 비용을 추렴하여 매년 가을에 벌인다. 그것을 ‘아기씨당 고사 잡숫는다.’라고 표현한다. 전에는 밤을 새워 놀았으나 요즘은 낮에 거행된다. 당굿의 목적은 행당1동이 내내 평안하고 병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곳의 네 번째 거리인 아기씨곳에서

는 아기씨의 공수(拱手)가 있어 주민들은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쏟는다. 이 당곳은 농경과는 관계없으나 농촌의 마을 곳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당곳 이외 무당들은 그들의 단골을 데리고 와 소규모의 치성을 올리기도 한다.

이 당의 마당에는 140cm 높이의 5층 석탑이 있고, 서쪽 문 옆에는 신목(神木)이 있으며, 제당 안에는 7개의 화상을 모시고 있다. 7개의 화상은 산신상(山神像), 제석신(帝釋神), 태산노군(太山老君) 등이므로 무속, 불교, 도교의 신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기자상(箕子像)을 더 모시고 있다.

아기씨를 이 제당의 주신(主神)으로 모시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공주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공주도 세상을 비관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동네사람들이 그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을 짓고 그의 화상을 모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 아기씨가 영험이 있어서 소원을 빌면 성취가 되고, 또 이 마을의 처녀가 결혼을 하면 바로 시댁으로 가지 못하고 신부집에 신방을 차려 얼마간 지낸 뒤에 동네를 떠나야지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기씨의 처녀 혼이 질투를 하는 까닭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서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사람은 이 제당에서 폐백을 드리지 않으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현재 아기씨당을 지키는 당주(堂主)에 의하면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을 때 아기씨가 마을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난리가 나니까 나를 숨겨다오”라고 교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아기씨의 화상을 뒤주 속에 숨겨두었다가 가마꾼을 동원하여 청사초롱을 밝히고는 가마로 모셔왔다고 한다. 또 6·25전쟁 때도 난리가 일어날 것을 현재 당주의 할머니 꿈에 교시하였으므로 공산군이 점령하기 3일 전에 아기씨 화상을 은둔시켜 피해가 없었다고 전한다. 이 당시 서울을 점령한 공산군이 이곳 제당에서 자고 나면 병이 났으므로 “어디 이런 곳이 있느냐”하면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당주는 이 제당의 주신인 아기씨를 공주의 화상이 아닌,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시조인 기자의 왕후로 모시고 있다.<sup>122)</sup> 아기씨당 벽면에는 ‘아기씨당 봉건기(阿祈氏堂奉建記)’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 봉건기에 의하면 영조 23년(1747)경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 6) 영신환을 제조한 조선매약

일제침략기 초 중구 저동에서 한약국을 경영하는 이석모(李碩謨)는 일찍이 일본에 다녀오고 부인도 일본인이었다. 그는 건문이 넓은 인텔리로 약업계의 유지여서 구리개의 몇몇 굵직한 한약업자를 규합, 1913년 3월 조선매약(朝鮮賣藥)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조선매약은 공칭 자본금 5만원, 불입자본금 3만 5천원으로 사옥을 구리개에 잡았는데 초대 사장에 이석모가 취임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약은 영신환(靈神丸)이었다. 그 당시 전래되어 내려온 유명한 처방의 환(丸)과 산(散)을 약업총합소(藥業總合所)라는 한약업자 협회에서 제조하여 업자들이 나누어 썼다. 이 총합소는 영리 목적의 단체가 아니었으므로 따로 영리회사를 조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석모가 나서 (주)조선매약회사를 발족시켰던 만큼 이곳에서 제조된 약품은 그 품질이 우수했다.

그러나 조선매약은 확장된 위상에 걸맞은 경영 능력을 갖지 못했다. 판매술과 관리의 불철저, 자금 관리와 운영의 미숙으로 사세(社勢)는 기울기 시작했다. 사세를 바로잡기 위해선 증자가 부득이했다. 능력 있는 경영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이

석모 사장은 화평당약방(和平堂藥房) 이응선(李應善)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응선은 기회가 왔다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조선매약을 장악한다는 것은 제약업계를 손아귀에 넣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응선이 대주주들의 주식을 인수, 과반 이상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19년 가을에 조선매약은 발족한 지 6년 만에 합자회사 화평당약방의 자매회사가 되고 말았다.

조선매약을 장악한 이응선은 동생 이동선을 전무취체역으로 앉히고, 화평당에서 맹활약한



조선매약에서 제조·판매한 영신환 광고

선전의 명수 최찬식의 자리를 옮겨 조선매약의 선전광고 활동을 전담케 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다. 그리고 중외의약신설(中外醫藥新設)도 조선매약으로 가져와 선전지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매약은 회생하였고, 영신환은 ‘언문 영신환!’, ‘조선매약 영신환!’, ‘사춘표(四春票) 영신환!’이란 문구를 내걸고 한반도를 휩쓸었다.<sup>123)</sup>

## 7) 활동사진 상영관, 황금관

황금관(黃金館)은 1913년 1월 1일, 황금유원 내(을지로4가 부근)의 활동사진관으로 개관했다. 소유자는 다무라 요시지로였으며, 하야가와 마쓰타로가 운영을 맡았다고 한다. 하야가와는 텐카츠의 선만일수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신이 세운 하야가와 연예부를 중심으로 조선과 만주, 중국, 대만 일대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황금관은 다른 상영관에 비해 규모도 크고 외관 장식도 그리스풍 2층 대리석 건물로 지어 이름만큼이나 화려했다. 수용 관객 수가 1,000명에 가까웠는데 처음엔 주로 연예를 상영했다. 1916년 6월 10일에는 기존 건물 근처의 을지로4가 164번지(전일 국도극장, 현 국



일본 영화를 주로 상영했던 황금관은 광복 후 국도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호텔)의 새로운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이전한 건물은 1915년 시정(施政) 5년기념 조선 물산공진회를 위해 만들어진 연예관이었다. 공진회가 끝난 후, 경합 끝에 황금관이 연예관 건물을 인수하여 옮겨 지은 것이다.

1919년에 텐카츠가 해산되어 국제촬영주식회사로 바뀌면서 황금관에는 코우카츠 영화를 상영했다. 1922년 황금관의 운영은 하야가와에서 삼우구락부로 넘어갔다. 이 당시 황금관은 유니버설사와 제휴하여 서양영화 전문관으로 바뀌었다.<sup>124)</sup>

1923년 12월, 황금관과 조선극장을 경영하던 일본인 극장업자 하야가와 고슈가 「춘향전」을 처음으로 영화로 제작하여 황금관에서 개봉하였다. 「춘향전」은 조선극장 소속의 변사(辯士) 김조성(金肇聲)이 이도령 역을 맡고, 기생 한룡(韓龍)이 춘향 역을 맡았다. 작품이 잘 되었고 잘못 되었고는 차치하고, 미남 미녀가 한복을 입고 엮어가는 춘향전이 얼마나 서울 장안을 들끓게 했을 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인과 「춘향전」의 황금 소재가 일본인 손에 질취당한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었지만 한국 흥행사상 「춘향전」의 신화는 여기서 비롯되었다.<sup>125)</sup> 황금관은 1936년에 황금좌(黃金座)로 이름을 바꾸었고, 광복 후 1946년 5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개관하면서 국도극장(國都劇場)으로 명칭을 바꾸었다.<sup>126)</sup>

## 8) 광목으로 유명했던 경성방직

일제 때 남대문로1가 16번지에 경성방직 본사가 있었다. 공장은 영등포에 있었다. 1919년 10월에 세워진 (주)경성방직(京城紡織)은 동아일보 창업자인 김성수(金性洙)와 삼양사 창업자인 김연수(金堧洙)가 전국을 돌며 1인 1주 공모 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세웠다. 한 주의 가격은 50원. 세워질 당시 주식 2만 주 모두 한국인이 소유했다. 경성방직은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로 기록됐으며, 박영효(朴泳孝)가 초대 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를 다진 인물은 김용완 회장이다. 그는 1929년 삼양사의 전신인 삼수사에 입사하여 1938년 경성방직의 지배인, 1946년 경성방직 4대 사장에 올랐다.<sup>127)</sup>

경성방직은 우리나라 근대 제조업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차지하였으며, 일제 때 ‘삼성표’, ‘삼각산표’ ‘태극성’ 광목(廣木)을 짜서<sup>128)</sup> 판매하여 널리 유명했다. 경성방직은 창설



경성방직주식회사 입구와 태극성 광목 광고

당시부터 “조선인의 의류는 조선인 손으로 공급하자”라는 목적으로 한 명의 일본인도 고용치 않았을 뿐 아니라 공장설비도 한국인들의 기술로 이루어놓았다.

1946년 3월 6일, 남대문로의 경성방직 본사에 화재가 발생, 건물이 소실되었다.<sup>129)</sup>

1970년에는 사명을 경성방직에서 (주)경방으로 바꿨는데

본사는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4단지에 공장이 있었다. 현재 경방은 면사, 생사, 화섬사 등의 제조 및 판매, 면직물, 견직물, 화섬직물 등의 제조 및 판매, 사포가공업, 백화점 사업을 맡고 있다.

## 9) 무성영화관, 대정관

1920년대 인현동1가에는 대정관(大正館)이라는 영화관이 있었다. 이 무렵의 대표적인 영화관으로는 종로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단성사가 있었고, 일본인 거리인 이곳의 대정관은 제국(帝國) 키네마계의 영화관이었다.<sup>130)</sup> 이 영화관에서는 무성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변사(辯士)가 출연하여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 10) 증권거래소의 전신, 조선증권취인소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식이 발행된 것은 1899년에 상업은행의 전신인 천일은행이 주식회사로 설립된 때이다. 채권은 1905년 조선 정부가 국고증권조례(國庫證券條例)를 공포하고 국채를 발행한 것이 처음이다. 최초의 조직적인 증권시장은 경술국치 후인 1911년에



조선증권취인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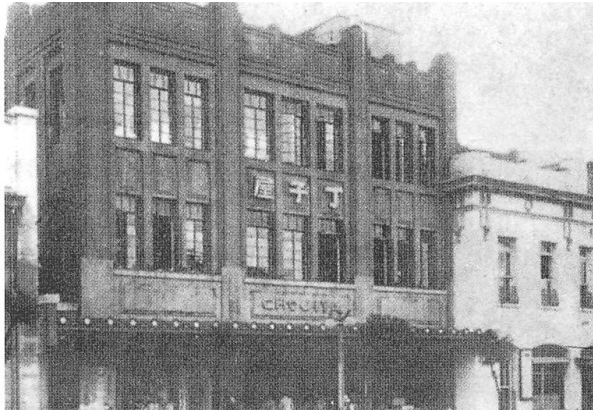
일본인을 주축으로 유가증권 현물위탁매매업조합이 결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 5월 28일에는 경성 주식현물취인시장(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이 설립되어 최초의 조직적인 형태의 증권거래소가 탄생되었다. 그 후 일본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1931년 7월 1일 조선취인소령(朝鮮取引所令)을 제정하여 증권거래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일제침략기의 조선의 주식자본은 거의 일본인이 독점하였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여 일제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1943년 7월에 종전의 조선취인소령을 폐지하고, 조선증권취인소령을 제정하여 영단제(營團制) 성격의 특수법인인 조선증권취인소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로써 투기성이 강한 단기 청산거래는 폐지되고, 장기 청산거래만이 허용되었다.<sup>131)</sup>

## 11) 미도파의 전신, 조지야 백화점

남대문로2가 123번지 소공동 입구에는 1921년 4월 조지야(丁子屋) 백화점이 있었다.





1920년대 말의 조지야 백화점

그 후 1935년 이 백화점은 근대적인 모습으로 재건축되었다. 이 백화점은 양복점을 하던 고바야시 모나카(小林間中)가 시작한 관계로 ‘양복 잘하는 곳’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때문에 광복을 전후해서 종로에 들어선 양복점, 특히 광고 방면의 양복점 주인은 모두 조지야 출신이었다.<sup>132)</sup>

1945년 광복 후 이 건물은 적산(敵産)으로 분류되어 미군정청에서 미군전용 PX로 사용되었으며, 1948년 한국무역협회에 불하되어 조지야 백화점은 중앙(中央)백화점이 되었다. 1964년 상공부 시범백화점으로서 주식회사 무역회관이 되었으며, 1966년 5월 주식회사 미도파 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직영체제로 되었다.

2002년 7월, 미도파 백화점이 롯데쇼핑(주)에 인수되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현재는 롯데 영프라자가 들어섰다.

## 12) 문화정책의 산물 총독부도서관

옛 남별궁(南別宮) 터인 소공동 1번지에는 일제가 1923년 3월에 착공해서 동년 12월에 준공한 르네상스식 건물인 ‘조선총독부 도서관’이 있었다.

일본은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통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 사상의 선도 등을 목적으로 이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관장직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직은 일본인이 차지하였으며, 창설 이래 1945년 광복되기 전까지 수집, 보관한 총 장서는 약 28만 권이었다. 그 장서 분류에 조선문(朝鮮文)을 별도로 설정하고, 그 부록으로 만주·몽골·시베리아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었으므로, 당시 일본의 한국을 비롯한 대륙침략정책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구실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33)</sup>



일제침략기 훈련원 터에 건립된 경성운동장

### 13) 동양 제일의 규모, 경성운동장

경성운동장(京城運動場)은 일제침략기인 1925년 5월 24일에 기공하여 동년 10월 15일 준공하였다. 당시 경성부는 서울 한양도성과 이간수문의 윗부분을 철거하고, 약 4m를 흙으로 매워 운동장으로 조성하였다. 이리하여 80년간 묻혀 있던 이간수문과 서울 한양도성은 서울시가 2009년 9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굴 조사했을 때 3.7m 아래에서 발굴되었다.

훈련원 터에 경성운동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경성부가 일본 쇼와(昭和)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이에 기념운동장으로 명명하였다.

경성운동장은 훈련원 동쪽 광희문과 동대문 사이 공원지에 해당하는 대지 22,700평에 총 공사비 155,000원을 들여서 만든 당시 동양 제일의 경기장이었다. 경성운동장은 경성부 토목과장 이와시로(岩城)의 공사 지휘로 개장식을 거행하였으며, 총면적은 22,700평, 총 수용 인원은 25,800명이었다.

이 운동장은 당시 경성부 인구 25만 명을 기준으로 건축된 것으로 구조는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육상경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구장 좌석은 정면 15개 층, 동서 양쪽은 10층으로 5,8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육상경기장의 총면적은 28,000평으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구장은 시합용 코트는 두 곳, 연습용은 하나로 1,300명의 좌석을 만들 계획이었다.<sup>134)</sup> 1934년에 가서야 야구장 뒤쪽에 정구장을, 1936년에 육상경기장 후면에 수영장을 개장하였다.<sup>135)</sup>

경성운동장 건너편 훈련원 내의 공터에는 겨울에 유료 스케이트장이 개장했다. 경성 싸이클 구락부 주관으로 시설된 동대문 활빙장(東大門溜氷場)은 1939년 12월 18일부터 입장료 10전 균일로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링크 주위는 약 150미터로 싸이클 구락부원에 게는 특별우대를 하였다.<sup>136)</sup>

#### 14) 을지로에서 6·10독립만세 시위

6·10독립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융희(순종) 황제의 인산일(因山日)을 기하여 만세 시위를 일으킨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이다. 창덕궁의 순종 황제가 승하한 지 39시간 25분만인 1926년 4월 26일, 국상(國喪) 발표가 있는 후로 서울의 거리는 애도와 긴장 속에 싸여 있었다. 이 날 돈화문 앞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애수어린 가운데 발상(發喪)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 40분경 국상 소식을 들은 어떤 늙은 부인 한 사람이 창덕궁 서쪽으로부터 구슬픈 목소리로 곡을 하며 돈화문 앞에 나타나자 군중들도 일시에 설움이 북바쳐 비장한 목소리로 일제히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혹은 엎어지고 혹은 누워서 뒹굴며 혹은 가슴을 두드리고 혹은 두 손으로 굳은 땅을 긁으며 요란히 통곡하는 애통한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땅위에 진동하였다. 곡성(哭聲)을 따라 네거리가 터지도록 뒤를 이어 모여드는 흰 옷 입은 시민들은 삼시간에 수만 명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화문 앞에 모여 들어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 참마음으로 통곡하여 돈화문 부근 일대는 사람의 바다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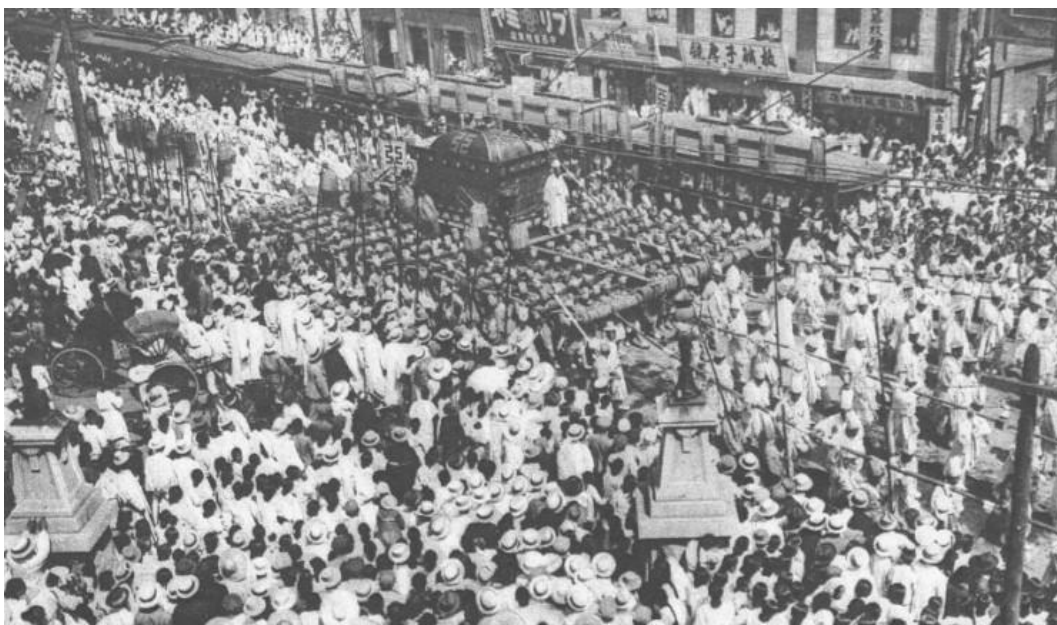
조선의 마지막 임금을 조곡(弔哭)하기 위하여 많은 민중들이 몰려들자 일제 경찰은 혹시라도 7년 전 고종 황제 상사를 계기로 일어났던 3·1운동과 같은 항일독립운동을 예상

하고, 창덕궁 일대는 물론 온 시내에 비상경계망을 폈다. 그리고 4월 28일에 송학선(宋學先) 의사의 세칭 ‘금호문(金虎門) 사건’이 일어나자 인심은 한층 긴장하고 일제의 경계는 더욱 삼엄했다. 경찰, 헌병의 대량 동원뿐만 아니라 일제는 각처의 주둔 병력도 동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로 집결한 군대의 일부를 조선군사령관 모리오카(森岡)의 직접 지휘 아래 허울 좋은 의장병(儀仗兵)이란 명목으로 호위를 담당하게 하며, 조금만 수상해도 연행하여 무서운 고문과 감금을 자행하였다.

마지막 황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인산일인 6월 10일을 기하여 3·1운동과 같은 만세 시위를 하여 한민족의 항일 의지와 독립의 정신이 변함없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 6·10만세운동을 계획한 것은 사회주의운동 계통의 권오설(權五高) 등이었다. 기성층의 만세운동 준비와 함께 학생들 간에도 순종의 인산을 계기로 만세운동 계획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운동은 대개 2개 파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조선학생 사회과학연구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을 사직동계(社稷洞系)라 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 파를 통동계(通洞系)라 칭하는데, 이는 모의와 준비를 사직동과 통동(통인동)에서 했기 때문에 연유된 호칭이었다.

그 중 사직동계의 모의는 바로 순종 국상이 발표되던 4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이병립(연희전문과 2년), 이천진(李天鎭, 경성제대예과 1년), 이선호(李先鎬, 중앙고보 5년) 등 사회과학연구회원 80여 명이 세검정에서 춘계 야유회를 가졌는데 마침 이날 순종 국상 발표가 신문 호외로 알려져 회원들 간에 서로 공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5월 20일에는 죽첨정(竹添町) 1정목(충정로1가)에 있는 박두종(朴斗種, 중앙기독 청년학생)의 하숙집에서 각 학교 대표 40여 명이 모임을 가짐으로써 6·10만세운동계획을 결정하고, 여기서 박두종(朴斗種)·이천진·이선호·이병립·박하균(연희전문 학생)이 준비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책임자들이 산책을 가장하고 북아현동에 위치한 애기릉 소나무 숲에 모여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들었으며, 이튿날은 다시 인쇄기를 구입하여 사직동에 있는 이석훈(李錫薰)의 하숙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이천만 동포여! 원수를 구축(驅逐)하라. 피의 값은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격문 수만 장을 인쇄하고, 다시 이를 각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6월 10일을 기해서 일제히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순종 황제 인산일 추모행렬

한편 통동계의 이동환(李東煥), 박용규(朴龍圭, 이상 중앙고보 5년), 김재문(金載文), 황정환(黃廷煥), 곽재형(郭載炯, 이상 중등학교 특과생) 등은 5월 16일에 회합을 갖고, 역시 6월 10일 순종 인산일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각 학교에 연락을 취하여 5월 23일에는 학교 대항 축구시합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소문 밖 삼선평(현재 삼선동)에서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이때 소집 취지를 설명하던 이동환은 만세 몇 번을 부르고 마는 미온적인 투쟁 방법보다는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본정(지금 충무로) 일대를 습격하고, 총독부를 때려 부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동환 등의 제의는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며, 5월 25일 이동환 등 대표자 5명이 다시 통동 김재문의 하숙집에 모여 토의한 결과 6·10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5월 26일부터는 이들도 인쇄기를 마련하여 격문을 인쇄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고, 6월 8일에는 격문을 서울, 지방 각 학교에 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때 이들이 인쇄 배포하였던 격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족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제국주의(帝國主義) 일본이다.

삼천만 동포야!

죽음을 결단코 싸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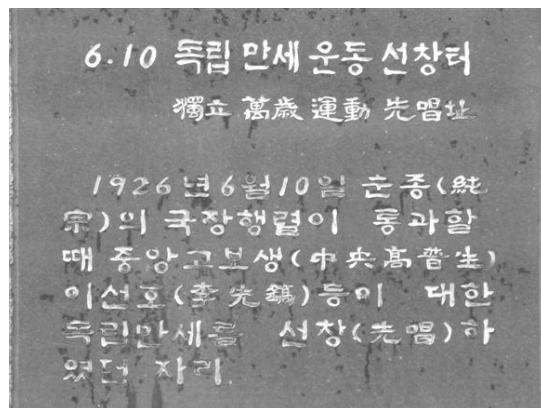
만세, 만세,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

단기(檀紀) 4259년 6월 10일

조선민족대표 김성수(金性洙) 최남선(崔南善) 최린(崔麟)

인산일이 가까워지자 일본 경찰의 경계는 더욱 엄중해졌다. 더구나 권오설, 박내원 등의 만세운동 계획이 탄로되어 많은 인원이 체포되고 격문이 발견되자 일제는 더욱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요시찰인(要視察人)을 검속하고, 각 사상단체를 수사하여 문서를 압수하였다. 또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며, 학교별 봉도식(奉悼式)을 중지시키고, 당일에는 공·사립고등학교, 전문학교 학생 2만여 명을 상여가 지나는 길 양쪽 군경이 도열한 뒤쪽에 배치하고, 그 뒤에 다시 사복경찰을 배열하여 행동의 자유를 취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피 끓는 학생들의 의기는 소침되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전열을 정비하고, 당일에는 중요한 곳곳에서 예정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6월 10일 아침 8시경, 상여가 창덕궁을 떠나 영결식장인 훈련원(현재 훈련원공원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여 행진하였고, 연도에는 30만 명의 봉도(奉悼)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인 ‘오호! 오천 년사의 최후 인산, 산하는 의구(依舊)한데 왕손은 하처귀(何處歸)냐’처럼 서울은 온통 민족적 비애와 역사적 감회에 잠겼다. 이러한 비애와 감회는 황제의 유해를 실은 상여가 창덕궁을 떠나 거리로 지나가면서 고조되었으며, 이런 고조된 슬픈 감회를 깨우치기라도 하는 듯이 상여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여기저기서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나왔다.



6·10독립만세운동 선창 터 표석

아침 8시 30분경, 방상씨(方相氏)를 선두로 각색 의장기(儀仗旗)가 휘날리는 행렬이 종로3가 단성사 앞을 지날 때, 중앙고보생(中央高普生) 대열에서 이선호(李先鎬)의 선창에 호응하여 40여 학생의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외쳐지고, 태극기가 휘날리며 격문 2천여 장이 살포되었다. 여기에 따라 연도의 시민들이 일제히 호응하니, 일제의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 경찰 헌병이 갈팡질팡 달려들어 학생 40여 명을 붙들어가자 이 일대는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행렬이 청계천 관수교(觀水橋)를 통과할 때는 다시 연희전문학교의 이병립(李炳立), 박하균(朴河鈞), 이천진(李天鎭) 등을 주동으로 하는 연희·보성 두 전문학교 학생 50여 명이 3천여 장의 격문을 뿌리며,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기세를 올리자 민중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학생 50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 9시경에 황금정 5정목(을지로5가) 경성사범학교 앞을 지날 무렵에는 중앙기독교청년학관 학생 박두종 등 3명이 군중을 헤치고 나와 만세를 고창하고 격문 1천여 장을 뿌렸다. 이때도 학생 3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렇게 하여 상여가 훈련원의 식당으로 들어가기까지 연도에서 세 차례에 걸친 만세시위가 있자 일제 당국은 경계와 검거에 진땀을 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근은 큰 혼란을 이루었는데 6월 11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였다.

창덕궁 돈화문 앞을 비롯하여 약초정(若草町, 지금 중구 초동) 네거리를 지나 훈련원 일대와 또 동대문 부근을 비롯하여 그 문 밖에는 모두 봉도(奉悼)하는 뜻으로 최후의 인산을 배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0~50만 명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연도(沿道) 좌우로 사람의 성벽을 쌓아 놓고 모두 비참한 심정을 억제치 못하고 있는데 별항 보도와 같이 만세사건이 돌발하자 그 군중들의 심경은 돌연히 일변하여 시내 대중의 파동이 일어나 마치 별의 집을 찢어 놓은 듯이, 「와」하고 살기가 가득하여져 그 형세가 자못 험악하였었다.

그 안으로 육혈포(권총)를 빼어 들고 칼자루 소리를 데그럭 거리며, 이리 저리 들리는 만세 부른 학생들을 잡고자 정복순사와 사복순사들이며 또는 기마순사들이 군중 사이로 우왕좌왕하여 완전히 수라장을 이루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이상한 폭성(爆聲)으로 봉결장(奉訣場)에 폭탄을 던지었다는 소문이 군중들 사이에 전파되자



그 순간의 군중들의 동요는 더 한층 대단하여지고 국장행렬까지 동요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엎어지고 자빠지며 약한 여자와 어린 아이들 중에는 부상자가 다수히 있었고.....

훈련원에서 영결제전을 끝내고 나가는 중에도 동대문 밖 창신동 동묘 근처 신설동 등 여러 곳에서 만세 소리·격문 배포가 있었다. 그중 창신동 채석장 부근에서는 노인이 단지(斷指) 혈서(血書)한 태극기를 들고 나와 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또 국장일을 전후하여 지방에서도 전주, 통영, 순창, 원산, 개성, 홍성, 신천, 평양, 마산, 공주 등 여러 곳에서도 봉도행사로 인하여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기도 하였다.

배재고보생이었던 문창모·손성엽 등은 국장일 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분개하여 다시 다른 학교 학생 수십 명과 함께 비밀리에 격문 수만 장을 인쇄하여 재차 거사를 계획하다가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에서 국장 당일의 만세운동으로 하여 검거된 학생 중에 취조한 결과 주동 인물로 인정된 이선호·이병립·박두중·박하균·이천진·유면희·박용규·곽재형·김재문·황정환·이동환 등 11명은 끝내 기소되어 그 해 11월의 경성지방법원 공판, 이듬해 3월의 복심법원 공판을 거쳐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일제의 경찰고문이나 법정 심문에서도 기개를 굽히지 않고 당당히 항쟁하였다.<sup>137)</sup>

6·10독립만세운동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감행하여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안겨 주었고, 민족운동사의 큰 횃불이 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학생 210여 명,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06명이 취조를 받았으며, 53명이 수감되었다.<sup>138)</sup>



6·10만세운동 주동자 재판 장면

한편 융희황제(순종)의 장례식 장면을 과정별로 생생히 담은 4분 40초의 다큐멘터리 비디오 테이프를 1994년 6월 9일에 서울학연구소가 미국에서 처음 입수, 공개하였다. 공개된 테이프는 3분 50초짜리로 순종 장례일 오전 6시 30분 황제의 유해가 창덕궁을 출발해 돈화문 앞~단성사 앞~황금정 3정목(을지로3가)~훈련원(동대문운동장)~동대문~청량리를 거쳐 오후 10시 유택(幽宅)인 금곡에 안치되는 장면이 차례로 들어 있다. 순종의 영구가 실린 대여(大輿)를 중심으로 기병들이 호위하고, 뒤에는 8도에서 올라온 만장(輓章)들이 하늘을 덮은 장면도 생생히 실려 있다. 연도에는 수십만의 애도 인파가 줄을 잇는 모습과 주변 민가도 보여 당시 서울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sup>139)</sup>

## 15) 국립중앙의료원 전신, 경성부민병원

1927년 을지로6가 18-79번지에서 진료를 시작한 경성부민병원은 1934년 3월 2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경성부민병원을 모체로 하여 광복 후에 서울시민병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국립의료원, ‘메디칼센터’라 부르다가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되었다.

1934년 6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7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유료 환자가 73%, 무료 환자가 27%였다. 그 중 한국인은 8,440명, 일본인은 3,928명이었다.<sup>140)</sup> 1935년 1년간 경성부민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16,838명으로 전년 대비 4,470명 증가하였다.<sup>141)</sup>



경성부민병원 전경

1937년 8월 익선정(益善町)의 최준주(崔俊珠: 31세) 산모가 유복자를 임신했다가 출산이 임박하여 무료진료 증명서를 얻어 경성부민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병원 측에서 분만 침대가 만원이라고 하며 그대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귀가하던 최준주 여인은 길거리에서 분만하게 되었는데 아기는 사



복원된 명치좌. 현재는 연극 전용 극장인 명동예술극장으로 쓰이고 있다.

산(死産)하였다. 그러자 이 병원이 극빈자에게 응급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무성의하다는 여론의 비난이 일기도 했다.<sup>142)</sup>

## 16) 일본 영화 상영관 명치좌

명치좌(明治座)는 일제침략기인 1936년 10월 7일, 현재 명동1가 54번지에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명치좌는 명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미도파백화점에서부터 명동성당까지 한 축으로 이어져 있었다. 부민관, 약초극장, 황금좌 등과 함께 1930년대 일본인들을 위한 위락 시설로 지어져 주로 일본 영화만 상영했다. 당시 명치좌의 수용 인원은 1,178명으로 1층 664명, 2층 354명 그리고 3층 160명으로 설계되었다.

명치좌는 광복 후 미군정 때 국제극장이란 이름으로 재개관됐다. 이후 국제극장은 서울시가 관리하게 되어 시공관(市公館)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집회시설로 쓰이거나 연극 등의 공연을 했다. 시공관은 6·25 전쟁으로 황폐해져 1952년 개수 끝에 1957년 6월 1일, 다시 명동예술회관이란 이름으로 바뀌며 국립극장이 되었다. 명동예술회관은 1962년 3월

21일 명동 국립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고, 1973년 9월에 국립극장으로서 연극·오페라·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1973년 10월 17일 남산의 국립극장이 개관될 때까지 10여 년간 국립극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그 후 명동예술회관은 폐쇄되고, 1975년에는 대한투자금융(현 대한종합금융)에 매각되어 금융업체 건물로 변질되었다. 1985년 12월 내부를 전면 개수, 대한종합금융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이어 헐릴 위기까지 있었다.

1994년 명동 상가변영회가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명동예술회관 복원운동을 시작하였고, 1999년 대한투자금융이 영업인가가 취소되면서 법원 경매에 부쳐지자 문화관광부가 2002년 8월 23일 결단을 내려 명동 국립극장으로 개수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문화관광부가 400억 원에 이 건물과 땅을 사들여 36년만인 2009년 6월 5일 ‘명동예술극장’으로 재개관했다. 현재 명동예술극장은 연극 전문 공연장이 되었다.<sup>1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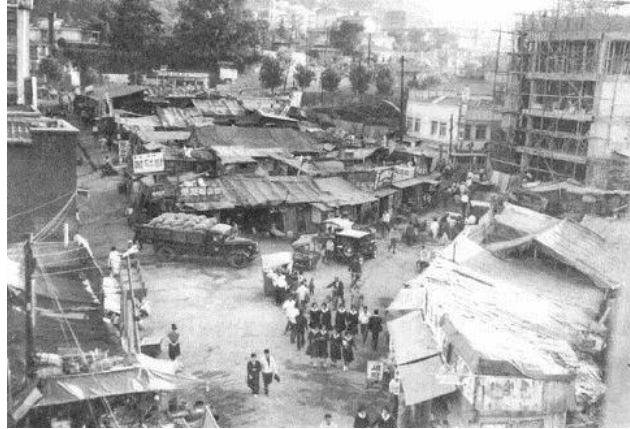
## 17) 경성 최고 9층 빌딩, 반도호텔

롯데호텔의 뿌리는 1938년 4월 1일 중구 을지로1가 18번지에 세워진 반도호텔이다. 호텔을 세운 사람은 일본 신흥재벌 노구치 준(野口遵)이었다. 함경남도 흥남 질소비료공장과 압록강 수풍댐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노구치 준은 허름한 옷차림에 작은 체구를 가졌는데 1931년 당시 총독부 철도국이 직영하던 서울 최고급 호텔인 조선호텔에 묵으려다 그의 남루한 외모를 본 호텔 직원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가로 막자 이에 분격하여 반도호텔(정식 이름은 조선빌딩)을 직접 세우기로 하여 6년간 공사 끝에 1938년에 준공하였다.<sup>144)</sup>

원래는 봉명학교 터였는데 노구치가 헐값으로 구입하여 총 공사비 200만원을 들여 건축하였다.<sup>145)</sup> 연건평 6,000평,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다. 빌딩의 1~5층은 노구치 준의 회사 사무실과 임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6~8층은 객실을 만들어 ‘반도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18) 폭격에 대비해 만든 소개공지

1945년 3월 10일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에 의한 피해와 화재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선에서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미군에 의한 폭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자명했으므로 일본 각지에서는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공터로 남겨두는 ‘소개공지(疏開空地)’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성부의 소개공지(疎開空地)

도심부 소개정책 사업은 당시 식민지인 한반도에도 시행되어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성, 부산, 평양, 대전, 대구 등 주요도시 도심부 거주지에 각각 ‘소개공지’ 또는 소개공지대(疏開空地帶)라는 것을 지정했다. 이는 과밀한 지역에 폭격으로 연소 등으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었다. 경성부 내의 소개공지대는 모두 19곳이었으며, 제1차 소개작업은 5월 11일부터 시작되어 6월 말에 끝났다.<sup>146)</sup>

을지로 지역의 ‘소개공지’ 중 한 곳이 종묘 앞에서 중구 필동에 이르는 너비 50m, 길이 1,180m의 현 세운상가 지역이었다. 곧바로 제2차 소개 작업도 시작되었으나 일본의 패전으로 미완으로 끝났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방치되어 있던 소개공지에는 이재민과 월남민들이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고 사창가(私娼街)도 들어섰다.<sup>147)</sup>

### 3. 을지로의 항일독립운동 현장

#### 1) 우당 이회영·성재 이시영 집 터

중구 을지로2가 1, 164번지

독립운동가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 1867~1932)과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 1869 ~1953) 형제는 이조판서 이유승(李裕承)의 4남과 6남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이끌었

우당 이회영 · 성재  
이시영 선생 집 터



던 독립운동가이다. 현재 을지로2가 서울 YWCA에서 향린교회에 이르는 구간은 이들 형제의 저택이 있었던 곳이다. 1910년 경술국치가 되자 건영 · 석영 · 철영 · 호영 등 6 형제 전원과 일가족 50여 명이 전 재산 40만원(현 시세 약 600억 원으로 추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을 떠난,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집안이다. 우당 이회영 · 성재 이시영의 집안은 백사 이항복(李恒福)의 후손으로, 6명의 정승과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였다.<sup>148)</sup>

이회영은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개소하였고, 1912년에는 ‘합니하’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무관학교 교육을 시작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에 폐교할 때까지 독립군 간부 3,500여 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이루고, 독립전쟁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복군을 창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고종황제를 설득하여 망명 계획을 추진하였다.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되자 우당 이회영은 의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무정부주의(아나키스트)운동과 ‘의열단’ 조직을 지원함과 동시에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여 흑색공포단을 산하에 두고, 의혈투쟁에 매진하였다. 1932년 우당 이회영은 중국의 항일부대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하도록 현지 지도 차 상하이에서 배로 잠입하던 중 대련에서 체포되어 여순 감옥으로 이송, 모진 고문과 굶주림으로 66세인 1932년 11월 17

일에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을 받았다.<sup>149)</sup>

이러한 이회영 선생의 공적을 기려 기념사업회에서 2014년 2월에 ‘이회영·이시영 6형제 집터’ 표석이 위치한 서울YWCA 앞에 흉상(胸像)을 건립하였다.

성재 이시영은 16세에 관직에 나아가 10여 년간 형조좌랑·홍문관교리·승정원부승지·궁내부수석참의·평안남도 관찰사에 등용되었고, 근대학교 설립 및 애국계몽운동에 종사하였다. 그 뒤 1907년 중추원 칙임의관, 1908년 한성재판소장·법부 민사국장·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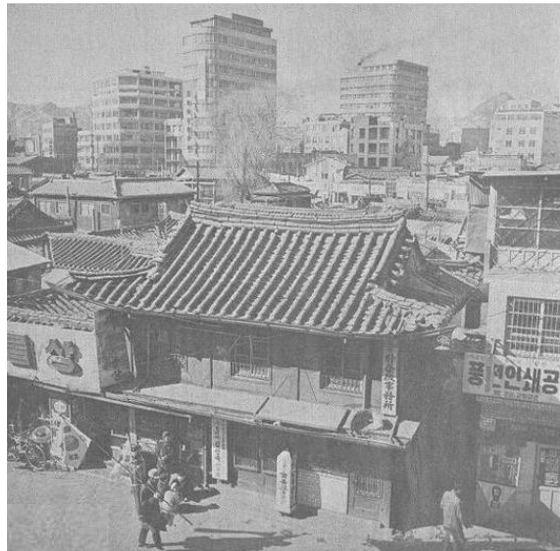
경술국치를 맞자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여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의거하여 6형제의 가재(家財)를 재원으로 삼아, 1910년 말 서간도(西間島)로 가족을 거느리고 망명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상해임시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이동한 후 국무위원·재무부장·의정원의원 등을 역임하며, 광복 직전까지 상해임시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부통령에 당선되었다.<sup>150)</sup>

## 2) 신문관·조선광문회 터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SKT타워 앞길

신문관(新文館)은 최남선(崔南善)이 출판사업을 통한 민중계몽과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1908년 세운 인쇄소 겸 출판사였다. 『대한역사』·『대한지지』 등의 도서와 월간잡지 『소년』(1908. 11~1911. 5) 등을 발행하였는데, 특히 『소년』은 1909년 9월 청년학우회가 설립되자 그 기관지임을 표방하며, 지면에 정기적으로 「청년학우회보」를 실었다.

광문회관(光文會館)은 1910년에 최남선 등이 한국 고문헌의 보존과 보급,



조선광문회 전경



고전(古典) 문화의 선양(宣揚)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 고전 간행 단체인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자리했던 곳이다.

조선광문회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민족정신과 슬기가 담긴 고전을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공이 크다. 조선광문회는 ‘105인 사건’ 이후에도 3·1운동 직전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남아 있던 학자·지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문관과 조선광문회는 1914년 초반 무렵까지 경성부 남부 상리동 32통 4호에 입주해 있다가 1914년 후반 무렵에 경성부 황금정 2정목 21번지로 이전하였다.<sup>151)</sup>

### 3) 훈련원 터

중구 을지로5가 40-3 : 훈련원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쪽 일대의 훈련원공원 자리에는 조선시대 무인들의 과거 시험 장소로 무예를 익히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의 강습을 맡았던 훈련원(訓練院) 관아가 있었다.

조선 말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1907년 7월 19일,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7월 24일 정미 7조약(한일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이어서 새로 황제에 등극한 순종을 압박하여 7월 31일, 군대해산 조칙(詔勅)을 내리도록 하였다. 일제는 한국군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한국군 해산 장소를 훈련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8월 1일, 훈련원에서 군대해산식을 강행하였다.

그에 앞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는 군부대신 이병무 이하 각 부대 대대장급을 자신의 관저로 불러 황제의 군대해산 조칙을 전달하고, 오전 10시까지 각대 사졸을 무장해제한 채 맨손으로 훈련원에 집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8월 1일 오전 8시, 군대해산에 분개한 시위연대 제1대대 박승환(朴昇煥) 대대장이 자결하자 이를 알게 된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군인들이 남대문과 서소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무장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sup>152)</sup> 오전 10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장해제 당한 상태로 집결한 한국군 장병들을 중무장한 일본군이



훈련원 공원 전경

포위한 가운데 군대 해산식을 진행하였다.

서울 시위대의 해산으로 시작된 한국군 해산은 8월 3일, 수원 진위대 해산에서, 9월 3일 북청 진위대 해산에 이르기까지 1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화와 원주 진위대 장병들이 조직적인 무장봉기에 나서고, 일부 해산군인들이 의병진에 가담함으로써 의병투쟁은 일종의 국민전쟁으로 발전해 나갔다.

#### 4) 이재명 의거 터

중구 명동2가 1번지(명동성당 정문 앞)

종현 천주교회당(명동성당) 정문 밖은 이재명(李在明) 의사가 1909년 12월 22일, 종현 천주교회당(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의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을 찔러 복부와 어깨에 중상을 입힌 의거를 한 곳이다.

이재명(1886~1910)은 평양 일신학교를 마친 뒤 1904년 미국 노동이민 모집에 응모해 하와이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1906년 다시 미국 본토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공립

협회(共立協會)에 가입해 활동하던 그는 1907년 7월 정미7조약의 강제 체결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 침략 원흉과 매국노를 처단할 것을 결심한 이재명은 1909년 1월 순종황제의 서도(西道) 순시에 동행하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안창호의 만류로 그만두고, 항일투쟁을 위해 원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다.

그해 10월 26일 안중근의 이토 처단 소식에 고무되어 다시 귀국한 그는 평양에서 동지



이재명 의사 존영

들과 친일매국노 이완용·송병준·이용구 등의 암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상경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1909년 12월 22일 중현 천주교회당(명동성당)에서 있을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군밤장수로 가장하여 성당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완용을 찔러 복부와 어깨에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뒤 일제 경찰에 체포된 이재명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9월 13일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sup>153)</sup>

## 5) 최익환 숙소 터

중구 주교동 125번지(을지로4가역 4번 출구 부근)

1919년 3월 말 비밀결사 대동단(大同團)을 결성한 최익환과 전협은 그해 4월 김가진(金嘉鎭)을 총재에 추대하고, 경성부 주교정 최익환의 숙소에서 등사판을 사용해 「선언서」 약 50매와 「기관 방략(機關方略)」 약 40통, 「진정서」 약 20통, 「포고」 약 50통을 인쇄하였다. 「선언서」는 대동단의 취지와 목적을 싣고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의 선언에 기초해 독립을 위해 분투할 것을 선언한 문건이었고, 「기관 방략」은 대동단 기관의 구성 및 활동



대동단 사건 재판을 보도한 신문기사

방법을 규정한 문건이었다. 그리고 「진정서」는 미국 및 과리강화회의에 일제의 한국 병합의 불법성을 통박하고 조선 독립의 공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최익환은 그 해 5월 경성부 중로 5정목 178번지 양제은의 집에서 동지 권태석과 함께 조선인 학생의 독립운동 결기를 촉구하는

「등교 학생 제군」 약 60통과 「선언서」와 같은 취지의 글을 기술한 「선언」 약 2천 매 등을 인쇄해 일반에 배포할 계획을 실행하던 중 5월 23일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당했다.<sup>154)</sup>

## 6) 조선교육협회 회관 터

중구 수표동 11번지(을지로3가역 2번 출구 부근)

중구 수표동 11번지에 위치했던 조선교육협회 회관은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조선민립대학 운동을 주도하였던 곳이다.

조선교육협회(회장 이상재, 이사장 유진태)는 1920년 6월 과학적 지식의 보급과 ‘신교육주의’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교육운동 단체였다. 수표동 11번지의 대지 349평, 수십 칸의 교육협회 회관은 협회 고문으로 있던 한규설(韓圭謨)이 기부한 것이라고 전한다.

1922년 2월 일제의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대학설립의 길이 트이자, 그 해 11월 수표동 조선교육협회 회관을 거점으로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조직되었다. 조선민립대학기성회는 1923년 3월 30일 종로 중앙YMCA 회관에서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4월에 이상재·유진태 등 44명으로 중앙부를 조직하고, 각지에 지방부를 조직하여 선전과 모금운동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전개된 고등보통학교기성모금운동에 참여한 발기인이 많아 모금활동이 부진한데다 일제의 조직적 방해로 소

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교육령」 제12조에 따라 1923년 11월 일본인들만으로 대학창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해 5월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공포하여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맞불을 놓았다.<sup>1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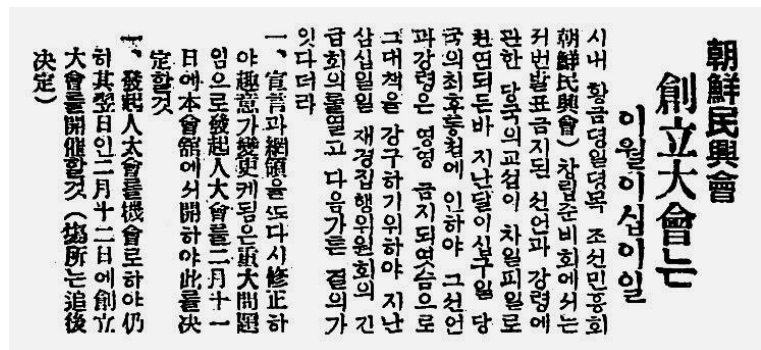
## 7) 조선민흥회 사무소 터

중구 을지로1가 140번지(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부근)

중구 을지로1가 140번지에서 화요회계 조선공산당과 더불어 국내 사회주의 세력을 양분하고 있던 서울청년회가 해외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는 것에 발맞춰 1926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된 민족당 주비회에 참여하는 한편, 조선물산장려회계 민족주의자들과 제휴하여 1926년 7월 제한된 규모의 민족협동전선으로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를 발기하였다.

앞서 서울청년회는 조선물산장려회가 월세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1925년 6월부터 약 5개월 간 견지동 80번지의 사무실을 같이 쓴 인연이 있었다. 이때 맺어진 두 단체의 인연은 1925년 10월 조선물산장려회가 경성방직회사에서 제공한 황금정(현 을지로) 2층 양옥 건물로 회관을 이전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조선민흥회의 발기로 이어졌다.

조선민흥회는 1926년 7월 8일 황금정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발기준비회를 개최하고 이곳에 임시사무소를 두었다가, 1927년 명실상부한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新幹會)가 발족하자 2월 11일 합류하였다.<sup>156)</sup>



조선민흥회 창립대회 기사(『동아일보』, 1927년 2월 2일)

## 8) 나석주 의거 터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KEB하나은행 본점)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은 일제 경제침탈의 상징으로, 1926년 12월 28일 의열단원 나석주(羅錫疇) 의사의 투탄 의거가 있었던 곳이다. 그의 의거는 당시 침체되어 있던 국내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나석주(1892~1926)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농장이 있었던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1915년 북간도 나자구(羅子溝) 독립군 양성학교를 졸업하였다. 3·1운동 때 검이포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일본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결사대를 조직해 독립군 자금 모집과 친일 은율군수를 처단하는 등 활동을 펼치다가 1920년 9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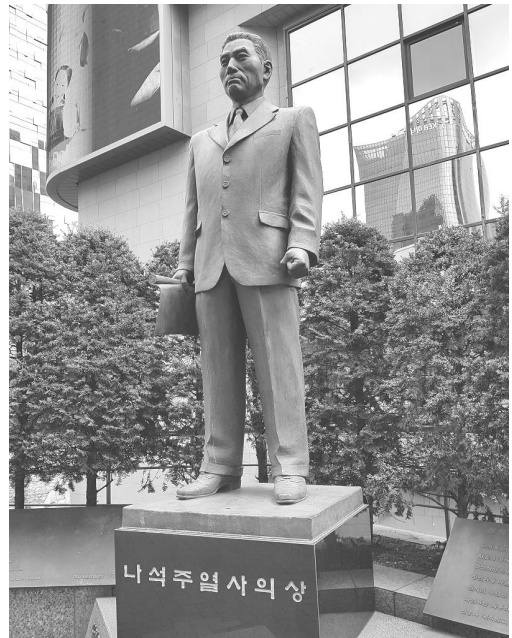
상하이에서 나석주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활약하다가 한단군관학교를 거쳐 1923년~1924년까지 중국군 장교로 근무했다. 그 뒤 1926년 텐진(天津)에서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해 한층 적극적인 독립투쟁을 강구하던 중, 1926년 6월 유럽대표 김창숙을 만나 융희황제(순종)의 백일제 망국(望哭)날을 기해 조선의 강토와 경제를 착취하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 등을 폭파할 계획을 세웠다. 나석주가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상해를 출발한 것은 이 해 12월 24일이었다.

1926년 12월 26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일본경찰의 엄중한 경계망을 뚫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하고 서울에 잠입한 나석주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동춘장에서 숙박하고, 12월 28일 오전에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을 면밀히 사전 탐사하였다. 오후 2시 5분경 중국옷을 입은 그는 먼저 조선식산은행(남대문동 2정목 140-1)에 들어가 대부계 철책 너머로 폭탄 한 개를 던졌으나 불발이었다. 폭탄 불발로 크게 실망한 나석주는 권총을 빼들고 큰길 건너편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정문을 향해 뛰어 들어갔다.

먼저 일본인 잡지 기자 다카키(高木告江)에게 총격을 가한 뒤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따라오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 횡지광(橫智光)을 향해 2발을 발사하고, 2층의 토지개량부의 기술주임 오오모리를 거꾸러뜨린 다음 기술과장 아야다가 놀라 도망가자 뒤 쫓

아가 사살하였다. 그리고 그 옆의 토지 개량과에 폭탄 1개를 투척하였으나 폭탄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1층으로 내려온 나석주는 같은 구내의 조선철도주식회사 정문 쪽으로 뛰어 들어가며, 정문을 지키던 일본인 수위 마쓰모도와 그곳에 와 있던 시계점 점원 기무라를 향해 각각 1발씩 발사한 뒤 밖으로 빠져 나왔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즉시 황금정 과출소에 신고하여 일본 경찰이 황급히 출동하였으나 나석주는 이미 을지로 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나석주 열사 동상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멀리 벗어난 나석주는 동쪽으로 달리다가 그를 본 경기도 경찰부 경부와 다하타가 다가오자 사살하였다. 이 때 나석주의 뒤에는 4~5명의 일본경찰이 쫓아오고 있었다. 나석주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을지로2가의 건재약국 앞에 이르러 전신주에 몸을 피하는 체하다 쓰러지면서 추격해 오는 경찰에게 2~3발을 발사한 후 자기 가슴에 권총 3발을 쏘아 자결을 시도하니 그의 나이 35세였다.<sup>157)</sup>

일본경찰은 나석주를 총독부 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약간 정신이 들자 일본경찰이 이름을 묻자 “나석주”라고 대답하고, “김창숙과 밀의하였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일본경찰은 그에게서 폭탄 두 개, 10연발 권총 1정, 탄환 66발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였다. 이 의거가 일어난 후 일제는 모든 언론을 봉쇄하고, 각 관청·은행 등에 경찰을 파견, 잠복시키는 등 초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광복 후 1962년에 나석주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999년 10월 29일, 당시 한국외환은행은 「나석주 의사 기념사업회」가 보낸 나석주 의사 동상 건립을 위한 용지 요청을 수용하여 5평 정도의 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17일, 중구 명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본점 후문 앞에서 ‘나석주



열사 기념사업회'의 서영훈 회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나석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sup>158)</sup>

KEB하나은행 본점 후문에 나석주 의사 동상을 설립한 배경은 당시 한국외환은행 본점 자리가 일제 때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었던 자리이고, 독립운동가인 나석주 의사가 1926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항의해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에 폭탄을 투척하고 을지로2가에서 자결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동상을 세운 자리는 KEB하나은행 본점(한국외환은행 본점) 후문 앞 광장으로 5평 정도 공간에 동상과 함께 영문·한글판 기념비석을 세웠는데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출입구 쪽의 나석주 의사 의거 기념표석도 이 자리로 옮겼다.<sup>159)</sup>

## 9) 아서원 터

중구 을지로1가 180번지(롯데호텔 서쪽)

중국요리점 아서원(雅絃園)에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결성 대회가 열렸다.

국내에서 공산당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1923년 들어 대중운동의 주도권이 점차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면서부터였다. 코민테른은 기존의 대중운동을 조직적으로 지도



조선공산당 결성 대회가 열렸던 요리점 아서원

할 전위당으로 국내에 공산당을 결성하기 위해 1922년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코민테른 산하 코르뷰로고려국을 설치하고, 김재봉·김낙준(이명 김찬金燦) 등의 공작원을 파견해 1923년 6월경 조선공산당 건설 준비기관으로 코르뷰로 국내부와 코르뷰로 국내부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코르뷰로 국내부는 화요회계와 북풍회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조직의 주도 하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 등 대중단체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통일되었다.

화요회계를 중심으로 한 코르뷰로 국내부는 1925년 조선공산당 결성에 즈음해 화요회·북풍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회 등 4개 사상단체의 합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일제의 집회 금지에도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와 조선기자대회를 강행하여 전국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서울로 집결시켰다.

이 같은 정지작업으로 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4시, 황금정 1정목 181번지의 중국 요리점 아서원 2층에서 20명 안팎의 주요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연(酒宴)을 가장하고, 비밀리에 조선공산당 결성대회가 거행되었다.

이 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은 책임비서로 선출된 김재봉과 김찬 등 7명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4월 18일 박헌영의 집에서 청년 전위조직으로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했다.<sup>160)</sup>

## 10) 시대일보 사옥 터

중구 명동2가 55번지

중구 명동2가 55번지에는 최남선(崔南善)과 진학문(秦學文)이 주간잡지 『동명』의 후신으로 1924년 3월 31일에 창간한 「시대일보」 사옥이 있었다.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표방했는데, 1면을 사회 기사로 채우는 등 이채로운 편집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시대일보」는 「동아일보」·「조선일보」와 더불어



최남선과 진학문이 창간한 「시대일보」

어 3대 민간지의 하나였으나, 재정난으로 휴간과 속간을 거듭하는 등 경영이 순탄하지 못했다.

한때 보천교(普天敎)에 판권을 넘겼다가 안팎의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휴간에 들어갔고, 1925년 4월 홍명희(洪命熹)를 사장으로 맞아 면모를 일신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한 차례 더 진용이 바뀐 뒤 1926년 9월에 폐간되었다.<sup>161)</sup>

#### ◆ 을지로의 항일독립운동 터

| 사적지명        | 주소                    | 찾는 위치               | 연도    | 비고 |
|-------------|-----------------------|---------------------|-------|----|
| 이회영·이시영 집 터 | 을지로2가 164             |                     | 1910년 | 표석 |
| 신문관·조선광문회 터 | 을지로2가 11, SKT타워 앞길 서편 |                     | 1910년 | 표석 |
| 훈련원 터       |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일대 |                     | 조선시대  | 표석 |
| 이재명 의거 터    | 명동2가 1, 명동성당 정문 앞     |                     | 1909년 | 표석 |
| 최익환 숙소 터    | 주교동 125               | 을지로4가역<br>4번출구→100M |       |    |
| 조선교육협회 회관 터 | 수표동 11                | 을지로3가역<br>2번출구→200M |       |    |
| 조선민흥회 사무소 터 | 을지로1가 140앞 도로         | 을지로입구역<br>8번출구→10M  |       |    |
| 나석주 의거 터    | 을지로2가 181, 외환은행 본점    |                     | 1926년 | 표석 |
| 아서원 터       | 을지로1가 180             | 을지로입구역<br>8번출구→200M |       |    |
| 시대일보 사옥 터   | 명동2가 55               | 명동역<br>6번출구→400M    |       |    |

\* 자료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사』, 2009.

# 5장 광복 이후의 을지로

## 1. 미군정기의 을지로

### 1) 군정 정치1번지, 반도호텔

반도호텔은 광복 이후 존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은 지금은 힐린 조선폰텔과 반도호텔에서 몇 개월간 기거, 집무하다가 연말에 경무대로 들어가 2년간 지냈다.

1945년 12월 30일, 신탁통치 반대로 인한 민심수습책을 숙의하기 위해 하지 중장은 남한의 각 정당 대표를 반도호텔로 긴급 초청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고,<sup>162)</sup> 1946년 4월 7일 에도 하지 중장은 동경의 맥아더 장군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기에 앞서 반도호텔에서 이승만 박사와 장시간 요담을 하였다.<sup>163)</sup>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김구(金九) 한독당 위원장이 반도호텔의 하지 중장을 예방하여 테러 등 민생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sup>164)</sup>

자유당 집권 때 이기붕(李起鵬)의 집무실과 2공화국 장면(張勉) 총리의 집무실도 이 호텔 809호에 있었으므로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해 이른바 ‘호텔 정치’로 유명했다.



광복 이후 미군정과 정치인들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반도호텔

1층에 있던 반도화랑은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하던 화가 박수근이 처음 전시를 열었던 곳으로 국내 1호 상업화랑이었다. 역시 국내 1호 패션디자이너인 노라노의 국내 첫 패션쇼가 열린 곳도 반도호텔의 옥상이었다.<sup>165)</sup>

## 2) 반탁대회가 열린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각종 시민대회가 개최되던 장소이다. 그 중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1946년 1월 3일에 신탁통치반대[반탁]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던 일이다.

1945년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미·소·영 3국의 외상회의가 소집되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고, 12월 28일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5년간의 미·소신탁통치안이 가결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외신보도가 발표되자 1946년 1



신탁통치반대 시위

월 12일 독립정부의 수립을 갈망해 온 전 국민은 이에 격분하여 신탁통치반대 전국대회를 열고, 100여 개의 애국 사회단체와 정당의 이름으로 신탁통치 반대 성명을 전개했다.

특히 김구와 임시정부계는 반탁과 즉각 독립을 내걸고 운동의 선두에 나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좌익세력이 박헌영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신탁통치에 대한 태도를 표변하며 찬성에 나섬에 따라 좌우 분열이 시작됐다. 이후, 남한에서의 반탁운동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 될 때까지 극렬하게 전개됐다.

서울에서의 반탁 데모는 1946년 1월 3일에 서울운동장(후일 동대문운동장)에 모여 연설했을 벌이고, 시위대열을 지어 동대문·종로를 거쳐 미군정청이 있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 앞에서 일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데모대는 이후에 해산하거나 아니면 동대문~을지로로 행진하여 당시 하지 미군사령관이 유숙하고 있던 을지로1가 반도호텔 앞에 모여 큰소리로 시위를 한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해산하였다.

약 2년 간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장소는 세종로의 중앙청 회의실도 사용되기는 했으나 주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고, 그때마다 서울시청 앞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의 주위는 미군 헌병들에 의해 삼엄한 경계망이 펼쳐졌다. 이 경계망 때문은 아니겠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 서울 시민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리 민족의 문제가 미·소 양국 군사령관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된다는 데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sup>166)</sup>

### 3) 대사관으로 승격된 미국 외교대표부

제너럴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거친 뒤 조선과 미국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통상조약이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함으로써 미국과 맺은 외교관계는 단절됐다.

미국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38선 이남의 남한에서 군정(軍政)을 실시했다.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철수하였다. 이어서 미국은 1948년 8월 주한 미국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1949년 1월 1일 공식 승인하면서 존 무초(John Mucho)를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1949년 4월에 주한 미국 외교대표부는 대사관으로 승격, 개설되었고, 한국은 1949년 3월 25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개설한 후, 초대 주미대사로 장면(張勉)이 부임하였다. 한국 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대미 일변도의 외교를 폈으며, 6·25전쟁 이후 한미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6·25전쟁 중인 1952년경 미국 대사관은 을지로입구(을지로1가 63), 현 서울시 을지로 별관 건물로 옮겼다. 정동의 공사관은 그 후부터 대사관의 기능을 넘기고, 대사관 관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대사관은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14호에 위치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과 함께 한국 거주 미국인의 보호 및 육성, 국적·호적·여권 업무 및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sup>167)</sup> 미국대사관의 조직은 농업무역관, 상무부, 경제과, 공보과 등을 두고 있다. 농업무역관은 한국의 무역업체에 미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무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한국과의 교역확대를 모색한다. 경제과는 한국의 경제, 통상 및 투자 동향을 관찰하고, 양자 및 다자간 경제 이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알리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공보과는 교육 및 시민교환 프로그램, 언론관계 및 미국 관련 대민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다.



#### 4) 문화 행사가 열렸던 을지로의 다방들

명동 근처의 소공동·남대문로·을지로1가에는 주로 관공서·은행·호텔 등과 경향신문·서울치과대학 등이 몰려 있었는데 이 거리는 1950년대 문화의 집결지였고, 다방이 당시 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곳의 유명한 다방들과 여기에서 열렸던 문화 행사 등을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면, 을지로1가에 위치했던 올림피아다방에서는 재경산업미술가협회(在京産業美術家協會)가 주최한 국내 산업건설에 대한 주제로 한홍택(韓弘澤) 개인전, 이수억(李壽億) 유화전이 열렸다. 인근의 소공동에 위치했던 다방과 행사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푸라위다방: 일본 후쿠오카(福岡)형무소에서 옥사한 윤동주(尹東柱)와 송몽규의 추도회(연희전문 주최) / 서정주(徐廷柱)의 시집 출판기념회 / 모운숙(毛允淑) 여사의 출판기념회 / 방기환(方基煥)의 『손목 잡고』 출판기념회. 발기인은 이현구(李軒求), 박목월(朴

木月) 외 20명 / 월남용사 최상덕 환영회 / 조대(早大) 동창 송별회 / 박신영(朴臣影)의 시집 『바다의 합창』 출판기념회

△ 은전다방: 이창(李昌) 제3회 작품전

△ 칠보(七寶)다방: 이병주(李丙疇) 『두시언해비주(杜詩諺解批註)』 출판기념회

△ 양춘(陽春)다방: 이경림의 『주석(註釋) 석보상절(釋譜詳節)』 출판기념회

△ 동명그릴: 박경리(朴景利)의 장편소설 『표류도』 출판기념회

△ 치대그릴: 서울상대 동창회 박익수의 『과학철학(科學哲學)』 출판기념회 / 양명문의 시집 『화성인(火星人)』 출판기념회(오상순·박중화·이현구 등 발기) / 조성식의



1930년대 문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한 다방(좌로부터 박태원, 이상, 김소운)

『고등영문법』 출판기념회

이외에도 봉선화다방, 대지(大地)다방, 가로수, 감로수(甘露水)다방, 하루빈, 낙천(樂天)다방, 화이다방, 모니카다방 등이 있었다.<sup>168)</sup>

## 5) 을지로의 시장들

광복 후 국내 생산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상설 시장이 형성되고 상업이 성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미군 및 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와 중국·일본과의 교역에 의한 물자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군정이 취한 경제자유화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 자유시장이 개설된 데다가 일본인 공장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자가 일시에 시장에 범람하고, 귀국하려는 일본인들이 가재(家財)를 대거 팔아치운 까닭에 상업이 성하였다. 이 까닭인지 광복 직후 을지로3가에는 큰 고물 상가가 있었다.<sup>169)</sup>

광복 후 서울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상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당시 동대문시장에는 함경도 출신의 월남인들이 많았고, 남대문시장에는 평안도 출신의 월남인들이 많았다.<sup>170)</sup>

여기서 광복 후 서울시 중구 지역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서울 중구 지역의 시장 상황(1946년 말)

| 구분   | 시장 명칭    | 위치            | 설립 일자        | 소유자 |
|------|----------|---------------|--------------|-----|
| 공설시장 | 신당동공설시장  | 성동구 신당동 297   | 1941. 6. 7   | 서울시 |
|      | 화원공설시장   | 중구 예관동 190-4  | 1920. 10. 15 | 서울시 |
| 사설시장 | 쌍림사설시장   | 중구 쌍림동 35-2   | 1925. 6      | 적산  |
|      | 영락자유시장   | 중구 저동2가 79    | 1926. 9. 21  | "   |
|      | 충무로신사설시장 | 중구 충무로3가 38   | 1927. 8      | "   |
|      | 황금사설시장   | 중구 을지로5가 267  | 1932. 7      | "   |
|      | 북창사설시장   | 중구 북창동 140    | 1935. 12. 27 | "   |
|      | 서울자유시장   | 중구 남대문로3가 12  | 1946. 3. 10  | 李龍三 |
|      | 장충사설시장   | 중구 장충동2가 56-1 | 1946. 6. 20  | 徐海淸 |
|      | 남대문사설시장  | 중구 남창동 283    | 1946. 10. 21 | 적산  |

자료 : 『시사 자료』 2권~9권 연표

앞의 표로 보아 현재 남아 있는 시장은 자유시장과 남대문시장 등임을 알 수 있다. 저동2가 79번지에는 1926년에 설립된 영락시장이 있었는데 광복 직후인 1946년 김태산(金泰山)이 영락자유시장을 설립하였다. 영락자유시장은 1950년대까지 존속하였다.

## 2. 정부수립 후의 을지로

### 1) 자본액이 컸던 을지로의 상가

1959년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부속 기업경영연구소가 서울시내 다섯 군데의 상점 955점을 조사하여 『서울시내 주요 상업 경영실태 조사』를 발간하였다. 이는 1960년도의 서울시내의 상점 2만 5,218점에 대비하면 약 38%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서는 백화점 내의 상점은 제외된 것이므로 자료 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이 자료에 의해 상점 경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1950년경의 남대문시장

#### 〈상업 경영실태 조사 지역〉

- 1구역 : 신설동~종로~서대문~종로4가  
~을지로4가
- 2구역 : 을지로6가~을지로~중앙우체국  
~명동1·2가, 을지로입구~시청 앞  
~중앙우체국 앞~남대문
- 3구역 : 종로3가~퇴계로~동대문  
~충무로1·2가
- 4구역 : 을지로6가~왕십리
- 5구역 : 남대문~서울역~삼각지~봉래교

먼저 자본금을 보면 위의 조사 대상 상점의 평균 자본액은 457만 4,700원이었

다. 평균 자본액보다 많은 구역으로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 두 시장과 명동, 을지로입구 부근과 종로, 충무로, 퇴계로 지역이었다. 이 중 평균 자본액보다 약 33%가 높은 구역은 중심 상가라 할 수 있는 을지로·명동·남대문로 일대에 있는 상점이 포함되는 구역이므로 당연히 자금 규모가 컸다.

다음은 1.23%가 많은 동대문시장이며, 종로·퇴계로 및 충무로가 포함되는 구역은 19%, 동대문은 10%가 많다. 자본금 규모가 가장 낮은 구역은 평균의 46% 수준인 을지로 6가에서 왕십리에 이르는 가로변의 상점들이었다.<sup>171)</sup>

## 2) 복개된 청계천변 맨홀 폭발

1962년 1월말 필동 근방의 청계천 밑바닥에서 소규모의 폭발사고가 있었다. 서울시 건설국에서는 2월 초순에 시내 청계천 하류의 「매탄가스」 유무를 조사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개공사 착수 당시부터 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으나 소규모의 폭발사고가 나자 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청계천 복개공사 현장(1960년대)

그 뒤 1968년 12월 9일 오전 11시 50분경 중구 수하동에서 청계천으로 나가는 세 곳의 하수구에서 2, 3초 간격을 두고 메탄가스가 연쇄적으로 폭발하였다.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날아가면서 행인이 다치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맨 처음 수하동 37번지 성립주점 앞의 맨홀(직경 75cm)과 금수(金水)여관 안에 있는 작은 하수구 뚜껑이 폭음과 함께 흰 연기를 내면서 폭발하고, 2, 3초 후에는 을지로2가 27번지 성호(星湖)주점 앞길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폭발했다. 때마침 야채를 끌고 이 맨홀 위를 지나가던 야채상 김태수(金泰洙, 42)가 하수구에 왼쪽 다리가 빠져 전치 4일의 타박상을 입었다.

폭발한 하수구는 청계천에서 45m가량 떨어진 곳으로 하수관의 직경은 45cm와 35cm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조사에 의하면 이 맨홀 뚜껑은 콘크리트로 만든 정방형의 직경 75cm, 두께 12cm로 하수구를 완전 밀폐, 배기가 전혀 되지 않아 청계천과 하수도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이상 고온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팽창,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72)</sup>

### 3) 반도호텔 철거와 롯데호텔 건립

정부수립 후 제1차 한미협정에 따라 1949년 1월 11일, 이범석 국무총리와 미국의 존 무초(John Mucho) 특사 간에 반도호텔 양도에 관해 조인하였다. 이는 미군정 때 차관한 2,500만불 중에서 반도호텔 건물을 미국에 양도하여 300만불(한국 돈 13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1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sup>173)</sup> 1949년 4월 21일 한국과 미국 간에 반도호텔 증여식이 있었다.

정부수립 후 반도호텔에 있었던 일로는 1948년 9월 9일 반도호텔에 투숙한 미국의 무초 특사가 신사복 6벌, 타이프라이터, 선풍기, 사진기 등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다.<sup>174)</sup> 이듬해 2월 22일에는 미국 초대 워싱턴 대통령 탄생기념일을 축하하고자 서울에서 축하행진과 사열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오전 서울역 앞부터 남대문 사이에 정렬한 미군장병들은 태평로를 행진하여 미군사령부가 있던 반도호텔 앞에서 로버트 사령관의 사열을 받고 다시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한 후 남대문에서 해산하였다.<sup>175)</sup>

반도호텔은 6·25전쟁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었으나 서울에 몇 군데밖에 없었던 승강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전쟁 중인 1953년 5월 7일, 정부가 반도호텔을 중앙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측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되었다. 반도호텔은 한미 양측 간에 합의를 보게 되어 297만 7,206불에 다시 한국정부에서 매수하는 동시에 삼정(三井)빌딩을 435,286불로 미국 측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차액인 2,541,920불은 한국정부에서 미국 측에 지불하기로 하였다.<sup>176)</sup> 이후 교통부는 연 120만불의 외환 획득을 위해 1955년 9월 반도호텔을 확장하고 내부 수리와 종업원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sup>177)</sup>

1955년 11월 22일자 「경향신문」에는 ‘코리아의 이방지대(異邦地帶)’란 제목으로 반도호텔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하루 저녁 머무는 숙박비는 37,500환, 물론 우리나라 돈으로 받지 않고 75달러라 하는 미화로만 거래되는 동네. 같은 서울안의 여관집이면서도 미화(美貨)로만 못 거래가 허용되는 이국적인 풍속을 거느리고 운영되는 이 「반도호텔」.

근대식 고층건물을 자랑하는 ‘반도호텔 뿔딩.’ 유리관 모양으로 된 현관을 들어서면 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슬며시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

휘황찬란한 축광의 간접조명이 어릿어릿한 궁전처럼 보여주기도 한다. 박람회 구경을 온 시골손님들은 좀체로 「여관」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할 현관이기도 하다. 「에리베이터」를 타고 5층엘 올라가면 소위 여관방이라고나 할수있을 111 개소의 호텔방이 외국손님들의 가방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최하 8달러 50센트의 방이 있기는 하다. 6 개소의 부속실이 딸려있는 75달러의 특설방은 「밴푸리트」 장군만이 유숙한 기록이 있을 뿐 그저 한산하게 국빈 대우의 인물만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채광이 좋은 응접실 콧손에 어깨를 파묻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객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한국교통부 경영의 집이긴 하지만 손님은 미국, 볼란서, 남미주, 독일, 서서 등의 사람들이다. 이 호텔만의 상용어는 영어이긴 하나 미국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은 곧잘 ‘헬로’ ‘오케이’의 부로큰 영어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 안에서는 댄스파티가 주기적으로 외국 손님들을 위해 열린다.<sup>178)</sup>



1960년대 반도호텔 전경

1955년 11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도호텔을 민간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이듬해 3월 18일에는 반도호텔 내부를 시찰하였으며,<sup>179)</sup> 1958년 2월 8일에는 밴프리트 장군의 숙소인 반도호텔을 방문하고 오찬을 함께하였다. 1956년 12월 17일에는 이기붕 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호텔에서 올림픽 선수단 귀국환영회 및 해단식을 가졌고,<sup>180)</sup> 1957년 12월 8일 여야 고위회담을 가졌으며,<sup>181)</sup> 1959년 1월 29일 반도호텔 앞 노상에서 3명의 청년들이 “원내에서 피어린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원을 성원하자”는 내용의 배라를 뿌리면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sup>182)</sup> 1959년 3월 30일에는 노라노 여사의 제6회 패션쇼가 반도호텔 다이나스티룸에서 개최되었다.<sup>183)</sup>

1974년 6월 3일에는 롯데그룹이 (주)호텔롯데를 세우면서 낙찰 가격 31억 9,800만원에 반도호텔을 인수했다.<sup>184)</sup> 1979년에 호텔롯데는 반도호텔을 완전히 헐고 지상 38층, 1,000개의 객실, 18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롯데호텔 서울’을 선보였다.<sup>185)</sup>

참고로 1974년 11월 소공동 국립중앙도서관도 8억 3,600만원에 (주)호텔롯데에 매각되었는데 불하대금이 사전에 알려져 수의계약과 다른 공매입찰이 되었다.

#### 4) 인현동의 인쇄골목 형성

행정구역상으로는 인현동이지만 ‘을지로 인쇄골목’으로 통하는 이곳은 1960년대 말부터 을지로동, 인현동, 필동 등에 걸쳐 인쇄업 관련 업소가 밀집해 있다.

1980년대에 인현동에는 1,500여 인쇄업체가 몰려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 인쇄촌을 형성했다. 이 당시 인현동에 더 이상 자리가 없자 인근의 저동, 예관동, 충무로5가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지역 골목을 지나려면 음식점, 다방, 이발소 위에 인쇄소 간판이 보이고, 인쇄기계 돌아가는 소리, 인쇄물을 싣고 오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 일대가 인쇄촌이 된 것은 장교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500여 업체가 이전해 왔기 때문이다.

1984년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인쇄업체는 2,400여 개소인데, 이 중 60%인 1,500여 업체가 인현동에 있었다. 1980년대에 인쇄 물량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우후죽순처럼 인쇄소가 난립하여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부분 5명 이하의 직원에 10평 미만의 좁은 공간에서 1~2대의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1984년 서울시는 이곳이 공업지역이 아닌데다가 인쇄소가 미관을 해치고 소음, 공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전 명령을 내렸다.<sup>186)</sup>

인현동이 인쇄업 밀집 지역이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인근의 훈도방(薰陶坊) 지역에 주자소(鑄字所)와 교서관(校書館)이 위치하였으므로 인쇄업의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인쇄업 밀집 지역 형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의 인현동 인쇄업 밀집 지역은 서구의 근대 인쇄술이 일본을 거쳐 도입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말에 저동2가 영희전(永禧殿 : 현 중부경찰서) 자리에 1883년 신식 인쇄기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한 박문국(博文局)이 있었으며, 1884년에 민간 근대 인쇄업체로 광인사가, 1900년대 초에 광문사, 박문사, 보문사, 보성사 등이 을지로 일대에 설립되어 인쇄업 밀집 지역의 효시가 되었다.

현재의 을지로2가 KEB하나은행 본점 옆에 조선 최초의 상설영화관인 경성고등연예관이 1910년에 개관한 이후 경성극장, 남화관, 중앙관 등이 을지로에 자리하여 영화 전단지, 포스터를 찍는 인쇄 주문이 들어오면서 인현동 일대에 인쇄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인현동 일대에 30여 곳의 인쇄소가 분포함으로써 서대문 일대와 더불어 경





일제침략기 말 중구 지역의 인쇄소 현황(서울역사박물관, 『인현동』, 2013, 37면)

성부에서 중요한 인쇄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조선 말 1884년 광인사, 1886년 대동서시, 1910년 회동서관 등 근대적인 서적 출판사가 출현하면서 인쇄 수요가 늘게 되었다. 일제침략기에 인현동은 일본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한 구역이어서 도로, 전차노선, 공설시장 등 일제 식민지 행정의 경성부가 도시 인프라(infra)를 정비하였으므로 생활하기에 비교적 편리한 곳이었다.

광복과 함께 인쇄업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이 떠났고, 6·25전쟁으로 인현동의 인쇄업소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도 영화가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인쇄소는 영화포스터, 입장권 등을 찍기 위해 외국의 원조자금으로 인쇄기계를 수입하여 인쇄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 말부터 인현동의 인쇄업 입지는 탄탄해져 서울시 전역의 인쇄업체 325개 중에서 42개가 인현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현동 인쇄골목’이 형성되었다.<sup>187)</sup>



인현동 인쇄골목 풍경

1970년대까지 서울 최대의 인쇄업 밀집 지역은 장교동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4년 장교동이 재개발되면서 500여 인쇄소가 대거 인현동 일대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주택·상가·인쇄소가 공존하고 있었던 인현동 일대가 인쇄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970년대에 한국의 수출입이 늘어나면서 각종 양식을 인쇄하기 위해 인쇄기가 밤낮없이 돌아갔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컬러 인쇄물 주문이 늘어났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선거 홍보물 등의 수요도 인현동 인쇄골목을 떠받치는 거대한 수요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성업 중이었지만 1997년 파주출판단지 조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994년 5월 12일, 중구청은 도심 부적합 시설로 분류되어 이전을 추진해 온 을지로3가~5가동 6,200여 개의 도심형 산업체를 ‘첨단 인쇄타운’으로 육성할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sup>188)</sup>

## 5) 서울 미문화원과 대학생들의 점거 사건

현재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건물(을지로1가 63, 등록문화재 제238호)에는 1950년부터 1991년까지 40여 년간 미문화원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공보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1938년 일제 때 미쓰이 물산(三井物産)의 경성지점으로 건축한 것을 허물고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은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5개 대학의 학생 75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하며 농성한 사건이다.<sup>189)</sup> 1985년 4월 17일 고려대학교에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결성하고, 그 산하에 전위적 투쟁조직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위)를 각 대학에 조직했다. 삼민투위(위원장 허인회 고려대총학생회장)는 5월 광주항쟁 계승기간에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규탄하기 위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할 계획을 세우고 5월 23일에 기습적으로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미문화원 도서관에서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대자보(大字報)를 창문에 붙이고, 주한 미국대사 면담을 요구하며 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5월 26일 자진해서 농성을 해산하고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등 20명이 구속되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 거부, 묵비권 행사,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소위 ‘재판 투쟁’을 전개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리처드 워커 주한 미대사는 “광주 사태에 미국의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1984년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학내에 경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어기고, 1985년 6월 29일 새벽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대학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삼민투위 관련자 66명을 연행해 삼민투위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은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이 미국의 정치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지만,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는 달리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sup>190)</sup>

이후 미문화원은 반미 운동의 단골 표적으로 여러 차례 습격을 받았다. 1988년 2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국민대 등 5개 대학 5명에 의한 점거농성, 1990년 5월 화



1985년 5월에 벌어진 대학생들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

염병 투척에 의한 사무실 전소 등 피격 사건만도 1980년대 이후 20여 차례에 이르렀다. 1992년 4월 19일 오전 8시 50분경 서충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200여 명이 미문화원 공보원 도서관 앞에서 “백범 김구선생 살해 배후 조종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400여 장을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5분가량 기습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계단에서 함성을 지르며 나와 도서관 건물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건물 유리창을 부순 뒤 을지로와 종로 쪽으로 달아났다.<sup>191)</sup>

이에 앞서 미문화원은 1991년 9월 12일, 연말까지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용산 미8군 근처의 미국 정부 소유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에 통보했다.<sup>192)</sup> 이듬해 1992년 3월 31일 서울시는 미문화원이 이전한 빌딩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청사로 정하고 개청식을 가졌다. 1997년 7월에는 이 건물 4층에 서울시립대학교 시민대학이 개강을 하고, 9월 19일에는 서울시 종합자료관이 이전해 왔다.

미문화원이 우리나라에 첫발을 디딘 것은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15일로서 미군정청 공보처가 공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부터였다. 이 당시 미문화원은 지금의 롯데

영프라자 자리(전일 미도파백화점)에 위치하다가 6·25전쟁이 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했고, 9·28 서울 수복과 함께 이 건물로 옮겨왔다.

1991년 당시는 문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24시간 전경들에 둘러싸여 살풍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1950~70년대까지 미문화원은 가난한 도미 유학지망생, 미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안내소 역할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외국 문화와 정보에 관한 풍부한 도서, 자료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8,000여 장서와 200여 종의 최신 잡지와 신문이 비치돼 있는 미문화원 도서관은 당시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의 명소였다. 「대한뉴스」가 제작되기 전까지 전국의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던 「리버티뉴스」도 이곳에서 제작·배포되었다.<sup>193)</sup>

### 3. 6·25전쟁의 피해와 복구

#### 1)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을지로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 수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북한 공산군의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서울 중심부 건물의 피해는 9월 25일 밤부터 27일까지 계속된 시가전 때문이었다. 9월 26일 저녁까지 미해병 제1연대는 덕수궁 앞까지, 한국 해병 제2대대는 한국은행·명동을 거쳐 조선호텔에 대대본부를 두었다. 9월 25일 밤 북한 공산군은 UN군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야습을 가했다. 이에 UN군은 화포를 총동원하여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소실되었다. 서울 파괴의 마지막 원인은 패주하기 전의 북한 공산군의 방화였다. 이들은 9월 26~27일에 걸쳐 서울역, 한국은행, 중앙우체국 등에 기름을 붓고 방화하여 남대문시장, 남창동, 북창동, 명동 일대가 폐허로 변했다.

6·25전쟁으로 중구 관내는 극심한 피해를 당하였다. 즉 서울역 건물 내부 파괴, 충무로 일대, 명동, 을지로2·3가와 초동 부근, 오장동과 을지로5가 부근, 목정동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각처의 파괴와 방화로 수 만 호가 파괴 혹은 전소되어 건물의 붕괴가 78%



6·25전쟁 직후의 서울시청 앞(1950년 10월경)

에 이르고, 1953년 3월 말 현재 난민 총수는 9,237가구 40,894명에 달했다. 따라서 을지로 등 서울 거리는 쓰러진 시체와 흩어진 기왓장 조각, 허물어진 건물 더미, 앙상한 기둥과 벽체들만 남아서 처참한 모습이었다.<sup>194)</sup>

압록강 부근에 다다른 UN군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를 하게 되자 수도 서울은 1951년 1월 4일 다시 한 번 공산군의 수중에 함락되었다. 1·4후퇴로 서울의 거리는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 점령하의 서울은 적막감을 자아냈다. 1951년 2월 10일부터는 UN군의 일부 병력이 한강 남안, 즉 동작동·영등포구청 앞까지 진출하여 서울 재탈환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은 1·4후퇴 후 70여 일만에 비교적 평안하게 재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이 재수복된 후 모습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부 건물 4,967동이 파괴되었고, 은행·학교·병원 등 공공건물도 수없이 불타버렸다. 6·25전쟁 직전까지 서울의 개인주택은 191,000여 동이었는데 그중 29%에 해당하는 55,082동이 잿더미로 변



하였다. 이러한 주택의 피해는 전국 피해의 54%를 차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서울이 입은 전화(戰禍)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상·하수도과 도로, 교량 등의 피해로 서울의 도시로서의 기능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서울이 재수복된 지 3일 만인 1951년 3월 18일에 ‘서울시 행정 건설대’ 300여 명이 김태선 서울시장의 인솔로 입경하였다. 그러나 이때 민간인의 출입은 통제되어 미군 민사처(民事處)에서 발급한 도강증(渡江證)이 있어야만 한강 검문소를 거쳐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 따라서 큰 거리에서도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왕래하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큰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이 남아 있고, 남은 민가들도 대부분이 텅 비어, 보이느니 전쟁이 할퀴고 간 참상뿐이었다.

따라서 먼저 들어온 서울시 직원들도 다동(茶洞) 쪽에 남아 있던 민가에 분숙(分宿)하면서 시청에 출근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해 7월에 부산에 있던 서울행정처가 폐지되고 서울시 행정이 환원되어 각지에 출장소를 두게 되었다. 이 무렵 서울 인구는 강북 지역에 32만, 영등포 지역에 13만 명으로 모두 45만 명에 불과하였다.<sup>195)</sup>

취임한 김태선 시장의 첫 사업은 시내 곳곳에 가매장된 시체를 망우리 공동묘지에 이장하는 것이었다. 인부를 고용하여 한 수레에 2,000원씩 주고 시체를 옮기게 했으나, 며칠 후 확인하면 대부분의 시체가 망우리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청량리 밖 논두렁에 버려져 있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미군의 식량 협조를 얻어 시체 이장 작업자에게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한사람에 6홉의 쌀 배급을 현장에서 주기로 하고, 이장 작업을 마무리하였다고 김태선 시장은 술회한 바 있다.<sup>196)</sup>



명동 지역의 전쟁 피해



을지로3가의 건축자재 상가

## 2) 전후 재건 열풍으로 건축자재 상가가 발달한 을지로

광복과 6·25전쟁 이후에는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노점에 의존하였으므로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철거로 큰 어려움을 받았다. 그 예로 1946년 4월에 경찰청에서 이틀간에 노점상 150명을 붙잡아 시말서를 받고 상품을 압수하였다. 1947년 4월에 서울역 앞의 노점상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200명을 검거하였고, 1958년 5월에는 청량리경찰서가 청량리~홍릉간 대로변의 노점 200개를 철거하였다. 이에 노점상들은 현장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고, 자살을 택하기도 하였다.

1955년 7월에는 홀로 월남하여 생계를 꾸려가던 노점상이 을지로4가 길가에서 자신의 몸과 손수레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였다. 12월에는 동대문시장 노점상 300여 명이 내무부 앞에서 ‘노점 철거를 중지하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sup>197)</sup>

을지로 지역에 건축자재상이 몰려 있는 것은 6·25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서울의 어느 곳보다 피해가 컸으므로 휴전 후 활발하게 재건되자 그 현장 가까이에 건축 자재



상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즉 을지로 지역은 6·25전쟁 이후 무너진 도시의 재건을 위해 주택 수리에 관련된 목재, 가구, 철물, 페인트, 도배, 공구 등이 서로 유기적인 맞물림 속에 자리 잡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까닭에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과 건축 붐에 따라 그 발판이 더욱 단단해졌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과 1990년대 초의 신도시 건축과 함께 일었던 건축 붐을 타고 호황을 누리, 을지로4가에는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상가가 형성되었고, 주방용 가구와 인테리어 전문점도 많이 들어서 있다. 6·25전쟁 때는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군수용품이, 섬유통가 호황일 때는 을지로의 미싱상가가, 6·25전쟁 이후의 도시 재건 시에는 을지로의 조명과 타일도기, 가구가 호황을 누렸다.<sup>198)</sup> 을지로에 업무용 빌딩이 세워지면서 서울 어느 곳보다 도심 빌딩이 가장 먼저 많이 밀집한 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았다.<sup>199)</sup>

## 4. 1960년대 이후의 을지로

### 1) 을지로의 사회교육기관들

#### (1) 백인제 박사가 세운 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은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주임교수이던 백인제(白仁濟) 박사가 중구 저동2가 85번지에 백인제외과병원으로 설립하였다. 서울백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백인제 박사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6개월간 투옥되어 퇴학을 당하였다. 1921년에 복교하여 졸업하고, 1923년 의사면허증을 받아 등록하였다. 1941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사임하고, 저동에 있던 우에무라(上村)외과병원을 인수하여 백외과(白外科)를 개업하였다. 광복 후 1945년 9월에 서울의과대학 외과 주임교수 겸 부속병원장(소격동 소재)에 임명되고, 1945년 12월 서울의사회 초대 회장에 피선되었다. 1946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재단법인을 세우고 백병원으

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6·25전쟁 중에 남북되었다.

1972년 3월, 백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하였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1983년에 암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종합건강진단센터를 개원하였다.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은 서울 백병원, 서울 상계백병원, 일산 백병원, 부산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에 소속된 병원들은 백병원 설립 당시의 목표인 ① 의학연구의 향상, ② 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보된 의학기술 및 시설에 의한 광범위하고 균형 있는 의료 혜택에의 기여, ③ 자질이 있으면서 빈곤한 의학도에 대한 장학제도 설립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순전한 민족 및 민간의 힘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sup>200)</sup>

## (2) 한경직 목사가 세운 영락교회

저동2가 69번지, 전일의 영희전(永禧殿) 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소속 영락교회(永樂教會)가 세워져 있다. 이곳은 일제 때 천리교 경성분소가 자리했다.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한경직(韓景職)은 8·15광복과 함께 월남하여 조선신학교(한국신학대학 전신)의 교회사 교수로 취임하여 교편을 잡으면서 1945년 겨울에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 신자 27명과 베다니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

북한 서북지방의 피난민 교인들이 몰려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는 서울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 1950년 6월에 교인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한편, 교회당 주위의 빈터에 천막을 쳐서 집 없는 피난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



영락교회 전경

다. 월남 피난민들 사이의 연고관계와 구제활동, 한경직 목사의 유능한 목회 활동이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이 교회는 신탁통치반대운동, 반공운동에 앞장섰으며, 피난민 구제와 전도사업, 개척 교회 설립, 농아 전도, 해외선교사 파송, 교육 및 사회복지 사업에도 힘써 왔다.<sup>201)</sup>

### (3) 환자 진료와 의료인 교육을 위해 세운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로6가 18-79번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 병원은 1958년 11월, 6·25전쟁 후 부상 군인을 비롯한 환자 진료 및 의료요원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국립의료원, ‘메디칼센터’로 설립되어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27년에 문을 연 경성부민병원을 모체로 하여 광복 후에는 서울시민병원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6·25전쟁 후 1956년 3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 한국부흥위원회(UNKRA),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의 3국 대표자간에 국립의료원 설립과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요 재원을 공동 투자한 결과 1958년 10월 2일에 건물이 완공되어, 다음달 11월 한국정부와 스칸디나비아 3국의 공동운영 체제로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초현대식 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일류 병원으로 도약하여 ‘메디칼센터’, 국립의료원이란 이름도 얻었다.<sup>202)</sup>

이 병원의 규모를 보면 총건평 7,000평에 7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465명의 환자를 입원 진료할 수 있다. 그리고 거대한 병실 외에도 ‘스칸디나비아’ 직원 숙사와 식당 및 강당 심지어 세탁소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저명한 의사 25명과 간호원 43명, 그밖에 기술자를 포함한 88명과 한국의 의사 70명, 간호원 99명이 종사하였다. 이 병원의 운영은 5개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우리나라에서 공동 운영하고, 운영 원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이 병원에서 투약하는 약은 3개국 제품이었는데, 운영비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서 매년 150만 달러, 우리정부에서는 3억원, 운조 원조 자금 중에서 2억원으로 운영을 하며,

5년 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 인계되어 전담 운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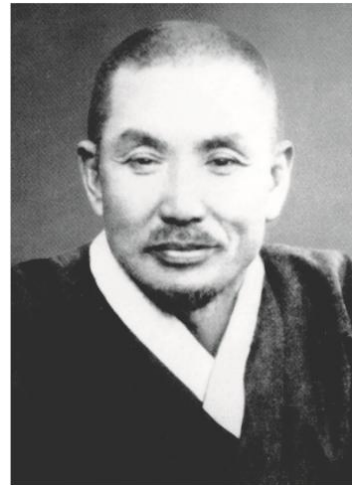
이 병원은 비영리 병원으로 75%가 무료, 25%가 유료 환자인데, 무료 환자는 호별세 1등으로부터 5등까지 극빈자에 해당하였다. 이 의료원은 각종 수술에 팀웍이 짜이도록 되어 있고, 국내 의료원에 대한 기술 훈련을 하는 데도 큰 목적을 두고 있었다.<sup>203)</sup>

이 병원은 1968년 10월에 정부에서 운영권을 인수하고, 한스재단을 설립하였다. 1980년 8월부터 1983년까지 대규모 증개축 공사를 하여 총건평 4만 8,889㎡의 병동에 600개의 병상을 현대식 시설과 장비로 개선하였다. 201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 (4) 민족운동에 앞장선 조만식 선생의 고당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번지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입주해 있는 고당기념관(古堂紀念館)이 위치해 있다. 일제 치하에 민족운동과 반공에 앞장선 조만식(曹晩植: 1882~?)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76년 1월에 한경직(韓景職) 목사를 주축으로 고당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다.

발족 후 성동구 능동의 어린이대공원 안에 고당 동상 건립을 주관하였고, 1984년 8월 17일 고당 조만식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저동2가 현 위치에 고당기념관을 건립하였다.



고당 조만식 선생(55세 무렵)

## 2) 1,300 객실을 보유한 롯데호텔

롯데호텔은 일제 때인 1938년 4월 27일에 세워진 반도호텔을 헐고 1979년 3월 10일 중구 을지로1가 18번지에 건립된 초대형 호텔이다. 서울의 발전을 상징할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호텔을 세운다는 것을 목표로 민영자본인 (주)롯데호텔이 반도호텔을 인수하여 설립하였다. 롯데그룹의 회사명은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

품』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온 이름이다.

당시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던 반도호텔의 경영 성과가 크게 악화되고, 세계의 국민급 인사에 대한 영접과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유력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반도호텔의 인수와 현대식 호텔 건립을 위한 민영화 계획에 발맞추어 1973년 2월 26일부터 설립되기 시작되었다.

1973년 신격호(일본명 : 시게미쓰 다케오) 일본 롯데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김종필 국무총리의 지원을 약속 받고서 일본으로 돌아가 이 해 2월 ‘비원(秘園)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서울의 롯데호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반도호텔 주변은 중국음식점 아서원(400여 평, 롯데 소유) 외에 반도호텔 3,000여 평, 국립도서관 2,000여 평, 한일은행 1,300여 평, 산업은행 2,400여 평, 서울은행 등 기타 회사 소유지 400여 평, 개인 소유 약 1,000여 평으로 약 11,000여 평이었다.

원래 롯데호텔의 설계는 가지마(鹿島) 건설이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구상했으나 신격호 회장은 내진(耐震)의 철골공법을 고집했다. 또한 건물 층수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가지마 건설의 의견은 45층으로 짓는 것이었으나 서울시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40층 이상은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신격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한국에 가져오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높게 지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청와대에서 경호상 40층 이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도다 건설이 철골공법에 의해 지상 37층으로 건축하여 지하 3층, 높이 150m, 연면적 112,425㎡이 되었다.

1973년 8월 1일 ‘건설부 고시 제315호’를 통해 반도호텔 일대가 ‘반도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반도호텔 민영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특정가구 정비지구 지정으로 롯데호텔은 동국제강, 아서원,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반도조선아케이드, 기타 개인 부지 등을 큰 잡음 없이 모두 매입할 수 있었다. 특정가구 정비지구 지정에 반도호텔 직원, 반도조선 아케이드 입주 상인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으나 신격호 회장은 이들을 설득하고, 1974년 6월 3일 반도호텔 단독 매각입찰에 나서 41억 9,80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해 6월 7일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반도호텔은 대지 1,836평, 건평 6,161평, 8층 객실 111개, 종업원 283명이었다.

1974년 7월 25일에 반도호텔을 인수한 롯데는 1974년 10월 하순부터 반도호텔 철거작

롯데호텔 전경



업에 들어가 이 해 말에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어 1976년 5월 7일, 반도호텔 일대 특정가구 정비지구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롯데호텔에 토지 가옥을 매각한 사람들은 각종 세금을 면제 받았고, 롯데호텔 또한 취득세·재산세·등록세·영업세·도시계획세 등의 면제로 큰 특혜를 받았다. 롯데는 1975년 10월 23일 호텔공사를 시작하여 5년만인 1979년 3월 10일 롯데호텔 전관이 개관되었다.<sup>204)</sup>

롯데호텔(주)은 국내에 5개의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체인호텔로서 국내 최초인 1995년 9월 27일에 한국관광산업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이다.

이 호텔은 1979년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의 본부로 채택되어 국제 행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후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공식 본부 호텔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공식 호텔로 대회 기간 중에 VIP 49,400명, 자원봉사자 10만 9,000명 등 연인원 17만 8400명에 음식을 공급하고, 객실을 찾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롯데호텔(주)은 국내 최초의 민간 상업호텔로 현대식 호텔이 부족했던 국내 호텔산업의 현대화를 시작한 호텔이다. 1973년 개관한 이래 가장 많은 약 1,300실(롯데호텔 서울)

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호텔이다. 롯데호텔은 호텔을 통하여 창출한 수익을 계속해서 재투자하여 5개의 특급호텔을 보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호텔사업과 리조트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sup>205)</sup>

### 3) 백화점업계의 선두 주자, 롯데쇼핑

롯데쇼핑(주)은 중구 소공동 1번지에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에 소속된 유통 기업이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며 사업부에 소속된 별도 회사를 통해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룩스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1970년 7월 2일 설립된 협우실업(주)을 모체로 하며, 1979년 11월 15일 롯데쇼핑으로 이름을 바꾸어 유통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사업 기반을 닦은 신격호(辛格浩) 회장은 관광·유통업을 하기 위해 1973년 5월 (주)호텔롯데를 설립하였으며, 1976년 10월 호텔사업부 외에 쇼핑센터사업부(이후 쇼핑센터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의 부속 건물에 들어설 쇼핑센터의 운영을 담당케 하였다.

그런데 1979년 말 개관을 앞두고 쇼핑센터를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호텔롯데는 국내 유통업을 할 수 없으며, 백화점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 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0년 7월에 설립된 계열회사 협우실업으로 하여금 쇼핑센터 사업본부를 인수하게 하고, 1979년 11월 롯데쇼핑(주)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2년 이후 증권감독원 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2006년 2월에 기업을 공개하였다.

신격호는 1녀 2남 자녀와 함께 롯데쇼핑의 소유 및 경영을 장악하고 있다. 1979년 11월 롯데쇼핑 출범 직후 최대 주주가 신격호에서 한일향료로 바뀌었으며, 1994년 12월 장남 신동주와 차남 신동빈이 새로운 공동 최대주주가 되었다. 2001년부터는 차남이 약간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오고 있다.

신격호는 1990년대 말부터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오고 있으며, 2005년 신동빈을 상근 대표이사로 받아들임으로써 2세 체제를 본격화하였다. 신동주는 2004년까지만 임원으로 있다가 롯데그룹의 일본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딸 신영자는 1990년대 말 이후 부





롯데백화점 본점(롯데쇼핑센터, 소공동 소재)

사장 및 사장으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2010년 3월 롯데쇼핑의 최대 주주는 신동빈(14.59%)이며, 신동주(14.58%), 신격호(1.01%), 신영자(0.79%), 호텔롯데(9.58%) 등을 포함하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69.34%이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의 롯데쇼핑센터(롯데백화점 본점)는 롯데쇼핑(주) 출범 한 달 뒤인 1979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이후 서울 잠실점과 청량리점이 각각 1988년 11월과 1994년 3월에 개점하였으며, 1995년 12월에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 매장을 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백화점 설립이 본격화되었으며, 2014년 현재 국내에 43개의 백화점(영플라자와 아울렛 포함), 해외에 6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백화점으로는 서울 11개, 부산 4개, 경기(성남, 고양, 안양, 안산, 구리, 파주, 이천) 8개, 광주 3개, 인천 3개, 대구 5개, 경남(창원, 김해) 2개, 대전 1개, 울산 1개, 경북(포항) 1개, 전북(전주) 1개, 충북(청주) 2개, 충남(부여) 1개 등이다.

1990년대 말부터 사업영역을 넓혀 할인점, 시네마, 슈퍼마켓 및 KKD(Krispy Kreme

Doughnuts) 매장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갔다. 할인점 사업은 ‘롯데마트’ 서울 강변점이 1998년 4월 문을 열면서 시작되었고, 1999년 9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롯데시네마’ 1호점, 그리고 2001년 5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롯데슈퍼’ 1호점이 각각 들어섰다. KKD는 도넛과 음료를 판매하는 미국 브랜드로 2004년 1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서울 신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3월 현재의 매장 수는 롯데마트 70개, 롯데시네마 54개, 롯데슈퍼 214개, KKD 약 40개 등이다.

롯데쇼핑은 2000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산 총액과 매출액은 각각 2006년과 2008년에 1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09년에 8,000억 원을 넘어섰다. 한편 당기 순이익은 2006년 7,0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다소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매출액의 51.2%는 백화점에서 나왔으며, 할인점이 37.5%, 기타가 11.3%를 차지하였다.

백화점업계에서는 롯데, 현대 및 신세계가, 그리고 할인점업계에서는 롯데마트,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 및 삼성 계열의 홈플러스가 각각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9년의 시장점유율은 롯데백화점이 42.6%, 롯데마트가 15.6%였다.

롯데쇼핑의 주요 사업은 식품소분 판매업, 화장품품 제조 및 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등이다. 주요 제품과 구성 비율은 할인점 29%, 백화점 29%, 전자제품 전문점 13% 등이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26조 207억 원, 자본금은 1574억 원, 연간 매출액은 16조 1773억 원이다.<sup>206)</sup> 2016년부터 롯데의 성주 골프장이 한국과 미국의 합의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로 지정되자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중국 내의 롯데쇼핑이 영업 정지등의 보복 조치를 당해 위기를 맞았다.

#### 4) 불야성의 패션거리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신흥 및 재래시장 일대(585,709m<sup>2</sup>)는 2002년 5월 23일, ‘동대문 패션타운 특구’로 지정되었다. 이 근처에는 두산타워, 밀리오레, 현대시티 아울렛, 팀204 등 최신식 패션 쇼핑몰은 물론, 동평화·청



대한민국 최대의 패션거리인 을지로6가

평화·제일시장·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이 몰려 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자가 곧바로 판매자이며 중간 이윤이 없고, 유행하는 최신 의류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2000년 초에는 하루 평균 4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또 다양하고 값싼 옷들을 파는 패션몰과 재래시장이 이어진 관계로 한 곳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동대문 패션타운 특구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의류패션사업의 메카로 분야성을 이룬 야간 시장이 특히 유명하다. 24시간 쇼핑이 가능해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45%가 즐겨 찾는 대단위 쇼핑단지다.

동대문 패션타운은 단순히 의류를 판매하는 상가를 넘어 기획에서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도전장이기도 해서 독특하고 신선한 패션 스타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각 쇼핑 상가가 각종 이벤트와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면서 그 일대가 젊음의 거리로 활기가 넘친다.

특구의 이름인 동대문은 조선시대 역사유적인 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패션타운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이어지는 청계천은 쇼핑 후 휴식하기 좋은 공간이다.

새벽 1시, 을지로6가는 밤이 깊어 갈수록 오히려 빛이 난다. 수십 층 빌딩에서 하늘로 번지는 불야성은 멀리서도 이곳이 살아 움직이는 거리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한다. 다름 아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맞은편 패션전문단지의 새벽 표정이다. 두산타워·밀리오레·프레야타운(현대시티 아울렛) 등 초대형 패션의류 전문매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더 이상 시장 통이 아닌 눈부신 ‘패션의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대낮처럼 밝힌 조명 사이로 흘러나오는 최신 유행음악, 건물외벽에 설치된 대형 뮤직 비디오에서는 쉴 새 없이 가수들의 현란한 율동이 인파를 사로잡는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고객을 매장 입구에서 도우미들이 반갑게 맞는다.

이곳 패션전문단지를 찾는 고객의 80%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옷을 보따리로 사가는 상인들도 더러 있지만 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부근의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과는 달리 패션전문단지가 소매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에게도 이곳은 필수 관광코스이다. 일본·대만·동남아 관광객들이 옷가지를 사느라 한밤중까지 이곳 일대를 누빈다. 낡은 건물로 지저분하던 이 거리가 유행의 거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거평프레야(프레야타운)가 문을 연 1997년 이후이다. 이어서 1998년에 밀리오레가 개장하고, 이듬해 1999년 4월 26일에 두산타워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새벽까지 젊은이들로 북적대는 불야성의 거리로 변신했다.<sup>207)</sup>

### (1) 프레야타운이 현대시티 아울렛으로

전일 덕수중학교 자리인 을지로6가 17번지 2호에는 ‘단일 의류센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프레야타운(전 거평프레야)이 1996년 9월 6일에 세워지면서 서울의 명물로 되었다. 이 대형 의류도매센터는 지하 6층, 지상 22층, 연건평 3만 8,000평의 규모로 3,100여 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었다. 지하 1층~3층에는 숙녀·수입의류·아동복을 고를 수 있었고, 1층~6층까지는 숙녀복, 남성복, 아동복, 액세서리, 원단, 의류부자재, 7층에는 혼수, 8층에는 신발 등을 취급하는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9층에는 국내 최초의 완구 전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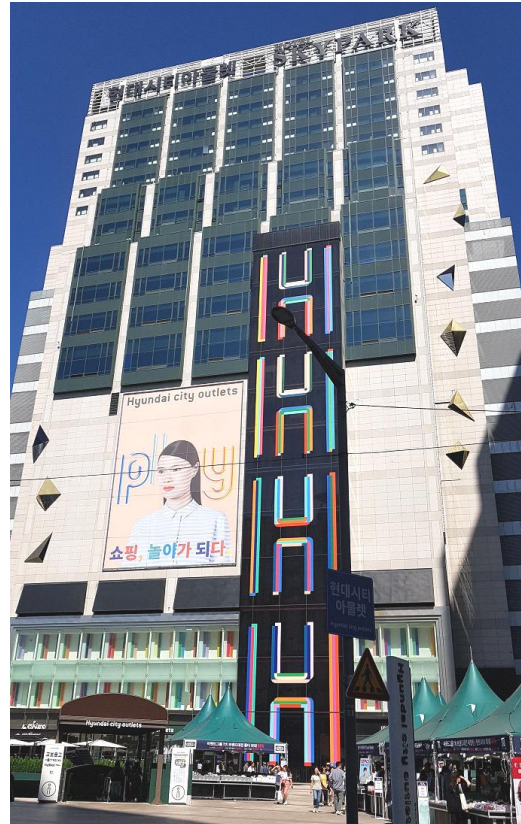
매 매장인 토이랜드가 들어서 있었다. 10층에는 각종 이벤트와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프레야 홀이 꾸며져 있었고, 11~12층에는 식당가와 헬스크럽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단순 도매시장이 아닌 종합쇼핑 문화공간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프레야타운은 1996년 9월 6일, 국내 최초로 정부가 지정한 시범 의류도매센터로 인근 상가의 점포를 비롯, 3,200여 입점상인들이 몰려 분양률 100%를 기록했었다. 프레야타운은 개점에 앞서 설립 예정지 일대 입지와 마케팅조사 결과를 토대로 1,5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시설을 갖추고, 단추·의류용장식품 등 패션소품업체들을 동시에 입점시켜 소매상인들이 여러 곳을 들르지 않고도 한 번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윈스톱 개념을 도입했었다.

프레야타운은 장차 경기도 용인시와 주요도시에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서울 프레야를 구심점으로 하는 전국적인 의류유통망을 갖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프레야타운의 개장 행사에는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안광구 통상산업부 차관·최수병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었다.

900평의 면적에 완구, 유아, 문화용품만을 판매하는 9층의 토이랜드에서는 0세~12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유아, 아동용 완구, 장난감을 갖추고 있어, 서로 다른 연령대의 각종 장난감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윈스톱 쇼핑이 가능하였다.

프레야타운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광장, 게임룸, 컴퓨터 나라, 모험나라 등이 300여 평에 걸쳐 마련되어 있었다. 지하 1층에 있는 외국인 전용 아울렛 매장도 특이한데, 주로



현대시티아울렛 전경

러시아·중국·동남아·일본 등의 보따리상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았다. 고객들이 밝고 빠른 음악을 들으면 상품을 고를 때 덜 망설이게 되므로 유행 댄스가요를 틀어주는 패션 DJ의 기지(奇智)도 명물이었다. 또한 프레아타운에서는 자체 생산한 고급 가죽의류를 값싸게 살 수 있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답게 20~25만원대의 가죽코트 등 개성 있는 상품들이 많으며, 가죽으로 만든 구두·핸드백 등 소품도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다.<sup>208)</sup> 프레아타운이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으로 바뀌었는데 뉴스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에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동대문점(6관)이 들어선다.

## (2) 인공지능의 패션 빌딩, 두산타워

전일의 덕수상업고등학교 자리인 을지로6가 18-12번지에 지하 7층, 지상 34층의 초대형 건물이 세워졌다. 지하 2층부터 8층까지는 패션 전문점이, 8층부터 33층까지는 두산그룹 계열사가 들어서 있다. ‘젊음의 감각이 살아 숨 쉬는 지능적인 패션 빌딩’이라고 불리는 두산타워는 1995년 12월에 착공하여 1998년 말에 완공되어 1999년 1월 5일에 허가되었다. 2,003개의 점포가 들어선 이 대형 건물의 상가는 도·소매를 병행하며, 백화점식 원스톱(one stop) 쇼핑제를 실시하고, 업종별 공동브랜드, 입고 품질관리단 구성, 직배송 물류시스템 실현 등 최신기법의 상가 활성책을 적용하고 있었다. ‘옷을 주제로 한 놀이동산’ 패션 전문점으로 하루 이용객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밤이 되면 두산타워 앞 광장 한켠에 마련된 무대 주변이 시끌벅적하다. 사람들 손에는 상가 로고가 찍혀 있는 크고 작은 봉투 하나씩이 들려 있다. 손님을 끌기 위해 마련한 기획 행사에 프로 뺨치는 춤 솜씨를 뽐내는 10대들의 잔치에 관객들이 열광한다. 바로 옆 밀리오레 앞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이름처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려 오간다. 살거리 외에도 볼거리가 많은 거리다. “동대문이나 같까?” 젊은이들 사이엔 이젠 자연스레 건네는 말이다. 극장, 공연장이 많은 종로나 대학로 등에서 놀다가도 부담없이 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두산타워는 첨단시설과 유명 브랜드 못지않은 상품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주 고객층을 20대 후반 여성과 미시(missy)족으로 맞추었다. 1층은 전문 디자이너 의류와 잡화 매장, 2층은 여성 커리어[전문직] 매장, 3층은 수입 명품과 잡화 매장, 4층은 남성 의



두산타워 광장의 관광객들

류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5층은 악서사리와 생활용품, 화장품 매장이, 6층은 아동복과 임부복 매장이 들어서 있다. 7층에는 한식, 일식, 양식 등을 즐길 수 있는 푸드 코트(food court)가 있고, 8층은 동대문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 가든이 마련되어 있다.

지하2 층에는 액세서리를 고객이 손수 제작하는 ‘DIY’ 매장이 있다. 매장에서 머리띠와 핀 등을 골라 그 자리에서 직접 나만의 패션용품을 만든다. 내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나만의 욕구를 충족하는 셈이다. 이들 재료는 날개에 200~500원밖에 안 되어 동대문 상가를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는 흡인력을 발휘한다.

건물 앞 500평 규모의 옥외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과 쇼가 벌어진다. 동대문 상권에서는 가장 큰 주차장을 갖추고 모든 상가에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하여 경쟁상가와 차별화를 꾀하였다. 전체 상인의 30%가 자가(自家) 또는 하청 공장을 소유한 디자이너 출신인 것이 이 상가의 자랑거리이다. 두산타워는 입점상인으로 장사 경험보다 기발한 상품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젊은 상인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가 밤낮으로 ‘지옥체증’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대문 일대를 1999년 6월께 전국에서 처음 ‘교통관리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1999년 3월 26일 이 일대에 지역단위의 교통영향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대문 주변 교통처리대책’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또 이 일대를 ‘도심 물류 혼잡지구’로 지정, 공용 조업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산타워·밀리오레·프레아타운이 밀집해 혼잡도가 특히 극심한 홍인문로 변의 소통처리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였다.<sup>209)</sup>

### (3) 10대들의 영타운, 밀리오레

두산타워와 이웃하고 있는 밀리오레(Migliore)는 ‘10대들의 영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옷과 패션 보조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니온물산이 1998년 ‘더 좋은’이란 이탈리아어 이름으로 바꾸면서 1998년 2월 개점하였다. 을지로6가 18-17번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에 2,443개 점포가 입점한 이 상가는 개점 당시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나누어준 색다른 상술을 보여 유명해졌다. 숙녀복·액세서리·구두·가방·남성복·스포츠용품 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걸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판매한다. 기존 도매상에서 탈피하여 소매상가 중심의 패션몰 개념의 초현대식 상가이다.

중·고교생을 고객으로 한 10대 캐주얼과 패션 소품이 뛰어나며, 특히 디자인이 다양한 것이 강점이다. 수시로 연예인 초청 공연과 댄스가요 축제, 멀티 비디오쇼, 경품장치 등 무차별 판매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새로운 신세대 쇼핑 풍속도를 창조하는 곳이며,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4층 힙합 매장인 ‘액티브 스트리트’는 매장벽이 삭막한 벽화와 벽돌로 채워진 이른바 ‘예술매장’이다. 매장 안쪽에 벽돌과 보도 블록을 쌓아 도시의 삭막함과 황량함을 연출했다. 매장 한가운데 벽면에는 나무로 문(門)을 만들어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문을 중심으로 양쪽 벽면은 프랑스 유학과 화가 이만오(李晩五) 씨가 검은색과 흰색 등 무채색을 중심으로 그린 벽화는 단순하면서도 도발적인 이미지의 그림은 이젠 신세대들의 주언어가 된 힙합의 자유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기존 평화시장·동대문시장 등이 새벽시장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종일 개점’을 선언한 까닭에 토요일 오후면 쇼핑객들로 북적댄다. 또한 옷을 입어보고 사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단점을 감안하여 각층마다 탈의실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교환이 가능하며, 치수가 맞지 않으면 주문 제작도 한다. 현재 지하 1층에 숙녀복·아동복, 1~3층에 숙녀복, 4층에 남성복, 5~6층에 패션잡화, 7층에 가죽제품, 8~9층에 스넥, 10층에 이벤트홀, 11층~20층은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두산타워, 밀리오레, 프레야타운 등 세 곳 모두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었으나 소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소매 비중이 80%에 이르는 밀리오레는 두산타워·프레야타운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매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반면에 두산타워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30%에 불과한 도매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초부터 동대문운동장 동쪽 편에 형성되기 시작한 디자이너 크럽·팀204·해양엘리시움·우노꼬레·아트프라자 등 동부 상권은 지방에서 올라 온 상인들이 주된 고객이며, 오후 8~9시경 문을 연 후에 다음날 아침 셔터를 내린다.<sup>210)</sup>

#### (4) 복합 문화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시는 2007년 12월에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5년 만인 2014년 3월 21일에 개관하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여성 건축가로는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커상을 최초로 수상한 이라크 태생의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다. 자하 하디드의 DDP 설계안에는 동대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 가치와 비전을 더한 동대문의 새 풍경이 담겨 있다.

자하 하디드는 이른 새벽부터 밤이 저물 때까지 쉼 새 없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 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새 없이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DDP는 동대문이 갖는 상징성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게 되었다.

DDP는 2006년 9월에 시공하여 2014년 2월까지(건물 준공 2013.11월말) 연면적 86,574㎡로 지하3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m로 완공되었다. 우주선을 연상하는 세 개의 공간에는 알람터·배움터·살림터가 위치해 있으며, 외부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동대문운동장 기념관 등 총 5개의 공간과 15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DDP는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발표회,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여 아시아로, 세계로 향하는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211)</sup>

디자인갤러리와 이벤트 홀에서는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이 전시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서울의 역사와 도시사 등을 소개한 ‘서울 한양도성 사진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들이 기획되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되며 관람 시설인 동대문역사관과 디자인갤러리 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 5) 을지로의 전문상가들

일제침략기 때 인현동과 함께 을지로3가는 대부분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업지구였다. 광복 직후에는 을지로3가에 고물상가가 있었지만,<sup>212)</sup> 현재 을지로2·3가 도로 양쪽에 있는 상점은 거의 시멘트 대리점, 타일이나 목욕실용 자재를 진열하고 있는

건축자재 상가와 철물상, 가구상이 몰려 있다.

을지로2~6가에 이르는 상가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업종은 건축 분야이다. 마치 건축자재의 연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 상점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판, 철물, 타일, 가구, 페인트에서 철사, 못, 욕조, 침대, 커튼, 싱크대에 이르기까지 주택 건축과 관련된 것이라면 없는 게 없다. 이 상가 일대가 전문·연쇄화됨에 따라 상권 판도도 비례적으로 증가, 1976년 당시 전국 건축자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건축 연쇄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품종별 상지대(商地帶) 구획이 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을지로2가 일대의 왼편은 커튼·싱크대·용단 등 내장재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을지로3가 일대의 왼편은 합판·타일이 주종 거래품목이다.

을지로2·3가 일대의 오른편은 고급가구에서 시작되어 캐비닛·철제의자 등 가구점이 줄을 잇는다. 한편 을지로4가 일대는 철판·못·알루미늄 샤시·비철금속류가 집중된 금속자재 전문상가를 이룬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점포의 구조가 남북으로 동굴처럼 길게 뻗어있다는 점이다. 길 북판으로 간판은 내밀어야 하고, 상점 과밀 현상으로 터는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이런 특이한 점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이 건축자재 상가로 등장한 역사는 일제침략기인 1930년대 전후가 된다. 19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 거리는 악생(樂生)들이 아악을 배우던 장악원(현 을지로2가 KEB하나은행 자리)과 무재(武才)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훈련원(현 훈련원공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외에는 보잘 것 없는 한촌(寒村)이었다. 조선 말에 이르러 구리개로 불리던 이곳에 한약건재상이 하나둘씩 들어섰고, 다시 일본인이 들어와 그들의 거주지역으로 자리를 잡아 황금정으로 이름을 바꾸자 을지로3가 일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조흥건재

대에 철물점들이 점포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가 1930년 중엽. 그때 개업하여 아직 남아 있는 점포는 황금철물점이다. 윤영오(尹榮五)가 문을 연 이 작은 점포는 이제 2세인 아들 혁(赫) 씨에게 승계되었고, 자리도 이전, 주식회사로 변모되어 있다. 목재상가는 철물점보다 10년 늦게 개점되었다. 1947년 합판업계의 원로인 김만득(金萬得)이 산림동(현 세운상가 을지로 쪽)에 세운 조흥건설(朝興建材)가 그 효시다. 이 건설상점(建材商店)도 지금은 2세에게 승계되어 있다.

1960년대 후반 공전의 주택 경기를 타고 그 판도를 넓혀 온 전문 상가지대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성쇠(盛衰)의 갈림은 무상하다. 1년이면 평균 1할 정도 점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업계의 얘기다. 치열한 경쟁이 어제의 흑자 점포를 적자 점포로 만들고, 대기업들의 대리점을 통한 도매유통 과정 침투는 기존 상권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후반의 주택 건축 불경기와 이런 요인들이 가세되어 건축자재 전국 도매 상권의 90%를 차지했던 점유율이 70%로 떨어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상가 밀집이 다시 확산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에 있어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충무로와 신당동, 왕십리까지 건축자재상의 영역이 차차 확대되고, 영동, 잠실, 중곡, 천호동 등 신흥 주택지에 신예 건축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최근의 판세는 어쩌면 전문·밀집화된 상권(商圈)에 다음 차례의 변화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sup>213)</sup>

### (1) 을지로입구의 황금성 아케이드

을지로입구의 개성상회 옆(남대문로1가 28)의 위치한 풍한(豐韓)산업은 노른자위 땅 1,000여 평에 ‘황금성(黃金城 : 대표 김영구)’ 아케이드를 세웠다. 1966년 4월에 값싸고, 품질 좋고, 신용 있는 상점들만 모여 있는 ‘황금성’이라고 「경향신문」에 크게 광고를 실었다. 풍한산업은 1970년 5월, 사채 상환을 위해 시중 은행에서 16억원의 외상 예금증서를 발급받는 금융 특혜를 받았고, ‘황금성’은 1970년 12월에 사채(私債) 상환을 위해 아케이드 부지를 처분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sup>214)</sup> 풍한산업은 1973년 2월에는 ‘황금성’ 1층에 풍한 프라자를 개설하여 이불잇, 요잇, 베갯잇 등 베드 시트류와 핸드타월, 목욕타월, 비치타월, 타월캐, 타월원단 등을 직매하였다.<sup>215)</sup>



「경향신문」에 실린 황금성 아케이드 광고

## (2) 일제의 소개공지 터에 조성한 세운 청계상가

세운상가(世運商街)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와 퇴계로3가 사이를 잇는 2층형 상가 단지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다. 중구 지역에는 세운 청계상가(8층)를 비롯하여 남쪽으로부터 삼풍상가·대림상가·삼풍넥스스·풍전호텔·신성상가·진양상가로 구분된다. 세운상가는 1968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 주상복합타운으로 한때 한국 전자 메카로 불렸지만 지금은 낙후되고 침체되었다.

현재 종로구의 세운상가에서 청계천의 세운교를 건너면 중구 청계천로 160(산림동)에 세운 청계상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상가는 1967년 6월에 개관되었다.

## (3) 세운상가와 삼풍상가 사이의 산림동 대림상가

산림동의 대표적인 건물은 대림상가(12층)이다. 이 상가는 1966년 9월에 착공하여 1967년 6월에 개관하고, 1968년에 8~17층짜리 건물 8개가 모인 상가로 완공되었다. 대림상가는 세운상가 8개 중의 하나로 세운상가와 연결된 상가로서 250개의 점포가 1~4층에 있고, 5층은 국민은행 대림상가 출장소와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6층부터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대림상가는 세운상가 및 인현동1가의 삼풍상가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취급품목은 주로 노래방기계·구형 전자부품·가전제품·컴퓨터·카메라·시계 등이다. 특히 산림동에는 모터 부속, 공구·전기용품을 취급하는 상가가 집중되어

전문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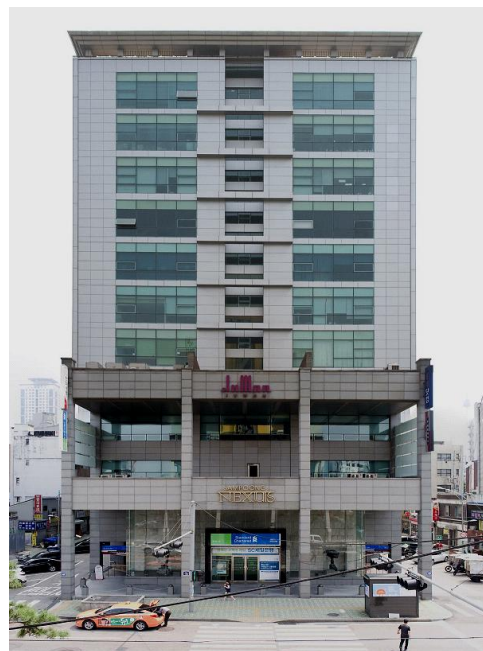
1966년 제14대 서울시장 김현옥(金玄玉)이 당시 율락업소가 즐비하던 종로와 퇴계로 일대를 돌아보고 이곳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가 김수근(金壽根)이 종로3가와 퇴계로3가를 공중 보도로 연결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설계하였다. ‘세운(世運)’이라 이름은 ‘세상의 기운이 다 모여라’라는 뜻으로, 김현옥 시장이 지은 명칭이다. 1층에서 4층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서 1970년대까지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세운상가는 국내 유일의 종합 가전제품 상가로서 호황을 누렸다. 198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이곳에서 거래되었다. 상가 주변에도 전기·전자 부품점을 비롯하여 조명용품점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이 개발되고, 서울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시설로서는 더 이상 주목을 끌지 못하고, 거주민들이 이주하였다. 또 1987년에 용산전자상가가 건설되고, 1990년대 이후 이곳의 상가 대부분이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세운상가도 점차 쇠락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슬럼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sup>216)</sup>

#### (4) 인현동1가의 삼풍넥서스

삼풍넥서스(14층)는 1968년에 완공된 세운상가의 일부로 을지로와 마른내길 사이의 중구 인현동1가 310-68에 위치한다. 이 상가는 을지로4가와 인현동1가 사이에 걸쳐 있는 건물로서 세운상가와 산림동에 있는 대림상가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보존하고, 상인·주민과 함께 서울도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창의 제조산업 중심지로 재생하는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사업을 2017년 8



삼풍넥서스 북쪽 전경



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인쇄, 화훼, 귀금속 등 이 일대 지역 산업을 살리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2017년 6월 1일, 서울시의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열린 도시 플랫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을지로 교차로를 사이에 둔 대림상가와 삼풍넥서스 사이에 지난 2007년에 철거되었던 공중보행로가 다시 부활, 두 건물 사이를 잇게 된다. 삼풍넥서스~피제이(PJ)호텔 구간은 건물 양쪽에 보행자 전용교를 새로 설치하고, 지상 보행길과의 연결로도 신설된다. 또, 신설 공중보행길(데크)에는 도시적 스케일의 연속적인 오픈 플랫폼을, 지상 보행길변에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플랫폼을 조성해 커뮤니티, 상업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로 맞닿아 있는 신성상가와 진양상가는 3층 데크와 지상 보행로 사이에 중간층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전면유리로 개방된 상업공간이 조성돼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sup>217)</sup>



진양상가 남쪽 전경

##### (5) 신성상가

신성상가(10층)는 1968년에 완공된 세운상가의 일부로 마른내길과 진양상가 사이의 중구 인현동2가 192-30에 위치하고 있다. 세운상가군(44만㎡)은 종로구 세운상가(가동)에서부터 퇴계로 신성·진양상가까지 약 1km에 걸쳐 일직선으로 늘어선 총 7개 상가를 말하는데, 서울시는 이 건물들을 지상 3층 높이의 보행 데크로 모두 연결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 예정이다. 노후한 데크를 새로 정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끊겼던 구역에도 새 데크를 만든다. 이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보행로가 완성되면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을지로2가의 지물상가

찾을 것이고, 그러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이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는 종로~대림상가 구간, 2단계는 삼풍상가~진양상가~남산 구간의 정비이다.

## (6) 진양상가

진양상가(10층)는 1968년에 완공된 세운상가의 일부로 신성상가와 퇴계로 사이 충무로4가 120-3번지에 위치하며, 꽃상가로 알려져 있다. 전일의 인현시장을 철거하고, 서울시의 세운상가 건설에 따라 세워졌다.

## (7) 을지로2가의 지물상가

을지로2가 하면 곧 지물상점의 집결지로 통한다. 이곳은 개점 상점만 해도 30여 개에 달하며, 뒷골목에 자리 잡은 ‘로커’까지 합하면 약 50여 개 이상이 즐비하게 서 있다.

을지로2가가 오늘날과 같이 전국의 크고 작은 지물상들의 유일한 도매시장으로 발전



되기까지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1950년 6·25전쟁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을지로2가가 지물상가로 된 것은 황금정으로 불린 일제침략기에 일본지업(日本紙業)·근택상점(近澤商店) 등 5개 업소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였다. 이곳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교통이 편리했고, 인쇄소가 많았으며, 외래품이 범람하여 서전(瑞典)·일본 그리고 외국산 지물이 명동, 소공동, 종로 등보다 가격이 저렴하였던 것이다. 또한 실야상점(失野商店)·원상점(原商店) 등 몇몇 일본인 지물상가가 있었던 이 지역에는 2층 건물이 대부분 이어서 지저분한 지물의 근거지로서 적합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6·25전쟁 3, 4년 후만 해도 돈 잘 벌고, 돈 잘 쓰며, 큰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상인이라면 지물상을 첫 손으로 꼽을 만큼 황금시대도 있었다. 이 당시 국산은 거의 없고 이른바 ‘마카오’산, 일본산이 판을 치던 때였다. 얼핏 보기에는 종이 몇 십 연씩 쌓아 놓고 늘 놓고만 있는 것 같지만 이들 지물상인들의 대부분은 전표로만 왔다 갔다 할 뿐 현품은 남의 창고이지만 창고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1969년경 30여 곳의 개점 상인들 대부분은 메이커와 대리점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20여 군데 제지 메이커들의 사무소도 을지로2가 지물상가에 집결되어 있었다.

최근에 종이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상인들로부터 찾아보기 힘들만큼 이곳도 한물갔다고들 말하고 있으나 큰 상인들은 대부분 이북 피난민들이라는 점과 이곳에서 펄프 회사의 사장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성공의 터전이기도 하다.<sup>218)</sup>

#### (8) 원효로로 이전한 세운상가, 구로동으로 이전한 기계공구상

1978년 8월 28일, 서울시는 도심 기능 재배치 계획으로 17개 업종 17,000개 점포를 강남·강북 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을지로 지역의 업종은 청계 2~4가간 자동차부품·공구상 630개소를 답십리동으로, 을지로4가 철재상(59개소)·청계천 기계공구상(1,077개소)·베어링상(320개소)을 강남으로, 청계천, 을지로변 전자제품상(1,100개소)·화공약품상(160개소)을 강북 외곽 지역·강남으로 이전시키기로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sup>219)</sup>

1980년 1월 9일에도 서울시는 도심 기능의 분산책으로 을지로·청계천 일대의 공구상 9,000업체를 4대문 밖으로 이전할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약 10년 뒤인 제6공



을지로3가의 공구상가

화국기(1988~1992년)에 서울시는 도심지의 인구를 분산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외곽에 산업용품 전문상가를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자리한 산업용재 상가의 집단이전을 실시하였다.

즉, 민간자본 유치로 용산구 한강로 2~3가, 원효로3가에 용산전자상가를 조성하여 세운상가 일대의 전자, 전기상 12,000개 점포를 이전시켰고, 구로구 구로동과 시흥동에 산업용재 전문상가를 조성하여, 청계천 및 을지로3·4가 일대의 기계공구상을 이전시켰다.<sup>220)</sup>

## 6) 을지로의 시장들

### (1) 서울의 건어물을 많이 거래하는 중부시장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중간이 되는 중구 오장동에 위치한 중부시장은 1957년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이 시장에 가면 300여 개의 건어물을 취급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

- 위치 : 중구 오장동 139번지 11호
- 규모 : 대지 약 5,000평, 건평 약 10,000평, 점포 수 약 1,000개 동  
(개설권 밖 200여 개, 신중부시장)
- 대표자 : 이석준
- 개장 일자 : 1957. 2. 28.

\* 자료 : 서울중부시장(주)

김, 미역, 조기, 멸치, 오징어, 북어, 쥐포 등 마른 반찬 재료를 시중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곳 가게에서는 오징어, 김, 멸치, 북어, 굴비 등 한두 품목별로 팔기 때문에 품질 좋은 건어물을 골라 살 수 있다. 요즘에는 가공된 건어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구운 김, 쥐포, 조미북어 등이 인기 있는 건어물 가공식품류이다. 또한 제수용품 등도 취급하고, 잡화류, 식품류도 최고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새벽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도매시장이 열리고, 오후 2시까지 중간도매 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오후 5시에 대부분 문을 닫아 오후 6시면 한산해진다. 따라서 아침 일찍 가거나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가야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중부시장은 서울 강남·북을 통틀어 가장 큰 건어물시장이다. 이 시장은 1970년~1985년까지 거래가 많아 성황을 이루어 2006년 12월에는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고객이 드나들었으나 10여 년 전부터는 도매상이 소매상을 찾아가서 상품을 배달해 주는 체제로 바뀌어 많은 고객들이 이 시장을 찾아오지 않는다.

서울시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이 시장은 1955년 9월 내무부고시 제244호에 의해 시장부지로 책정되어 1957년 1월 21일에 중부시장으로 개설되었고, 1959년에 허가되었다. 개장 당시 중부시장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하여 축하하였다.<sup>221)</sup>

1973년 3월에는 이 시장 내의 전 농협공판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32개 점포를 태웠으며, 1974년 12월 6일에 연건평 1,671평 40개 점포로 중부농산물공판장을 개장한 후, 1979년에는 이 시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추진되었다. 1985년 6월에는 정부의 시책으로 일부 건어물·해산물 위탁상인들과 유사 도매상인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하였



서울 중부시장 건설공사를 둘러보는 이승만 대통령

지만, 상당수의 상인들이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므로 서울시는 남대문수산물시장과 함께 ‘수산물 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수산물 거래제한 조치는 1987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하도록 했다가 해제하였다. 하지만 이 시장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종으로 하는 종합 도·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중부시장에는 동대문시장에서 운영하는 많은 봉제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80년 4월 서울시는 시장 내의 봉제공장을 도심 부적합 업종으로 판단하여 225개소를 이전·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종업원들의 기숙을 금지시켰다.<sup>222)</sup>

이 시장에서 건어물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은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다. 건어물 가격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 차례 가격이 오르고, 명절 전에도 강세를 보인다.<sup>223)</sup>

## (2) 의류 전문시장으로 유명한 평화시장

을지로6가에 위치한 구 평화시장은 이른바 ‘동대문 평화시장’의 원조 격이다. 평화를

- 위치 : 중구 을지로6가 17번지
- 대표자 : 현부용
- 점포 수 : 2,070개
- 임대 종사자 : 5,300여 명(자영 1,800명, 종사자 3,500명)
- 허가 일자 : 1962. 2. 23
- 규모 : 대지면적 8,078㎡, 건평 24,703㎡

\* 자료 : 평화시장 홈페이지

기리는 실향민들의 염원으로 이름이 붙여진 평화시장은 6·25전쟁 때 38선을 월남한 북한의 피난민들이 세운 시장이다.

1958년 동대문시장에 큰불이 나서 2,000여 점포가 타버린 후에 1959년에 현대식 상가 건물을 지었다. 1953년 10월에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우회를 조직하였고, 1959년 5월에 평화상가 재건위원회를 만든 후 이 해 11월에 시장 건물 공사를 착공하였다. 1961년 11월에 평화상가변영회를 출범시켜 평화상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62년 2월에 시장 허가를 받았다. 이 해 10월, 평화시장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각종 의류·원단을 주종 품목으로 취급하는 도·소매시장이다.

1960년대에 미국의 구호물자가 끊겼으나, 나일론 같은 화학섬유가 생산되면서 봉제공장을 차리고 대량으로 옷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게 팔게 되면서 도매시장으로 변신하였다. 이곳은 섬유수출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고, 이에 힘입어 청계천7·8가와 홍인동에 신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운동장 평화, 동화시장, 광희시장, 덕운상가 등의 상가가 형성되었다. 이들을 세칭 ‘동대문 평화시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종합시장과 청계천변에 신발·가방·모자상가, 평화시장 헌책 상가들이 생겨났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1970년에 개장한 동대문종합시장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는 작은 업소나 제조업체가 많아 ‘사장님’만 1만 3,000명이 있다고 하였다. 청계천 변에 신발·가방·모자 상가, 종로4가에 시계골목, 을지로에 그릇·가구·전자재 상가들이 형성된 것도 이즈음이다. 도매 중심의 재래상가로 남대문시장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누리던 이곳에 소매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 밀리오레가 문을 열면서





1970년대 평화시장 모습(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부터이다.

「서울신문」은 보도에서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의 의류상가들로 이미 상권을 형성했던 이곳은 최근 이곳의 옷 상가와 남대문시장 의류상가가 합세해 새로운 의류전문상가를 신축하는 붐이 일면서 이 일대가 패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전문 의류상가의 수는 1996년 1월 현재 11곳이나 된다. 모두 10층 안팎의 현대식 건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고객들을 끌어들이л 계획이다. 점포는 자그마치 1만 2,000여 개나 된다. ... 이들은 기존의 재래 의류상가의 이미지로는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독자적인 브랜드(상표)를 개발했다.

또 해외 패션 중심지에 지사를 두고 해외 패션정보를 직접 가져다 활용하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유명 디자이너가 참여한 곳도 있다. 카탈로그 제작,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디자이너 영입 등 소상공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거대 전문상가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형 전문매장인 만큼 도매가 주이고, 소

매도 한다. 개인 고객들은 도매 값에 천차만별의 매장을 둘러보고 구미에 맞는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1997년 4월 29일자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광장시장은 평화시장을 낳고, 평화시장은 신평화시장을 낳고, 신평화시장은 동대문종합시장을 낳고, 동대문종합시장은 아트프라자를 낳고 ... 평화시장은 국내에서 섬유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다. 한 곳에서 모든 혼수용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동대문종합시장, 2층 전체가 가죽옷 가게인 광희프라자가 대표적이다. 남쪽으로는 청계천 평화시장군이 몰려있다. 평화, 신평화, 동평화, 남평화, 청평화, 제일평화, 서울운동장평화 ...

청계천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더 내려가면 밤에만 여는 시장들이 있다. 아트프라자·거평프레야·디자이너클럽·혜양엘리시움·우노꼬레·팀 204... 최고 22층에 이르는 빌딩들이 즐비하다. 지방상인과 신세대들을 겨냥한 이 시장들은 겉모양이 백화점을 닮았다. 그러나 문을 들어서면 재래시장 분위기가 물씬하다. 한가하게 매장을 거니는 이들은 없다. 사이즈를 고르고, 몸에 대볼 틈도 없다. “입어볼 수 있어요?”라고 묻는 것은 “나는 여길 처음 온다”는 얘기다. 초대형 스피커가 쏟아내는 댄스음악들이 걸음을 4분의 2박자로 재촉한다. 동대문시장은 조선 후기 배오개장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 배오개장은 일반 개인들이 모인 난전(亂廛) 형태로, 종로 통 시전(市廛)과는 달랐다. 과일과 양초, 유과 같은 잡화를 주로 거래했던 배오개장은 100년 뒤인 지금 할인점과 홈쇼핑에 맞서 분전하고 있다.

평화시장에는 화재가 잦았다. 1957년 11월 2일에 화재로 판자 점포 40개가 타버렸고, 2년 뒤인 1959년 1월 21일에도 화재로 점포 135개가 전소되었으며, 1965년 12월 25일에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점포 10개가 전소되기도 하였다. 평화시장은 1975년 2월 16일에 화재가 다시 발생하여 6개 점포가 타고, 30분 만에 진화되었다. 1959년 1월 3일에는 청계천 판자집 철거 지역인 평화시장에 54개 판자점포가 신축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한때 의류 생산과 도소매를 겸하고 있는 이 시장에는 약 2만 명의 근로자가 2·3층에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 동상

서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기성복이 1층의 상가에서 판매되었다. 현재는 봉제공장 대신 2·3층에는 면사와 단추·지퍼 등 의류 부속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1970년 11월 13일에는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全泰壹)이 시장 상가 내의 국민은행 앞에서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焚身) 자살하자, 학생 데모 등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1977년 5월 13일 서울시는 평화시장 등 4개 상가에 대하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맺도록 직권 조정하기도 했다. 1980년 4월 17일 청계피복노조의 노사(勞使)분규가 일어나 분규 발생 11일 만에 노사대표가 노동청 조정안을 수락하여 단체협약 문서에 조인하였다.

평화시장 1층은 청계천 건너편의 상가와 같이 모자를 전문적으로 파는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주로 야유회나 각종 행사에 맞춰가는 단체 모자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모자는 가을에 주문이 많은데 100개 정도는 1~2일만에 납품한다. 요즘에는 모자가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닌 패션의 필수품이므로 수요에 맞춰 다양한 패션모자가 선보이고 있다. 홍인문로변에는 각종 레저용품과 스포츠용품 전문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청계천변 1층에는 서점들이 밀집해 있었다. 한때는 170여 개의 헌책방이 들어서 있어서 ‘헌책방거리’라고 일컬었지만 예전처럼 고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한문을 어느 정도 능통해야 운영할 수 있으므로 헌책방을 해보려는 젊은 세대도 줄어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신간서적 선호 경향과 상가 임대료의 상승으로 헌책방은 하나, 둘 문을 닫아 현재는 약 50여 군데만 남아서 ‘헌책방거리’라는 이름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피복공장과 의류전문 도소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평화시장은 지방 상인들을 위해 오전 2시~4시까지 도매시장을 열고,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소매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



을지로6가 청계천변에 형성된 헌책방거리

런가 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인력(人力)시장이 시장 건물 밖 청계천 변에서 형성된다.<sup>224)</sup>

평화시장 동쪽 끝에는 을지로6가 지하철상가, 남쪽에는 두산타워·밀리오레 등 대규모 상가가 위치한 관계로 쇼핑을 나온 젊은 남녀들이 넘쳐발을 옮겨 놓기가 어렵다.<sup>225)</sup>

### (3) 대부분 진양상가로 바뀐 인현시장

- 위치 : 중구 인현동1가 192
- 점포 수 : 82개
- 허가 일자 : 1955.9.1.
- \* 자료 : 서울특별시 산업국 생활경제과(2006년 12월)

진양상가 서쪽, 인현동1가 192번지에 위치한 인현시장은 광복 후 무허가 시장으로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시장 상인들은 월남 동포와 전재(戰災) 동포들이므로 철거를 유예해 달라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226)</sup> 휴전 후인 1954년 10월 16일자 「경향신문」에는 서울시가 인현시장에 조건부 시장 개설을 인가하였다고 하였다.

1955년 1월 25일 오후 6시경, 가게 주인이 극장에 간 사이에 시장 내의 판잣집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4집을 태우고 진화되었다. 1955년 9월 1일, 인현시장은 400호 판잣집 상가를 지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960년 10월 6일 오후 4시경, 인현시장 내 숨 공장 가게에서 담뱃불이 숨에 인화되어 화재로 50여 호,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적십자사에서 술과 밀가루를 구호품으로 전달하였다.<sup>227)</sup>

1964년 5월경 세칭 ‘텍사스촌’으로 알려진 인현시장과 국도극장 옆길에 이르는 가로에는 수백 개의 무허가 술집이 늘어섰고, 심야에도 술을 팔며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200여

접대부들이 대낮에도 을지로4가 버스정류장 앞까지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1966년 8월 6일부터 서울시 김현옥 시장이 세운상가 건설을 위해 인현시장의 46가구를 철거하자 이를 반대하는 3명의 주민이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1명은 결국 사망하였다.<sup>228)</sup> 1986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인현시장

년 8월 11일에는 인현시장의 537가구가 철거되어 상계동 천막촌으로 이전하였다.<sup>229)</sup> 시장이 철거되자 시장 내의 노점상들이 명보극장에서 충무로4가 파출소에 이르는 골목길로 밀려나와 쓰레기와 하수를 마구 버려 주택가에 악취가 풍겼으므로 민원(民怨)이 발생하였다.

최근 중구청은 인현시장이 입지적 조건이 좋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변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오래된 전통시장이므로 “끼와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갖춘 청년 장사꾼을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시장은 서비스 향상과 먹거리 상품 개발로 젊은 층과 외래 관광객이 찾는 열정과 재미가 있는 청춘시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인현시장 육성책을 발표하였다.<sup>230)</sup> 2017년 1월 현재 인현시장에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구의 지원을 받아 가죽제품, 캘리그래피 작품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청년상인이 운영하는 점포 6개가 들어섰다.

#### (4) 의류 부자재 전문상가인 동화상가

평화시장 뒤 통일상가와 맞닿아 있는 동화상가는 규모가 큰 상가건물로서 전일 동대문 국민학교 터였다. 이 상가는 1968년부터 축적해 온 경험을 토대로 꽃수·햇피스·단추·상표(라벨)·전사·넥타이 등 의류 부자재 전문상가로 세계 시장을 열어가는 글로벌 기

- 위치 : 중구 을지로6가 17번지 415호
- 대표자 : 신현상
- 점포 수 : 936개
- 허가 일자 : 1968. 7. 30
- 규모 : 대지 3,923㎡, 건물 19,023㎡

\* 자료 : 동화상가 홈페이지

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상가는 21세기에 발맞춰 새롭게 단장한 청계천과 함께 있으며, 쾌적하면서 넓은 쇼핑 공간으로 쇼핑 문화를 주도해가고 있다.

1968년에 상가 허가를 받고, 1969년 10월 4일에 개설하였다. 상가 규모를 보면, 점포는 현재 936개지만 1989년경에는 514개였고, 취급 품목은 의류 261개, 봉제 40개, 원단 40개, 라벨 70개, 꽃수 103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 이 상가는 오전 8시에 개장하여 오후 6시에 폐점하는데 인근의 어느 상가보다 현대적인 상가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2월 22일에는 근로자 복지병원을 개설하였다가 1988년경에 이전하였다.



의류부자재 전문상가인 동화상가



이 상가의 1층~5층까지는 의류원단 및 부자재를 취급하고 있는데, 1층에는 핫피스·단추·전사지·금속·와이셔츠·타올·원단·넥타이 도매상이 있고, 2층은 마크·시보리·고무줄·단추·지퍼·핫피스·전사지·라벨을 전문으로 하는 점포가 있으며, 3~5층은 오바로크·스모크·초음파·컴퓨터자수·수동자수·인타·엘로·핀코트·핫피스·꽃 자수를 하는 공장이 대부분이고, 6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명 패션업체에 납품하는 고급 선염품(先染品)을 이 상가에서 사면 절반 이하 값에 살 수 있고, 홍콩, 폴란드,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대부분이다.<sup>231)</sup>

### (5) 남성 의류 도매시장인 통일시장

- 위치 : 중구 을지로6가 17번지
- 대표자 : 서인원
- 점포 수 : 680개(의류 750개, 단추 등 부자재 30개)
- 허가 일자 : '70. 1. 29
- 규모 : 대지 3,635㎡, 건물 14,087㎡
- \* 자료 : 서울특별시 산업국 생활경제과 (2006. 12)

평화시장 뒤편에 위치한 이 시장은 통일상가로 불리는데 중구 구민회관 쪽의 5층 건물을 A동·B동으로, 동화시장과 같은 건물의 5층 건물을 C동으로 부른다. 현재 A동·B동과 C동은 2층에 육교가 놓여 연결되어 있다.

이 시장의 의류 부자재 점포는 오후 11시에 개장하여 낮 12시에 폐장한다. 남성 옷 도소매 전문상가인 이 시장은 1층과 2층은 남성복, 3층은 남성복과 아동복을 판매하며, 4층·5층은 창고와 공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5층에는 천주교 청계공소가 있다. 이 시장은 1999년 3월 16일에 재허가 받았다.<sup>232)</sup>

### (6) 지류 도매로 유명한 방산종합시장

을지로5가와 청계천5가의 서쪽, 옛 방산초등학교 터에는 대규모 상가건물인 방산종합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현재 꽃수를 비롯하여 식료품·종이류·문구류·사무용품·의류

- 위치 : 중구 주교동 19번지 1호
- 대표자 : 박형재
- 점포 수 : 1,076개
- 종사자 : 4,400명
- 허가 일자 : '76. 11. 29
- 규모 : 대지 9737㎡, 건물 23,335㎡

\* 자료 : 방산종합시장 홈페이지

부자재·비닐·라벨 등을 도매로 팔고 있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구류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며, 어린이날과 성탄절 때는 선물용 완구를 사려는 사람들로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방산종합시장에서 취급하는 식료품은 커피·설탕·물엿·마요네즈·토마토케첩·전분 등의 조미료와 건포도·땅콩 등 견과 가공품인데 가격이 시중보다 20% 정도 저렴하며, 견과 가공품이 진열되어 있어 제과점이나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전문 파티셰(pâtisser : 製菓師)나 예비 파티셰들이 즐겨 찾는 시장이었으며, 현재는 청계천변에 가까운 베이커리(제과점) 골목으로 더 유명하다.

이 시장은 1976년 4월 10일에 개장되어 11월 29일에 허가되었다. 이 시장은 A·B동 3층의 대규모 상가 건물로 B동의 1층은 제과 재료, 2층은 꽃수를 주문, 판매하였다. 방산종합시장은 건설업체인 진흥기업(주)이 구 방산재래시장을 흡수, 시설을 현대화시킨 것으로 연건평 7,071평(대지 2,800평)에 총 1,044개 점포를 개점하였다.

이 시장 매장에서는 1층에서 의류를, 2층에서는 원단류, B동에서는 미싱부, 지류(紙類) 등을 취급하며, 영업활동은 도매업만을 전문으로 할 목표였다.<sup>233)</sup>

현재 을지로4가에서 방산종합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양편은 방산 지류도매시장으로 종이·비닐을 취급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다. 흔히 이곳을 ‘벽지 골목’이라고 할 정도로 벽지를 많이 취급하며, 장판·카펫·페인트·바닥재·커튼 등 주택 장식품 외에 인쇄소, 코팅집, 봉투 및 쇼핑백판매점, 포장센터 등 각종 전문점 500여 곳이 있다. 1970년대에 벽지점포 하나가 들어선 이래 벽지점포와 도배전문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기존의 지류업을 밀어내고, 인근 50여 개 비닐장판 점포와 함께 국내 최대의 벽지상가로 일컬어지게



종합포장 인선타운인 방산시장 입구

되었다.<sup>234)</sup> 이곳 지류도매시장에 오면 시중보다 벽지를 20~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은 소매상·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 등의 대량 구매자들이다.

이 시장은 1953년 4월 10일 부주의로 대화제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1,895만원(圓)에 이르기도 하였다.<sup>235)</sup>

1976년 10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산종합시장의 지게꾼 42명은 분회장 박정운(朴正雲 : 35세)의 주도로 지게꾼 노동조합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 뒤에 서울의 20개 경찰서 유치장에 TV수상기 1대씩을 기부하여 보사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았던 미담이 있다.<sup>236)</sup> 또한 이 시장의 지게꾼 45명은 1979년 8월 28일 수재(水災)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부 지방 수재민에게 보내달라고 성금 23만 8,018원을 「경향신문」에 보내기도 하여 많은 시민들을 감동케 했다.<sup>237)</sup>



제3편

도시 개발로 변모한 을지로



## 6장 을지로의 도시 개발과 원활한 교통

### 1. 도시계획에 따른 을지로의 변모

#### 1) 을지로의 구획정리 사업

##### (1) 제1중앙토지구획정리 사업

6·25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중이던 서울시청은 이 기회에 초토화된 서울시의 도심부 재건을 구획정리의 수법으로 추진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에 1952년 3월 25일자 내무부 고시 제23호로 「서울 도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구 변경」을 결정·고시하였다.

제1지구는 종로구에 속하는 관철동과 종로5·6가, 중구에 속하는 을지로3가, 충무로·명동·을지로5가에서 묵정동까지의 5개 지역을 묶은 구획정리로서, 6·25전쟁 이후 신속한 주민 복귀와 토지 개량, 후생의 제반시설을 완비하여 상업 지역으로서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증진시키려고, 1952년 10월 27일부터 1964년 6월 11일까지 712,898㎡에 걸쳐 시행되었다.



전일의 을지로와 현재의 을지로

## (2) 제2중앙토지구획정리 사업

제2지구는 제1지구보다 2년 늦은 195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구획정리 방법은 제1지구와 거의 동일하였다. 서울역전(남대문지구)과 원효로의 양 지구를 구획정리하면서 왕십리(황학동)와 독립문의 동남에 위치한 행촌지구를 곁들인 형식의 구획정리로서, 이는 사실상 도시재개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지구는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489,021㎡에 걸쳐 1965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 2) 을지로의 도로 확장과 개설

을지로는 일제침략기 초인 1910~1911년에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을지로4가~광희문까지 폭 12간, 길이 113간의 확장공사가 있었다. 1912년 12월 당시 을지로에는 서울 최초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sup>238)</sup> 이어서 1913~1923년까지 대대적인 도로 확장과 연장 공사를 진행하고, 1927년에 〈경성부 주요가로 기정계획노선일람표〉를 발표할 때 을지로를 250간 길이의 ‘황금정통(黃金町通)’으로 이름 붙였다.

1939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57호로 계획가로망을 발표할 때 을지로는 대로 2류 1호의 시청앞 광장~을지로5가에 이르는 폭 30m, 길이 2,070m와 동 2번의 을지로6가 광장~신당동 광장까지 폭 28m, 길이 220m로 나뉘어졌다.

1946년 10월 1일 ‘을지로’로 가로명이 제정될 때는 서울시청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1,110m 구간으로 정해졌다가 1952년 내무부고시 제23호에 의해 시청 앞 광장~을지로6가에 이르는 대로 2류 1호를 대로 2류 2호로 하여 길이가 1,800m로 정해졌다.

한편 대로 2류 2호의 폭 28m, 길이 220m의 을지로6가 광장~신당동 광장에 이르는 길은 동 9호로 하고, 폭을 30m로 확장하였다. 그 후 을지로는 몇 차례의 개수과정을 거쳐 1954년 서울역에서 신당동에 이르는 도로를 신설 확장하면서, 시청 앞에서 서울운동장까지 폭 30m, 길이 2,740m로 연장 확정되어 대로2류 3호의 등급번호를 갖게 되었다.

### (1) ‘동호로’의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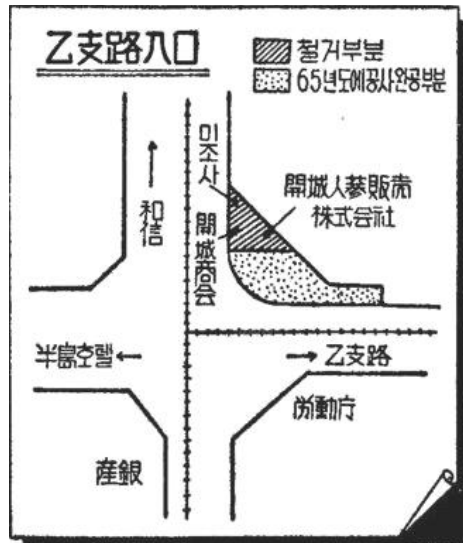
1958년 12월 1일부터 폭 30m의 새로운 길(현 동호로)이 종로5가~방산교(청계천)~을지로5가~퇴계로로 통하게 되어 폭주하는 시내 교통량을 대폭 완화하게 되었다.

이는 1958년 11월 착공한 방산교(芳山橋)가 을지로5가~종로5가 사이에 준공됨에 따라 개통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목교(木橋)였던 방산교를 폭 30m의 철근 콘크리트교로 확장 준공하였다.<sup>239)</sup>

### (2) 을지로입구의 가각(街角) 정리

을지로입구는 서울시내 도심 지역 가운데서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이다. 특히 을지로입구 네거리에서 남대문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교통량은 폭주하고 있어 ‘러시아워’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잇달아 밀려 있기 마련이다.

서울시는 1965년 7월에 착공해서 을지로~남대문(우회전 쪽)의 도로를 12월에 완공한 1차 공사에 이어 1966년 4월 초, 2차 공사를 착공할 계획 아래 총공사비 4천만원을 1966년도 본예산에 계상 확보했다.



을지로입구의 가각 정리(『동아일보』 1966. 3. 2)

그러나 공사비 가운데 시공비는 불과 50만원인데 비해 보상비는 80배인 3,950만원이 되었다. 철거되는 지역은 얼마 전에 가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건물을 지어 말썽이 되었던 개성상회, 개성인삼 판매회사를 비롯하여 미조사 양복점 등을 연결하는 세모꼴의 지형이었다. 폭 30m, 길이 60m의 이 공사가 완공되면 좌우로 회전하기에 편리한 차선들이 확보되어 차량의 소통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sup>240)</sup>

### (3) 서울시청~을지로입구 간 노폭 확장

서울시는 시청~을지로입구 간 폭 30m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1967년 1월 21일, 구 대 한일보사옥을 비롯, 반도호텔 좌우변 15개 건물을 철거하였다.

서울시는 공사비 180만원으로 1967년 3월까지 서울시청~을지로입구 간의 연장 80m 구간의 당시 10m 노폭을 20~30m로 넓힐 계획을 세웠다. 이 구간의 도로계획선에 들어가는 땅은 모두 1,129평으로 평당 38만원(은행 사정 가격)씩 보상하면 2억 8,700만원의 보

상금이 필요했는데 이 비용이 1967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였다.<sup>241)</sup>

서울시는 4년 뒤인 1971년 3월 15일에 을지로입구~을지로7가 간의 노폭을 30m로 확장할 계획을 다시 세웠는데 소요 예산은 28억 5,000만원이었다.<sup>242)</sup> 서울시의 을지로 확장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1976년 3월에 8억원의 예산으로 을지로4가에서 을지로5가 구간(389m)의 도로를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므로 을지로 전 구간의 정비가 끝난 셈이다.<sup>243)</sup>

이어서 서울시는 1976년 8월 17일



도로가 확장된 을지로1가

명동 입구~을지로입구, 을지로입구~종로네거리의 너비 28m의 도로를 40m,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 (4) 을지로입구의 지하도 착공

1976년 10월 2일부터 을지로입구의 지하도 공사가 착공되었다. 3억 5,000만원 공사비를 들여 1977년 5월말에 완공된 이 지하도는 명동 인파의 소통에 큰 몫을 하게 됐으며, 비상시의 대피시설로 활용되었다. 이 지하도는 을지로입구~구 내부부 앞까지 길이 75m, 너비 20m로, 지하도 양쪽에 219평의 상가가 들어섰다.<sup>244)</sup>

#### (5) 을지를 ‘귀빈로’로 개발

서울시는 을지를 상징하는 가로가 될 귀빈로(貴賓路)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1981년 9월 16일 을지로 길이를 150m, 폭 100m 단위의 블록으로 개발하는 도시설계 방법으로 발전시켜 도심의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범 가로로 개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연구단을 구성,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6개월 동안 지적 현황조사,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공람 절차와 공청회를 걸쳐 1982년부터 개발에 착수기로 했다.

도심 간선도로에 대해 도시설계방법으로 재개발하는 것은 을지로가 처음인데 을지로의 개발로 부근 청계로 퇴계로의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보았다. 도시설계방법으로 개발되는 대상 지역은 시청 앞~을지로6가 사이 2,740m의 양쪽 폭 100m까지로 모두 16만 6,000여 평에 달했다.

을지를 도시설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하철 2호선 공사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다 지하철공사와 함께 지하주차장 통로 등 지하 공간과 지하구조물 설치가 쉽기 때문이었다.

또 을지로는 어느 간선도로보다 개발이 늦어 롯데호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삼각형, 원형, 길쭉한 모양의 100~200평짜리 대지 위에 광복 전에 지은 2~5층 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밖에도 을지로 이면도로에는 건재상 260개소, 지류상 174개소, 화공약품상 160개소, 철재상 120개소 등 도심 부적격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었다.

도시설계방법이란 일정한 넓이로 블록을 나눈 뒤 블록별로 건물의 위치, 층수 형태, 미관 용도까지 규정, 전체적인 기능을 살리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가는 새로운 재개발 방법인데, 서울시는 을지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하면서 녹지, 주차장 및 도로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건물은 도로 경계선에서 5m 이상 후퇴시켜 신축토록 할 방침을 세웠다.<sup>245)</sup>

## (6) 지하철 개통과 을지로의 변화

지하철 2호선의 서울중심가 노선은 서울시가 1971년 12월 7일에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철 2호선은 1983년 9월 16일에 을지로입구역~성수역 구간(8.1km)이 1차로 개통되었고, 1983년 12월 27일에 서울교대역~서울대 입구역 구간(6.61km) 개통으로 1984년 5월 22일에 완전 개통되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전후한 1983년 9월, 을지로 일대 상가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지하철 공사로 3년 동안 길이 막혀 도심 변화가이면서도 인적이 드문 거리였던 을지로 구간(을지로입구역~성수역)이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생기를 되찾았다. 을지로 일대엔 상가와 점포 등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면서 땅값, 임대료, 점포 권리금 등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땅값은 평균 30%, 권리금은 최고 100%까지 뛰어올랐으며 임대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하철 2호선 1차 개통기념 승차권



특히 서울시는 1983년 6월 13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 구간(3.3km)의 간판 정비·가로등 교체·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44억 7,489만 4,000원의 예산으로 가로 정비공사를 착공하고,<sup>246)</sup> 시청 앞~서울운동장에 이르는 3.3km의 지하보도 상가 마련을 계기로 을지로 일대를 국내 최고의 시범상가로 가꿔나갈 계획을 세워 상인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였다.

상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하상가는 서울시가 9월 안으로 분양공고를 낸 뒤 10월 초에 분양하였다. 분양 방식은 공개 추첨으로 자격 제한 없이 평당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상가의 임대료보다는 훨씬 낮은 선에서 결정되었다.<sup>247)</sup>

### 3) 을지로의 전차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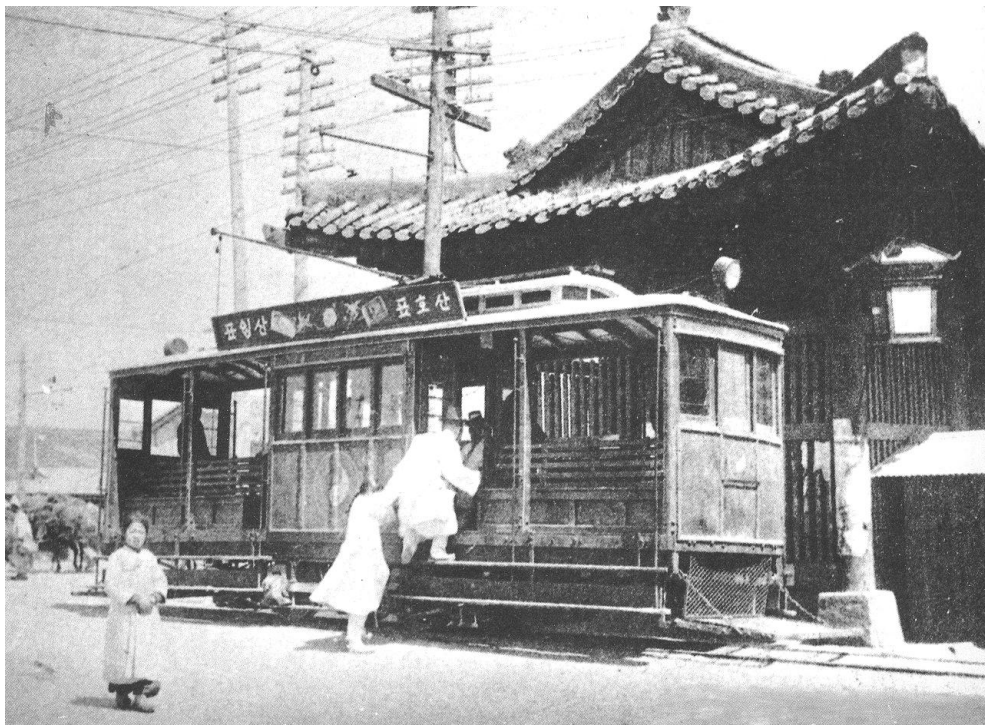
전차(電車)는 궤도 위를 전기의 힘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우리나라에는 1899년에 도입되었는데, 1912년 12월 6일 황금정선(黃金町線) 전차 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을지로에 전차노선이 생겼다.<sup>248)</sup>

1898년 2월,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한미전기회사를 세워 전차·전등·전화의 독점권을 행사하기로 한국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1898년 9월 15일 경희궁 앞에서 기공식을 가진 후 전차 관련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12월 25일 약 10km에 단선 궤도와 가선(架線) 설치공사를 끝냈다. 서대문~홍릉 간 개통식은 시설 미비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마침내 1899년 5월 4일에 치러졌다.

이날 전차 시승(試乘) 및 개통식에는 정부 고관과 귀족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민의 접촉사고 방지를 위해 군인 300명과 순검 250명이 동원되어 전차선로 연도를 경비했다. 그러나 전차가 한번 움직이자 장안의 남녀노소가 일시에 모여들어 큰 혼잡을 이루었다.

개통식을 마친 전차는 약 2주일간 각종 시험과 점검을 끝내고 5월 20일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 첫 단계로 동대문과 경희궁 홍화문 앞 사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했다. 서울의 전차는 일본 동경에 전차가 부설된 것보다 3년이나 빨리 도입되었다.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교토에서 이보다 조금 앞서 전차가 달렸지만 동경은 서울보다 늦었다.

당시 「독립신문」 등에 따르면 전차 요금은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상등칸은 엽전 3전 5푼, 하등칸은 1전 5푼으로, 당시 쌀 1kg 가격이 4~5전인데 비해 요금은 비싼 편이었다.



종각 앞을 운행하는 전차

개통 초기에 전차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일단 승차하면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를 왕복하면서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전차만 타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었다고 당시 신문들은 보도하였다.

최초의 전차노선은 청량리에서 동대문, 종로를 거쳐 서대문을 지나 현재 적십자병원 앞까지 단선(單線)으로 놓았다. 전차 정류장은 없어서 오늘날 택시처럼 승객이 아무데서 손을 들면 전차가 서고,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릴 수가 있었다. 차표는 초창기에 없었으므로 현금을 내고 타야만 했다.

그런데 전차 운행을 시작한 지 6일 뒤인 1899년 5월 26일, 전차에 치어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흥분한 아이의 아버지와 군중들이 전차에 불을 질러, 전차는 전소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한성판윤이 사임하고, 경무청 관리들이 문책을 당했다. 그리고 전차는 5개월간 운행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용 승객이 급

속히 늘어나 같은 해 전차노선이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1900년에는 구룡산(舊龍山 : 지금의 원효로4가)까지 연장되었다. 1909년 전차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일제침략기에 는 부산과 평양에도 가설, 노선이 확대되면서 가장 중요한 시내 교통수단이 되었다.

1909년 일제의 (주)일한(日韓)가스전기는 조선의 식민통치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미국 기술진의 한미전기회사를 매수하여 장악하고, 경술국치 직후에 전차노선은 마포와 남영동까지 부설되어 22.2km에 이르렀다. 이어서 종로~남대문로~동자동 간의 전차를 복선으로 부설하였다. (주)일한가스전기는 1915년에 (주)경성전기로 바뀌었다.

그 후 경성부의 인구 증가로 1926년에는 을지로, 왕십리, 안국동 등지로 전차노선을 확장하여 30.9km가 되었다. 일제침략기 초부터 서울에는 인력거나 중국식 마차,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며, 전차가 대중교통 기관으로 이용되었다. 즉 전차가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서울시민들의 발 노릇을 톡톡히 했다.<sup>249)</sup>

한편 서울역~남대문~을지로입구~을지로6가 구간과 을지로6가~왕십리역 구간에 전차가 부설되고, 1926년 4월 21일에는 훈련원~장충단 사이에 전차선로가 부설되었다. 그동안 선로 공사에 착수하여 오다가 4월 20일 안에 전선(電線) 공사를 끝내고, 철도국의 인가를 얻어 4월 21일에 시운전을 한 뒤 즉시 개통하였다.<sup>250)</sup> 1939년에는 을지로4가~돈암동 간의 전차를 부설하였다.

6·25전쟁으로 전차 운행이 중지되었는데 1950년 11월 12일부터 시내 전차 복구 작업이 착착 진행되어 11월 13일 아침부터는 을지로4가~6가까지 운행되었다. 따라서 이날 운전 코스는 청량리, 왕십리 전선과 을지로4가 기점인 돈암동선, 종로4가로부터 을지로6가를 돌아 4가에 이르는 일부 순환선이 운행되었다.<sup>251)</sup> 서울 재건에 불타는 경전(京電) 전차 복구 대원의 눈부신 활동으로 1951년 8월 1일에 왕십리선 전차를 복구 개통하고, 8월 21일부터는 을지로선(을지로입구~을지로6가)을 개통하여 8개월 만에 그리운 ‘뽕기’차의 경종(警鐘)이 서울 도심지대에서 들려오게 되었다.<sup>252)</sup>

광복 후 1960년대까지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는 버스가 서울시내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면서 폭주하는 교통 수요에 전차가 장애가 된다고 하여 1968년 11월 30일, 운행이 중단되어 선로가 완전 철거되었다.<sup>253)</sup>



오간수교를 건너는 전차(1960년대)

#### 4) 을지로의 재개발사업

196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서울은 양적 도시팽창과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 악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시가(舊市街) 지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었다.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년 10월 15일자 건설부 고시 제2819호로 돈화문에서 퇴계로 구간의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이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에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제1호이다.<sup>254)</sup>

서울의 도심재개발을 촉진한 것은 1966년 10월 31일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일로 알려졌다.<sup>255)</sup> 이날 정부가 학생 100만 명, 시민 155만 명, 공무원 20만 명 등 275만 명을 동원하기로 계획하였다. 시청 앞 광장에는 30만 명의 환영 군중이 모여 ‘평화대’ 단상에 오른 존슨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TV카메라 기사가 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중국인마을 등 남창동, 회현동, 남산 중턱의 무허가 판잣집들이 들어선 슬럼지대를 중계하였다. 이 TV를 본 미국인들과 미국의 한인교포, 전 세계인들은 경악하였다. TV 방영 후 한국인 교포들은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청와대로 시청 주변의 슬럼지대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도심재개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정책을 실천하게 되었다.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1976년의 도시재개발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 소공지구, 을지로1가 구역 등 11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 등 1997년까지 총 34개 구역(총 430개 지구), 총면적 1.93km<sup>2</sup>에 대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sup>256)</sup>

1980년대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하게 된 것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 1982년 3월 5일, 서울시는 명동1가 전역·을지로2가·저동1가 일부 지역 등 26,000평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이해 10월 14일에는 대한주택공사에 을지로2가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하였다.<sup>257)</sup>

서울시는 을지로2가 지구의 재개발사업은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고층건물 6동만 남기고 철거하여 5~26층 건물 15동을 신축하는 한편 도로 7개소,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한다고 1982년 11월 24일에 발표하면서, 을지로를 ‘경관이 아름다운 변화가로 정비한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1983년 7월 23일에 을지로2가 지구의 재개발사업 착공 계획으로 불량건물 178채를 철거하고, 22층~35층의 고층건물 3동을 1986년에 완공하기로 하였다. 이곳의 재개발사업은 1977년에 지정되었던 을지로2가·장교동·수하동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2만 7,959m<sup>2</sup>(8,458평)에 180개 건물이 들어찬 속칭 ‘인쇄



건설 중인 삼일고가도로



을지로2가 재개발사업 조감도와 착공식

골목'이었다. 재개발을 맡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전에 조사한 바로는 인쇄소 519개, 식당 71개, 소매점 29개, 기타 211개, 합계 830개의 점포가 집계되었는데 1개 점포의 평균 넓이는 13.8평이었다.

재개발사업에 들어가자 이 지역의 토지·건물주들은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시위를 벌였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들과 협상을 꾸준히 벌여 설득한 끝에 1984년 7월부터 지상 29층 1개 동, 27층 1개 동, 20층 1개 동 등의 3개 동의 건물을 착공하여 '인쇄골목'에 거대한 건물군이 준공된 것은 1987년 10월 28일이었다. 이 지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은행 본점, 브랜딩백화점, 한국화약빌딩 등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1992년 3월 28일에는 을지로3가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어 1996년 1월 26일에는 서울시가 을지로2가 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주상복합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 (1) 세운상가의 건설

1945년 3월 10일에 있었던 미군 B29기의 도쿄 대공습으로 사망자 88,793명, 부상자 40,918명, 이재민 100만 8,005명, 불탄 가옥이 267,171동에 이르렀다.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도쿄의 약 40%가 불바다가 되자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전선에서는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미국에 의한 폭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자명했으므로, 일본의

각 지역에서는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공터로 남겨두는 ‘소개공지(疏開空地)’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당시 식민지인 한반도에도 시행되어 1945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가 ‘도시소개대강(都市疏開大綱)’을 발표하여 이해 4월~6월까지 경성, 부산, 평양, 대전, 대구 등의 주요 도시에 각각 ‘소개공지’ 또는 소개공지대라는 것을 지정했다. 경성부 내의 소개공지대는 종묘앞~필동(현 세운상가 지대 : 너비 50m, 길이 1,180m) 등 모두 19곳이었으며, 제1차 소개작업은 5월 11일부터 시작되어 6월 말에 끝났다. 곧바로 제2차 소개작업도 8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패전으로 미완으로 끝났다.

이 지역의 사는 주민은 줄지에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돈을 받고, 일본인은 일본으로, 한국인은 시골로 낙향했다. 철거 작업은 1945년 5월 11일부터 시작되어 경방단(警防團), 중학생, 애국반 등 수천 명이 동원되어 6월 말에 끝났다.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방치되어 있던 소개공지는 도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종묘앞~필동(현 세운상가 지대) 등은 방치되어 빈터에 전쟁 이재민과 월남민들이 무허가 판잣집 2,200동을 지어 살기 시작했고, 사창가(私娼街)도 들어섰다. 1950년대부터 1968년까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종로2가~5가에 걸쳐 사창굴이 생겨, 당시 서울사람들은 이를 속칭 ‘종삼(鐘三)’, 또는 ‘서종삼’이라고 불렀다.<sup>258)</sup>

## (2) 세운상가의 개발

1966년 4월 4일, 서울시장으로 김현옥이 부임하였다. 그가 부임하기에 앞서 중구청의 산업과 상공계장으로 이을삼이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극장 앞~청계천4가 간 계획도로 정비방안」이라는 행정 연구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중구청장 장지율이 이을삼 계장을 대동하고, 부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김현옥 시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김 시장은 중구청장·도시계획국장 등을 대동하고 소개공지 현장을 돌아보았다. 김 시장 일행이 이 지역을 답사할 때 윤락 여성들이 접근하여 유객(誘客) 행위를 했다고 전한다. 김 시장은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해 도시계획과에 이 지구의 정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1966년 6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 대통령은 강한





세운현대상가 준공식에 참석한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관심을 보이며,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소신껏 잘 처리하라”고 격려했다.<sup>259)</sup>

종래에 종로구와 중구에 각각 분담되어 있었던 이 지역의 정비사업은 서울시 소관으로 이전되어 김 시장이 진두지휘하였다. 김 시장은 1966년 7월 초, ‘나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종로구·중구의 구청장에게 이 지역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지시했다. 두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8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는 자에게는 이 지역의 상가아파트가 건립되면 우선 입주の特혜를 주겠다. 만약에 자진 철거치 않으면 8월 11일부터 강제 철거하여 변두리 정착지로 보내겠다.”고 설득하였다. 『동아일보』 1966년 8월 11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 지역 중구 인현동 무허가 상가주택 중에서 473개 가구가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 537개 가구는 앞으로 강제 철거 되어 상계동 정착지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리하여 8월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철거작업을 마쳤다.<sup>260)</sup>

서울시가 이 지역에 대규모 상가 건물을 짓기로 계획하자 정부는 당초 이 지역을 도로 용지로 지정한 계획을 들어 상가 건설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청계천에 인접하고 있던 현재 청계천 쪽 아세아상가는 1966년 9월 8일에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공식에 참석한 김현옥 시장은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 라는 뜻을 담아 이 지역의 상가 이름을 세운(世運) 상가로 결정했다. 결국 정부도 이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고시하게 되었다.

세운상가는 대형 건물이 8개였으므로 착공일과 준공일이 각각 달랐다. 종로 쪽에 면한 현대세운상가는 그해 10월 25일에 기공식을 올렸다. 최초로 준공 테이프를 끊은 것은



종로구에서 청계천, 을지로를 거쳐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

1967년 7월 26일 현대세운상가였다. 현대 상가아파트 전체가 준공된 것은 10월 17일로 이 준공식에는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하여 테이프를 끊었다. 청계천 쪽 아세아상가 준공은 11월 17일로 박정희 대통령과 주원 건설부장관이 참석하여 테이프를 끊었다. 1968년에 나머지 상가들이 준공되었다.

서울시가 동양 최대라고 자랑한 세운상가군이 들어선 1960년대 말, 국민소득은 125달러였고, 보릿고개가 사라진 해였을 때였다. 이런 어려운 때 이 건물군은 장관이었고, 서울시민의 자랑거리였으며 명물이었다.<sup>261)</sup>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세운상가의 아파트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었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투어 입주한 상류층 주택이었으므로 세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 (3) 세운상가의 설계 및 준공

세운상가의 설계는 건축가 김수근(金壽根)에 의해 이루어졌다. 건물의 지상 1층은 자동차 통로와 주차 공간으로 하고, 3층에 인공 테크를 건설하여 주변에 상가를 배치, 보행



세운전자상가 본관

자 전용의 통로로 하여 철저한 보차도(步車道) 분리를 적용하고, 종묘~필동 사이 1km에 이르는 공간은 보행자 통로를 연결하여 입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상가의 위층 아파트 부분에는 건물을 유리로 덮는 아트리움(Atrium) 공간을 도입하는 등의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에 이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현대건설·대림산업·삼풍건설산업·풍전산업·신성공업·진양종합건설 등 6개 기업체가 참여, 북쪽부터 차례대로 현대상가(현 종로세운상가), 아세아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현 삼풍넥서스), 풍전호텔(현 HOTEL PJ), 신성상가, 진양상가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었다.

세운상가 중 현대상가가 1967년 7월 26일 최초로 준공되었다. 서울시는 점포 2천개, 호텔 915개를 수용하는 맘모스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동양 최대 규모인 시멘트 87만 부대, 목재 143만 사이, 철근 7천 톤의 자재가 들어갔다고 자랑하면서 서울의 상가 중심지가 종로→명동→소공동→무교동에 이어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세운상가는 서울의 유일무이한 종합 가전제품 상가로도 발전했다. 특히 198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한국의 8비트와 이후 16비트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세운상가에서 거래되었다. 1987년에 저작권법이 도입되기 전 얼마 동안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는 카피점이 성행할 때 세운상가가 그 역할을 했다. 당시 ‘세운상가 사람들이 모이면 미사일이나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세운상가에 있는 많은 전자상가들은 1987년에 조성된 용산전자상가로 많은 수가 이전하였으나, 일부는 이에 반발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

#### (4) 세운상가의 철거 계획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강남 개발이 이루어진 뒤 도심이 정비되면서,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서울시에서도 1995년 2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262)</sup> 하지만 막대한 보상비 문제로 철거는 계속 미루어지게 되었다.

1998년 7월 2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을지로4가 일대 세운상가 제27-1지구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을 확정하였다.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청계천 주변 상가의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청계천을 떠나게 된 상인들은 송파구의 가든파이브로 이전하자, 이 일대 상권은 더욱 쇠락하게 되었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종로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잇던 공중보행데크가 철거되었고, 뒤이어 을지로를 지나던 보행데크도 철거, 3층의 보행통로는 네 조각이 났다.

2006년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세운상가의 철거와 일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17일 북쪽에 있는 현대상가부터 철거가 시작되었고, 세운전자상가는 ‘세운초록띠공원’ 라는 이름의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가 2010년에 청계천 남쪽의 세운청계상가 철거에 이어 2012년까지는 퇴계로까지의 모든 상가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추진되지는 않았다. 현대상가 이외에는 기존의 철거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sup>263)</sup>

## 5) 을지로 지하상가 조성

서울 도심에 민자유치를 통한 지하상가를 처음 조성한 이는 김현옥 시장이었다. 시청 앞 을지로1가의 새서울지하상가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67년 12월 20일이었다. 그 뒤 코스모스백화점이 건설하여 1970년 9월 4일 개점한 인현지하상가, 김철호가 건설하여 1971년 9월 29일 개점한 성동구 중앙시장 지하상가가 김현옥 시장 때 허가를 받아 건설된 것이다.

구자춘 시장의 재임 초기인 1975년에 동남아의 크메르, 베트남, 라오스가 차례로 공산화되면서 ‘공산화의 도미노 이론’이 대두되었을 때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규모 지하상가 조성을 계획하였다. 전쟁시 민방위대피시설로 비상식량·식수를 비축하고, 보행자 통행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지하상가 조성 10개년계획’은 (1) 남대문~광화문네거리 (2) 광화문네거리~종로3가 (3) 시청 앞~을지로3가까지, 서울의 도심을 완전히 지하로 연결하는 순환지하상가 조성계획이었다.

1975년 시청 앞 광장 끝에서 조선호텔 앞까지 소공지하도 1차공사 152m를 삼부토건이 시공하여 1976년 8월 30일에 완공하였다. 공사 완공 2개월 전 서울시는 을지로입구를 위시한 8개소의 지하상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1976년에 착공한 9개소의 지하상가는 1년여가 지난 1977년 6~9월 사이에 모두 준공되었다. 이 지하상가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은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다.<sup>264)</sup> 당시 「신아일보」는 ‘마구 파헤친 도심—교통체증 심각’



을지로 지하상가

이란 표제로 퇴계로·을지로·청계로 등의 도심 지역이 이들 지하상가 공사로 “최악의 교통체증 현상으로 숨이 막히고 있다”고 보도하였다.<sup>265)</sup>

1975~1978년에 구자춘 시장에 의해 허가된 지하상가는 모두 15개소, 7,480평, 개설된 점포수가 1,550개에 달하였다. 지하

철 2호선을 계획한 구자춘 시장이 유사시 지하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시청역~을지로6가까지 지하보도로 연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 6) ‘비전 중구 2020’ 프로그램

1998년 중구는 개발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종로·청계천로·을지로·퇴계로는 서울 도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간 도로망으로 이들 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현대식 최첨단 건물을 앉히기 위한 ‘비전 중구 2020’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한다. 또한 을지로6가, 동대문운동장 일대 등을 상세구역으로 지정해 강력한 전국 상권의 중심지로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1) 도시 기본계획

종로·청계천로·을지로·퇴계로의 수평축과 서울역~신당동에 이르는 7개 수직축을 기간도로망으로 삼아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극대화된 역동적 공간을 연출한다.

중구의 도심 업무와 상업 기능은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계속 살려나가되 도심 공동화에 의한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주상복합 방식의 도심재개발을 통해 현재 13만 2,000여 명의 인구를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때 도심재개발의 사업성과는 무관하게 주거복합 의무화 구역을 지정해 운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에는 최고 320%의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 (2) 역점 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사업이 중구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의 도심재개발 사업장은 39개 구역 446지구에 달하는데 이중 중구가 23개 구역 224지구를 차지한다. 구역 수 대비 59%, 면적 대비 49%에 달한다. 서울 강북 도심의 미래상이 중구 지역 도시재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삼일대로에서 바라본 을지로

현재 중구의 224개 지구 중 54개소의 도심재개발이 완료됐고, 23개 지구에 관한 도심재개발이 진행 중이었다. 중밀도로 개발돼 당장 재개발이 필요치 않은 41개 존치지구를 빼더라도 106개 지구에 대한 사업 착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당시 주택공사가 중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었고, 국도호텔 자리, 세운상가 구역 안의 산림동 지구 등에서 민간위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었다. 특히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을지로2가 구역 제 5지구 사업은 앞으로 중구 일대 도심재개발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전일의 뽕밭 백화점 옆 삼각동, 수하동 일대 3,600여 평에 34층의 업무용 빌딩과 239가구의 아파트를 수용하는 35층 높이의 주거시설을 짓는 것으로 3개 소지구를 묶어 슈퍼블록 방식으로 개발하는 작업이다. 주택공사가 참여해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1997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공 측에 따르면 연내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지하철 환승역 주변 5개 지역 14만여 평에 대한 상세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1998년 1월 중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3만 7,000여 평과 회현동 일대에 대한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었다. 동대문운동장역과 신당역 일대에 대해서도 1998년 6~8월 중 상세구역 입안을 예정하였다.

### (3) 주택사업

대부분 주거시설이 낡았고, 양적으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은 주택 보급률 61.2%가 이를 말해주었다. 중구는 5개 지역의 주택재개발과 3개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대대적인 주택정비 사업에 나섰다.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만 2001년까지 5,076개 동의 구옥을 헐어내고, 1만 1,768가구의 새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였다.<sup>266)</sup>

참고로 1981년 5월 22일, 서울시는 도심건축물 고도기준을 확정하였다.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최고 30층까지, 롯데호텔 주변은 20~25층, 종로5가~을지로5가는 20층으로 정하였는데,<sup>267)</sup> 1981년 9월 3일, 서울시가 도심건축물 고도기준을 재조정하여 을지로1가는 12층까지, 을지로2가는 15층까지 허용하였다.<sup>268)</sup>

## 2. 교통의 발전

### 1) 을지로에서 ‘교통정리대회’

1955년 10월 25일, 서울 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을지로입구에서는 교통정리 ‘고스톱’ 기술 발휘 대회가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전국 각 시도 예선대회에서 뽑혀온 우수 교통순경 27명 중에는 9명의 여순경이 포함되어 있어 이채를 띠었다.

서울시경에서는 1991년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을지로입구 네거리에서 교통정리 경기대회를 열었다. 한·미 합동 교통안전기간의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각 경찰서에서 교통순경 1명씩 참가하였다.<sup>269)</sup>

## 2) 을지로의 통행 제한

서울시는 1969년 2월 14일, 계속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형차는 아침 러시아워에 도심지 통행을 억제하고 종로의 버스정류장 19개소를 4개소로 줄이며, 종로와 을지로는 정기노선 버스와 자가용차의 통행만 허용하기로 했다.<sup>270)</sup>

## 3) 지하철 2·3·4·5호선의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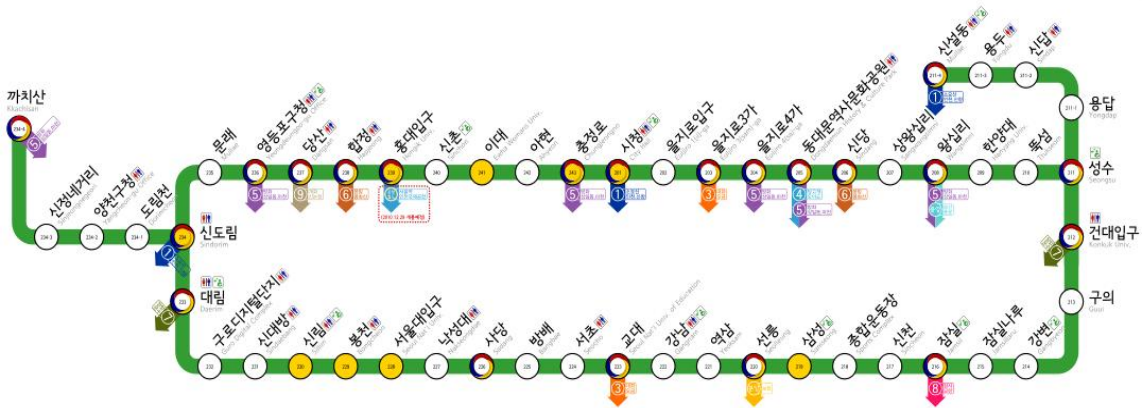
### (1) 을지로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은 성수역과 신설동역 사이를 잇는 성수 지선, 신도림역과 까치산역을 잇는 신정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행 계통으로는 을지로 순환선을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내선 순환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는 외선 순환, 성수 지선과 신정 지선을 왕복하는 운행 계통이 있다. 노선 안내 등에 사용되는 노선 색은 초록색이 사용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54.2k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1978년 2월 동대문운동장 앞 광장에서 열린 지하철2호선 착공식



지하철 2호선 노선도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 승객의 31%인 하루 평균 204만 8,000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였다.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은 ① 구도심(을지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지역 ② 영동, ③ 잠실지구가 각각 하나의 핵(核)으로 간주되면서 ‘3핵 도시론’이 대두되었는데 이 3핵을 연결하는 순환선이다.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은 1975년 2월 초에 구자춘 전 서울시장의 박정희 대통령 초도순시에 앞서 직접 서울시 지도에 색연필로 20분 만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다.<sup>271)</sup> 지하철 2호선 노선 계획은 1975년 3월 5일 대통령 순시 때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은 1977년 10월 3일이었다. 강남구간 30km의 기공식은 잠실대운동장 앞에서 1978년 3월 9일에 거행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50일 후인 5월 1일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하철 2호선은 고가 구간과 지하 구간에 따라 착공 시기가 다르다. 1차 기공식은 군자기지에서 성수동, 잠실, 영동, 서울대학교 입구와 현재의 신도림역에 해당하는 구로구 구로동을 잇는 노선의 건립으로 진행되었다. 2차는 성수동, 왕십리, 을지로, 신촌, 구로동을 잇는 구간이었으며, 3차는 왕십리역과 을지로, 구로동을 잇는 구간이었다. 사실 2차와 3차 구간은 거의 같은 노선이었지만, 개착식 공법에 필요한 철강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이 늦어져 고가 구간이 먼저 시공되었다.<sup>272)</sup> 지하철 2호선은 1978년 3월 9일에 착공하여 만 6년 2개월만인 1984년 5월 22일에 완공된 총 연장 62Km, 55개 역이다.

지하철 2호선은 모두 다섯 번의 개통식을 가졌다. 먼저 신설동~잠실대운동장까지 제1

구간(14.3km)은 1980년 10월 31일, 잠실대운동장~교대 앞까지 제2구간(5.5km)은 1982년 12월 23일, 을지로입구~성수역까지 제3구간(8.6km)은 1983년 9월 16일, 교대 앞~서울대입구까지 제4구간(6.7km)은 1983년 12월 17일, 을지로입구~신촌~서울대입구(19.1km)까지는 1984년 5월 22일에 개통되었다. 5구간의 개통 테이프를 끊은 것은 모두 전두환 대통령 내외였다.

지하철 2호선은 현재 을지로를 지나는 주요 선로이며, 이 구간은 지하보도와 상가를 함께 설치하였고, 을지로3가역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2) 서울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잇는 지하철 3호선

지하철 3호선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오금역을 잇는 서울특별시의 도시 철도 노선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은 4호선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지하철 이용률 증대 측면에서 도심을 방사선형으로 관통하는 노선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설된 노선으로 (3호선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4호선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관통) 서울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동남부 지역을 대각선으로 연결한다.

1985년 두 차례에 걸친 노선 개통으로 1기 지하철인 구파발~양재 간 23개 역을 이으며 운행을 시작했다. 1993년 10월 30일에 2기 지하철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된 지축역과 양재~수서 구간이 개통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3기 지하철 계획 중 하나로 수서~가락시장~오금 연장 구간이 처음 계획되었고, 중간에 경찰병원역을 추가한 채 2004년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18일 연장 구간이 개통되었다.

한편 1996년에는 지축역을 기점으로 하는 일산선이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주도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상호 열차가 직결 운행을 하고 있다.<sup>273)</sup>

## (3) 서울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잇는 지하철 4호선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당고개역과 동작구의 사당역을 잇는 서울시의 도시 철도 노선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고, 명동, 남대문 등 서울의 도심과 수유리, 미아리, 창동, 노원구 등의 강북의 도시와 사당, 과천시 등의 교통 음영 지역을 원활하게 이어주기 위해 건설되었다.

1975년 당시 구자춘 시장에 의하여 기존 지하철 건설 계획이 파기된 이후 1980년 3호선과 함께 건설업체 컨소시엄에 의해 사설 철도로 건설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1978년 8월에 8.8조치로 인하여 사철(私鐵)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부분이 운임이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사철 건설계획은 실패함에 따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하고 서울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가 운영하게 되었다.

최초 준공 구간은 상계역~한성대입구역으로, 1985년 한성대입구역~사당역의 개통으로 최종 준공되었으며, 1993년 4월 2기 지하철을 구성하는 당고개역이 신설되었다. 또한 1994년 4월 과천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남태령역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른다.<sup>274)</sup>

#### 4) 교통의 요지, 을지로6가

을지로의 마지막 구간이기도 한 을지로6가는 일제침략기인 1913년부터 1923년까지 대대적인 도로 확장 및 연장공사를 끝내면서 점차 정비되기 시작했고, 을지로 구간에 전차노선이 부설되었다. 1926년 4월 21일에는 훈련원~장충단 사이에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등<sup>275)</sup> 현재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의 요지이다.

이곳은 조선 초부터 중인 이하의 신분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1957년부터 광고에서 청계천이 복개되기 시작하여 을지로6가를 지나 마장동까지 복개공사가 완료되자 그 연변에 의류전문 제품시장인 평화시장 상가가 신축됨으로써 을지로6가는 상업지역으로 변신하였다.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는 두산타워, 밀리오레, 현대시티 아울렛, 팀204 등 최신식 패션 쇼핑몰은 물론, 동평화·청평화·제일시장·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이 몰려 있다.

을지로6가 일대는 1990년대 러시아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에게 ‘쇼핑1번지’로 통했다. 이곳은 최근에 러시아어 간판, 음식점, 호텔들이 부쩍 늘어났다. 매일 저녁 무렵 국립의료원 동쪽 옆의 대화호텔~현대시티 아울렛, 국립의료원 남쪽 건너편~광희동 네거리까지의



을지로6가의 러시아거리

골목길에는 흰 피부에 금발의 러시아 인들로 붐볐다. ‘즈드라스트브이체(안녕하십니까)’ ‘스즈리에즈덤(환영합니다)’ 등의 러시아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마다 러시아인들에게 배달될 포장된 상자와 물품들이 쌓여있었다. 이 일대에 최근 2~3년 사이에 개점한 러시아 상점 만 200여 개가 되며, 하루 수백 명의 러시아인이 몰려왔다.

이 지역의 점포들은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조선족 교포 1~4명씩을 고용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줄잡아 300여 명이 통역사 겸 점원으로 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곳 숙박업소들도 흥청거렸다. 대화호텔은 하루 7~80명의 러시아인들이 숙박하여 ‘러시아인 전용숙소’로 알려져 있고, 인근의 이스턴, 삼호, 천지호텔도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는 숙소였다.<sup>276)</sup>

그러나 1998년 8월, 러시아정부가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 상인들의 방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 3. 을지로의 특화거리

#### 1)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

중구에는 공구, 조명, 미싱, 타일도기, 조각, 가구, 인쇄, 기계 등 다양한 도심 산업이 밀집된 을지로가 있다. 을지로는 6·25전쟁 이후 무너진 도시의 재건을 위해 집수리에 관련





을지로의 특화거리 지도

된 목재, 가구, 철물, 페인트, 도배, 공구 등이 열거설기 서로 유기적인 맞물림 속에 자리 잡으며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때는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군수용품이, 삼유류가 호황일 때는 을지로 미성상가가, 6·25전쟁 이후의 도시 재건을 위해서는 을지로 조명과 타일도기, 가구가 호황을 누렸다. 을지로에서 생산되고 팔린 물건들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과 자리를 점유하였다.

‘못 만드는 것이 없는 곳’이었던 을지로는 이제 도심 재창조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거듭나고 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선별적 고도화를 추구하여 을지로 일대 도심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특화거리로 정하여 업종별 특화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을지로3~6가의 대형 건물에 조명, 공구 등 특화된 백화점식 센터를 건립하는 등 재창조된 을지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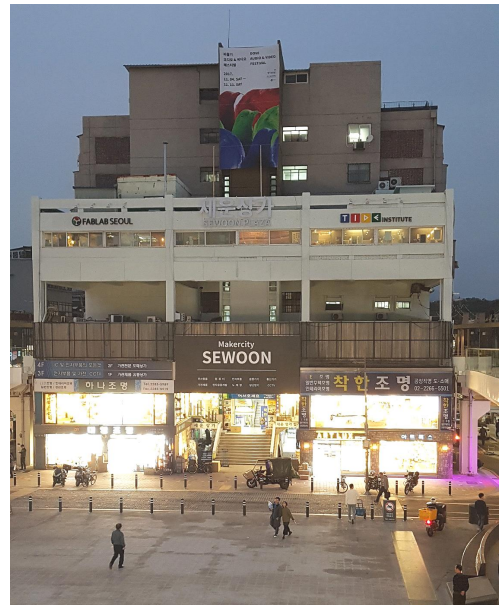


## 2) 특화거리 내용

### (1) 조명 특화거리

을지로4가역에서 3가역으로 걸어가는 거리와 대림상가, 청계상가 일대 250m 구간은 200여 개의 조명 상점이 들어서 있다. 건축자재 관련 업종이 을지로에 자리 잡은 끝머리에는 조명상가가 자리를 잡았으며, 1960년대 당시 조명상가는 을지로에만 있었으므로 전국의 조명기구들은 을지로에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30년 이상 된 점포가 역사를 자랑하며, 이곳 점포 대부분이 대량 거래를 하는 도매상가여서 백화점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세운 조명상가

### (2) 타일도기 특화거리

을지로3가역 1번 출구부터 3번 출구까지 약 250m 구간에는 80여 개의 타일도기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6·25전쟁 당시 3개였던 타일 가게는 이후 집수리에 관련된 상가가 을지로에 자리 잡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1960~80년대까지 성황을 누렸으며, 일부 상점은 강남붐이 일자 논현동의 가구 거리 일대로 이전하였다. 이곳의 상점의 운영은 견본에 의한 발주만 하고, 물건은 지방에서 직접 고객들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의 우수한 품질로 해외 여행자들도 타일도기점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3) 공구 특화거리

청계천 수표교~관수교 일대 350m 거리에는 우리나라,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 일대를 거래 상대로 하는 공구 상점이 줄지어 있다. 청계천 일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한 때는 도면만 주면 탱크도 만든다던 공구상가들이다.

적은 양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근에서 손쉽게 조달되어, 도면 하나만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부품을 깎아다가 물건을 만들어 준다.

공구상가는 6·25전쟁 직후 청계천변에 터를 잡기 시작하여 1961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월남전은 이 일대에 특수 경기를 가져왔다. 유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오늘날의 공구상가는 예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근대화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곳은 영화 「피에타」의 배경이 되어 주목받기도 하였다.



영화 <피에타>의 배경이 된 을지로 공구상가

#### (4) 가구 특화거리

서울 중구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 200m에 이르는 ‘가구 특화거리’에는 110여 개의 가구점이 밀집해 있다. 조선 말 인근의 중부시장에 목재 제재소가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가구상가가 형성되었으며, 1960년대 호마이카 키친장과 중고가구가 주로 판매되었고, 1970년대에는 영업용 가구를 주문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서히 금고를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섰다.

1980년대부터 인테리어가 흥행하면서 각 업소별로 디자인 인테리어 가구가 유행하게 되었고, 1990년도부터는 경제 발전과 함께 이태리 디자인 가구, 중국, 동남아의 라탄 가구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들이 영업용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현재는 가정용, 영업용 및 다양한 디자인 가구들이 주문 제작되어 시판되고 있다.

#### (5) 미싱 특화거리

을지로4가역~청계천 배오개다리 150m 구간에는 80여 개의 미싱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을지로4가의 미싱 특화거리

1990년 이전에 창설된 업체가 25.9%로 상당히 오래된 업종이다. 미싱부속, 특수 미싱, 피혁미싱 등 다양한 미싱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100년 전통의 브라더미싱이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인 ‘브라더 소잉팩토리’가 위치해 있어 원하는 사람은 미싱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곳에는 50년의 역사가 묻어 있는, 미싱에 관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 (6) 산림동 조각 특화구역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과 중구청 사이인 창경궁로 일대에는 360여 개의 조각 금형 점포가 집중되어 있다. 을지로 조각(금형)은 유통 중심인 을지로의 다른 산업과 달리 제조 중심으로 자체 생산이 81.5%를 차지한다.

전성기였던 1960~70년대는 수작업으로 금형을 만들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고, 1mm도 안 되는 활자를 징과 망치로 만드는 고도의 수출 역군 숙련가들이 아직까지 활동하는 곳이 바로 을지로다.

2000년대 들어 컴퓨터 가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예전의 기술력은 퇴화되고 인력이 감소되었으나, 지금은 3D프린팅을 활용한 금형 설계 등을 도입하여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산림동 조각 특화구역





을지유람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을지로의 다양한 모습

### 3) 을지로의 골목골목을 찾는 ‘을지유람’

서울 중구청 시장경제과에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추억의 보물창고를 찾아보는 ‘을지유람’을 실시하고 있다. 3~11월까지 4인 이상 신청을 하면 상시 출발이 가능하다.(일요일은 제외) 출발 장소는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쪽 지하광장이며, 관광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에 시장경제과에 신청해야 한다. 소요 시간은 90분이다. 을지유람은 중구문화원 해설사들의 안내와 함께 타일·도기거리, 송림수제화, 원조녹두, 노가리골목, 양미옥, 조명거리 등을 돌아볼 수 있다.

중구문화원 해설사들의 안내로 ‘을지유람’ 때 만날 수 있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

#### (1) 이남장 을지로 본점(중구 을지로2가 101-32)

1973년 개업한 이후 꾸준히 담아내는 설렁탕집이다. 처음에는 을지로 인쇄 골목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맛을 구현해 내는 정통 설렁탕 원조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 (2) 오구반점(중구 을지로3가 5-9)

1953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대를 이어온 중식당이다. 이곳 주소의 5-9번지를 가게 이름으로 짓고, 아들 이름까지 왕오구로 지은 사람이 현재 오구반점의 사장이다. 여러 요리가 맛이 있지만, 특히 군만두로 유명하다.

#### (3) 원조 녹두(중구 을지로 11길 26-2)

오래된 노포집으로 15종류의 전은 각각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원조 녹두집이라고 할 만한 가치와 세월의 맛이 있는 정겨운 집이다. 을지로 상권이 활발하던 시절부터 주변 상인들이 줄서서 먹던 집으로 더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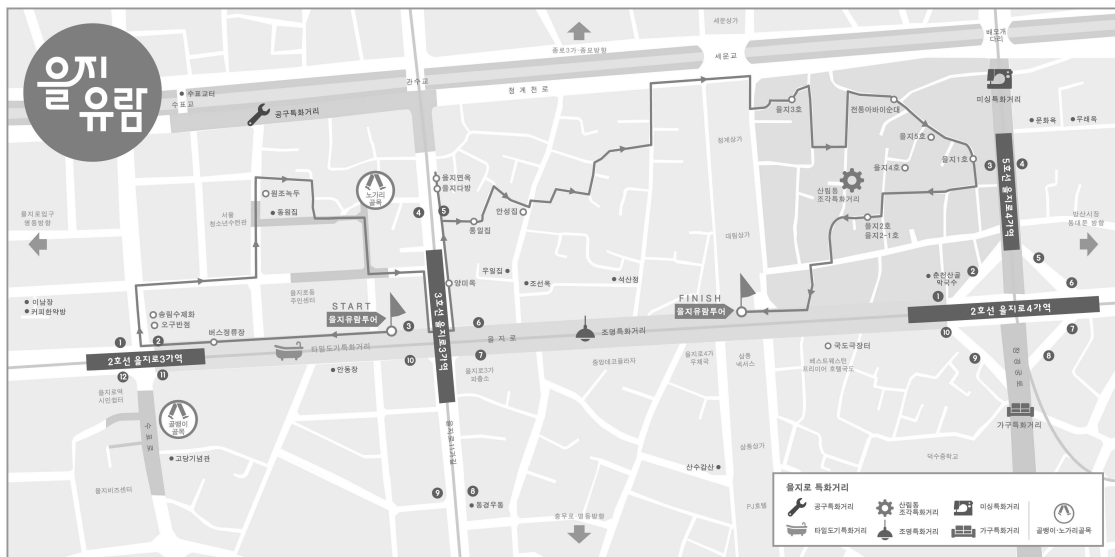
#### (4) 양미옥(중구 을지로3가 161)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이 집은 27년 된 양과 대창 전문점이다. 유난히 두툽한 양을 간장, 고춧가루, 파인애플즙으로 만든 양념에 버무려 내놓는데 독특한 양념장이 이 집의 특징으로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어서 다른 양 전문점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된다.

#### (5) 을지면옥(중구 입정동 161)

1985년에 개업한 이 집은 평양식 냉면집으로 의정부시의 ‘평양면옥’이 효시이다. 곱게 빻은 메밀과 전분을 혼합해 냉면 면발로 만든다. 육수는 양지머리와 돼지고기를 알맞게 삶아내 기름을 걷어낸 맑은 국물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 (6) 통일집(중구 을지로3가 202)



을지유람 안내지도

1969년에 개업해 2대째 40년 이상을 지켜온 전통 있는 식당이다. 을지로 공구 상가 골목에 위치해 오랜 세월을 변함없는 맛을 내는 식당이다. 암소 한우의 등심 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하며,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 고기도 직접 구워 먹어야 하는 집으로 불편한 점도 많고, 서비스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분위기만큼은 서울의 그 어느 고깃집보다 좋다.

#### (7) 안성집(중구 을지로 15길 19)

1967년에 개업해 2대째 40년 이상을 갈비구이를 해 온 식당이다. 시중의 잡고기로 만든 양념갈비가 아닌 진짜 돼지갈비를 맛볼 수 있다. 돼지갈비를 직접 초벌구이를 해서 내놓으므로 굵기도 적당하다. 굴과 각종 채소로 속을 꽉 채운 보쌈김치와 육개장, 육개장 칼국수 또한 인기 메뉴이다.

#### (8) 전통 아바이순대(중구 산림동 84-1)

순댓국과 머리고기로 유명한 이 집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노포(老鋪)식당이다. 순댓국에 밥을 말아 나오는데 하루 종일 우려낸 국물 맛은 깔끔하고 담백

해 깊은 맛이 있다. 가격 또한 저렴해 부담이 없다.

#### (9) 을지다방(중구 입정동 177-1)

그간 몇 번 주인은 바뀌었지만 5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지켜 온 다방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물건과 장소가 주는 매력적인 공간을 마주한다. 직접 만든 오미자주스와 매실주스는 맛이 깊고 진하다. 계란 노른자를 띄운 쌍화탕은 이곳의 대표적인 메뉴로 그 맛이 일품이다.

#### (10) 송림수제화(중구 을지로3가 5-10)

김영삼 전 대통령의 등산화를 만든 송림수제화는 1936년에 송림화점으로 개업하여 4대에 걸쳐 수제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제화 업체 중 가장 오래된 집으로 석고로 발모양 본을 떠서 맞춤 제작을 한다. 6·25전쟁 직후 영국군 군화를 개조해 우리나라 최초로 등산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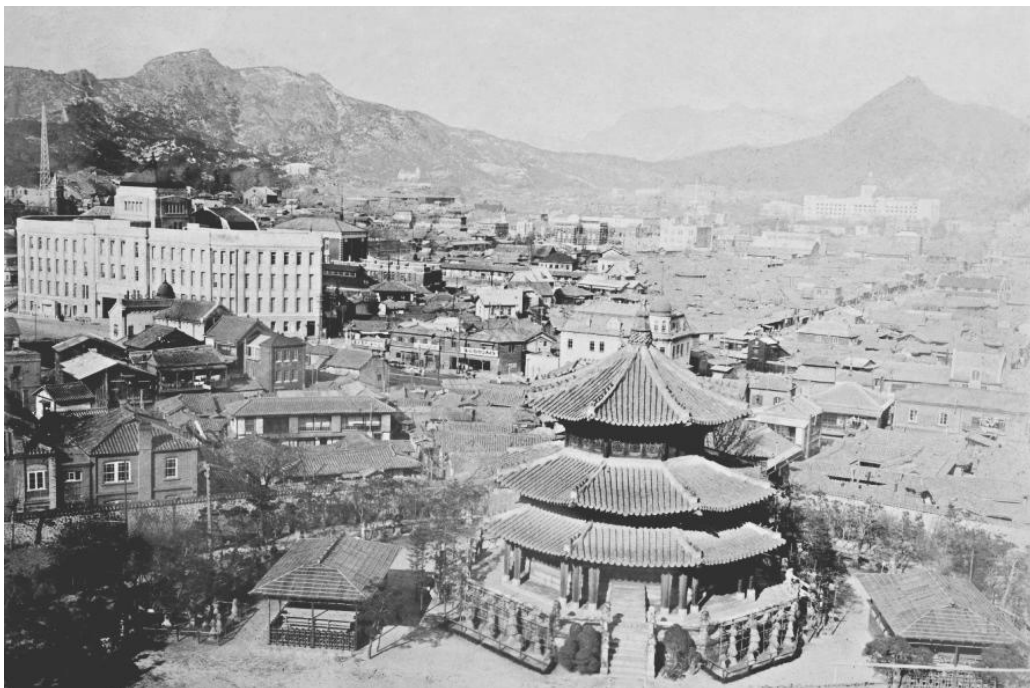
## 7장 언론을 통해 본 을지로 사회상

### 1. 일제침략기의 을지로

#### 1) 훈련원에서 이태리 서커스단 공연

전 세계를 순회하는 유명한 이태리 서커스단(“쌀카쓰”단) 일행은 1920년 6월 24일부터 시내 훈련원에서 매일 흥행하였다. 이 일행의 기술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기묘하고 경쾌한 방법으로 만인의 갈채를 받았다. 그 일행의 기술에는 영국소녀 ‘로렌스’양의 꽃 같은 얼굴, 세류 같은 맵시로 높게 맨 그네 위에 올라가 차마 눈으로 보기 어려운 아슬아슬하게 묘하고 위태한 재주는 참으로 칭찬할 만하고, ‘키유바’군의 줄타기와 ‘스파도’군의 웃음거리는 가히 남이 본받지 못할 묘기와 특징을 가졌다.

‘로사’양과 ‘피다’군의 풍치 있는 댄스는 자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을 건잡지 못하게 하였다. 이 서커스단의 제일 인기를 높이 끄는 공중비행기술은 참으로 사람의 몸으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의 묘기를 흥행한다. 이 기술은 다만 교묘한 연습으로부터 드디어 이와 같은 기술을 연구하여 낸 것인데 그중에 제일 탄복할 것은 이 그네에서 저 그네로 옮겨 뛰어갈 때에 서로 호흡을 맞춰 동작을 교환하는 순간의 시간도 빈틈없이 꼭 맞는 것인데 이 기술에 가장 탄복할 것은 시간이 일치되는 점이었다.



1920년대 환구단 내의 황궁우 부근

집채 같은 코끼리가 좁은 통 위에서 네발을 모으고 서서 굴리는 재주와 원숭이의 재판 흉내는 만장의 구경꾼들에게 큰 웃음을 일으켰다.<sup>277)</sup>

## 2) 을지로1가의 도깨비 소동

1924년 10월, 을지로1가 181번지 환구단 부근 줄행랑 집에 도깨비가 나타났다.<sup>278)</sup> 이 줄행랑 26호집에는 낙원동에서 요릿집을 하는 기생 이진홍이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흐리기만 하면 밤중에 집을 때려 부수는 것과 같은 ‘우당통탕’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대문을 열어보면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이 들려고 하면 또 ‘우당통탕’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는데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틀림없는 도깨비장난이라고 했다. 아침에 날이 밝아 나가보면 안대문이 조금 휘었는데 틀림없이 누가 손을 댄 것이었다. 이진홍은 이러한 괴변이 잇따라 일어나자 여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렸다. 마침내 정신 이상이 생겨 거리로 뛰쳐나갔고, 나중에는 행려병자로 죽었다고 전한다.

같은 곳 줄행랑 30호에도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 집에는 예명이 소월이라는 오현녀라는 기생이 살았다. 역시 날이 흐리고 꾸물꾸물하는 밤이면 역시 ‘우당통탕’ 하는 소리가 났다. 때로는 벼락 치는 소리가 나면 들창이 흔들리고 문이 들썩거리는가 하면, 창문 밖에서는 뭔가 옷자락이 필릭필릭하면서 사람의 인기척이 나기도 했고, 마루에서는 콩을 쏘아붓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한다. 기생 소월이 역시 무서워서 밤에는 꿈쩍 못하다가 아침에 나가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란히 붙어 있는 이웃집에서는 전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니, 도깨비장난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소월은 결국은 보따리를 싸들고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부터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때 이곳 관할 경찰서인 본정경찰서에서는 신고를 받고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해봤지만, 이상하게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sup>279)</sup>

### 3) 황금정 7정목의 토굴 철거

황금정 7정목 1번지의 한양도성 밑(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경성부 소유지로 대정 10년(1921)부터 빈민들이 모여 움막을 짓기 시작하여 1925년 3월 기준 24호의 가옥에 50채의 식구와 약 30호의 움집이 있다. 이곳에 사는 200여 명은 거의 전부가 극빈자로 그 날그날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경성부에서는 이번에 ‘경성운동장’을 만들고자 이곳에 사는 빈민 모두를 1925년 3월 20일까지를 기한하고, 그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라는 명령을 내려 본정(本町)경찰서에서는 주민대표자를 소환하여 설유까지 하였다. 그러나 본래 어쩔 수 없는 신세들이라 관력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하겠으나 스스로 이전해 갈수는 없다고 여러 번 경성부윤을 방문하고 진정하였다.<sup>280)</sup>

### 4) 4대 권번, 요릿집 유일관 보이콧

경성부 내의 한남(漢南), 한성(漢城), 대정(大正), 조선(朝鮮)의 네 권번(券番)에서는 1925년 6월 1일부터 황금정 2정목에 있는 요리집 유일관(唯一館)에는 기생을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제까지 유일관에는 권번을 경유하여 기생을 보내지 않았고, 유일관에



일제침략기의 토막집

간다는 기생은 손님을 따라 권번을 경유하지 않고 가는 기생뿐이었다. 이는 유일관이 6월 1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섰는데 그 전 주인이 각 권번에 밀린 화대(花代) 약 400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일관에서는 현금을 주고 불러서 오는 기생은 왔으나 오기 싫은 기생은 부르지 않았다.<sup>281)</sup>

##### 5) 을지로 운행 전차 안에서 출산

1933년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황금정을 향해 가던 전차가 영락정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서대문정 1정목 162번지에 사는 신남석(申南石)의 처 윤씨(34)가 여아를 분만하여 산모는 수표정 망월의원에 입원시켰는데 모녀는 모두 건강하다고 알려졌다.<sup>282)</sup>

1934년 3월 2일 오후 12시경에는 양주군 노해면 중계리 김간란(金干蘭)(27)이 만삭이 되어 친정으로 애기를 낳으러 황금정 6정목에서 한강을 향해 가던 전차에서 옥동자를 낳았다. 이에 전차과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여 즉시 전차과의 비용으로 동대문 부인



1945년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임시정부 환영식

병원에 입원시켰다.<sup>283)</sup>

## 2. 해방 직후의 을지로

### 1)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환영식

1945년 12월 1일, 오전 12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자 시내 남녀 중등학생 이상 전문대학생, 조선건국군(朝鮮建國軍), 일반시민들 10만여 명이 운집하였다. 이날은 36년 만에 연합군의 영웅적 승리에 호응하여 만리 이역에서 칠전팔기의 혈투로 우리 강토를 찾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환영하게 된 성스러운 서울 시민의 향연일(饗宴日)이다.

장엄한 악대에 맞추어 시민들의 주최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봉영식이 서울 그라운드에서 윤보선 사회로 개막되었다. 이어서 오세창의 개회사, 이인의 봉영문(奉迎文) 낭독, 권동진의 만세삼창으로 막을 단았다. 봉영문은 권동진, 김성수, 이인 3명을 통하여 김구 주

석에게 봉정하기로 하고 조선건국군을 선두로 가두행렬에 들어갔다.<sup>284)</sup>

## 2)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테러

1946년 11월 13일, 시내 을지로에서 등청(登廳) 중인 장택상(張澤相) 총감의 자동차에 수류탄을 던진 범인 최인식(崔寅植)은 이미 복역 중에 있었으나 이 사건의 주범으로 수류탄을 나누어 주고 경비 순경 정남수(鄭南洙) 경위를 살해한 주범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1947년 7월 11일 새벽 3시 반, 시내 성동경찰서 형사대는 시내 을지로 모처를 수색하여 마침내 주범인 김명수(金明洙)를 체포하였다.

주범 김명수는 본적이 청량리동으로 전 조선민청원으로서 사건 이후 북조선에 도피하였다가 수일 전에 입경하여 또다시 장택상 청장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포 현장에서 주범이 소지하고 있는 수류탄 한 개와 단도 한 개도 압수하였다.<sup>285)</sup>

## 3) 서재필 박사 환영준비위원회

미국에 거주하는 서재필(徐載弼) 박사의 환국을 환영하고자 1947년 3월 11일, 을지로2가 을우회관(乙友會館)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16명이 모여 「서 박사 환국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위원장에 이시영(李始榮)을 선출하였다.<sup>286)</sup>

## 4) 정의단원, 태양당 인쇄소 공격

1947년 7월 15일 오후 9시 30분에 정의단원(正義團員) 수십 명이 도끼, 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을지로2가의 태양당(太陽堂) 인쇄소에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인쇄기계, 문선실, 식자실을 파괴한 외에, 야근하던 직공 2~3명을 구타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은 또다시 경운동의 보성사에 침입하여 파괴하여 인쇄기능을 불능케 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에 소관 수도청 중부서, 종로서에서는 범인으로 조장용 정의단원 외 3명을 체포하여 취조하였다.<sup>287)</sup>

## 5) 광복 2주년 기념 시가행진

1947년 8월 15일, 감격과 흥분으로 광복 2주년 기념식을 마친 서울 시민들은 서울운동



광복 2주년 기념 을지로 시가행진

장을 기점으로 대오를 정돈하여 손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경비대 취주악대를 뒤따랐다. 50만 명의 군중은 우렁차게 8·15기념가를 부르며 행진하여 을지로6가에서 3가를 돌아 종로3가로 빠져서 세종로네거리에 이르러 각각 소속 단체별로 해산하였다.<sup>288)</sup>

#### 6) 한미 양국, 반도호텔 증여식 거행

존 무초 초대 주한 미국대사의 신임장 봉정식이 끝난 1949년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반도호텔에서 동 호텔 증여식(贈與式)을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거행하였다. 이(李) 국무총리는 소유권 이양증서를 무초 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무초 대사는 반도호텔에 있는 모든 시설을 서울 안에 이치(移置)할 수 있는 별개의 호텔을 건축하는데 사용해달라고 300만 달러를 한국정부에 증여하여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공영과 협력을 상징하는 반도호텔 증여식을 마쳤다.

반도호텔 증여식에 참석한 임(林)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백범 김구 선생의 영결식(1949년 7월 5일,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 소장)



“미국이 반도호텔을 이양 받으므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를 계속하기 위한 준비에 더 한층 전진을 보게 될 것이다. 반도호텔은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이·씨·에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한국에서 봉사할 기술자와 사무원들의 사무실로 사용될 것이다. 이 반도호텔의 이양이야말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생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유지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 투쟁에 있어서 우리 양 정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본이다.”<sup>289)</sup>

## 7) 백범 김구 선생의 호행노정

1949년 7월, 백범 김구선생의 영구 호행노정(護行路程)은 다음과 같았다.

1. 경교장(京橋莊)~광화문통~종로~동대문~서울운동장
2. 서울운동장~을지로6가~을지로입구~조선은행 앞~남대문~서울역 앞~연병장(練兵場)~용산경찰서~효창동 입구~금양초등학교~효창공원<sup>290)</sup>

## 2. 1950년대의 을지로

### 1) 새 동회 명칭과 관할구역

1955년 4월 20일, 서울시에서는 5월 8일을 기하여 실시될 시내 동회(洞會) 명칭 및 관할구역 개편을 발표하였는데 을지로 구역만을 추출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명동: 명동 1, 2가 일원 △충인동(忠仁洞): 충무로4가, 인현동2가 일원 △아현동(冶峴洞): 충무로5가, 묵정동 일원 △영희동: 저동 1·2가, 초동 일원 △인현동1가: 인현동 1가 일원 △낙선동: 예장동, 오장동 일원 △을지로2·3가동: 을지로2·3가 일원 △을지로4가동: 을지로4가 일원 △훈련동: 을지로5가, 방산동 일원 △을지로6·7가동: 을지로 6·7가 일원 △훈도동(薰陶洞): 수표동, 입정동 일원 △산림동: 산림동 일원 △주교동: 주교동 일원<sup>291)</sup>

### 2) 을지로2~3가의 가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1956년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을지로2, 3가 및 초동의 ‘가건축물 철거 촉진 간담회’를 서울시 회의실에서 조 부시장, 내무부 토목국장, 치안국 보안과장과 내무부 경찰 관계자 그리고 철거 대상자 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서 철거 대상의 을지로2, 3가 및 초동의 상인들은 각 개인의 실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연기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눈물 없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결국 3월 10일까지 약속한 자진 철거기간이니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관계관의 결론으로 폐회하였다.<sup>292)</sup>

### 3) 육군 PX를 장교 호텔로 사용

육군 제6관구사령부에서는 을지로입구에 있는 육군PX를 1958년 10월부터 영관급(領官級) 이상 장교의 호텔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호텔은 공무로 서울을 방문하는 영관 및 장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이 호텔에는 장성용 침실을 별도로 설비할 것이라 한다.<sup>293)</sup>



을지로에서 벌어진 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

#### 4) 내무부 앞에서 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

물 썰 틈 없는 경찰 경비망을 뚫고, 1959년 1월 13일 정오에 내무부(內務部) 앞에서 또 데모가 일어났다. 이날 정오에 을지로입구의 내무부 앞에서 돌연 5, 6명의 남자들이 보안법(保安法) 개악을 반대하는 ‘빠라’ 200여 매를 높이 뿌리는 한편 플래카드를 두 손에 걸치고 ‘보안법 반대’를 부르짖자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경찰관이 이들을 제지하는 한편 6명을 중부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이들은 플래카드에 「경찰국가를 만들지 마라!», 「국회의장단은 총사직하라!」 등의 구호가 쓰여 있었다.<sup>294)</sup>

#### 5) 미대사관 앞에서 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

1959년 1월 31일(토) 오후 2시, 서울시내 을지로1가 반도호텔과 미국대사관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거리에서 10여 명의 민주당원들이 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악 반대를 외치며, 수많은 빠라를 뿌리고 데모를 감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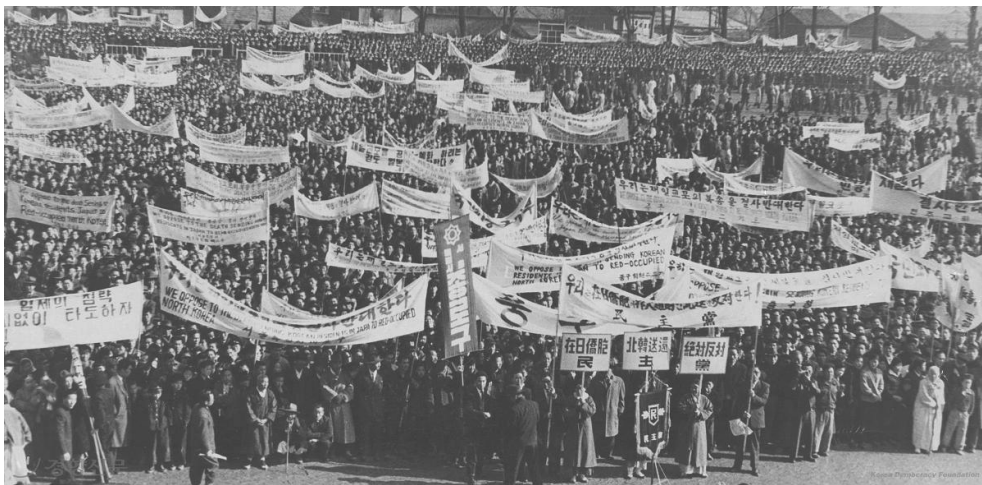
마침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의 정문 서터는 굳게 닫혀 있었으나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은 이 데모와 이를 제지하려는 정·사복경관들의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민들은 퇴산(退散)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고분고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7·27 야당의원 데모와 1959년 1월 13일 보행하던 야당의원들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유명해진 이 거리에는 이날도 뿌려진 뼈라들이 어수선하게 뒹굴고 있었으나 잠시 후 경찰은 모두 쓸어치웠다.

이날 데모에 참가한 박영일(朴榮日: 29) 민주당 용산 갑구 조직부장 등 12명은 데모를 시작한 지 8분 후에 완전히 제지되어 모두 차에 실려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sup>295)</sup>

## 6) 재일교포 복송 반대 시위

재일교포 복송을 반대하는 전 국민의 분노는 이들 동안에 전국 70개소에서 폭발되었다. 경찰당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959년 2월 13·14일(오후 5시 현재) 데모에 참가한 국민은 19만 8,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울, 대구, 부산, 전주, 청주, 대전, 춘천 등 전국 70개소에서 70여 회에 걸쳐 일본정부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대한노총에서는 1959년 2월 14일 오후 2시 5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7~8,000명의 서울지구 노총 산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재일교포 강제복송반대 노동자궐기대회」를



재일교포 복송 반대 시위

개최하였다.

약 500대의 트럭에 분승한 노동자들은 트럭에 탄 채로 꺾기대회를 하였다. 이 대회에서 먼저 국민의례, 대한노총 사무총장의 꺾기사에 이어 결의문 채택,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문 채택, 그리고 각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 대회가 끝나자 이 노동자들은 시청 앞을 출발하여 을지로입구·종로네거리·세종로를 거쳐서 서울역까지 행진하면서 “일본정부는 친공(親共)의 악몽에서 깨어나라!” “교포 북송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절규하였다.

이날 시내에서는 재일교포 북한송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내 남녀중고등학교 60여 교의 학생들과 재일학생 의용군 수백 명은 「일본의 용공책을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 도처에서 「데모」를 감행했다.<sup>296)</sup>

## 7)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을지로입구의 허바허바 사장

허바허바라는 말의 뜻은 러시아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이고, 사장(寫場)은 사진관을 일컫는 말이니, 허바허바 사장을 굳이 해석하자면, 즉석 사진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진관은 개인사와 가족사를 60여 년간 기록해주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허바허바 사장은 1959년 5월에 고윤화 회장이 을지로입구 네거리(을지로2가 199-78)에서 개점하여 약 55여 년간 위치하다가 최근 강남점(강남구 역삼1동 648번지)으로 이전하였다. 그간 1985년에 역삼1동에 허바허바 사장 강남점, 1989년에 허바허바 사장 하얏트점을 차례로 개점하였다가 강남점으로 통합했다. 2014년 12월에는 허바허바 사장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고갑희 허바허바 사장 대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의 탑은 우리 집을 계속 아껴주며 우리 집을 다녀간 여러분 한분 한분이 가슴속에 담고 계실 것이다. 찾아오시는 손님이 촬영부터 사진을 찾아가실 때까지 모든 작업은 한편의 명시(名詩)가 이뤄지는 진통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쳐 나오는 것과 같지 않을까? 사진도 예술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쏟는 정성과 노력은 손님의 미소에서 결실을 보게 된다. 사진은 행복의 가교(架橋)를 건네주는 중요한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나 더 예뻐지고 곱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인터뷰하였다.<sup>297)</sup>

## 2. 1960년대의 을지로

### 1) 조병옥 박사의 영결식

민주주의의 큰 기둥이었던 조병옥(趙炳玉) 박사의 국민장이 1960년 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운동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은 하늘마저 슬픈 듯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온 겨레의 비통 속에 조 박사가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는 날이었다.

2월 25일 오전 10시 정각 — 국민장 예식부장 이성주의 개회선언과 육군 군악대의 조악(吊樂)으로 고요한 가운데 장례식은 시작되었다. 고(故) 조병옥 박사의 영구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유가족들은 조악이 울리자 이미 복받치는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장례위원장인 조용순 대법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조 박사는 가셨어도 조 박사가 이룩하신 조국광복의 빛나는 업적은 건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하였고, 김도연 박사는 고 조 박사의 약력을 보고하면서 가슴 막혀 울을 어찌지 못하였다. 이어 시민들은 1분간의 묵도를 드리고 조 박사의 명복을 빌었다. 묵도가 끝나자 이재학 국회의장은 입법부 대표인 이기붕이 장례식에 못나오므로 조사(弔辭)를 대신하였으며, 행정부 대표로 최인규 내무부장관, 정당대표로 장면 박사, 사법부 대표로 김두일 대법관, 사회 각계 대표로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 서울시민 대표로 임홍순 등 각각의 조사가 있었다.

조사가 끝나자 수도여고의 합창단이 “큰 별이 떨어졌다. 땅을 치고 통곡해라. 캄캄한 이 밤길에 빛을 잃은 백성들아...”의 조가(弔歌)를 합창하였다. 이후 경찰악대의 조악이 울리는 가운데 유가족을 대표하여 조준형(딸아들)이 분향을 올렸고, 11시 15분에 육군의장대의 세발의 조총(弔銃)으로 영결식은 끝났다.

영결식이 끝난 후 고 조 박사의 영구(靈柩)는 을지로6가를 지나 서울시청 앞, 국회 앞, 광화문 네거리 등을 거쳐 장지인 우이동으로 향하였다. 이날 서울시의 거리에는 100만 시민이 거리거리에서 슬픔 속에 고 조병옥 박사를 장송(葬送)하였다.<sup>298)</sup>

### 2) 을지로를 뒤흔든 4·19 학생 데모대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데모에 이어 4월 19일에는 국립 서울대 학생들과 성균관대, 동국대, 경기대, 중앙대, 연세대, 홍익대 학생 등 약 10만 명이 대대적인 데모를



4·19혁명 당시의 시위대 모습

감행하여 서울을 완전히 데모 분위기로 휩쓸아 넣었다.

이날 대학생들의 데모는 사전에 각 대학 간 밀의가 있는 듯 아침 9시를 기하여 일제히 대학별로 일어났다. 아침 9시 정각, 서울대학교 문리대·법대·미대·수의대 3,000명은 100여 명의 경찰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문을 뛰어나와 스크림을 짜고 데모에 돌입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원남동~종로4가에서 경찰이 곤봉으로 폭력 행위를 하자 경찰에 투석하여 경찰이 후퇴한 후에 다시 대열

을 지어 종로2가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화신백화점 앞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10여 발의 최루탄과 연막탄을 발사하면서 이들의 전진을 완강히 저지하자 을지로2가 쪽으로 방향을 돌려 내무부 앞 시청 앞을 거쳐 의사당에 도착,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조금 지나 동국대학교에서도 약 2,000명의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여 을지로를 뚫고 내려와 미국대사관 앞·시청 앞·국회의사당 앞을 거쳐 세종로 거리를 북상하여 5대의 소방차와 무장경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중앙청 앞을 지나 경무대 쪽을 향한 대열의 선두에 섰으나 적선동파출소 앞에서 급증된 경찰·헌병들의 공포·최루탄 발사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농성에 들어갔다.<sup>299)</sup>

### 3) 4·19 대학교수단 을지로 행진

1960년 4월 26일 「대학교수단」의 데모대가 화신(和信)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데모 교수단을 따르는 시민과 학생들의 수는 만여 명을 돌파했고, 을지로입구를 거쳐 미국대사관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 그러나 데모 교수단은 대열을 깨



뜨리지 않았으며, 6시 40분경 미국대사관 앞을 통과할 땐 애국가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눈물이 흘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흥분한 데모대원들은 벌써 혼성 데모대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위문금을 거둬 신문사로 찾아가던 동국 대학생들이 앞장을 서면서 데모 교수단 옆과 뒤를 따르던 시민·학생들로 혼잡한 데모대는 6시 5분경 드디어 데모 교수단의 마지막 코스인 국회의사당 앞에 당도하였다. 그 무렵에 이미 군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나기 시작, 데모대를 위협하였다.



대학 교수단의 시위

교수단 데모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지막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만세를 불렀다. 「대한민국 만세」 3창, 그리고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어둡으로 가로막힌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교수단의 데모는 막을 내렸다.<sup>300)</sup>

#### 4) 4·19 때 인파로 뒤덮인 을지로

1960년 4월 26일 대학교수단 데모가 있는 이튿날인 4월 27일, 수많은 군중들이 서울시청에서 을지로7가에 이르는 가두에 집결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사태를 초조히 기다렸다. 신문사 짚차가 지나갈 때마다 호위를 찾고, “이승만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을지로입구에서 을지로7가에 이르는 거리엔 인파로 뒤덮였고, 태극기를 들고 나선 여인네들, 어린 꼬마들- 지나간 8·15 해방의 날을 방불케 하였다. 메디컬 센터에서는 응급환자들을 대기하는 하얀 가운을 걸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밖에서 웅성대고 있었다.

‘만세’ 소리가 퍼져 나오고 흥분한 군중들로 뒤덮인 미국대사관과 반도호텔 창구에선 외국인들이 연상 박수를 치며 군중들의 열기를 성원해 주었다.<sup>301)</sup>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 5)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잣집 철거와 경찰 대책

정(鄭) 시경국장은 1960년 9월 14일 오후에 법 절차에 의해 판잣집을 철거하는 구청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는 현장에서 체포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는 9월 16일 7시, 을지로6가 청계천변 무허가 판잣집 200세대를 서울시가 철거하기에 앞서 나온 발표다. 정 시경국장은 주민들의 난동을 예상하여 철거 현장에는 경찰봉을 가진 경찰관 500명과 사복경찰관 80명을 배치할 것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대응은 “무기만 안 가진 전투태세”라고 표현했다. 이번 청계천변의 철거대상 구역은 3일 전에 서울시에서 철거하러 나갔다가 주민들의 난동으로 실패했던 곳이다.<sup>302)</sup>

### 6) 육사생도들의 을지로 행진

5·16군사쿠데타로 흥분과 격동의 파동이 거의 가라앉은 1961년 5월 18일 오전 9시, 정장 정모의 예복을 갖춘 육군사관학교 생도 전원이 동대문에 집결, 김익권(金益權) 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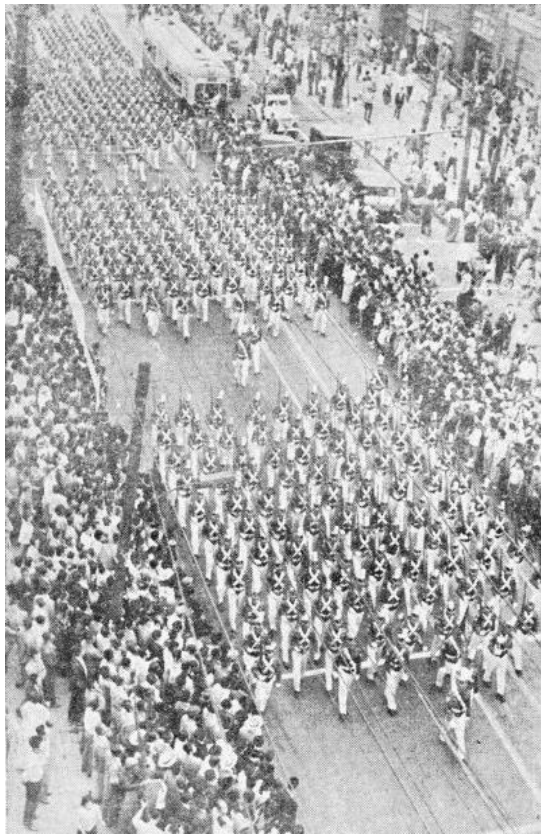
의 선도차를 앞세우고 보무당당한 시가 행진에 들어갔다.

하늘빛의 윗도리에 하얀 아랫바지를 입고 굳게 담은 생도들의 입들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다. 행진을 따라 순식간에 사방에서 홍수처럼 밀려닥친 시민들은 저마다 발돋움을 한 채 길게 목을 빼고 눈길을 주었다.

국가 간성(干城)의 위용을 자랑하는 사관학교 생도들의 씩씩한 행진이 지나갈 때면 연도의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화신백화점 앞을 지날 때는 간간히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광화문을 지나 국회의사당 앞을 지날 때 때마침 트럭에 타고 군가를 부르며 지나가던 해병대와 마주치자 이들은 사관생들에게 격려의 손짓을 보냈다. 을지로

입구를 지나 반도호텔 앞을 통과할 즈음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 나와선 미군 장성들(공군 중장·육군소장 2명)은 회심의 미소를 담고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sup>303)</sup>



육사생도의 시위

## 7) 자전거, 우마차 통행구역 변경

서울시는 1961년 12월, 을지로5가~6가와 청계천로2가 등 도로의 자전거, 우마차의 통행구역을 변경하였다. 변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통행제한 연장구역 : △ 을지로5가~6가까지 △ 청계천로5가~6가까지
- ◆ 통행제한 해제구역 : △ 청계천로2가 제창국(濟蒼局) 앞~청계국민교 뒤<sup>304)</sup>

## 8) 미대사관 앞에서 연좌 데모한 학생 연행

1962년 6월 6일 오후 1시 반~40분 사이에 시내 을지로 반도호텔 앞 미국대사관 앞에서 연좌데모를 시도하던 고려대학교 학생 약 150명은 급거 출동한 경관대(약 200명)의 저지로 연좌데모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들은 정복경찰관이 동승한 가운데 1대의 버스와 1대의 트럭에 태워 현장을 떠났으나 어디로 갔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55분경 광고 앞에서도 약 40명가량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한편 반도호텔 앞을 지나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행되는 것이 목격되었다.<sup>305)</sup>

## 9) 윤보선 전 대통령을 쫓는 을지로 군중 행렬

1963년 3월 20일 하오 6시 5분경,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군정 연장 반대(軍政延長反對) 데모」를 한다는 설에 대비하여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치고 있는 서울시청 앞에 나타났다.

수십 명의 내외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수 명의 측근자와 함께 을지로입구를 향하여 걸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을지로입구로 걸어가는 도중에 길을 가던 100여 명의 군중들이 뒤따랐으며, 수행원 수 명이 ‘만세’를 외쳤으나 데모와 같은 양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에워싼 군중들은 6시 15분 경 을지로입구까지 왔으나 경찰에 제지되어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되돌아와 반도호텔 앞까지 이르자 승용차에 경찰이 강제로 태워 안국동 자택으로 호송되었다.<sup>306)</sup>

## 10) 개성상회, 광장 용지에 ‘가수리’ 허가로 건물 신축

을지로입구 네거리(남대문로1가 28) 소재 한약 및 의약품 도산매상(주)개성상회(사장 한광석)가 지난 1963년 7월 30일 「가수선」 명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건축과에서 허가를 얻은 후 구 건물(2층)을 철거한 후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하였다.

이 회사는 또한 전에 사용하던 건물(인접 단층)도 3년 전에 얻은 「가수리 허가」로 또 하

나의 무허가건물을 건축(기초공사 완료) 중에 있었다. 당국자에 의하면 이 지역은 광장용지로서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시당국은 3차에 걸친 철거명령에 불복한 개성상회를 상대로 1964년 6월 30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을 뿐이었다.<sup>307)</sup>

개성상회는 건축법 위반뿐 아니라 밀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 예로 1964년 10월 14일, 1963년 6월

부터 개성상회가 홍콩 등에서 500여만 원의 녹용, 해구신을 밀수입한 혐의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였고, 1967년 10월 20일, 서울지검은 개성상회가 미삼(尾蔘) 등을 섞어 300여 상자를 1등품으로 판매한 것을 들어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다.<sup>308)</sup>



을지로입구의 개성상회(1960년대)

## 11) 을지로의 치부, 인현시장 인근

1964년 5월경 세칭 ‘텍사스촌’으로 알려진 중구 인현시장과 국도극장 옆길에 이르는 길에 수백 개의 무허가 술집이 늘어서 있고, 심야에도 술을 팔며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패스더우스’ 폭력단은 주먹을 휘두르고, 공갈과 금전갈취, 행인구타 등 행패가 심해 주민들은 밤낮없이 죽을 지경이나, 단속해야 할 경찰은 본체만체했다.

이 일대에 밀집해 있는 술집은 대부분이 무허가였다. 그래도 보건당국은 눈도 돌리지 않는지 허가가 있는 집도 영업시간은 아랑 곳 없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흥청거리기만 한다. 아예 통행금지시간도 없는 것 같았다.

또한 접대부들은 공공연히 매춘행위를 하고 있었다. 1964년도까지 이곳에 있는 200여 명의 접대부들이 대낮에도 을지로4가 버스정류장 앞까지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곳에는 경찰이 ‘눈감아 주는 곳’으로 알려져 통금시간이 가까웠을 때 술이 취한 사람



1966년경의 인천시장 부근

이 택시를 타면 운전자들은 으레 이곳으로 태워다 준다는 것이다.

주택가에 침투해 있는 이곳의 술집들은 집구조가 또한 묘하게 생겼다. 1층 건물 속인데도 집안에 들어가면 다락방이 있는 사실상 2층 건물이다. 이 다락방에도 구공탄을 피우고 온돌장치가 되어있다. 건물 자체가 모두 판자로 만든 목조건물이라 화재의 위험이 짙고, 불이 일어나면 삼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어 버릴 것이 뻔하였다.

이 교묘한 집 구조를 이용해서 돈이 있어 보이는 손님이 들면 골방으로 몰아넣고, 바가지로 씌우기가 일쑤였다. 이곳은 무법촌 텍사스로 한 때 서울을 주름잡고 강력한 조직을 가졌던 「패스디우스」 폭력단이 날뛰던 곳이다. 1964년 당시 두목급 6명은 철창생활을 하고 있지만 잔당 30여 명은 낮이면 국도극장 앞에서 암표와 껌을 팔다가 어둠과 함께 팔뚝을 걸어 올리고, 지나가는 사람, 특히 술꾼이 지나갈 때 주먹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가 일쑤이다.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이들은 여관을 안내하는 상냥한 심부름하는 아이들 행세를 해서 지능적으로 눈을 피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찰에 붙잡

혀 연행되어도 피해자 보다 먼저 석방되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이에 주민들과 피해자들은 아예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는다. 후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찰의 본체만체하는 태도에 만성이 되었기 때문이다.<sup>309)</sup>

## 12) ‘한일협정 비준 무효’ 데모

데모를 계속하면 학교를 폐쇄시키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에도 불구하고 1965년 8월 26일 오전 서울대·동국대·성균관대·경희대·고려대 등 서울 시내 6개 대학생 8,000여 명은 계속 “한일협정 비준 무효” “학원의 자유”를 외치고, 옛새채 거리로 뛰쳐나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 최루탄이 발사됐다.

이날 대광고교 학생 등 서울시내 2개 고교생 약 500명도 거리로 나섰다.

한편 동국대 학생 2,000여 명도 교정에서 성토대회를 마친 후 그중 1,500여 명이 데모에 나서 필동·을지로4가·청계천4가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대와 충돌, 30여 명이 연행되고 11시 15분경에 해산되었다.<sup>310)</sup>

## 13) 을지로입구의 가족계획 클리닉

대한가족협회는 가족계획 계몽사업의 하나로 1965년 8월 25일, 을지로입구에 가족계획 ‘클리닉 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에서는 가족계획 전반에 대한 계몽사업과 피임, 부인병 조기진단, 산모 지도, 불임증 등을 진찰 또는 지도하였다.<sup>311)</sup>

## 14) 프로복싱 챔피언 김기수 선수 퍼레이드

프로 복싱 세계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움켜쥔 김기수(金基洙) 선수는 1966년 6월 27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퍼레이드를 벌여 수십만 시민들의 열광적인 갈채에 파묻혔다.

오픈 카(無蓋車) 뒷자리에 탄 김 선수는 그의 코치 리처드 바비 씨와 함께 세계의 왕자다운 늑름한 모습으로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답례를 보냈다. 이날 퍼레이드는 오후 6시에 시청 앞을 출발하여 종로입구~종로5가~을지로5가~스카라극장~퇴계로~조선호텔 앞을 거쳐 반도호텔 앞에서 끝났다. 연도의 시민과 함께 달리던 차량들도 모두 멈춰 세계를 정복한 철권(鐵拳) 김기수의 승리를 호뭇하게 맞아 주었다.<sup>312)</sup>





한국인 최초의 챔피언이었던 김기수 선수의 퍼레이드

#### 15) 레슬링 플라이급 왕자 장창선 퍼레이드

1966년도 세계야마추어레슬링선수권대회 플라이급을 석권, 온 국민 숙원의 세계 제패를 이룩한 장창선(張昌宣 24 : 인천중공업) 선수 일행이 1966년 7월 5일 낮 12시 반 NWA 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개설했다.

장 선수 일행은 오후 1시 43분 경찰 사이드카 6대의 선도에 따라 김포공항~제2한강교~서소문육교~남대문~퇴계로3가~을지로6가~서울운동장~동대문~종로1가~체육회관 앞에서 5색 종이의 눈가루를 맞았다. 서울의 중심 거리를 2시간이나 누빈 퍼레이드는 오후 3시 38분 환영식장인 시청 앞 광장에 닿아 수천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sup>313)</sup>

#### 16) 존슨 미대통령 경호 위해 을지로 폐쇄

존슨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200만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1966년 10월 31일 오후, 경찰은 모든 기동력을 동원, 교통정리와 사고예방에 진땀을 뺐다.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환영대회를 위해 존슨 대통령 일행이 김포공항에 내리기 3시간 전인 낮 12시부터 시청으로 통하는 광화문·을지로·남



미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한국을 방한한 존슨

대문 쪽의 길을 완전차단, 환영인파를 도리어 막아버리고 시청 앞 광장 앞에 도열한 학생·시민들에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경찰봉과 환영플래카드를 휘두르며 군중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시민들은 경찰이 존슨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이날의 경찰 단속은 과잉단속이었다는 여론이었다.<sup>314)</sup>

#### 17) 을지로 등 4대문 내 업소 연탄 사용 금지

서울시는 1979년 4월 21일, 4대문 내 13개동을 연료전환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즉 가정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 연탄사용을 금지하였다. 1차 대상지역은 소공동 등 지역과 2차 대상지역은 을지로1·2·3·4·5가 지역이었다. 즉 연탄 대신 유류, LPG로 전환토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해를 없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977년 6월 1일부터 4대문 안 업소와 가정의 연료를 석탄에서 유류와 가스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sup>315)</sup>

제4편

을지로 주변의 문화유적



## 8장 오랜 전통을 지닌 을지로의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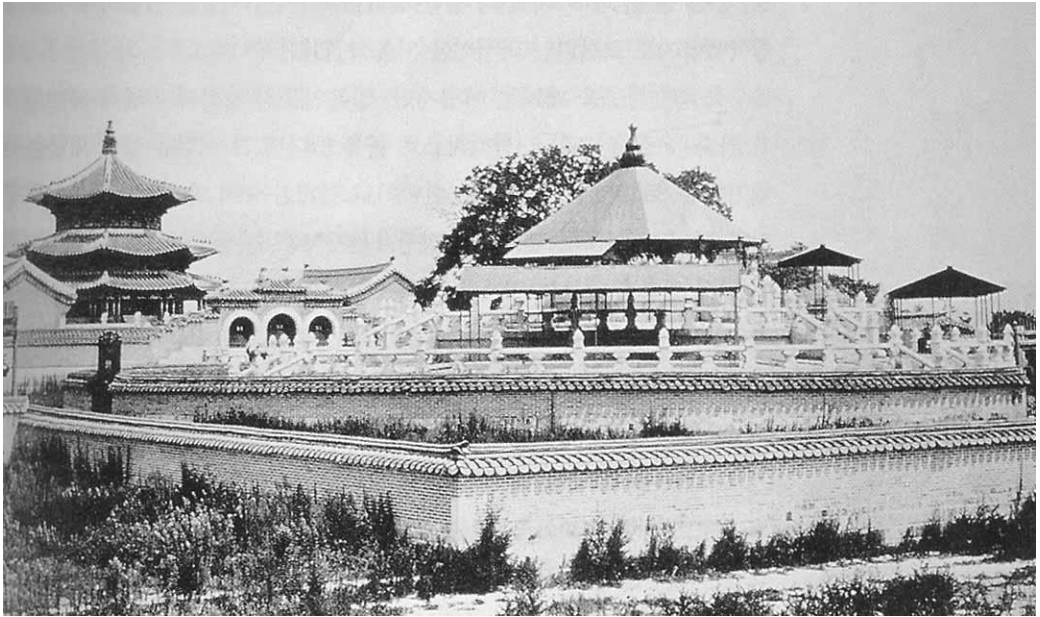
### 1) 고종황제가 즉위한 환구단 터

서울의 한복판인 현재 조선히텔이 자리한 중구 소공동 87번지 1호는 대한제국이 설립된 환구단(圓丘壇)이 있었던 사적지이다.

이곳은 일찍이 조선 초 태종의 2녀 경정공주(慶貞公主)와 부마 조대립이 거주하여 소공주택(小公主宅)이라 불렸으므로 소공동이란 동명이 유래되었으며, 선조 16년(1583)에는 이 집을 화려하게 개축하여 3남 의안군 성(城)에게 하사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남별궁(南別宮)이라 하여 중국 사신이 유숙하였다.

조선 말에 지은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보면 남별궁에는 명설루(明雪樓) 누각이 있고, 그 뒤뜰에는 작은 정자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돌 거북이 있는데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하여 이 거북에게 빌기도 하였다는 것이다.<sup>316)</sup>

조선 말에 외국세력이 밀려오던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하기 위하여 조선히텔 환관 부근에 하늘을 본 따서 원형의 3층으로 된 환구단을 쌓은 다음 백관을 거느리고 천신지기(天神地祇)에 제사를 지냈다.



훼손되기 전의 환구단과 황궁우

이 환구단은 원구단 또는 원단(圓壇)이라고도 불리는데 일제가 1913년 4월에 이 단을 헐어버렸으므로 광복 후에 이 터를 사적 제15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파란 많던 이 환구단 일대는 1911년 2월에 건물과 터를 총독부 소관으로 함에 따라 1913년 4월에 환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건평 580여 평의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을 지어 1914년 9월에 준공하였다.

철도호텔 건물은 광복 후에 조선폰텔로 사용하다가 6·25전쟁 후 UN군이 사용했고, 1968년에 철거한 후 1970년 3월 17일에 새로 건평 13,920평에 객실 470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되었다.

현재 환구단 터에는 환구단과 석고단은 훼손되어 보이지 않고, 8각형 3층 건물의 황궁우(皇穹宇) 한 채와 그 동쪽에 용무늬를 그린 북 모양으로 된 석고석(石鼓石) 3개만 남아있다. 2007년에 석고단의 정문인 광선문(光宣門)이 우이동의 ‘그린 파크호텔’ 정문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여 2009년 말에 서울시에서 이전, 복원하였다. 이 석고석의 용무늬 조각은 조선 말의 최고 솜씨라고 알려져 있다.

환구단은 태조를 고황제(高皇帝)로 추존하고, 하늘과 땅의 신인 천신지기(天神地祇)에 제사를 올린 단이고, 황궁우는 천신지기와 태조 이성계, 고종황제의 고조부인 진종(영조의 장남, 추존)의 7대조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석고단은 중국 주(周)나라 때 선왕(宣王)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북 모양의 돌에 새겨 10곳에 세웠다는 고사에 따라 고종의 성덕을 찬양하는 석고문(石鼓文)을 새겼다. 이 석고단도 일제가 1927년에 광선문을 이전하면서 헐어버렸으므로 석고만 남은 것을 현재 자리로 옮겨 놓았다.

황궁우는 환구단을 쌓은 지 2년 뒤인 1899년에 완공되었는데 이 건물의 상량문(上樑文)은 윤용선(尹容善)이 짓고, 서정순(徐正淳)이 글씨를 썼다. 그 후 2년 뒤인 1901년 12월에 광무황제의 성덕(聖德)을 찬양하기 위하여 관리들과 유지들이 모여 석고단을 세우기로 하였다. 석고단은 이듬해에 준공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게 되었다.

황궁우는 8각으로 쌓은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데 남쪽 섬돌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3층 팔각집의 1·2층은 통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신의 위패(位牌)를 모셔 놓게 하였으며, 3층은 각 면마다 3개의 창을 내었다. 환구단을 비롯하여 황궁우와 석고단은 기사 심의석(沈宜碩)의 솜씨이다.<sup>317)</sup>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나와 덕수궁에 머물게 된 직후에 황제 즉위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고종은 이 의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즉위식이 있던 날 아침, 고종은 지난 밤 꿈에 어느 선왕이 나타나 “예로부터 있어 온 유풍(遺風)을 변혁해서는 안 된다”라며 노한 얼굴을 하고 사라졌다는 꿈 이야기를 근시(近侍)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고는 즉위식장으로 떠날 시각이 훨씬 지나도 마련해 놓은 대연(大輦)에 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고종은 40명이 메는 호화로운 대연을 보자 화를 내면서 4명이 메는 소연(小輦)으로 바꾸지 않으면 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3색기를 든 전위대가 앞을 서고 대신들이 말을 타고 뒤를 따랐으며 일본군의 호위를 받는 행렬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철종의 부마이며 내부대신인 박영효(朴泳孝)가 말에서 떨어지자 고종은 뒤돌아보고 ‘불길한 일이다’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황제 즉위식이 있던 날 경운궁(현 덕수궁)에서 환구단 정문에 이르는 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축기(祝旗)를 들고 환호하는 가운데 고종이 행차하였다. 환구단에서 하늘과 땅에 고하는 고천지제(告天地祭)를 지낸 다음 백관들이 무릎 꿇고 받드는 가운데 금빛



광무황제의 성덕(聖德)을 찬양하는 뜻으로 세운 석고

찬란한 즉위단 의자에 올랐다.

이 당시 수구파의 대신들은 이 황제 즉위식을 반대하여 며칠 전부터 단식을 하고 있었고, 지방에서는 선비들이 망배(望拜)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외국인은 세계 역사상 이토록 즐겁지 않은 황제 즉위식은 전무후무하다고 기록하였다.

황제 즉위식을 올린 지 3년 후에도 광무황제는 대신들을 거느리고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삼엄한 경계 속에 행차하였다. 환구단에 포장을 두르고 제사를 올리는데 갑자기 하얀 포장 틈으로 중 한사람이 불쑥 뛰어 들어와 “초능력인 천안통(天眼通)으로 황제의 앞날을 예언하겠다”며 큰소리치는 소란이 일어났다.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제사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소란을 일으킨 중을 잡아 문초를 해보니 개운사의 승려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개화를 주장한 봉원사의 이동인(李東仁) 승려 덕분에 한때 허용했던 승려의 도성 안 출입은 3년 만에 다시 금지되었다는 것이다.<sup>318)</sup>





발굴, 복원된 한양도성의 이간수문

## 2) 80년 만에 햇빛을 본 이간수문

중구 을지로7가의 이간수문(二間水門)은 남산과 장충동에서 내려오는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을 도성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선시대의 수문(水門)이다.

이간수문은 조선 초에 서울 한양도성을 축조할 때 건립되었던 것을 1926년에 일제가 경성운동장을 건설할 때 위 부분을 철거하고, 흙으로 메워 80년간 묻혀있다가 2009년 9월에 축구장 부지 발굴 때 3.7m 아래에서 발굴되었다. 이간수문은 상부의 홍예(紅霓: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만든 것)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벽하게 남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전해져 오던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수문 내 외측에는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을 유도하기 위한 날개 형태의 석축시설이 있으며, 남문과 북문 사이에는 물 흐름을 용이하게 하도록 뱃머리 모양의 석축시설을 하였다.

이간수문은 두 차례 개축한 것이 확인되었고, 수문의 방어를 위해 시설물을 쫓았던 목재가 하부에서 확인되어 수문의 방어 모습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수문의 석축 높이는 4m, 수문의 한 칸 너비는 3.3m 정도다.

이간수문과 연결되는 서울 한양도성 내부에서는 건물지가 모두 10개소, 집수시설 2개소, 우물 4개소 등이 확인되고 있어 성곽 내부에 건물 및 부속시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주로 조선 중기의 유물 등이 확인되어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분청사기, 조선청자, 무문백자, 청화백자, 외국(일본, 중국)자기 등이 있으며, 시기는 15~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자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 축구장 건물지에서 ‘甍(돈)’, 즉 의자로 추정되는 기형의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서울 한양도성이 발굴됐던 142m는 그대로 복원하고, 성곽이 없어진 123m 구간은 지적도에 있는 추정 성곽 선을 통해 흔적만 표시해 두었다. 특히 복원된 142m의 서울 한양도성은 축성 당시의 기법에 따라 태조, 세종, 숙종 등 축조 시기별로 달라지는 성곽 모양을 그대로 되살렸으며, 이간수문과 방어시설인 치성(雉城) 등이 복원되었다.

치성은 일정한 거리마다 성곽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시설물로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군을 효과적으로 방어, 공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치(雉)는 깎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몸을 숨기고 주변을 잘 살피보기 때문에 치성이라고 칭한다. 홍인지문과 광희문 구간에는 네 곳에 치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 한양도성 중 최초로 발굴 조사되어 정비 복원하였다. 시민들이 직접 걸으며 조선의 옛 자취를 느낄 수 있고,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나눴던 동대문운동장의 흔적인 야간경기용 조명탑 2개와 성화대도 볼 수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야구인들의 꿈이 담긴 동대문운동장의 흔적과 조선의 대표적인 수비성곽이었던 서울 한양도성의 자취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서울 한양도성(265m · 8030㎡)과 동대문역사관(1313㎡), 동대문유구전시장(4460㎡), 동대문운동장기념관(339㎡), 이벤트홀(2058㎡), 디자인갤러리(400㎡) 등으로 구성됐다.

동대문유구전시장에선 조선시대 우물터와 건물터, 아궁이 시설, 기와 보도, 분청사기 등 유구(遺構 :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를 구경할 수 있고, 동대문역사관에는 야구·축구운동장 부지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일제침략기 때 유물이 200여점과 함께 발굴조사 전 과정을 담은 영상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3D(입체)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다.

### 3) 청계천에 놓였던 오간수 다리

동대문에서 을지로6가로 가는 성벽 아래, 청계천6가에 놓였던 이 다리는 홍예문(紅霓門)으로 다섯 칸으로 되었다 하여 ‘오간수 다리’ 또는 ‘오간수문’이라고 하였다. 이 다리는 청계천 물줄기가 도성을 빠져 나가는 지점에 놓여 있었다. 즉 서울에 성곽을 쌓으면서 청계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아치형으로 된 구멍을 만들고, 그 위로 성곽을 쌓아 올렸으며, 아치 모양의 구멍을 서로 연결하여 성벽 안쪽으로 장대석(長大石)을 연결하여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는 동대문 옆 오간수문을 설치한 다리이므로 오간수 다리라고 불렀다.

이 문은 물길이 잘 빠져가기 위해 가설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서울성곽 안에서 죄를 지은 자가 성곽을 빠져 달아나든가 혹은 밤에 몰래 도성 안으로 잠입하는 사람들의 통로로 자주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 명종 때 전국적으로 사회를 흥흥하게 만들었던 임궽정(林巨正)의 무리들이 서울성곽 안에 들어와 전옥서(典獄署)를 부수고, 도망갈 때도 이 오간수문을 통해 달아났었다.

이 다리는 1907년 일제가 청계천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한다는 이유로 오간수문을 헐어



1900년경의 한양도성의 오간수문

버릴 때 함께 사라지고,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되었다가 후에 성곽이 훼손되면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sup>319)</sup>

#### 4) 축한의 관우를 모신 성제묘

임진왜란 이후 방산동 4번지에는 조선시대 화약을 제조하던 염초청(焰硝廳)이 설치되고, 그 안에는 군인들이 받들던 축한의 장수 관우(關帝)를 제사지낸 성제청(聖帝廳)이 있었다. 일제침략기 이후로 성제묘(聖帝廟)로 불리다가 민간인의 사당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성제묘로 지정되어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 성제묘는 낮은 월대(月臺 : 섬돌) 위에 세워져 있다. 전면에는 네 짝 분합문이 닫혀 있고, 그 안 맞은편 뒷벽에 자그마한 보개(寶蓋)가 설치된 감실(龕室) 속에 관우의 부부상(夫婦像)이 있다.

전면 분합문 위에는 ‘현성전(顯聖殿)’이라 쓴 액자가 걸려 있다. 임진왜란 이후로 서울에는 남묘·동묘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었으나 민간에서 모시던 중묘·북묘·서묘 등이 있어 관왕묘(關王廟)라고 일컬었다.<sup>320)</sup> 그 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임오군란·

갑신정변·청일전쟁 등 어수선한 정국이 반복되면서 1902년 이후로 관왕묘의 격을 올려서 현성묘 또는 성제묘라고 하였다.

중구 방산동 4-96번지 일대 염초청 내에 세운 ‘현성묘(顯聖廟)’는 조선시대 민속 신앙 및 의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996년 11월 29일에는 방산종합시장 상인 대표들이 성제묘에서 시장의 번영과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며 잔을 올렸다.<sup>321)</sup>



방산동에 위치한 성제묘

## 5) 준천 토사로 만들어졌던 가산 터

조선시대에 청계천을 준설(浚渫)할 때에 나오는 토사(土砂)를 중구 을지로6가 18-214 일대에 모아 놓아 산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를 가산(假山)이라고 불렀다. 청계천변의 가산은 영조 36년(1760) 경진년 때 57일간 연 5만 명을 동원하여 조성된 것이 규모도 크고, 그 수효도 여러 개가 되어 주민들이 가산 또는 조산(造山)이라 불렀다.

가산은 인위적으로 산의 모습을 만들어 정원의 일부를 구성한 조원술(造園術), 조산(造山)이라고도 불렀다. 조산은 궁궐이나 서울성곽 안에 큰 연못이나 하천을 조성할 때 파낸 흙을 처리하기 위하여 쌓은 산이지만, 땅의 기운이 허한 곳에 지기(地氣)를 보태려고 쌓은 산을 가산이라고 칭했다.

조원 수법으로서 가산을 만든 의도는 대자연을 주거환경 안에 편입시켜 소우주(小宇宙)로 만들려는 데에 있었다. 가산을 조원 수법으로 이용한 것은 일찍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대개는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이때 나온 흙으로 산을 만들고 여기에서 짐승을 기르거나 화초를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가산을 만든 경우는 조선 초 태조 7년(1398)에 종묘 앞쪽의 지세가 허(虛)하다고 하여서 흙으로 산을 쌓은 예가 있다. 또 큰 연못이나 하천을 파낼 때 나오는 흙을 처리하기 위해 가산을 만든 경우로, 청계천을 파낼 때 파낸 흙을 수구문(水口門) 근처 성벽 안쪽에 쌓아 만든 예가 있는데, 그 위치는 당시의 훈련원 북쪽이었다.

영조 36년 4월, 청계천 준천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봉조하(奉朝賀) 유척기(兪拓基)가 준설로 생긴 토사를 지금과 같이 개천의 양안(兩岸)에 방치해 두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것이 무너져 천거(川渠)와 도로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모처럼 실시한 역사(役事)도 헛되이 되어 버리므로 거액을 들여서라도 이 토사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 지적에 대하여 영조가 토사를 옮길 수 없었으므로 이 흙을 오간수문 근처에 두 군데로 집중시키도록 함으로써 가산처럼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가산은 특별히 축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자 풍우(風雨)로 토사가 흘러내려 허물어지면서 낮아졌을 것이며, 그 다음 준천 때 다시 그 곳에 토사를 모아 종전보다 더 큰 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청계천의 준천공사를 그린 〈준천시사열무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조산을 나지(裸地)로 두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나무와 화초를 심게 되었다. 1914년 일제가 경성부의 행정구역명을 새로 정할 때 속칭 조산동(造山洞)이라고 불려오던 이 곳 가산에 심어놓은 꽃향기가 좋아서 이곳을 방산동(芳山洞)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동대문종합상가 부근의 북쪽 조산은 광무 2년(1898)에 전차 차고를 세우면서 대부분 헐렸으며,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국립의료원을 거쳐 방산동 일대에 남안(南岸)의 조산은 1918년경에 현 국립중앙의료원 자리에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를 짓고, 1921년 그 서편에 경성사범학교를 세울 때에 모두 파서 그 흙은 종로의 도로 개수에 썼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구걸로 연명해야 하는 수백 명의 걸인들의 근거지는 주로 청계천 다리 밑과 청계천 준천 이후 생긴 가산(假山)의 토굴이었다. 포도청에서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두목인 ‘꼭지판’(𪛗𪛗)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정월 대보름 때 서울 장안 소년들이 연날리기 대회를 열었다.

## 6) 조선 역대 어진을 모셨던 영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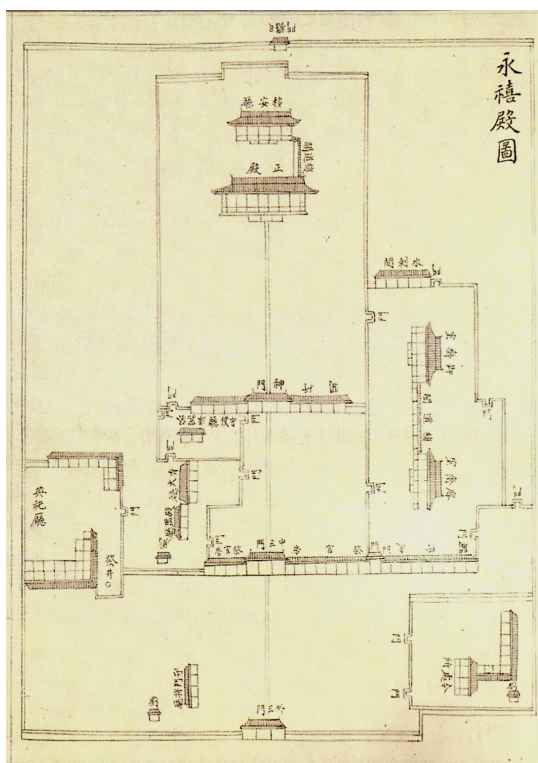
저동2가62번지(중부경찰서·영락 교회·영락 병원 자리)에는 조선시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 등 6명의 군왕의 어진(御眞：임금의 초상화)을 모셨던 영희전(永禧殿)이 있어서 국왕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거둥 행렬이 잦았다.

영희전은 본래 세조의 맏딸인 의숙공주의 저택이었는데 중종 원년(1506)에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가 순위(遜位)하고 난 후 이곳에 거처하였다. 광해군 2년(1610)에는 왕의 생모인 공빈김씨(恭嬪金氏)의 영정과 신위를 모시고 봉자전(奉慈殿)이라고 했다가 광해군 11년(1619)에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이곳에 봉안하고, 남별전(南別殿)이라 하였다.

숙종 16년(1609) 국왕이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 전국에 여섯 군데로 모두 전호(殿號)가 있는데 서울에 봉안한 곳만 전호가 없다”고 하여 영희전으로 이름하도록 하였다. 그 후 영조 24년(1748)에 숙종의 영정을, 정조 때는 영조의 영정을, 철종 때는 순조의 영정을 함께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 국왕의 어진이 늘어날 때마다 영희전의 건물을 중수했다고 전하며, 국왕들은 매년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다.<sup>322)</sup>

조선 말 광무 4년(1900)에 영희전의 영정은 경모궁(景慕宮, 창경궁 동쪽 함춘원 터)에 새로 지은 영희전으로 옮겼다가 다시 융희 2년(1909)에 선원전(璿源殿)으로 이안(移安)하였다. 영희전 터에는 의소묘(懿昭廟)와 문희묘(文禧廟)를 이관하였으나 융희 2년 7월에 칙령에 의해 신위를 땅에 묻고, 궁묘는 국유로 이속한 다음 그 이듬해 3월에 사당도 철해되었다.<sup>323)</sup>



영희전 영건도감의궤 중 영희전도



## 7) 한옥마을로 옮겨진 삼각동 이승업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서울민속자료 제20호)은 중구 삼각동 36-2번지에 있었는데, 1996년에 서울시에서 남산골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옮겨져 복원되었다.

이 가옥은 신한은행(조흥은행)에서 사료관(史料館)으로 일시 사용하였던 조흥은행관리가였다. 이 집은 1983년에 조흥은행 창립 86주년 기념일을 맞아 ‘흥사실(興史室)’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가 1988년 4월 전산본부 2층으로 사료실을 옮겨갈 때까지 사용하였다.

이 한옥은 1998년에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하여 복원하면서 ‘도편수 이승업 가옥’이라고 명칭을 바뀌었다. 이후 2009년 2월 5일에 다시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으로 바뀌었다. 이 가옥은 조선 말 중인계층 주택의 시대적 특징을 읽을 수 있으므로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건평 25.3평, 대지 167.3평의 이 가옥은 남향한 ‘ㄱ’자집으로 경기도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곶은자집 형태이다.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5칸인데 간살이는 중앙에 좌우로 긴 2칸 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서쪽 2칸에 안방을 배치하였다.

현재 이 집은 안채·사랑채·사주 문만 한옥마을로 이건 되어 있지만, 본래 문간채·앞뒤 행랑채·사랑채·안채·사랑뒤채 등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가옥이었다고 한다. 도목수의 주택답게 장식적이고 정교한 부재들로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삼각동에 있을 당시의 배치를 보면, 대지 서측으로 골목길에 면하여 줄 행랑채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고, 그 남단에 대문간이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동서방향으로 긴 행랑마당이 된다. 행랑마당의 남쪽에는 정면 4칸, 측면 1칸 크기의 문간채가 자리 잡았다. 북쪽으로는 중문간 행랑채의 뒷벽이 행랑마당에 면하여 있고, 안마당으로 드나드는 중문이 나 있다. 행랑마당의 동쪽으로는 사랑마당으로 드나드는 중문간이 있고, 사랑마당 남쪽에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광채가 자리 잡았고, 그 동쪽에는 외측간 1칸이 있다. 사랑마당 북쪽에는 ‘ㄴ’자형 평면의 사랑채가 남향하여 자리 잡았다.

안채의 실(室) 배치 방식은 경기도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ㄱ자의 ‘곶은자집’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안방 동쪽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대청이 있고, 그 동쪽에 정면 1칸의 건넌방이 있는데, 앞뒤로 나뉘어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몸채와 직교하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며 안방에서 북쪽으로 꺾여 나가 뒷방이 있고, 남쪽으로 꺾여 부엌이 있다.

대청은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이며, 전퇴의 들창문은 들쇠가 있어서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도리는 굴도리이고, 몸채 부분은 1고주 5량(一高柱五樑)이고, 날개 부분은 평주 3량에 툇간이 첨가되었다. 전면 처마는 겹처마이고, 후면은 홑처마이며, 몸채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날개 채는 맞배지붕이다.

안채 서쪽으로는 줄행랑 채가 남북으로 길게 서 있는데, 나뭇광·내측·김치광·젓갈광·숯광·마루광·쌀광 등으로 구성되었다. 안채 북쪽으로는 장독대가 있고, 그 북쪽에도 아궁이부엌·방·마루 등으로 구성된 행랑채가 서쪽의 행랑채와 ‘ㄱ’자로 꺾어져 자리 잡고 있다.

옛 사진에 의하면, 안채는 장대석 두벌대 기단, 네모뿔대 주춧돌, 사각기둥으로 지은 1고주 5량(一高柱五樑) 가구(架構)의 굴도리 겹처마 팔작집이며, 사랑채는 납도리 홑처마

팔작집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무늬로 장식된 담이 있고 홍예문이 나 있다.

이 가옥은 3량 구조에 뒤로 뒷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몸채에서 앞으로 나온 부엌 부분의 지붕면이 용마루를 중심으로 대칭을 형성하지 않고, 앞면의 지붕면이 뒷면보다 짧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이 집의 형태는 중구 다동과 무교동에 있던 중인주택과 유사한데, 구조로 보거나 구전에 의하면 300여 년 전의 건축이라고 하지만 1고주 5량 가구나 박공판의 새김 등 여러 요소들을 미루어 볼 때 1800년대의 사대부집으로 추측된다.<sup>324)</sup>

## 8) 장교동에서 국민대학으로 이전한 한규설 대감가

장교동 63-1번지에는 1977년에 지방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된 한규설 대감가(韓圭高大監家)가 있었다. 원래 박준혁(朴俊赫)의 소유였는데 1890년 무렵에 한성부판윤, 1905년 의정부 참정대신을 지낸 한규설이 살았다. 이 집은 장교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으로 철거하게 되자 국민대학교에서 이를 매입, 1980년 12월 20일에 대학교 구내 1,359평 대지 위에 이건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보완해서 현재 학생들의 생활관인 명원민속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규설 대감가는 개량식 한옥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따라 지은 절충식 집으로 서양식 난방법을 사용하였다. 건평 61.58평, 대지 412평에 달하는 이 집은 189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교동에 있을 때에는 솥을대문, 사랑채, 안채, 사당, 광채가 넓은 대지 위에 있었다. 현 위치로 옮겨 오면서 없어졌던 솥을대문, 좌우 행랑채를 복원하였고, 본래는 있었으나 철거된 중문간(間) 행랑채와 사잇담도 복원하였다.

이 집은 서울에서 흔히 나타나는 안채의 평면에서는 부엌이 안방의 정면인 남쪽에 붙어 동-서로 면하는 데에 비하여 이 안채는 안방 뒤쪽으로 배치되어 안방이 남쪽으로 배치되게 한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대지 모양에 맞추기 위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화강석 기단과 6각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안채, 사랑채, 뒤채의 마루는 모두 우물마루이며 대부분의 창호(窓戶)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사당(祠堂)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겹처마이며 전면은 굴도리이나



장교동에 있던 한규설 대감가

후면은 납도리이고, 전후면 모두 소로받침을 하고 있다. 안채 서북쪽에는 ‘ㄱ’자형의 평면을 가진 또 다른 별채가 있다. 이 별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된 서울의 ‘ㄱ’자형 평면에 광채가 연속된 것이다.

## 9) 청계천의 수위를 재던 수표와 수표교

수표동의 동명이 유래된 수표(水標)는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20번지에 놓였던 수표교 서쪽 청계천 바닥에 세워져 있었으나 1959년에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수표교와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1973년 10월에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청량리동 산 1-157)으로 이전하여 보존하고 있다.

청계천의 수위계(水位計)였던 수표는 홍수 때 물이 불어나는 상태를 수표석 눈금을 보고 측정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호조(戶曹)를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성판윤에게





보물로 지정된 수표

알려 서울 홍수에 대비하는 중요한 관측기구였다.<sup>325)</sup> 원래 수표는 세종 23년(1441) 나무로 만들었으나<sup>326)</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성종 때에 돌로 세웠다. 보물 제83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수표는 높이 3m, 폭 20cm의 부정 6면의 유선형 화강 석 돌기둥이다.

수표교는 조선 초 세종 때 마전교(馬廐橋)로 칭하다가 수표가 세워진 뒤에 명칭이 바뀌었다. 길이 27.5m, 폭 7.5m, 높이 4m의 이 다리는 조선 초에 가설된 것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청계천

에 놓인 다리 중에서 수표교는 조각 솜씨가 정교하므로 1959년에 청계천 복개 때 다른 다리는 묻히거나 철거해 버렸으나 이 다리만은 장충단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수표교 다리 기둥에는 청계천 준설의 기준이 되는 ‘경진지평(庚辰地平)’의 너자를 새겨 놓았고, 개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준천사(濬川司) 관아를 설치하였다.<sup>327)</sup>

수표교에 얹힌 풍속으로 정월 대보름날 서울 사람들이 밤을 새워 즐기던 답교놀이가 있었고, 정월 대보름 전 2~3일은 이 수표교를 중심으로 청계천 아래 위에서 연날리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연을 바람부는 방향으로 날리면서 ‘고고매(苦苦妹)’라고 불렀다. 고고매는 몽고말로 봉황이라는 뜻이다.<sup>328)</sup>

이 다리는 저동2가에 조선시대 6명의 국왕의 어진(御眞)을 모셨던 영희전(永禧殿)이 위치하였으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국왕의 거동행렬이 잦았다.

## 9장 을지로에 위치했던 주요 건물

### 1) 가장 오래된 은행, 한성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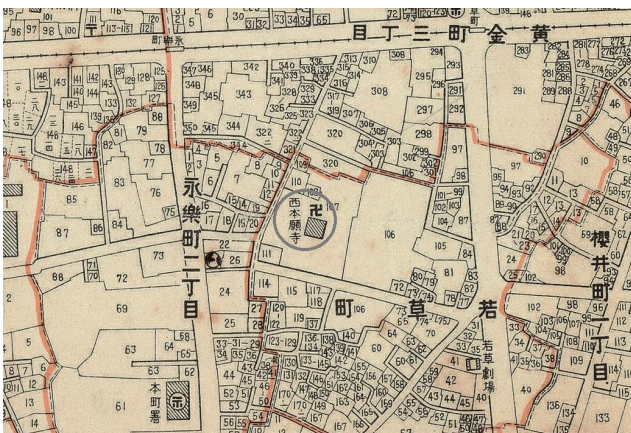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순수 국내 민간자본으로 세워진 상업은행으로는 한성은행이 효시로 평가 받는다. 한성은행은 현 안국병원 자리에 김종한(金宗漢)과 이보응(李普應) 등 거물급 재계 인사들이 자본금 20만 원으로 광무 1년(1897) 2월에 설립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전개되자, 한성은행은 한국인들의 맹렬한 배척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은행장은 이완용(李完用)의 형인 이윤용(李允用)이었으며, 전무는 이완용의 조카인 한상룡이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들이 거의 친일파였기 때문이었다. 3·1운동 이후 예금을 일시에 모두 인출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불어 닥친 1920년대의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이이치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의 구제자금을 융자받았다. 1922년부터는 일본인들의 경영 참여가 허용되었고, 그 뒤 이들이 전무·은행장을 독차지하였다.

1907년에 자본금을 30만 원으로 증자하였으며, 그동안 합자회사이던 경영이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1918년 사세가 더욱 확장되어 일본에 도쿄[東京] 지점이, 1922년 오사카



최초의 민간 상업은행이었던 한성은행



초동에 있었던 서본원사

[大阪] 지점을 각각 설치함에 따라 일본의 주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의 도쿄 대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1928년에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후 일제의 민족계은행 통합 정책에 의해, 1941년 경상합동은행(慶尙合同銀行)을 흡수·합병하였고, 1943년에는 동일은행(東一銀行)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을 설립하였다.

조흥은행은 1999년 4월,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을 합병하였으며, 2006년 4월 1일 옛 신한은행과 통합하여 (주)신한은행으로 재출범하였다.<sup>329)</sup>

## 2) 일제 때 지은 서본원사

초동의 니시혼간지(西本願寺)는 장충동의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에 대비해서 지은 일본 교토시의 정토진중 혼간지과의 사찰이다. 이 사찰은 광복 후 1947년에 초동 영어강습소 자리로 변했다.<sup>330)</sup> 1965년 당시 동국대 기숙사로 쓰였던 서본원사를 헐고 새 건물을 짓던 중 일본군 유골 4,000여 구가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유골은 화계사 명부전에 안치됐고, 반년 후 한일국교 정상화(1965년)가 이뤄져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유골을 인수해 갔다.<sup>331)</sup> 서본원사 자리에는 현재 쌍용그룹 건물이 세워졌다.



### 3) 회합 장소로 인기 있던 요리점, 아서원

1920년대 초에 문을 연 을지로1가 181번지의 중화요리점 아서원(雅叙園)은 일제 때 중국인 서홍주(徐鴻洲)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서씨가 1944년 7월 고향인 산둥성으로 귀국하자 그의 딸 서배계가 1969년 2월 신춘호(辛春浩)에게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자 아서원 측에서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하였다. 1970년 7월 2일, 시가 1억 원짜리 중화요리점 아서원의 소유권 문제는 법정투쟁 끝에 재판부는 3층 벽돌 건물(369평)을 원고 신춘호에 명도하라고 판결하였다.<sup>332)</sup> 아서원은 1973년 반도호텔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롯데호텔 건립 때 헐려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일제 침략기 경성부의 아서원, 금곡원, 대관원, 사해루 같은 중국 요릿집은 부유한 일본인과 조선인만이 드나들 수 있던 최고급 식당이었다. 당시에는 중국요리라고 부르기 보다는 청요리(淸料理)라고 불렀는데, 이 요리는 중국의 전통에 따라 집에서 불러 먹을 수 있었다. 일제 침략기에 중요한 역사적 모임은 대개 중화요리점에서 열렸는데,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비밀리에 열린 곳도 중화요리점 아서원이었다.

아서원은 1950년대에는 UN군과 미군이, 1960~70년대에는 경영인들이 모임 장소로 이용했다. 또한 1950~60년대까지 정치인들은 중국 요릿집에서 밀실정치를 하곤 했다. 중화요리점을 선호한 이유는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보안유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코스별로 요리가 한 가지씩 나오는 중국 요릿집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 적당했고, 식사 장소는 독립된 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갈 위험이 적었다. 이때 유명했던 중화요리점 중의 하나가 서울의 아서원이다.<sup>333)</sup>

### 4) 경성전기주식회사 본사

경성전기주식회사는 을지로2가 199번지에 위치하였다. 이 회사의 전신은 1898년 1월에 세워진 한성전기회사로 1899년 4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개통하여 운행하였고, 1900년 4월 국내 최초로 종로에 가로등을 점등하였다. 1904년에는 콜블란과의 합작회사인 한미전기 체제로 전환했다. 일제 때인 1915년 9월, 경성전기로 상호를 변경하였



경성전기주식회사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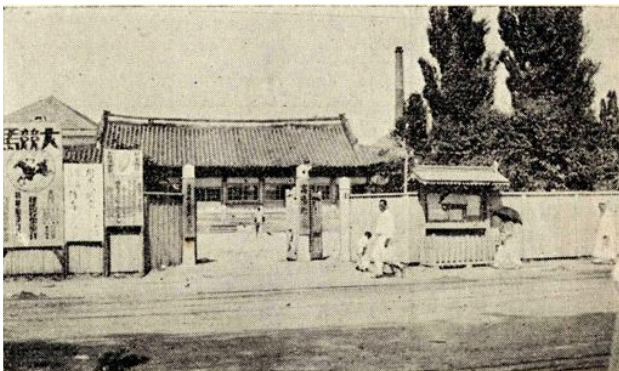
고, 1935년 11월 조선송전주식회사가 평양 송전간선을 완성했다. 1943년 8월 조선전업(주)을 설립하고, 1944년 3월 수풍수력발전소(60만kW)를 준공하였다.

이 회사는 광복 이후 1961년 7월 한국전력주식회사(현 한국전력공사)에 흡수 통합되었다.<sup>334)</sup>

## 5) 을지로6가에 있던 고양군청

조선 말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제도가 자주 변화하면서 고양군의 소속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일제침략기인 1914년에 고양군은 12개 면 155개 리로 구성되었고, 고양군청은 지금의 충정로1가로 이전하였다. 1936년에 용강면, 연희면, 한지면이 한성부로 편입되자, 고양군청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쪽, 지금의 을지로6가로 옮겼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서울시 행정구역 팽창에 따라 일부 면이 편입되어 고양군은 6개 면만 관할하게 되었고, 1961년 8월 군청을 서울시에서 원당면으로 옮겨 갔다. 1970년대 말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 1989년 4월에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



옛 고양군청 전경

서 옛 일산읍 일산리, 마두리, 장항리, 백석리, 주엽리 일대 560만 평의 일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어 중산, 탄현, 성사, 화정, 능곡, 행신지구의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마침내 1992년 2월, 고양시로 승격, 오늘에 이르렀다.

## 6) 한국 체육의 중심,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은 현재 을지로7가 281번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자리에 위치하였다. 경성운동장으로 불렸던 이 체육 시설은 광복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야구장은 1925년에 개장되어 주로 동대문야구장으로 불렸으며, 1959년 8월 재개장되었다. 2007년 11월에 이곳에서 마지막 야구경기를 끝냈고, 동대문수영장은 1938년에 개장되었으나 1993년에 폐쇄되었다.

흔히 ‘성동원두(城東原頭)’라고 표현되는 동대문운동장은 운동 경기와 함께 1946년 1월 3일 신탁통치반대 시민대회 등의 집회 장소로 되어 현대사의 큰 행사들이 열렸던 곳이다. 1956년 10월 2일부터 기공하여 1958년에 개축한 서울운동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운동장 설계는 별로 이렇다 할 특징이나 특색은 없어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다. 이 운동장은 1956년에 시립운동장의 설치로 서울운동장 제2운동장이 되었으나 1984년 서울종합운동장(현 잠실종합운동장)의 개장으로 1985년 1월부터 서울운동장은 동대문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sup>335)</sup>

서울시는 팽창하는 도시 인구에 부응하기 위해 육상경기장을 1962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수해 24계단의 스탠드를 완공, 3만 5천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바꾸었다.

그 뒤 1966년에 야구장, 1968년에는 육상경기장에 조명시설을 가설하여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야간 경기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1958년에는 타탄 트랙까지 마련, 육상 기록 향상은 물론 국제경기 유치에 부끄럼이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았다.<sup>336)</sup>

동대문운동장은 축구장과 야구장을 비롯한 모든 체육 시설을 통칭하는 용어였지만 축구장을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은 동대문야구장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였다.

동대문운동장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으로 수많은 A매치가 열려 한때 한국 축구의 성지(聖地)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와 1988년 하계 올림픽 당시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의 8강전을 비롯한 국제축구대회도 개최되었다.<sup>337)</sup>

서울시는 2007년 12월 18일, 동대문야구장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2008년 5월 14일 ‘국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육상경기대회(일제침략기)

바이 동대문운동장' 행사를 진행하고,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의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을 감안해 흔적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주경기장 동쪽 관중석 뒤편에 있던 조명탑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또한 주경기장의 성화대도 철거 과정에서 떼어 낸 뒤 공원 내부에 전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12월에 동대문운동장과 야구장을 철거한 터에 2009년 10월 27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개장행사를 갖고 공원의 일부를 시민들에 개방하였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구간은 공사를 완료한 서울성곽 동측 공원 지역(1만 9,597㎡)이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과거의 건축물과 유적, 현대의 복합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시설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공원 지역(3만 7,398㎡)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과 야구장 자리에 2009년 4월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착공하여 5년 만인 2014년 3월 21일에 시민들에게 개관하였다.

## 7) 소공동 국립중앙도서관

1945년 9월, 소공동의 조선총독부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1963년 10

월 28일 「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바뀌었다. 1967년 장서와 이용자의 증가로, 일제 때 서고로 사용하던 아현동 건물을 아현 분관으로 발족시키고, 1974년 12월에는 50여 년간 사용하여 오던 소공동의 도서관 건물을 남산어린이회관 자리로 이관하였다. 1988년 5월, 서초구 반포동 산60-1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그러자 롯데가 비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을 헐어내고, 1975년 5월 1일 롯데쇼핑을 착공했다. 이어서 인접한 산업은행 건물도 헐고, 1988년 1월 28일 롯데쇼핑 신관을 개점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8) 내무부·치안국의 을지로 시대

현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內務部)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선거·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의 감독·치안·소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기관으로 을지로2가 195번지의 조선시대 장악원 자리이자 일제 때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 자리에 20년간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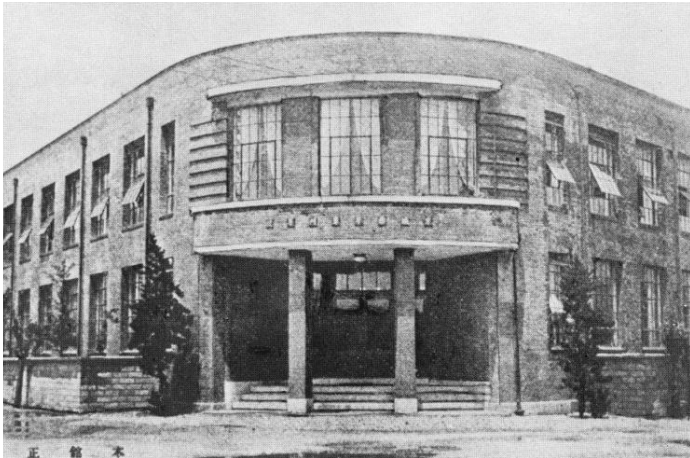
광복 후에 동양척식회사 건물은 신한공사(新韓公司)가 들어 있다가, 1949년 6월 30일 까지 국방부,<sup>338)</sup> 잠시 육군본부가 사용하였고,<sup>339)</sup> 1950년 9·28 서울수복 후에는 내무부·치안국(治安局)이 입주하여 자유당의 부정선거 음모 본거지로 쓰였다.

이 건물은 1967년 4월 한국외환은행에 7억 4,536만원에 계약하였다. 이어서 1970년 12월 내무부가 정부종합청사로 이사함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이 이를 완전히 인수, 본점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두 은행을 통합하고, 통합법인으로 KEB하나은행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국책은행으로 출발했던 한국외환은행은 시중은행을 거쳐 하나은행과 통합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9) 을지로6가에 있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음악대학

을지로6가 18-14번지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음악대학이 자리했으나 1976년 관악



을지로6가에 위치했던 경성 약학전문학교

캠퍼스로 이전하고, 현재 중구 구민회관이 세워져 있다.

서울대 약학대학은 1915년 우리나라 최초로 약사(藥師) 양성을 위하여 을지로6가에 조선 약학 강습소를 설립, 1919년에 조선 약학교로 개칭하고, 1930년에 경성 약학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34년 11월 12일, 경성 약학전문학교는 1·2학년 190여 명이 중심이 되어 학생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시 시험 철회와 교장 배척을 내세우며 동맹휴학을 결정하였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1, 2학년 학생 전체가 연맹 퇴학원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sup>340)</sup>

경성 약학전문학교는 광복 후에 사립 서울 약학대학으로 개편되었다가 1950년 9월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바뀌었다. 1959년 8월에는 서울대 음악대학 교사와 교환 이전하여, 1960년 6월에 종로구 연건동의 약학교육관에 자리하였다. 1975년 6월에 서울대학교가 신림동으로 이전하자 관악캠퍼스 약학관으로 옮겨 현재에 이른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광복 후 1945년 12월 경성음악학교로 출발,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공포로 10월에 국립서울대학교로 개교할 때 예술대학 음악부로 되었다가 1953년 4월 음악대학이 되었다. 1953년 8월에 동숭동 문리과대학 구내로 이전했다가 1959년 8월, 구 약학대학 자리(을지로6가)로 옮기고, 1976년 3월에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 10) 을지로1가의 산업은행 본점

을지로1가 130번지에 위치하던 산업은행(産業銀行)은 장기적인 산업자금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은행이다. 이 은행은 수신면에서 주된 자금원을 상업은행과는 달리 예금에

서 구하지 않고 금융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하며, 여신면에서 단기적인 운전자금보다 장기적인 설비자금 용자에 치중한다.

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업대출과 정책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산



을지로1가에 위치했던 산업은행 본점

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15년 1월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sup>341)</sup>

한국산업은행 본점은 을지로 롯데쇼핑 자리의 구 조선식산은행 자리에 있었다가 2001년에 현재 여의도공원 앞,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으로 이전하였다. 이 은행의 종로지점은 관철동의 삼일빌딩으로 옮겨 갔다.<sup>342)</sup>

## 11) 을지로의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을지로2가 199번지(현 SK네트웍스)에 위치하였으나 명동1가에 인접하여 흔히 명동의 증권거래소로 불려졌다.

광복 이후인 1946년 1월에 미군정법령 제43조에 의해 조선증권취인소(朝鮮證券取引所)가 폐쇄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증권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증권취인소 상장주식 소지자들은 산발적인 점두매매(店頭賣買)를 행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1월 재무부 면허 제1호로 대한증권주식회사의 설립이 인가되자, 증권거래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서울에서의 증권거래는 잠시였을 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당시의 매매대상 종목은 주로 지가증권(地價證券)과 건국국채에 한정되었다. 지가증권은 1949년 6월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으로 발급된 것이었으며, 건국국채는 적자재정의 보전(補填)과 국민경제



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50년 1월부터 전쟁시의 전비(戰費) 조달과 전후 세입 결함의 보상방법으로 계속 발행되었다.

한편 6·25전쟁의 와중에서 국채를 대상으로 한 증권매매가 성행하게 되자 무면허 증권업자들이 난립하였다. 이들 무면허업자 중 고려증권주식회사가 1952년 8월에 인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53년 9월에 이르기까지 영남증권주식회사·국제증권주식회사·동양증권주식회사가 각각 정식 인가되었으며 이들은 대한증권주식회사와 함께 협회를 구성하는 모태(母胎)가 되기도 하였다.

전세(戰勢)가 호전되어감에 따라 그 동안 피난지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들 증권회사들이 서울에 본점을 두거나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정국의 안정에 힘입어 거래량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적인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시의 5개 면허 증권업자들은 1953년 10월 16일 협회창립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게 되자 1953년 11월 25일 대한증권업협회를 창립하였다.

대한증권업협회는 설립과 동시에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의결하는 한편 거래소 설립이전의 매매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선 협회 회원간의 매매회합을 준비하는 동시에 각 회사별로 증권시세를 발표하였던 것을 1954년 8월 1일부터 협회 회원간의 협정으로 매일 단일시세를 발표하였다. 협회의 결재 후 거래소가 설립되기까지 이 같은 협회 주관 하의 증권거래실적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거래소 개설에 큰 자극이 되었다.

한편 거래소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12월 민의원 김영선(金永善) 외 21인이 증권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안의 불비(不備)로 인해 재검토하여 제출한다는 조건부로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다. 그 후 1955년 3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다시 재무부에 의해 ‘증권거래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법안통과는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정 이전의 조치로서 구 조선증권 취임소령에 의거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여 1956년 2월 11일 대한증권거래소의 설립하고, 동년 3월 3일 명동 증권거래소에서 서울증권시장이 개장되기에 이르렀다. 대한증권거래소는 일체침략기 극장 건물이었던 메이지좌(明治座)를 개조하여 1979년 7월까지 사용하였다.

증권거래소의 개소 당시의 상장주식은 12개 사 13종목이었고, 채권은 국채 3종목이었다. 증권거래소 개장과 함께 1호로 주식이 상장된 것은 한국상업은행이었다.<sup>343)</sup> 이 상장

종목은 거래소 설립 이전 증권업 협회에서 매매되고 있던 주식 11 종목에 증권거래소 출자증권과 연증주(聯證株)의 증금주(證金株)가 추가된 것이며, 개소 당시 거래원 수는 47개사로 거래종류는 실물거래와 청산거래의 두 종류였다.

개소 당일의 시세는 조흥은행 570원, 상업은행 220원, 조선공사 37원 등이었다. 한국상업은행주식

은 제1호로 상장된 것이었다. 당시 증권거래소 당시 증권회사로는 부국증권, 한양증권, 신영증권 등이 있었으며, 을지로 증권거래소 시대에 새로 생긴 증권회사로는 유화증권, 국일증권, 삼락증권, 성도증권 등이 있었다. 한편 부국증권은 1974년 개업당시 본점이 을지로2가 199-45번지에 있었는데, 1977년에는 명동2가 20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79년에는 명동2가 31-1번지로 이전하였다.



1979년까지 을지로에 위치했던 증권거래소

한편 증권회사들은 자금력이나 공신력이 미약한데다 당시 청산거래제도를 악용, 증권 시장을 투기장화하여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나타났다. 1958년의 1·16 국채파동과 1959년의 대증권소동이 그 대표적인 예로 1·16 국채파동은 1957년 9월 재무부가 신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18억환에 달하는 제11회 국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된 국채의 발행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책동전으로 번져 일어난 것이며, 대증권소동은 1959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사이에 대한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업자들의 책동전을 말한다.

이와 같은 파동으로 증권시장의 공신력이 매우 약화되었고, 시장기조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이후 정부당국과 증권거래소는 매일의 시장관리는 물론 증시체제의 정비를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근본대책인 증권거래법의 제정은 5·16군사쿠데타 이후로 미루어져 1962년 1월 15일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명동은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각 은행지점과 단자회사·증권회사가

밀집하여 금융거리로 변모하였다. 현재도 명동 메트로호텔이 자리한 부근에는 사채(私債) 시장들의 사무실이 즐비하여 한국의 자본 중심거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1962년 1월 36개였던 증권회사가 1963년에 60개로 늘어나고, 1원 45전짜리 9억 9,000 만주를 증자하자 투자고객은 1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당시 하루 장내(場內) 300명, 장외(場外) 100명의 고객이 모이는 명동의 증권거래소에는 ‘증권파동’이 몇 번 불면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생겨 1,000여 명 투자자들의 고향과 노성(怒聲)이 명동 증권가를 살벌하게 만들었다.<sup>344)</sup>

## 12) 서울시립부녀사업관

서울시립부녀사업관은 현재 을지로 주민센터 자리인 중구 을지로3가 65-21번지에 위치하였던 여성 사회교육 기관이었다. 이 사업관은 1959년 10월 24일에 연건평 270평 3층으로 시공하여 이듬해인 1960년 6월 21일에 준공되었다.

이 사업관은 1975년 3월 6일에 제1기 기술교도생 130여 명의 부녀자들에게 양재, 미용, 타자, 수예 등의 4개 분야의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왔다.<sup>345)</sup>

## 13) 서울의 명물이었던 반도조선아케이드

중구 소공동 87번지, 전일의 반도호텔과 조선폰텔 사이에는 두 호텔에 묶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시설인 반도조선아케이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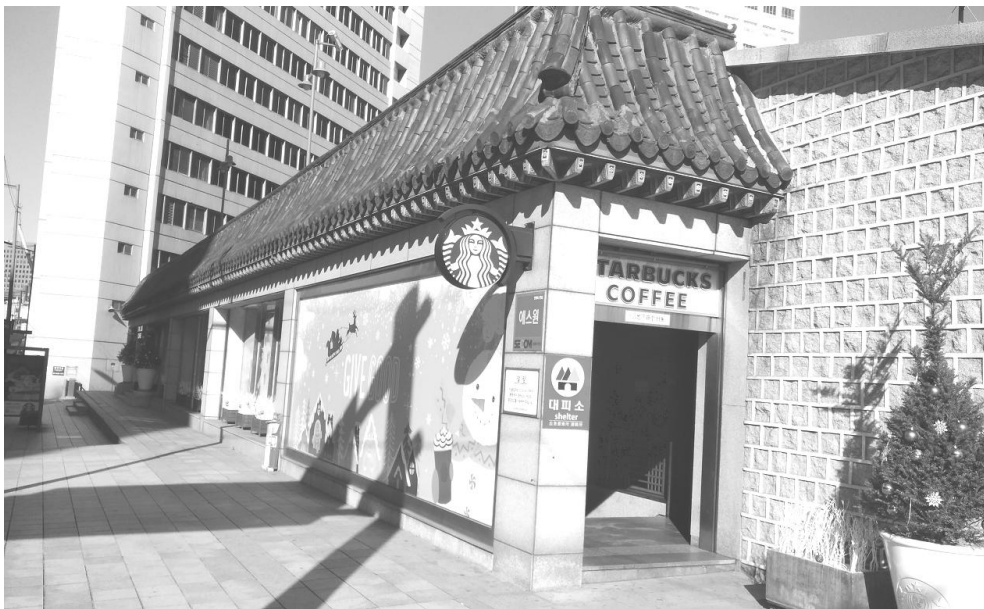
이 아케이드는 1965년 1월 23일, 오재경 관광공사 총재의 구상으로 건설되었다. 2층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2,300여 평의 이 아케이드가 개관될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 윤치영 서울시장의 직접 임석하여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매일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어 서울의 명물이었던 이 아케이드는 4~5년 뒤 세운상가·신세계백화점·미도파백화점들이 새로 단장하여 모습을 바꾸자 고객들의 수가 격감하였다.

이에 김일환 관광공사 총재는 1969년 1, 2층 외에 3, 4층 증축을 계획했다.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는 이 증축 공사는 이해 12월 31일에 완공되어 1970년 2월 26일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 1월 17일 아침 6시 15분경 인근의(소공동 192의 1) 팔레스호텔 신축공사장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한 반도조선아케이드에 옮겨 붙으면서 연건평 3,280평의 점포 220개와 진열상품을 모두 태워 약 15억원(상인측 주장 / 경찰 4억원)의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차의 진화가 늦은데다가 부근의 소화전(消火栓)이 얼어붙어 소화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이날 화재를 삼환기업에서 공사 중인 팔레스호텔 신축공사장의 목조 2층 현장 사무소 아래층에서 석유난로를 피우고, 닭털 침낭 속에서 잠자던 인부 인우균(19·가명)이 잠결에 석유난로를 발길로 걷어차 난로가 쓰러지면서 판자벽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신축된 조선히텔이 1970년 3월 17일 개관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4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었다. 이에 아케이드의 화재 피해 보상과 긴급복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되어 그 해 4월 1일에 일부가 복구되어 개관하였고, 1~4층이 완전히 복구된 것은 이 해 7월 21일이었다.<sup>346)</sup>



반도조선아케이드 입구

#### 14) 폐교된 방산·청계·영희초등학교



전일의 방산초등학교 앞 풍경

중구 방산동 4-96번지 일대의 성제묘(聖帝廟) 부근에는 방산(芳山)국민학교가 있었으나 1970년 2월에 폐교되었다. 1992년 송파구 방이동 220번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방산초등학교라고 교명을 제정하여 그 이름을 계승하게 되었다.

1895년 9월 10일에 개교한 청계(淸溪)국민학교는 중구 수하동 66번지(현 동국제강 본사)에 위치하였으나 1965

년 2월 도심 개발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다. 1991년 노원구 중계3동 513-1에 교명을 계승하여 청계초등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10년 9월 25일, 중구 인현동2가3번지에서 경성 앵정소학교가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46년 10월, 영희전(永禧殿)의 이름을 따서 영희국민학교로 개명하였으나 1989년 2월에 충무국민학교, 남산국민학교에 학생들을 인계하고, 1989년 5월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7번지로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sup>347)</sup>

#### 15) 을지로5가에 있던 헌법재판소

현재 훈련원공원 및 주차장(중구 을지로5가 40번지 3호)에는 일제 때인 1921년 4월, 경성사범학교가 개교하였고, 광복 후 1946년에 경성사범대학이 위치하다가 국립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었다. 그 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와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가 위치하다가 이전하고, 1975년 농업협동조합이 입주하였다. 이어 1988년 12월, 이곳에 헌법재판소가 입주하였다. 그 뒤 헌법재판소는 1993년 6월 11일에 옛 창덕여자고등학교 자리인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하였다.<sup>348)</sup>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법원과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sup>349)</sup>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 헌법재판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의결한 탄핵을 기각하였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崔順實: 개명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심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이전한 뒤에는 건물이 헐려 1993~94년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서울시가 1993년 3월 11일에 총면적 1만 6,732㎡인 이 터를 대규모 ‘주차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해 6월 민자 유치로 쌍용건설(주)을 선정, 이듬해 8월부터 훈련원공원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여, 1997년 4월에 준공하고, 이 해 5월 31일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완료한 뒤 6월 30일에 운영을 시작하였다.<sup>350)</sup>

## 16) 서울 중구청

중구(中區)라는 명칭은 일제침략기 때 정해진 것으로, 조선인들이 북촌(北村, 현재의 종로구), 일본인들이 남촌(南村)에 많이 모여 거주하였으므로 남촌 일대가 경성부의 중심이라 하여 중구라고 명명되었다.

1943년 4월 1일 구(區)제도 실시를 전제로 경성부 전역에 7개 사무소가 설치될 때 중구 지역에는 중앙사무소가 설치되었고, 동년 6월 10일에 구제도가 실시되어 경성부 직할



을지로2가에 위치했던 서울 중구청(1960년경)

구역소로 중구역소(中區役所)가 경성부청 내(태평동 1정목 31번지)에 설치되었다.<sup>351)</sup>

광복 후 1946년 9월 28일, 서울시는 서울시 헌장에 의해 경기도를 벗어나 도(道)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어 서울 중구(中區)로 승격되었으며, 이때부터 종전까지 구역소(區役所)로 불리던 것을 구청(區廳)으로 바꾸고, 구장(區長)이라

고 부르던 것을 구청장(區廳長)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종로구·중구·마포구·서대문구·동대문구·용산구·영등포구의 8개 구로 구획하게 되었다.

서울 중구청 청사는 경성부청 자리에서 을지로2가로 옮겨졌다가 1965년 10월 26일, 현재 예관동 120-1번지,<sup>352)</sup> 전일의 화원시장 터로 이전하여 자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구의 행정 구역은 15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9.97km<sup>2</sup>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좁다. 서울 중구의 인구는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12만 6,257명, 5만 9,452세대이다.

## 17) 을지로의 극장들

### (1) 국도극장

국도극장(國都劇場)은 일제 때 1913년에 황금관, 1936년에 황금좌(黃金座 : 다까라즈 座)가 자리한 을지로4가 164번지(현 국도호텔)에 있었다. 이 극장은 한때 성보극장(城寶劇場)으로 불렸는데 광복 전 화재로 인해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내부시설을 개수, 1946년 5월 상순부터 국도극장으로 이름을 고쳐 재개관하였다.<sup>353)</sup>

국도극장에서는 1947년 「민족의 새벽」과 「그들의 행복」, 1948년 「밤의 태양」, 1949년





1980년경의 국도극장

「전우」 등의 방화(邦畵)를 상영했으며, 연극으로는 1948년 「미륵왕자」와 「사명당」 1949년 「이차돈」과 「김삿갓」을 공연하였다.

1948년 4월 7일 오후 2시경 국도극장에서 공연 중인 강남악극단 무대에서 연극에 사용하던 화약이 폭발한 것이 무대 막에 인화되어 관중들이 한 때 큰 소란을 일으켰으나 임검(臨檢) 소방관의 활동으로 다행히 진화되었다.<sup>354)</sup>

국도극장은 6·25전쟁 후 1953년 9월까지 유엔군 장병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에 종업원 50여 명은 3년간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암영을 던져주고 있음으로 이 극장을 반환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1953년 9월에 미8군 및 서울시장, 공보처 당국에 제출하였다.<sup>355)</sup> 그 뒤 국도극장은 미군으로부터 명도를 받아 신장 수리를 마친 뒤 1954년 5월 14일에 개관식에 이어, 그 이튿날인 15일부터 개관하게 되었다.<sup>356)</sup>

이 극장은 이규환 감독이 제작한 「춘향전」 영화를 1955년 1월 6일에 개봉하여 12만 명(일부 집계는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당시 서울 인구가 150만 명이었으니 「춘향전」

의 인기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멜로 영화의 한 시대를 풍미할 이민과 음전한 인상의 조미령이 이몽룡과 성춘향 역을 맡았다.

영화 「춘향전」의 대흥행으로 을지로4가 극장주변은 입장객으로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자 자연히 주변의 상점들도 영화 흥행과 함께 매상고를 올렸다. 이어서 1956년 엄앵란의 첫 출연작 「단종애사」가 사극영화로 또 다시 흥행에 성공하자 국도극장의 인기는 더욱 드높아졌다.

당시 명동 골목에 영화사를 차렸던 영화인들은 자연히 국도극장과 수도극장 언저리에서 영화인들과 교류하였고, 심지어는 즉석에서 영화제작 기획이 이루어졌다. 일제침략기에 영화제작사로 사용하던 이곳의 일본식 가옥이 영화 제작 업무에 적격이어서 영화사가 자연히 충무로3가와 초동2가 일대로 입성하는 계기가 되었다.<sup>357)</sup> 1957년경부터 충무로3가와 초동2가 일대에 15~16개의 영화제작사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의 할리우드’로 불렸다.

국도극장은 1957년 10월 5일에 부채와 세금 체납 등으로 휴관하였다가 6일 뒤인 10월 11일에 개관하였다. 이 극장은 1968년 7월 19일 정소영(鄭素影)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가 상영되면서 장안의 여심을 송두리째 휘잡아 관객 37만 명 동원이라는 방화(邦畵) 사상 공전의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제2편도 관객 27만 명을 동원하는 실적을 보였고, 1970년 1월에 제3편이 나와 부진한 영화계를 완전히 제압하였다.<sup>358)</sup> 1973년에는 제5편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가 상영되었다.

1975년 8월 21일부터 6일 동안 국도극장에서 열렸던 제 2회 하춘화(河春花) 리사이틀은 섭씨 34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23만여 명의 관객이 동원되어 공연이 크게 성공하였다.<sup>359)</sup>

국도극장은 시공관과 같이 여성 국악단의 임춘앵(林春鶯), ‘햇님’의 김경애(金敬愛)가 출연하는 여성국극(女性國劇) 공연장이기도 했다.

1985년 7월 20일 오후 4시 50분경, 국도극장 앞에서 고려대 민생민주화 탄압저지대책위원장 주봉환(朱鳳煥 : 22 · 정외과 4년) 등 학생 30여 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중부경찰서 을지로3가 파출소에 몰려가 돌을 던져 유리창 7장을 깨고 달아났다.<sup>360)</sup>

53년간 존속하였던 국도극장은 1999년에 헐리고 국도호텔로 바뀌었다.



폐관 직전의 중앙시네마(2009년경)와 1980년대의 스카라극장

## (2) 스카라극장

와카쿠사(약초, 若草) 영화관은 1935년 초동 41번지에서 개관하였다. 광복 후 수도극장(首都劇場)으로 이름을 바꾼 후 스카라극장으로 변경하였다가 2004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자 건물주가 기습 철거하여 아시아미디어(7층)빌딩을 신축하였다.

1948년에 수도극장은 「사랑의 교실」로 흥행에 성공한 후 1949년 제1회 서울시 문화상 영화 부문에서 수상한 「마음의 고향」과 우리나라 최초의 16mm 컬러 영화인 「여성일기」와 「돌아온 어머니」를 상영하였다. 연극으로는 1947년 「안중근 사기」, 1948년 「은하수」, 1949년 「바보온달」을 무대에 올려 호응을 얻었다.

이 극장은 1956년에 정비석 원작의 「자유부인」 영화 상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성인 관객으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어 부근 다방과 식당들은 공전(空前)의 인파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충무로가 한국의 할리우드로 떠오르게 된 것은 초동의 스카라극장(당시 수도극장), 을지로4가의 국도극장과 인현동의 명보극장, 필동의 대한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계림극장

6·25전쟁 직후 을지로6가 18-21번지에는 악단들의 공연장으로 계림극장(鷄林劇場)이

세워졌다.<sup>361)</sup> 그 후에 영화관으로 운영하다가 헐리고, 2008년 9월 11일에 굿모닝 시티빌딩이 세워졌다. 계림극장 배우 이경희씨는 「한국영화를 말한다」에서 6·25전쟁 전에는 이 극장 자리에 포장을 치고 곡마단이 공연하였다고 기억하였다. 광복 후에는 잠시 동무극장이라고 하다가 바로 계림극장으로 극장 이름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다.

1949년 2월, 계림극장은 건물이 임시 사용허가일 뿐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 불충분으로 서울시경찰국 소방과에서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sup>362)</sup> 가설극장으로 출발한 계림극장은 1955년 8월 15일에 좌석수 798석, 입건석 56, 합계 854석 규모의 극장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sup>363)</sup>

#### (4) 중앙시네마(중앙극장)

중구 저동1가 48번지에 위치하던 중앙시네마가 2010년 5월 31일 폐관했다. 일제 때인 1934년에 개관해 76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시네마는 적자 경영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폐관함에 따라, 철거 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시네마는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극장으로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았던 명동 입구에 있다는 점이 이점이었지만, 멀티플렉스 극장들의 진출로 인해 고전을 겪어왔다. 이후 스폰지 하우스에 임대해 명맥을 이어왔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에는 부족했다.<sup>364)</sup>

#### (5) 명보극장

중구 초동 18-5의 명보극장은 1957년 8월 26일 1,200석 규모로 개관한 한국영화 전용극장이다. 당시에는 외국영화 전용관과 한국영화 전용관이 나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8개 극장 중 명보극장은 국도극장, 국제극장과 더불어 한국영화 전용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70년대부터 외국영화를 같이 상영하게 되었고, 한국영화는 물론 외국영화도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 극장은 1977년 영화배우 신영균에 의해 인수되었으며, 1994년 ‘명보프라자’로 개명하면서 국내 최초 복합상영관으로 개장하였다. 2001년 내부 개보수와 더불어 ‘명보극장’으로 개명하여 상영을 계속하였으나 복합상영관의 대거 출현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08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명보아트홀

년 4월 30일 폐관하였다. 2009년 복합 문화 공간인 ‘명보아트홀’로 재개관하여 실버극장을 만들어 영화 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공연의 장소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을지로에 위치했던 극장(1959년도)

|   | 극 장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좌 석 수 |
|---|-----------|----------------|-------|-------|
| 1 | 시공간       | 중구 명동1가        | 양부근   | 1,082 |
| 2 | 수도극장(스카라) | 중구 초동 41       | 홍 찬   | 1,172 |
| 3 | 국도극장      | 중구 을지로4가       | 백순성   | 1,322 |
| 4 | 중앙극장      | 중구 저동1가 48     | 윤보박   | 1,170 |
| 5 | 명보극장      | 중구 인현동1가       | 지덕영   | 1,498 |
| 6 | 을지극장      | 중구 을지로2가       | 김동준   | 850   |
| 7 | 계림극장      | 중구 을지로6가 18-21 | 독고희선  | 800   |
| 8 | 명동극장      | 중구 명동1가        | 이준구   | 498   |

\* 자료 : 서울중구문화원, 『영화의 메카 충무로』, 2005.

## 후주(後註)

- 1)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篇) 5, 각전조(各廩條).
- 2) 정우봉, 「서울의 도시문화와 서민생활」, 〈서울역사박물관 강좌〉, 2016.
- 3)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16권, 『조선시대 서울의 사회변화』, 2014, 59면.
- 4) 손정목, 「일제하 서울남촌·북촌의 형성과 실태」, 서울향토사학술대회, 1985, 68면.
- 5) 성두경, 『다시 돌아와 본 서울-서울 1951년 겨울』, 1994, 54면.
- 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 6, 『서울의 길』, 2009, 295면.
- 7)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자.
- 8) 중구문화원, 『명동변천사』, 2003, 20면.
- 9) <네이버 카페>, 세계사광의 역사논평, 2013. 08. 11.
- 1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6, 21면.
- 11)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한성부 각동조.
- 12)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권2, 한성부조.
-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3~974면.
- 14) 경성부, 『경성부사』 1권(번역본), 2013, 219면.
-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열녀조.
- 1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1966, 271면./ 서울 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94면.
- 17) 문일평, 『호암전집(湖巖全集)』, 조선의 산수편.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1966, 261~262면.
- 1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1992, 136~137면.
- 19)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각동조(各洞條) 동현.
- 2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12권, 『조선시대 정치와 한양』, 2013, 177면.
- 21) 「동아일보」 1983년 5월 15일자.
- 22)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시전조(市廩條).
- 23) 「경향신문」 1971년 2월 11일자.-서울 새 풍속도(90) 약국의 밀림 [1]
- 24) 「경향신문」 1971년 2월 20일자.-서울 새 풍속도(98) 약국의 밀림 [9]
- 25) 「매일경제」 1973년 3월 1일자. 산업인맥 (18) 제약업 <2> 선구자들(중).
- 26) 박경룡, 『역사문화의 도시, 서울』, 수서원, 2015, 147면.
- 27) 박경룡, 『서울역사이야기』, 수서원, 2003, 59~61면.
- 28)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권2, 제택조(第宅條) 남부.
- 2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68, 50~53면.
- 30) [네이버 지식백과] 오경석(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68, 144~145면.
- 31) 「경향신문」 1963년 2월 26일자.
- 3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342면.
- 33) 한우근, 『한국 개항기의 상업연구』 1985, 87면.
- 34)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617~618면.
- 3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342면.
- 36) 박경룡, 『개화기 한성부연구』, 일지사, 1995, 123면.
- 37)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22권, 『근대 서울의 경제와 개시』, 2014, 120면.
- 38) 「매일경제」 1981년 7월 13일자.

- 39) 「동아일보」 1923년 12월 11일자.
- 40) 「동아일보」 1924년 8월 12일자.
- 41) 서울 중구문화원, 『영화의 메카, 충무로』, 2004, 122면.
- 42) 서울의 일본인 거주지역은 이른바 거주지가 아니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조선인과 그 밖의 외국인이 잡거(雜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일본영사관에 특허신청을 했으며, 또 일본영사관은 무슨 권한으로 이를 특허했는지 알 수 없다. 아마 사실상 진고개 좌우 일대가 일본인 전관거주지(專管居留地)처럼 되어 있었고, 일본영사관은 한국정부를 어느 정도 무시한데서 이루어진 월권행위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제3권, 1979, 286면).
- 43) 서울 중구문화원, 『명동변천사』, 2003, 32면.
- 44)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967면.
- 45) <영남일보> 2016년 2월 18일자.
- 46)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2권, 『근대 서울의 경제와 개시』, 2014, 323면.
- 47) 「황성신문」 1903년 6월 23일자.
- 48) 「동아일보」 1925년 8월 18일자.
- 49) [네이버 지식백과] 광무대(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겨레음악대사전)
- 50) 「동아일보」 1958년 10월 13일자.
- 5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 종로구편 제2판, 1992, 132면.
- 52)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각동조(各洞條) 동현(銅峴).
- 53)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권2, 한성부 기지조(基址條) 허적(許積).
- 54) 경성부, 『경성부사』 1권(번역본), 2013, 127면.
- 55)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17권, 『조선시대 서울의 교육과 학문』, 2014, 142면.
- 56) 박경룡, 『역사의 무대 서울·서울·서울』, 수서원, 2003, 164면.
- 57)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19권, 『조선시대 서울의 과학기술과 예술』, 2014, 439면.
- 58) 박경룡, 『역사 문화 유적의 현장을 찾아』, 서울특별시, 1995, 13면.
- 59)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결외 각사조(關外各司條) 장악원.
- 6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5권, 『근대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2014, 329면.
- 61) 「동아일보」 1972년 4월 26일자.
- 62)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151면.
- 63) [네이버 지식백과] 양향청(糧餉廳)(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64)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1권, 『근대 서울의 정치제도 변화』, 2014, 322면.
- 65) 서울 중구문화원,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2012, 143면.
- 66)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번역본), 2013, 545면.
- 67)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2권, 『근대 서울의 경제와 개시』, 2014, 256면.
- 68) 박경룡, 『역사의 무대 서울·서울·서울』, 수서원, 2003, 167면.
- 69)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결외 각사조(關外各司條) 훈련원.
- 70)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번역본), 2013, 51~52면.
- 7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4권, 『근대 서울의 종교와 사상』, 2014, 324면.
- 72) 「동아일보」 1958년 10월 13일자.
- 73)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4권, 『근대 서울의 종교와 사상』, 2014, 334면.
- 74) 「동아일보」 1920년 6월 23일자.
- 75) 「동아일보」 1922년 9월 30일자.
- 76) [네이버 지식백과] 훈련원공원(두산백과).
- 77) [네이버 지식백과] 염초청 터(문화콘텐츠닷컴,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 78) 『주교지남(舟橋指南)』, 주교사 절목 참조.
- 79) 『육전조례』 권5, 호전, 한성부 오부조.



- 80) 박경룡, 『한성부연구』, 국학자료원, 2005, 88~90면.
- 81)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13집, 박경룡,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2012, 262면.
- 82)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렬외각사조, 도화서.
- 83)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조(吏典條).
- 84) [네이버 지식백과] 동평관(東平館)(두산백과).
- 85) 「경향신문」 1973년 9월 4일자.
- 86) 「경향신문」 1973년 9월 4일자.
- 8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787~788면.
- 88) [네이버 지식백과] 박문국 [博文局](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8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4권, 1981, 342면.
- 9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2면.
- 9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2면.
- 9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2면.
- 9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2면.
- 9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2면.
- 9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3면
- 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81, 342면
- 97) 「경향신문」 1981년 6월 27일자.
- 98)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제25권, 『근대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2014, 162면.
- 99)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관계자료 제7집, 『명동변천사』, 2003, 95면.
- 100) 손정목, 「일제침략기의 도시사회상-서울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제41호, 1983, 120~122면.
- 101) 손정목, 「일제침략기의 도시사회상-서울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제41호, 1983, 120~122면.
- 102) 손정목, 「일제침략기의 도시사회상-서울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제41호, 1983, 120~122면.
- 103) 중구문화원, 『명동변천사』, 2003, 78면.
- 10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 2000년』, 2009, 263면.
- 105) 「동아일보」 1926년 2월 26일자.
- 10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5) 『서울의 시장』, 2007, 214면.
- 107) 「동아일보」 1958년 3월 15일자.
- 108) 「경향신문」 1958년 4월 9일자.
- 109) 「매일경제」 1977년 11월 5일자.
- 11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5) 『서울의 시장』, 2007, 441면.
- 111) 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의 지명요람』, 1982, 65면.
- 112)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79면.
- 11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 6, 『서울의 길』, 2009, 270면.
- 114)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9집, (박경룡·정종화) 『영화의 메카 충무로』, 2005, 132~134면.
- 115) 「동아일보」 1923년 6월 30일자.
- 116) 「경향신문」 1979년 3월 12일자.
- 117) 「동아일보」 1972년 4월 26일자.
- 118) 「동아일보」 1972년 4월 26일자.
- 119)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7집, 『명동변천사』, 2003, 62면.
- 12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총서 7, 『서울항일독립운동사』, 2009, 1285면.
- 121) <네이버> 블로그, 2012.11.05. -조선귀족회관 대동구락부, 결국 주차빌딩 되다.
- 122) 박경룡, 『서울문화유적』(1), 1997, 수문출판사, 261면./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행당동 아기씨당(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

- 양연구원)
- 123) 「매일경제」 1983년 8월 16일자. -재계산  
맥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650> 산업자  
본(34).
- 124) [네이버 지식백과] 광무대(위키백과)
- 125) 「동아일보」 1972년 11월 2일자./ 「한겨  
레」 1999년 3월 11일자.
- 126) 전국역사지도사모임, 『표석을 따라 경성을  
거닐다』, 2016, 27면.
- 127) [네이버 지식백과] 경방(京紡)(네이버 기관  
단체사전 : 기업, 굿모닝미디어)
- 128) 「동아일보」 1923년 9월 25일자.
- 129) 「동아일보」 1946년 3월 8일자.
- 13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  
4권, 1981, 801면.
- 131) <네이버> 웹문서, 국내 증권시장의 변천사.
- 13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92, 194면.
- 133)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중앙도서관(한국민  
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134) 「동아일보」 1925년 10월 2일자.
- 135) 「동아일보」 1975년 8월 20일자.
- 136) 「동아일보」 1939년 12월 17일자.
- 137) 박경룡, 『역사의 현장, 서울』, 북코리아,  
2010, 314~317면.
- 138)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27권, 『일제  
강점기 서울의 항일운동』, 2015, 181면.
- 139) 「경향신문」 1994년 6월 10일자.
- 140) 「동아일보」 1934년 7월 6일자.
- 141) 「동아일보」 1936년 1월 11일자.
- 142) 「동아일보」 1937년 8월 7일자.
- 143)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 144)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016,  
243면./ [네이버 지식백과] 롯데호텔.
- 145) 「신한민보」 1949년 2월 3일자.
- 146) <네이버> [위키백과] 세운상가.
- 147) <네이버> [위키백과] 세운상가.
- 14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  
사』, 2009, 34~36면.
- 149) [네이버 지식백과] 이회영[李會榮](두산백  
과)
- 150) [네이버 지식백과] 이시영[李始榮](한국민족  
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151) [네이버 지식백과], 사적지 찾아보기, 신문  
관·조선광문회관 터(독립기념관)/ 서울특별  
시, 『역사 문화 유적의 현장을 찾아』, 2004,  
16면.
- 15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  
사』, 2009, 44~45면./ [네이버 지식백과], 사  
적지 찾아보기, 훈원원 터(독립기념관).
- 153) [네이버 지식백과], 사적지 찾아보기, 이재  
명 의거 터(독립기념관)
- 15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  
사』, 2009, 136~137면./ [네이버 지식백  
과], 사적지 찾아보기, 최익환 숙소 터(독립  
기념관)
- 15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  
사』, 2009, 142~143면./ [네이버 지식백  
과], 사적지 찾아보기, 조선교육협회 회관 터  
(독립기념관).
- 15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  
사』, 2009, 148~149면./ [네이버 지식백  
과], 사적지 찾아보기, 조선민흥회 터(독립기  
념관).
- 157)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  
사』, 2009, 532~534면./ [네이버 지식백  
과], 사적지 찾아보기, 동양척식회사—나석주  
의거 터(독립기념관).
- 158) 「경향신문」 1999년 11월 18일자.
- 159) 「매일경제」 1999년 10월 30일자.
- 16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항일독립운동사』,  
2009, 182~183면./ [네이버 지식백과], 사적  
지 찾아보기, 아서원 터(독립기념관).
- 161) [네이버 지식백과], 사적지 찾아보기, 시대  
일보 터(독립기념관).
- 162) 「동아일보」 1945년 12월 31일자.
- 163) 「동아일보」 1946년 4월 9일자.
- 164) 「경향신문」 1946년 10월 20일자.

- 165) 「중앙선데이」 2017년 7월 9일자.
- 166)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7집, 『명동변천사』, 2003, 130면.
- 167)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기관단체사전/두산백과, 미국대사관.
- 16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83년, 1,328면.
- 169) 백성기, 『해방기념 서울안내』, 1947, 51면.
- 170)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74면.
- 171)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168면.
- 172)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13집, 박경룡,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2012, 190면.
- 173) 「동아일보」 1949년 1월 23일자.
- 174) 「경향신문」 1948년 9월 12일자.
- 175) 「경향신문」 1949년 2월 23일자.
- 176) 「경향신문」 1953년 5월 9일자.
- 177) 「경향신문」 1955년 9월 15일자.
- 178) 「경향신문」 1955년 11월 22일자.
- 179) 「동아일보」 1955년 1월 23일자.
- 180) 「경향신문」 1956년 12월 19일자.
- 181) 「동아일보」 1957년 12월 8일자..
- 182) 「경향신문」 1959년 1월 29일자.
- 183) 「경향신문」 1959년 3월 26일자.
- 184)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166면.
- 185) [네이버 지식백과] 롯데호텔.
- 186) 「매일경제신문」 1984년 6월 16일자.
- 187) 서울역사박물관, 『세상을 찍어내는 인쇄골목 인현동』, 2016, 50면. 171면.
- 188) 「서울신문」 1994년 5월 13일자.
- 189) 「동아일보」 1985년 5월 23일자.
- 190)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미문화원점거사건(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191) 「경향신문」 1992년 4월 20일자.
- 192) 「조선일보」 1991년 9월 12일자.
- 193) 「경향신문」 1991년 9월 21일자.
- 194)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67~68면.
- 19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통사』(하), 1973, 602면.
- 196) 김태선, 「시장 5년」 『삼천리』1·2, 1956, 55쪽.
- 197)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 『서울의 시장』, 2007, 252면.
- 198) 서울중구, 을지로 골목골목을 탐험하는 여행 「을지유람」, 2017.
- 19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6, 『서울의 길』, 2009, 295면.
- 200) [네이버 지식백과] 인제대학교백병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 [네이버 지식백과] 영락교회(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2) 「동아일보」 1980년 3월 19일자.
- 203) 「경향신문」 1958년 9월 30일자.
- 204)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2), 2016, 260면.
- 205) [네이버 지식백과] 롯데호텔(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6) [네이버 지식백과] 롯데쇼핑(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7)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98면.
- 208)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67~269면.
- 209)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69~273면.
- 210)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73~275면.
- 211) <네이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212) 백성기, 『해방기념 서울안내』, 1947, 51면.
- 213) 「경향신문」 1976년 12월 8일자.
- 214) 「경향신문」 1970년 12월 14일자.
- 215) 「매일경제」 1973년 2월 10일자.
- 216) [네이버 지식백과] 세운상가(두산백과).
- 217) 〈네이버 블로그〉 KJB 한국방송, 2017년 6월 1일자.
- 218) 「매일경제」 1969년 2월 22일자.
- 219) 「서울경제신문」 1978년 9월 29일자.
- 220) 서울특별시, 『서울시정』, 1989, 229~230면.
- 221) (주)서울중부시장 민경중 사장 담(談)
- 22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 『서울의 시장』, 2007, 380면.
- 223)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13집, 박경룡,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2012, 301~303면.
- 22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중구편), 1992, 564면.
- 225)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26면.
- 226) 「경향신문」 1950년 5월 19일자.
- 227) 「경향신문」 1960년 10월 7일자.
- 228) 「경향신문」 1966년 8월 9일자.
- 229) 「동아일보」 1966년 8월 11일자.
- 230) 〈Daum〉 「뉴스 토마토」, 2017년 1월 17일자.
- 231)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32면.
- 232)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33면.
- 233) 「매일경제」 1976년 4월 12일자.
- 234) 「동아일보」 1990년 2월 28일자.
- 235)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5집,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35면.
- 236) 「매일경제」 1979년 3월 17일자.
- 237) 「경향신문」 1979년 8월 29일자.
- 238) 경성부, 『경성부사』 2권(번역본), 2013, 279면./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내 고향 서울 6, 『서울의 길』, 2009, 293면.
- 239) 「경향신문」 1958년 11월 6일자.
- 240) 「동아일보」 1966년 3월 2일자.
- 241) 「동아일보」 1967년 1월 20일자.
- 242) 「서울신문」 1971년 3월 15일자.
- 24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시사자료』(Ⅳ), 1987, 375면.
- 244) 「경향신문」 1976년 10월 4일자.
- 245) 「동아일보」 1981년 9월 16일자.
- 246) 「동아일보」 1983년 6월 12일자.
- 247) 「경향신문」 1983년 9월 23일자.
- 248) 경성부, 『경성부사』 2권(번역본), 2013, 284면.
- 249)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30권, 『일제강점기 서울도시문화와 일상생활』 2015, 34면.
- 250)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자.
- 251) 「동아일보」 1950년 11월 14일자.
- 252) 「동아일보」 1951년 8월 23일자.
- 253) [네이버 지식백과] 전차(시상식사전, 박문각)
- 254)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2), 2016, 107면.
- 255)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2), 2016, 117면.
- 25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행정사』, 1997, 706면.
- 257) 「서울신문」 1982년 10월 15일자.
- 25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245~247면.
- 259)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254~255면.
- 260)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259~260면.
- 261)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 276~278면.
- 262)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2016, 284면.
- 263) 〈위키백과〉 세운상가
- 264)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4), 2014, 68면.
- 265) 「신아일보」 1976년 10월 20일자.
- 266) 「매일경제」 1998년 1월 13일자.
- 267) 「동아일보」 1981년 5월 22일자.
- 268) 「서울신문」 1981년 9월 4일자.
- 269) 「동아일보」 1955년 10월 26일자./ 1961년 10월 10일자.
- 270) 「서울신문」 1969년 2월 14일자.
- 271)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3), 2014, 274면.
- 272)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지하철 2호선(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273)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서울지하철 3호선.
- 274)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서울지하철 3호선.
- 275)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자.
- 276) 「경향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 277) 「동아일보」 1920년 6월 26일자.
- 278) 「동아일보」 1924년 11월 16일자.
- 279) 박경룡, 『역사문화의 도시, 서울』, 수서원, 2015, 211~212.
- 280) 「동아일보」 1925년 3월 25일자.
- 281) 「동아일보」 1925년 6월 9일자.
- 282) 「동아일보」 1933년 9월 28일자.
- 283) 「동아일보」 1934년 3월 3일자.
- 284) 「동아일보」 1945년 12월 2일자.
- 285) 「동아일보」 1947년 7월 12일자.
- 286) 「경향신문」 1947년 3월 13일자.
- 287) 「경향신문」 1947년 7월 17일자.
- 288) 「동아일보」 1947년 8월 16일자.
- 289) 「동아일보」 1949년 4월 21일자.
- 290) 「동아일보」 1949년 7월 5일자.
- 291) 「경향신문」 1955년 4월 22일자.
- 292) 「경향신문」 1956년 2월 24일자.
- 293) 「경향신문」 1958년 9월 16일자.
- 294) 「동아일보」 1959년 1월 13일자.
- 295) 「경향신문」 1959년 2월 1일자.
- 296) 「동아일보」 1959년 2월 15일자.
- 297) 「매일경제」 1967년 2월 3일자.
- 298) 「동아일보」 1960년 2월 28일자.
- 299) 「동아일보」 1960년 4월 20일자.
- 300) 「동아일보」 1960년 4월 26일자.
- 301) 「동아일보」 1960년 4월 27일자.
- 302) 「경향신문」 1960년 9월 15일자.
- 303) 「경향신문」 1961년 5월 18일자.
- 304) 「동아일보」 1961년 12월 12일자.
- 305) 「동아일보」 1962년 6월 7일자.
- 306) 「동아일보」 1963년 3월 21일자.
- 307) 「경향신문」 1964년 9월 10일자.
- 308) 「매일경제」 1967년 10월 21일자.
- 309) 「경향신문」 1964년 5월 11일자.
- 310) 「동아일보」 1965년 8월 26일자.
- 311) 「경향신문」 1965년 8월 25일자.
- 312) 「경향신문」 1966년 6월 28일자.
- 313) 「동아일보」 1966년 7월 5일자.
- 314) 「동아일보」 1966년 11월 1일자.
- 315) 「경향신문」 1979년 4월 21일자.
- 316)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1, 궁실조(宮室條) 남별궁.
- 317) 서울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367면.
- 318) 조선일보사, 『이규태의 600년서울』, 1992, 364면.
- 319) 박경룡, 『서울 한양도성 둘러보기』, 서울역사박물관, 2016.
- 320) 〈네이버 지식백과〉 성제묘,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 321) 「경향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 322) [네이버 지식백과] 영희전(두산백과)
- 32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277~280면.
- 324)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 1986, 1,000~1,002면./ 중구문화원, 중구 향토사자료 제13집, 박경룡,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2012, 235~237면.
- 325)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348~351면.
- 326) 세종실록 세종 23년 8월 임오조.
- 327)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권외 각사조 준천사.
- 328) 유득공(柳得恭), 『경도잡지(京都雜志)』 권2, 세시 상원조(歲時 上元條).
- 329) [네이버 지식백과] 한성은행(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330) 백성기, 『해방기념 서울안내』, 1947, 47면.
- 331) 삼각산 화계사 홈페이지 <언론 속의 화계사>
- 332) 「매일경제」 1970년 7월 3일자.
- 333)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의 중화 요리>
- 334) [네이버 지식백과] 경성전기주식회사(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33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조직변천사』, 1986, 276면.
- 336) 「동아일보」 1975년 8월 20일자.
- 337)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 338) 「동아일보」 1948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 1949년 7월 2일자.
- 339) 「동아일보」 1989년 6월 15일자.
- 340) 「동아일보」 1934년 11월 13일자.
- 341)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산업은행(두산백과).
- 342) 인터넷 한국산업은행(나무위키)
- 343)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100년사』, 1998, 451면.
- 344) 「조선일보」 1963년 3월 2일자.
- 345) 「경향신문」 1975년 3월 7일자.
- 346)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2), 2016, 220~222면./ 「중앙일보」 1970년 1월 17일자.
- 347)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영희초등학교(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34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 2권(중구편), 1992, 596면.
- 349) [네이버 지식백과] 훈련원공원(두산백과).
- 350)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재판소(두산백과).
- 351)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지』(상), 2005, 886면.
- 352) 「동아일보」 1965년 10월 26일자.
- 353) 「동아일보」 1946년 4월 30일자./ 「경향신문」 1978년 1월 26일자.
- 354) 「경향신문」 1948년 4월 9일자.
- 355) 「동아일보」 1953년 9월 30일자.
- 356) 「경향신문」 1954년 5월 15일자.
- 357) 서울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2005, 131면.
- 358) 「매일경제」 1970년 1월 23일자.
- 359) 「경향신문」 1975년 8월 28일자.
- 360) 「동아일보」 1985년 7월 22일자. [네이버 지식백과] 명보극장(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36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 II(중구편), 565면.
- 362) 「동아일보」 1949년 2월 6일자.
- 363) [네이버 블로그] 아오이 연구소, <계림극장>
- 364) 인터넷 「스타뉴스」 2010년 6월 2일자.